

무극(소림사 편)

부 서 명	개발6팀 기획팀	Story Writing	정영무(필명: 시니어)
Story Design	이희성	검 수	이희성
최초작성일	2009-06-26	최종수정일	2009-06-28

목차

목차 ..... 1

1. 서(序) ..... 3

2. Story ..... 5

2.1. 제 4 장 ..... 5

2.1.1. 제 37 화 [연심] ..... 5

2.1.2. 제 38 화 [분타주] ..... 10

2.1.3. 제 39 화 [북풍표국] ..... 15

2.1.4. 제 40 화 [낙양상련] ..... 20

2.1.5. 제 41 화 [북풍장주] ..... 25

2.1.6. 제 42 화 [번뇌] ..... 30

2.1.7. 제 43 화 [철우경지] ..... 35

2.1.8. 제 44 화 [녹림] ..... 40

2.1.9. 제 45 화 [녹림도] ..... 44

2.1.10. 제 46 화 [구배지례] ..... 49

2.1.11. 제 47 화 [평정산채] ..... 54

2.1.12. 제 48 화 [치매노인] ..... 59

2.2. 제 5 장 ..... 64

# 武極 - Story Book

2.2.1.	제 49 화 [등이행]	64
2.2.2.	제 50 화 [방해]	69
2.2.3.	제 51 화 [조짐]	74
2.2.4.	제 52 화 [속셈]	79
2.2.5.	제 53 화 [또 다른 인연]	84
2.2.6.	제 54 화 [사제지정]	89
2.2.7.	제 55 화 [범여]	94
2.2.8.	제 56 화 [거렴도 악포]	99
2.2.9.	제 57 화 [복수의 시작]	104
2.2.10.	제 58 화 [진심]	109
2.2.11.	제 59 화 [불씨]	114
2.2.12.	제 60 화 [분노]	119
2.3.	제 6 장	125
2.3.1.	제 61 화 [분타주 회의]	125
2.3.2.	제 62 화 [전운]	130
2.3.3.	제 63 화 [전운 속으로]	135
2.3.4.	제 64 화 [준비]	140
2.3.5.	제 65 화 [함정]	145
2.3.6.	제 53 화 [복면인]	150
2.3.7.	제 67 화 [맹진의 위기]	155
2.3.8.	제 68 화 [수성전]	160
2.3.9.	제 69 화 [범여의 등]	165
2.3.10.	제 70 화 [지란협곡]	170
2.3.11.	제 71 화 [건곤쌍교]	175
2.3.12.	제 72 화 [최후]	180

# 武極 - Story Book

## 1. 서(序)

- ① 본 소설은 그 장르를 ‘게임 연상 소설’의 장르로 규정하며 ‘무극’의 세계관을 보여줌과 동시에 개발자들로 하여금 게임의 플레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② 정통 무협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는 무협 소설의 형태로 잠재적인 ‘무극’의 게임 유저의 관심과 집중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③ 옴니버스 구성의 그 첫 편으로 태산 복두 소림을 테마로 하여 게임 내 성도와 게임의 유저 플레이 모델을 제시한다.
- ④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스토리는 Teaser Campaign 계획의 일환으로 오픈 카페와 오픈 클럽, 무협 동호회, 무림 클럽 등에 공개하여 ‘무극’의 브랜드 마케팅에 기초 전략으로 삼는다.

武極  
: Dark Soul



## 2. Story

### 2.1. 제 4 장

#### 2.1.1. 제 37 화 [연심]

그 사이 두 사람 사이의 탁자와 발 밑으로는 비어버린 술병이 한 가득 이었다.

혀가 잔뜩 꼬인 평일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였지만 웅케도 계속 술을 입으로 부어 넣고 있었다.

적잖이 취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아직 혀까지 돌아갈 정도는 아닌 일령이 물었다.

“결국 자금이 문제라는 건데..... 그 자금, 다른 데서 끌어올 수는 없는 거야?”

“크크. 대체 어, 어디... 서 구걸... 하란 말야아.”

“상단이 낙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낙양 안에 발을 붙이고 있는 전국적인 거상들도 있을 거 아냐.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해 보지 그래?”

“그, 그런 놈들..... 태, 태바이... 마교, 교에 붙어서... 이미 그, 글러 먹었다.”

“아닌 데도 제법 있어.”

“그게... 어떠언.....”

일령이 붉게 취기가 오른 얼굴로 씨익 웃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깐깐한 노인네긴 하지만 잘만 구워삶으면 간이라도 빼줄 만큼 화통한 구석도 있거든. 낙양성과 장안성을 오가는 안정적인 유통망과 보호금의 파격할인, 뭐 이 정도만 제시한다면 얼씨구나 할지도?”

“아버..... 니네 아버지?”

“아항. 몰랐구나. 우리 아버지 만수전장의 일주엽이야.”

“응? 일주엽...?”

평일지가 게슴츠레한 눈을 치켜 떴다. 술에 취해있어 곧바로 이해할 수는

없었다.

“일주엽? 일주.....엽?”

몇 번 같은 이름을 되뇌이던 평일지가 알겠다는 얼굴을 했다.

“그, 그게 저마알... 정말이면..... 그게 그러니까아.....”

평소의 그답지 않은 흐트러진 모습과 표정이 하도 웃겨서 일령은 그만 그의 면전에 대고는 깔깔 웃고야 말았다.

평일지도 고개를 털더니 크크대고 웃었다.

두 사람이 부어라 마셔라 하며 술잔을 기울인 것은 그로부터도 한참이나 후까지였다. 먼 새벽 동이 터오기 직전 거리에서 인사불성이 된 둘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얘기는 못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거리기에 충분했다.

“아우! 아우! 아우아우아우! 이거 난리 났다고!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야!”

아침부터 유달리 호들갑스러운 이 소리는 분명 또 임완춘이다. 진명은 이제 그가 반갑지도, 살갑지도 않았다.

진명이 딱히 소리 내어 그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진명과 일령의 불화에 한 몫 거든 사실이 잊혀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십니까?”

표시 내지 않으려 했지만 통명스러움이 살짝 묻어나는 말투다. 그러나 임완춘은 기어코 진명의 아침 수련을 방해하고야 말겠다는 듯한 기세로 달려왔다.

“정말로 큰 일 났어! 이번엔 정말로 큰 일이야!”

“어디서 불이라도 났습니까?”

“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불이라고 해도 되겠네! 불, 불이 났으이!”

# 武極 - Story Book

진명이 눈을 크게 떴다.

“그렇다면 어서 가야죠!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까? 불이 난 곳은 어디니까?”

“그게..... 일 소저한테 불이 났어!”

“예에?”

진명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일령이 비록 그에게 모진 소리를 하긴 했지만 이대로 관계를 끝낸다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은 진명이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진명은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어디! 어디니까? 지금 령 아우는 어디 있습니까? 빨리 말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숨을 좀 골라낸 임완춘이 진명의 양 팔을 붙들었다.

“일 소저 혼자한테 난 불이 아니라, 하필이면 평일지와 함께 불이 났다네. 이를 어쩌면 종단 말인가, 아우!”

“그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임완춘이 답답한지 제 가슴을 쿵쿵 두드렸다.

“무슨 말이긴! 일 소저와 평일지가 정분이 났다는 소리지!”

“.....예?”

“그래, 물론 기가 막힌 노릇이지.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게 남아 있다네. 듣기로는 평일지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술을 들이붓고는 그 기운으로 일 소저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하네. 우리 마음 고운 일령 소저가 그만 그것을 거절 못하고.....”

진명이 인상을 쓰며 손을 흔들었다.

“임 형이 뭔가 잘못 들으신 것 아닙니까? 령 아우가 그럴 리 없지 않습니다. 평일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아, 그야 평소 같았다면야 그럴겠지. 하지만 일 소저는 자네와 문 소저의 일로 많이 상심한 상태라고. 그때 다른 남자가 좋다고 하면 연민이 느껴질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그런.....”

연민과 연정은 다른 게 아니냐며 따지려던 진명은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제껏 연정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령 아우가 좋은 남자를 만났다면 그건 마땅히 축하해야 할 일이지요. 어째서 그게 큰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명이 애써 씁쓸함을 감추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임완춘은 자지러지게 놀라 고개를 획획 저어대는 것이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우리가 그리 생각하면 안되네! 평일지 그 놈이 왜 우리 일 소저에게 눈독을 들였는지 그 내막을 안다면 말이야!”

“내막이라니요?”

“이 답답한 사람 같으니. 아, 생각을 해보게! 내막이 없으면 평일지 그 놈이 왜 일 소저를 노리겠나!”

그제서야 진명의 표정도 심각해졌다.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아아, 그렇대도! 그 이유가 말이야.”

버럭버럭 목소리를 높이던 임완춘은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며 눈치를 살폈다. 진명은 재촉하고 싶은 마음을 꼭 누르며 임완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주위에 별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임완춘이 낮게 속삭이듯 말했다.

“평일지가 지부장이 된 이후로 낙양성에 관련한 사업 자금을 모으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하더군. 그런데 우리 일 소저가... 아, 놀라지 말게. 우리 일 소저가 무려 만수전장의 무남독녀 외동딸이었다지 뭔가! 그래서 아무래도 평일지 그 후안무치(厚顏無恥)한 놈이 돈을 노리고 여심을 뒤흔든 게 아니냐는 얘기가 파다하다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갑자기 진명이 왈각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임완춘은 양 손으로 귀를 틀어막아야 했다.

“아니, 아우! 왜 이 형님한테 야단인가! 사람들이 그러더라 말일세!”

진명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가 양 주먹을 꼭 움켜쥐고는 싸늘하게

# 武極 - Story Book

말했다.

“평일지. 그 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 광광!

진명은 문짝이 부숴져라 두들겨대고 있었다. 볼 것도 없이 평일지의 숙소로 달려온 진명이었다.

스스로도 문짝이 떨어져나가지 않을 만큼 힘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을 뿐이다.

“무슨 일이신지요?”

마침내 문이 열리고 조심스런 표정의 이원조가 고개를 내밀었다.

“평일지, 평 소협 계십니까?”

“그렇습시다만, 지금은 집무 중이십니다.”

“상관없습시다.”

진명은 이원조를 확 밀치며 안으로 들어갔다.

“어, 어어? 이보게! 진 소협!”

이원조가 만류했으나 진명은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같은 객잔이라고 해도 평일지의 방은 진명의 방과는 달랐다. 넓은 구조와 시원스레 뚫린 둥근 창이며 그 창에서 내다보이는 수려한 전망까지 고루 갖춘 곳이었다.

낙양성 지부장이 자신의 숙소를 집무실로 쓴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누군가는 그 웅색함을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평일지의 숙소에는 그런 웅색함이 없었다.

평일지는 때마침 창가에 앉아 밖을 내려다보는 중이었다. 머릿속이 한참 복잡한 모양인지 그의 이마에는 짙은 주름 하나가 그어져 있었다. 아직 숙취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인지 눈이 충혈되어 붉었다.

쿵.

집무실 문을 열고 갑자기 진명이 들어섰다. 그 뒤를 이원조가 따라 들어오며

진명을 말리고 있었다.

“진 소협, 이러지 마시지요. 방문을 원하신다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평일지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돌려 보았다.

“진명?”

평일지는 입꼬리를 비틀어 쓴 웃음을 지었다. 일령은 진명과 실과 바늘처럼 함께 다녔었다.

“아마도 일령 소저 때문에 날 찾아온 것이겠지.”

평일지가 손을 휘저었다.

“내버려 둬.”

그의 말은 이원조를 향한 것이었다. 평일지의 표정에서 대강의 뜻을 눈치 챈 이원조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뒤로 물러났다.

진명은 주먹을 꼭 말아 쥐고 평일지를 마주보았다. 평일지는 오늘 따라 그의 눈빛이 거칠다고 느꼈다.

진명이 말했다.

“내가 오늘 얘기 하나를 전해 들었소. 당신이 그것을 확인해주길 바라오.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말ियो.”

“건방진 놈. 내가 싫다면 어쩔 테냐?”

“거절한다면 내 주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겉으로는 침착해 보일지 몰라도 진명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화나게 하는지, 진명은 몰랐다. 무엇이 그를 초조하게 하는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꾸만 일령의 얼굴을 어른거리게 만드는 지도 알 수 없었다.

평일지가 돈을 노리고 일령을 이용한다는 그런 지저분한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떠나, 진명은 그저 평일지의 멀끔한 얼굴을 흠뻑 두들겨 패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중이었다.

진명의 말이 평일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네 놈의 오만 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공을 좀 세웠다고 눈에 보이는 게

# 武極 - Story Book

없다 이거냐?”

진명은 평일지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

“거두절미하고 묻겠소. 만수전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령 아우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요?”

“.....뭐?”

평일지의 얼굴에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가, 이내 애매하게 변해갔다. 이를 확인한 진명이 재차 물었다.

“사실이요?”

평일지는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이용했다손 치더라도 사람 면전에 대고 직접적으로 그런 걸 묻는다는 게 말이 되냐!

“분수를 모르는 놈.”

평일지가 눈을 부라렸다.

“네놈이 일령 소저의 오라비라도 된단 말이냐?”

“령 아우는 내게 소중한 사람ियो. 그러니 당신 같은 자가 더러운 수작을 부리는 것을 결코 가만 보지 않을 것이오!”

진명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소리쳤다.

“하늘에 대고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마시오! 당신이 사람이고 남자라면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그 말에 평일지는 돌연 피식 웃었다.

“사람이고 남자라면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소!”

평일지가 성큼 진명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진명의 얼굴에 바짝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댔다.

“그 말, 네 녀석이 한 말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군.”

“무, 무슨.....”

“일령 소저는 착한 사람이다.”

“.....”

“그리고 어떤 남자가 보더라도 반할 만한 매력이 있지.”

평일지의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지고, 반대로 진명의 입가는 파르르 떨렸다.

“네 말대로 나 또한 남자다. 내가 일령 소저를 대하는 것은 단심맹의 낙양성 지부장으로서도 아니고, 일령 소저의 집안 때문도 아니다. 남자로서 순수히 일령 소저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진명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눈동자의 초점이 흐려졌다.

“그, 그 말은.....”

“이제 알겠나? 내가 일령 소저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해서 네 놈이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다. 두 젊은 남녀가 마음을 주고 받는 데, 아무 것도 아닌 네 놈이 왜 우리 사이에서 감 내봐라 대추 내봐라 하는 거냐 말이다.”

평일지는 미소를 지으며 한걸음을 물러났다. 그리곤 턱을 매만지며 회상하는 표정을 지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그 말에는 이원조까지도 눈을 휘둥그레 떴다.

진명은 주먹을 꼭 움켜 쥐었다. 그러나 주먹을 날릴 순 없었다.

평일지의 말대로 두 사람의 관계가 그 정도로 진전이 되었다면 자신이 끼어들어 왈가왈부할 바가 아니었다.

‘령 아우! 왜 하필 이런 자를.....’

평일지는 냉정하게 축객령을 내렸다.

“알았으면 이만 꺼져라.”

하지만 진명은 쉽게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한참이나 주먹을 쥔 채 움직이지 않던 진명이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다.

“혹시나, 더러운 마음을 품고 령 아우를 울리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소.”

“미친 놈!”

평일지의 신형이 흐릿해진다 싶더니 진명의 고개가 핵 돌아갔다.

퍽!

진명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 武極 - Story Book

“으혁! 평 대협!”

이원조가 평일지의 곁으로 후다닥 다가왔다. 평일지는 자신을 말리려는 이원조를 밀쳐내며 소리쳤다.

“네깃 놈이 무얼 안다고! 네놈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소저에 대한 내 마음을 더럽다 욕하는 것이냐!”

맞은 얼굴은 아프지 않았다. 진명은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다.

일령 때문에 화를 내는 평일지의 모습은 사랑에 빠진 남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팠다.

스스스.

평일지가 뿜어낸 스산한 살기가 진명을 향했다. 곤두선 칼날로 전신을 난자하는 듯 아찔한 느낌이 방안에 가득찼다.

평일지가 외쳤다.

“낙양성 지부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 네 놈이 알거나 하느냐! 늙은이들은 매사에 간섭인데다가 상인놈들은 돈방석을 깔고 앉아 주판알이나 튕기고 있고! 사방팔방에서 내 숨통을 조여오는데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은 일령 소저 한 명뿐이다! 그런 사람을 내가 아프게 할 것 같으냐!”

# 武極 - Story Book

## 2.1.2. 제 38 화 [분타주]

평일지가 계속해서 소리쳤다.

“나 평일지! 화산파를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자다. 그러나 내 사리사욕을 위해 날 걱정해주는 사람을 해칠 놈은 아니란 말이다!”

진명은 가슴에서 울컥하고 무언가 치미는 느낌이었다.

‘그랬나..... 령 아우가 그렇게 평일지를 생각하고 있었던가.....’

정말로 평일지와 일령의 사이에 자신이 낄 자리는 없어 보였다.

‘그래. 령 아우가 행복해지겠다는 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섭섭하면서도 어딘가 허전했다.

‘문 소저와 내가 가까워졌을 때 령 아우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답답하고 복잡한 심정이다.

그가 생각하는 평일지는 분명 좋은 놈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가 일령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보였다.

평일지의 붉게 충혈된 눈은 핏물이 똑똑 떨어질 것 같았다.

그가 그만큼이나 일령을 생각한다는 데에 진명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내가.....”

“아직도 할 말이 남았더냐!”

“내가.....”

진명은 힘들게 말을 내뱉었다.

“내가 도울 일은 없겠소?”

“도울..... 일?”

평일지는 화를 누그러뜨리려 애를 쓰는 모양이었다.

그가 격앙된 목소리를 애써 차분히 가라앉히며 말했다.

“내가 일령 소저와 각별한 사이였다는 건 안다. 하지만 내가 도울 일은 없다.”

이원조가 끼어들려 했다. 그렇지 않아도 진명을 섭외하려 한 차였다. 그런

와중에 진명이 먼저 하겠다 하는 데 굳이 말릴 필요는 없지 않은가!

평일지가 손을 내밀어 이원조를 막았다.

진명이 살짝 부은 뺨을 만지며 고개를 들고 평일지를 보았다.

“아우의 일은 곧 내 일이나 마찬가지요.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소.”

“음.....”

평일지가 방안을 서성거리더니 탁자에 살짝 걸터앉으며 고심했다.

“사실 내가 오해한 것도 무리가 아니겠지. 어차피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현재 지부의 상황은 좋지 않다. 내 자존심을 굽히고서라도 일령 소저의 집안 도움을 받고 싶을 정도로.”

진명이 결심을 굳히고 말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령 아우가 가장 행복하길 바라오. 내가 당신을 돕겠다는 것은 령 아우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요.”

“아니. 나는 일령 소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않을 작정이다. 그러니 네 도움도 필요 없다.”

“당신을 못 믿겠소.”

진명이 힘주어 말했다.

“내가 당신을 도울 테니 령 아우를 이용하지는 마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을 믿겠소.”

평일지의 얼굴에 예의 비웃음이 떠오른다.

“네가 믿든 말든, 난 일령 소저의 도움을 일절 원하지 않는다. 하나..... 네가 그렇게 장담한다면 일을 맡겨볼 수도 있지.”

“무슨 일이든 하겠소. 대신 령 아우를 이용하지 않겠다 약속하시오!”

“흠.”

평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 武極 - Story Book

“네가 꼭 필요한 자리가 있긴 하다. 나뿐만이 아니라 단심맹과 이 낙양성 지부에도 꼭 필요한 일이지.”

평일지가 이마를 찡그리며 진명을 쳐다보았다. 잘생긴 얼굴이다. 일령이 반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을 만큼 미남자다.

진명은 이를 악물었다.

“하겠소.”

“지부가 어려워서 아무런 지원도 해 줄 수 없다. 그래도 괜찮을까?”

“내가 알아서 하겠소.”

“주제도 모르고 설치하는 버릇은 여전히 때와 장소를 못 가리는군. 그 말이 진심이나?”

“그렇소. 령 아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할 수 있소.”

“좋다.”

“사나이 대 사나이의 약속이오.”

“물론이지.”

평일지가 말했다.

“네게 낙양성 동쪽 분타를 맡기겠다.”

그 말을 듣고 이원조가 ‘헉!’ 하고 신음을 삼켰다. 이원조가 놀란 눈을 치켜떴다.

“그런 막중한 자리를!”

낙양성 동쪽 분타는 북쪽의 백제성과 동쪽의 양양성에서 낙양성으로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지다. 다른 분타에 비해 훨씬 위험하고도 힘든 자리다.

제대로 지켜낼 수만 있다면 분타주로써 진명의 명성은 한결 높아질 것이다. 평일지는 지금 그런 자리를 진명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할 수 있겠나?”

평일지의 물음에 두 번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듯 진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리 말해 두지만, 지부의 형편이 어렵다. 단심맹 차원에서의 공식 지원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자금이나 인원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

“알겠소.”

평일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미묘하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또한, 만수전장은 제외해라. 네 놈이 그렇게 반대한 일이니 설마 이제 와서 너는 다르다고 하지는 않을 테지.”

진명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당연한 일이오. 내가 어찌 령 아우의 집안에 손을 벌릴 수 있단 말이오?”

“그럴 줄 알았다. 자세한 사항이나 필요한 서류는 여기 이 보좌관이 해결해줄 것이다.”

진명은 말없이 평일지를 노려보다가 몸을 돌렸다.

“약속이나 지키시오.”

“그러지.”

진명은 더 이상 별다른 말 없이 평일지의 집무실을 나갔다.

진명이 나가고 나서 이원조가 문을 열고 밖을 확인하더니 평일지에게로 돌아왔다.

“어찌시려고 진명을 동 분타주의 요직에 앉히셨습니까?”

“진명을 요직에 앉혀야 사람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한 건, 자네잖은가.”

“그렇긴 하지만..... 각 분타에는 현재 수비 병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병을 고용할 자금이 부족하여.....”

평일지는 헛 하고 웃더니 오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았다.

“내가 그 정도도 모르는 것 같으냐?”

“허면.....”

“우리 단심맹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쪽 분타에는 산적들이 간간이 출몰하기도 하고 사파 녀석들도 기웃거린다더군.”

“그야, 수비 병력이 없으니.....”

“아무런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진명 저 놈이 그 분타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 武極 - Story Book

벌어질까? 그 놈 혼자서 말이지.”

눈치 빠른 이원조는 금세 평일지의 말 뜻을 알아챘다. 이원조가 허리를 펴 굽히며 고개를 숙인다.

“역시 평 대협이십니다.”

“주제도 모르는 저 놈이 자초한 일일 뿐. 내가 뭐 한 게 있겠나.”

“그야 물론입지요. 해해.”

이원조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허면 만수전장은 정말 제외하는 겁니까?”

“내가 미쳤나? 만수전장의 엄청난 재력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 북쪽과 남쪽의 분타에 백도군을 고용하는 건 일도 아니지. 동쪽이야 저 믿음직스러운 진 대협이 맡겠다고 하지 않으셨나.”

평일지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역력하다.

“하지만 진명이.....”

평일지는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차를 따랐다.

“그것도 다 생각이 있지.”

평일지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이제 문주희..... 그 년이 제일 문제인데, 그것만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청성의 세가 꺾였다고는 하나 청성의 이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현 청성장문인의 인덕 때문에 따르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문주희가 평일지의 일을 방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 후계자도 정해져 있지 않은 청성은, 그야말로 주인없는 목장이나 다름없었다. 문주희를 취할 수 있다면 청성은 그의 손에 넘어온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평일지의 눈빛에 탐욕이 이글거렸다.

일령.

간밤에 일령과 대작한 것은 단지 우연일 뿐이었다. 단언하건대 그가 것처럼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도 처음이었다.

느즈막한 오후에 숙취를 안고 깨어나니 머릿속에 가장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돈 걱정도 아니요, 만수전장도 아니요, 낙양성 지부의 일도 아니었다.

감칠맛 나는 탁주의 향과 함께 쉴 새 없이 까르르 울리던 일령의 맑은 웃음 소리였다.

몽롱한 술 기운 속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 오르던 일령의 고운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평일지는 당황했다.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계속해서 일령의 얼굴만 생각나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술기운 때문이었다고는 해도, 일령은 그가 반할 만한 이상형은 아니었다. 일령이 예쁘다고는 하나 그 정도 미모의 여인은 고급 기루에 가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자꾸만 떠오르는 일령의 얼굴 때문에 평일지는 심기가 불편했다.

이제껏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진명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평일지는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느닷없는 진명의 방문이 오히려 그를 일깨웠다.

‘내게 필요한 것은 절대자의 권력이다.’

평일지는 한낱 사소한 여자 때문에 자신의 야망을 접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화산을 장악하고 정파 전체를 내 손안에 넣겠다. 만인지상(萬人之上)이 되어 천하 위에 군림할 테다!’

그 생각이 들자, 더 이상 일령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다. 불가에서 말하는 번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일령이 아닌, 일령의 뒤에 있는 만수전장의 재력만이 눈에 보였다.

만수전장의 재력과 청성의 무력!

그 둘을 손아귀에 넣는 순간, 평일지는 그토록 원하던 만인지상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 武極 - Story Book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평일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진명!’

진명이 단심맹에게 굴러들어온 이후부터 그의 앞 날은 편할 일이 없었다. 단심맹 제일의 후기지수로 단연코 화산의 평일지를 꼽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평일지가 가장 예민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야차부대의 일도, 척후조에게 정보를 얻은 것도, 적나한을 상대한 일도, 혈무련을 물리친 것도.

사람들은 평일지의 공보다는 진명의 노력을 더 높이 쳐주는 듯 했다.

더구나 이제는 그가 노리는 목표가 된 일령과 문주희까지 진명과 연관되어 있다.

일부러 그러려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사사건건 눈엣가시처럼 자신의 앞길을 방해한다.

‘진명!’

평일지는 다시금 진명의 이름을 되뇌며 이를 갈았다.

진명만 사라진다면 더 이상 그를 막을 이는 없을 테니까.

“얘기는 들었다. 낙양성 지부에서 일하기로 했다고.”

범여의 꾸지람을 걱정하던 진명은 그저 송구스러운 마음뿐이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며 작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예, 그것이.....”

“그래. 결국 어떻게든 남들이 너를 알아보는 모양이로구나. 기왕 하기로 했으니 열심히 하거라.”

의외로 범여는 덩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 주었다.

진명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어차피 소림도 맹 내부에 자리 하나쯤은 차지하고 있어야 했지. 때마침 네가 나서주었다.”

“... ..”

진명은 요새 범여를 볼 때마다 어색함을 느꼈다. 어쩐지 그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착각이 종종 들어서다.

예전에는 말 끝마다 얼음 가시가 박혀있던 범여가 요새는 가끔 저렇게 살갑고 인자한 말을 해준다. 그럴 때마다 진명은 외려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진명은 그가 하루아침에 달라진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 혹시라도 자신이 짐작도 못하는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이다.

“저.....”

“할 말이 있느냐?”

“이제는 저를 미워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뭐라?”

범여의 얼굴이 핵 달아올랐다. 곧이어 붉으락푸르락해지는 안색을 발견한 진명은 순간 아차 하는 마음이 일었다.

‘해서는 안될 말을 했나 보구나! 제대로 화가 나신 모양이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내가 널 미워한다고 누가 그러더냐?”

“그게 아니라..... 전 그간 대사께서 제가 소림의 제자가 되기에 너무 모자라 못미더워하신다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알았다면 더욱더 정진하면 되는 것을, 이제껏 그런 못난 생각으로 내 눈치를 보고 있었던 말이나!”

분노가 뚝뚝 떨어지는 말이었다. 진명은 자책에 휩싸여 고개를 떨구었다.

“제자가 실언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필요 없다! 못난 놈 같으니!”

단단히 화가 난 범여는 찬 바람을 일으키며 핵 등을 돌렸다. 사실 그가 이렇듯 화가 난 이유는 진명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었지만, 진명은 거기까진 알지 못했다.

## 武極 - Story Book

범여는 사실 부끄러웠다. 자신이 한 때 불제자답지 못한 치졸한 마음으로 진명을 대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사실을 진명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미안했다.

진명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해 쌓여있던 벽이 말끔히 사라진 지금, 범여는 이 어린 제자가 기특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야말로 나한권을 위해 태어난 제자라는 생각이었다. 다그치지 않아도 수련을 멈추지 않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초식 속에 숨은 오의를 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재능과 노력을 겸비한 타고난 무인이었다. 거기에 더불어 겸손과 끈기도 지니고 있었다. 현 무림에서 가장 뛰어난 후기지수라는 평일지 같은 자를 열을 준다 해도 맞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소중한 제자였다.

그러니 이전까지 선입견을 두고 보았던 게 얼마나 미안하고 안쓰러운 것인가. 범여가 벌컥 성을 낸 것은 진명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탓하는 말에 가까웠다.

거친 발걸음을 진명을 떠나려던 범여가 문득 발을 멈추었다.

“만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예?”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책임이 많아진다. 사람들의 이목이 전보다 더 너를 향할 것이다. 몸을 사리고 각오를 단단히 하거라.”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하거라. 소림은 제자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나설 것이다.”

말을 마친 범여는 빠른 걸음으로 진명을 떠났다. 그 뒤로 연무장에 홀로 남은 진명은 고개를 가웃대고 있었다.

“그래도 저런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 확실히 덜 미워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마치 부끄러운 고백을 한 것마냥 후다닥 가버리는 범여의 등은 믿음직스럽기만 했다. 소림이 제자를 위해서 나서겠다고 말한 건, 진명을 완전히 소림의 제자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닌가!

진명은 ‘헛’ 하고 머리를 긁적였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기분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 武極 - Story Book

## 2.1.3. 제 39 화 [북풍표국]

분타는 낙양성으로 향하는 경로의 관문이다. 낙양성의 안정을 위해 수비 병력이 상시 주둔해야 한다. 분타가 점령당하면 낙양성의 단심맹 무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민초들의 안위까지 위태로워진다.

더구나 분타 주위에는 상전(桑田)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낙양성의 특산품인 비단의 공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곳이기도 하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의 상거래도 모두 분타의 경로를 지나야 하니, 어떤 면에서든 분타를 지키는 일은 중요한 것이다.

“적어도 40명 가량은 필요한데.”

진명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현재 동쪽 분타의 인원은 진명 혼자 뿐이다. 평일지의 부관 이원조를 찾아가 보았지만, 단심맹의 무인만으로는 낙양성의 치안과 성 경계에만도 벅차다며 더 이상의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명색이 분타주라지만 지원이 없으니, 용병을 고용하는 일도 버겁다. 버거운 정도가 아니라 엄두도 내기 힘들다.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정 파의 용병대인 백도군을 고용하는 것이나, 용병의 고용에는 많은 돈이 든다. 진명 혼자서는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하아.”

사정이야 어떻든 스스로 하겠다고 한 일이다. 일령을 위해서이니 그만두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진명의 성격상 한 번 시작한 일을 중도에 그만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방법이 있겠지. 힘내자! 내가 못하면 소림이 욕을 먹는 거야.”

굳은 결심을 한 진명은 어디론가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후우.....”

백도군을 고용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일은 삼일 내내 진척이 없었다. 일단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원조가 일러준 대로 상단과 전장 위주로 돌아봤지만, 그곳은 이미 예전에 평일지도 거절을 당한 곳이었다.

아무리 사람들이 소림의 후기지수인 진명을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돈 문제가 걸리니 다들 기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사실 진명은 소림의 제자라는 것, 눈에 띄는 후기지수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배경이나 연고가 없었다.

그런 진명에게 선뜻 돈을 내주거나 투자를 하려 하는 이는 없었다.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소소해 백도군 용병 한 명도 고용하기 힘들 정도였다.

일단은 닥치는 대로 돌아다녀보긴 하고 있지만 조금의 진전도 없자, 진명의 발걸음은 더욱 더 무거워지기만 했다.

“후우, 차라리 무공 수련을 하는 게 더 쉽구나. 무공 수련을 하면 조금씩이나마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지기라도 하지.”

진명의 입에서 두 번째 한숨이 새어 나왔다.

“왜들 그러지? 분타가 안전하지 않으면 상전도 무용지물이잖아. 게다가 교역로가 막힌 셈이니, 자기들도 손해일 텐데.”

진명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막막한 한숨을 쉴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반가운 목소리가 진명을 불렀다.

“어이! 진 아우! 웬 한숨이 그리 길어?”

진명은 놀라면서도 얼떨떨한 기분으로 고개를 돌렸다.

임완춘이었다.

“임 형이시군요.”

임완춘이 다가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야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하나는 잘 본다니까. 이젠 아우님이 아니라 분타주님이라고 불러야겠구먼. 흐흐. 어디 좋은 데 가서 한턱 내야지!”

진명이 씩씩하게 웃었다.

“말만 분타주지, 분타원 하나도 없는 분타주입니다.”

“쩍.”

## 武極 - Story Book

소식통인 임완춘이 진명의 사정을 모를 리 없었다.

“평일지, 그 자식 하여간 개 자식이라니까. 사람을 분타주로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 하면 어찌자는 거야?”

“그런 말 마십시오. 제가 하겠다고 한 일입니다.”

“쫓쫓. 내 안 봐도 뻔해. 순진한 아우님이 평일지에게 속아 넘어가서 냉큼 하겠다고 한 거라고.”

임완춘도 답답한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일령 소저와는?”

“.....”

“아, 이 답답한 아우님같으니라구. 아직도 화해하지 않은 거야?”

“령 아우와 제가 화해하고 말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거 고지식하기는.”

임완춘이 목소리를 낮쳤다.

“원래 남녀 관계는 조금만 손해 본다 생각하고 먼저 속이면 만사 끝이라니까?”

“령 아우와 전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에잉.”

임완춘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자금은? 어떻게 좀 마련이 됐어?”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큰일이구만. 북쪽과 남쪽 분타는 벌써 준비가 다 되어가는 모양이던데. 이러다가는 아우님이 크게 치도곤을 당하겠어.”

“예?”

진명이 놀라 되물었다.

“다른 분타가 준비가 다 되어가다니요?”

“백도군과 계약이 된 모양이야. 오늘 아침에 용병들이 낙양성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럴 리가.....”

진명의 눈썹이 일그러졌다.

“제가 듣기로는 낙양성 지부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던데요. 설마.....”

“아, 낙양성 지부가 왜 돈이 모자라?”

임완춘은 답답하다는 투로 진명을 보았다.

“북쪽 분타주가 일령 소저야. 그럼 만수전장에서 가만히 있겠어? 당연히 딸을 위해 돈을 썼겠지.”

진명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 그게 정말입니까?”

“내가 언제 거짓말 하는 거 봤어? 섭섭하게 왜 이래.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가서 일 소저를 보고 오는 길이라니까.”

진명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평일지, 이 놈! 내게 그리 약속을 해놓고 아우를 이용하다니!”

진명은 당장이라도 평일지를 찾아가려 했다. 임완춘이 놀라 진명을 붙들었다.

“아우! 왜 그래!”

“평일지가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령 아우의 집안을 끌어들이지 않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말을 바꾼 것 아닙니까!”

“허어.”

임완춘은 그제야 무슨 사정인지 눈치를 챘다.

“당했군. 아우가 당했어.”

“네?”

“아우도 생각해 보게. 일령 소저가 분타주가 되면 만수전장에서 당연히 낙양성 지부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렴 하나뿐인 딸을 그냥 아우처럼 허허벌판에 내버려 둘까 봐?”

“하지만.....”

“평일지가 끌어들인 게 아니라 일령 소저의 부친인 일 장주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뭐라고 따질 거야?”



# 武極 - Story Book

진명은 아랫입술을 세차게 깨물었다.

“평일지.....”

“예휴. 이러니 내가 아우를 혼자 내버려둘 수가 없다니까. 꼭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아서 말이야.”

진명은 대답도 못하고 분노를 삭이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속았다, 분타주 못하겠다, 그러면 평일지만 좋게 되는 거지. 소림도 바보가 되는 거고.”

임완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듬성한 턱수염을 만지작거렸다.

“으음, 이를 어쩐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구만.”

진명은 주먹을 쥐고 울분을 토해냈다.

“해낼 겁니다.”

“.....뭐?”

“동쪽 분타를 안정시키고 나서 평일지를 찾아가 따질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되잖아. 아우 혼자서 어떻게 할 건데? 소림에서도와준다고 해도 무리야. 스님들이 돈이 어디 있어? 더구나 낙양성에 와 있는 분이라고는 범여 대사 뿐이고.”

진명은 씩씩거리면서 어깨를 떨었다. 화를 참느라 이마에 땀이 다 났다.

임완춘이 안쓰러운 얼굴로 진명을 보다가 문득 시선을 돌렸다.

“응? 진 아우. 저게 뭐지?”

진명은 화를 삭이느라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임완춘이 진명의 팔을 붙들고 흔들어 댔다.

“저기! 저게 뭐야?”

그제서야 진명도 고개를 돌렸다.

멀리서 뿌연 흙먼지의 구름이 일어나고 있었다. 대낮에 대로 한 가운데서 저런 식의 거대한 흙먼지가 일어난다는 것은 확실히 수상쩍은 일이었다.

“이 계절에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것도 아닐 테고..... 뭐지?”

임완춘이 눈을 휘둥그래 떴다.

“피, 피해!”

흙먼지의 구름이 엄청난 속도로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임완춘과 진명은 잽싸게 길가에서 비켜섰다.

쿠르르르.

잠시 후 거대한 흙 구름은 두 사람을 스치듯 지나쳐 갔다. 그리고는 대로변에 자리하고 있던 한 상가 앞에 멈춰 섰다.

“설마..... 마차였어?”

멈추고 나서야 흙구름의 정체를 파악한 임완춘이 황당한 얼굴로 종얼거렸다.

“마차가 저렇게 빠르다니..... 말도 안돼.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는데.”

한 마리의 거대한 흑마가 끄는 마차였다. 검은 말에 검은 마차. 어딘가 의심쩍은 모양새였다. 그리고 그만큼 으스스한 분위기가 풍겨졌다.

“진 아우! 저기!”

임완춘이 마차의 뒤 편에 꽃혀 있는 깃발을 가리켰다. 타오르는 듯한 불꽃의 룬 아래에 편월(片月)이 그려진 깃발이다.

“북풍표국(北風鏢局)? 진 아우, 저거 표국의 마차인가 봐. 낙양성에 저런 표국이 있었나? 수상한데?”

생전 처음 듣는 표국의 이름에 두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을 때였다.

검은색 마차의 문이 열리며 마찬가지로 독특한 검은 무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그들은 절도 있고 힘이 넘치는 걸음으로 마차를 세운 상가 안으로 들어갔다. 한 눈에 보기에다 범상치 않은 몸놀림이었다.

“뭐지? 뭔가 큰일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냐?”

임완춘이 호들갑을 떨었다.

“표국이니까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일단 가보자.”

진명은 내키지 않았지만, 눈 앞에서 일어나는 수상한 일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임완춘과 진명은 북풍표국의 무인들이 들어간 상점으로 바삐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두 명의 무인이 상점에서 나왔다.

“뭐지? 벌써 일이 끝났나?”

## 武極 - Story Book

임완춘이 혼잣말처럼 중얼댄 순간, 두 무인이 진명과 임완춘을 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두 무인은 거침없이 진명과 임완춘을 향해 다가왔다.

진명과 임완춘의 얼굴이 긴장으로 경직되었다. 두 무인의 발걸음과 기세가 보통이 아니었다.

‘고수다.’

얼마만큼 고수인지 확신할 수도 없었다.

전신을 압박하는 패도적인 기세는 물론이요, 형형한 눈빛으로 짐작할 수 있는 내공의 수위도 엄청났다.

진명은 본능적으로 주먹을 쥐며 앞으로 나섰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들에게 볼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들이 무표정하고 무뚝뚝한 얼굴로 말했다.

“단심맹의 분들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받으십시오.”

그들 중 하나가 무언가를 불쑥 내밀었다. 그것은 곱게 포장되어 있는 떡이었다.

임완춘이 저도 모르게 입을 딱 벌렸다.

“이, 이게 뭡니까?”

“떡입니다. 저희는 북풍표국의 표사로 오늘부로 낙양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진명과 임완춘이 ‘앵.’ 하고 황당한 얼굴을 했다.

“그, 그럼 이건 개업떡? 방금 상점으로 들어갔던 건 이 개업떡을 돌리려고?”

“개업떡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표국의 장원이 지어지는 대로 개업식을 열 테니, 그때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무뚝뚝한 얼굴로 웃지도 않고 친절할 말투를 하니 기괴하기까지 했다. 아마 이들에게 떡을 받은 상점 주인들도 팔다리를 후들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을 것 같았다.

표사가 여전히 무뚝뚝하게 말했다.

“특히나 저희 북풍표국은 고객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중원 어디에라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편안히 모시는 초특급 이송 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니, 개업 후에 단심맹의 영웅호걸 분들께서 자주 이용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른 표사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언제나 편안하고 친절한 북풍표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락부락한 생김새와는 다르게 정중한 포권으로 인사를 한 뒤 다시 마차에 올랐다.

탁.

마차의 문이 닫힘과 동시에 육중한 검은 마차가 다시 한 줄기의 구름으로 변해 대로를 달려갔다.

진명과 임완춘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손에 들린 개업 떡을 바라보았다.

“뭘, 뭘지?”

진명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임완춘은 가만히 손에 든 떡을 보며 말했다.

“거, 희한한 놈들이네. 생긴 건 무슨 살수 갈아 가지고 떡을 돌려?”

확실히 이상한 표국이었다.

임완춘이 떡을 한 점 집어 먹었다.

“맛있긴 하네. 돈 좀 썼나 본데? 아우도 하나 먹어봐.”

진명은 고개를 저었다.

임완춘은 진명을 주려던 떡을 냉큼 자신의 입으로 집어넣고는 오물거렸다.

“저런 고수들이 떡을 돌리는 걸 보니, 표물 운송 하나만큼은 제대로겠어. 하긴..... 강호가 어지러운데 저런 표사가 없으면 표국이 안되지. 그러고 보니 정사마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전 성도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중립적인 표국이 있다 들었는데, 그게 북풍표국인가?”

임완춘의 말에 진명이 ‘아!’ 하고 탄성을 냈다.

“아! 표국!”

## 武極 - Story Book

자신이 놓쳤던 부분을 깨달았다. 왜 상인들이 하나같이 투자를 꺼려했는지, 또 교역로가 막혀있음에도 선뜻 나서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있었다.

정보에 빠른 상인들은 이미 북풍표국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표국을 이용해 교역을 하면 되니 굳이 진명에게 거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었다.

진명은 다시금 이를 악물었다.

분명히 평일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였다.

“평일지, 이 놈!”



# 武極 - Story Book

## 2.1.4. 제 40 화 [낙양상련]

“아우님, 진정해. 진정 좀 하라고!”

임완춘은 서릿발처럼 살기를 뿜는 진명을 보고 더럭 겁이 났다.

진명이 누구인가!

마교의 고수인 적나한을 궁지로 몰아넣었으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막강한 사파의 신진 고수인 십대신위와 맞서 싸운 사내다.

강호초출에 신출내기였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진명에게서는 강호초출의 느낌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굳게 디딘 두 발과 단단한 상체에서 뿜어 나오는 기세가 임완춘이 당할 바가 아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군.’

임완춘은 마른 침을 삼키며 연신 진명을 달랬다.

“아우님, 그러지 말고 진정해. 평일지가 죽일 놈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

호칭도 어느새 아우’님’으로 바뀌었다.

“으으.....!”

임완춘이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손뼉을 쳤다.

“아, 아우님!”

임완춘은 진명이 듣던 말던 계속해서 말했다.

“저 북풍표국 말이야, 배짱도 좋게 낙양성 안에 떡을 죄다 돌리고 있는 거 아냐. 이거야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꼴이잖아.”

“.....”

“어때? 북풍표국의 편의를 봐주고 그 쪽에서 자금을 요구하는 건? 어느 선까지야 분타주의 권한으로 가능하지 않겠어?”

“북풍표국.....?”

진명은 화가 채 가지지 않아 상기된 얼굴을 들었다.

“밀저야 본전이잖아?”

임완춘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대단한 생각을 해냈다는 듯 슬며시 웃었다.

진명이 한층 진정된 얼굴로 북풍표국의 표사들이 지나간 방향을 쳐다 보았다.

“어떻게 하고 있던가?”

평일지의 물음에 이원조가 공손히 답했다.

“제깃 놈이 뭘 하고 있겠습니까. 그저 전전긍긍하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지요. 감히 따지려 올 생각도 못하더군요.”

이원조는 시간이 나는 대로 툼툼이 진명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훗.”

평일지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힘들군.”

평일지는 눈을 감았다.

며칠 간은 그에게도 꽤나 피곤한 일정이었다.

진명이 찾아왔던 다음날, 평일지는 바로 일주엽을 만났다.

만수전장의 일주엽이라고 하면 독심 있고 배짱 좋은 수완가로 유명한 인물이다. 본인은 무공의 일초식도 모르는 일개 상인이었지만 어지간한 세력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만수전장을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린 자였다. 마교의 세력이 중원을 횡행하는 지금도, 만수전장은 고유의 상권을 유지하며 이전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더 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리 쉬운 인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일주엽은 늙은 너구리처럼 까다로운 상대였다.

평일지는 일주엽을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



## 武極 - Story Book

“어때? 우리 딸, 마음에는 드나?”

“아, 그게.....”

평일지가 짐짓 부끄러운 표정을 했다.

곁에 있던 일령이 ‘으악!’ 하고 놀라며 일주엽을 잡고 흔들었다.

“이 노친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평 소협하고는 그냥 술 한 잔 같이 마셨을 뿐이라니까?”

“čekček. 일령, 이녀석. 남녀 사이에 술 한 잔이 가볍냐? 내가 널 그렇게 가르치디? čekček, 그, 그나저나 너 아버지를 죽일 셈이야?”

“아휴, 진짜!”

일령이 조금 상기된 얼굴로 흥 하고 방을 나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주엽은 사랑스러운 딸을 둔 좋은 아버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령이 나가자마자, 일주엽의 얼굴은 순식간에 돌변했다. 날카롭고 딱딱해서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꼼꼼한 상인의 얼굴이 되었다.

“화산파의 평일지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한 만큼 큰 그릇은 아닌 모양이군.”

평일지의 얼굴도 굳었다.

“야망이 크다 들었는데, 고작 내 딸년으로 만족하겠나?”

늙은 너구리가 평일지를 시험하고 있었다.

‘감히.....’

평일지는 그런 마음을 내색하지 않고 되물었다.

“제게 어울리는 처자가 따로 있단 말씀이십니까?”

“찾아보면 몇 안되긴 하지. 그래도 청성의 문주희라면야.....”

평일지는 가슴이 다 뜨끔했다.

‘역시 보통내기가 아니다. 이쪽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어. 괜히 대상(大商)이 아니군.’

평일지는 얼굴의 기색을 굳히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제야 일주엽의 안색이 펴졌다.

“그렇게 나와야지. 남자들의 사업에는 원래 여자가 끼면 안 되는 법이라네. 딸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자고.”

이미 기선에서 눌린 평일지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

그때를 생각하던 평일지가 입술을 이죽거렸다.

“빌어먹을 늙은이.”

조심한다고 조심하고, 나름대로 대처법도 생각해 두었었는데 아무 것도 해보지 못했다.

평일지의 완전한 패배였다. 일주엽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철저히 이득을 챙겨서 돌아갔다. 일령을 미끼로 우위에 서려던 평일지의 계획은 완전한 실패였다.

기분이 나빠진 평일지가 인상을 쓰자, 이원조가 평일지의 기분을 풀어 주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만수전장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돈 모두가 일주엽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지.”

그 때, 집무실의 문이 거칠게 젖혀지며 몇 명의 상인들이 들이닥쳤다. 저마다 화가 난 듯 얼굴을 붉히고 숨까지 쉼쉼대고 있었다.

“평 대협! 정말 이러실 거요?”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냐?”

이원조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 뭐 하시는 게요?”

“댁은 비켜!”

“우린 평일지를 만나러 왔다!”

평일지가 손을 흔들었다.

“비켜서게.”

이원조가 허리를 굽히고 물러서자, 평일지가 거만한 태도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일부러 공력을 끌어올려 서늘한 기세를 뽐어냈다.

살기등등하던 상인들이 살짝 기가 놀려 주춤거렸다.

## 武極 - Story Book

평일지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래. 무슨 불일이신지?”

상인들의 대표인 듯 깐깐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나섰다.

“정말 몰라서 묻소?”

평일지는 미소만 지으며 말하라는 표정을 지었다. 대표자인 상인이 분통을 터뜨렸다.

“단심맹이 대체 뭔데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거요!”

“오호라, 그 일 때문에 오셨군? 낙양상인 연합회의 맹씨(孟氏) 가주께서 친히 말이야.”

“그렇소!”

평일지는 천천히 걸으며 대표자인 맹 가주의 앞으로 걸어갔다.

“지금 댁들이 말하는 그 밥그릇 말인데, 누가 찾아줬는지 잊었나?”

맹 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마교가 쳐들어왔을 때 남궁 세가에 상권을 빼앗기긴 했으나, 이곳 낙양성은 원래 우리의 터전이었소.”

“남궁 세가에 상권을 빼앗길 때, 여기 있던 분들께서는 다 어디 계셨었지?”

마교가 낙양성을 장악하며 본래 있던 상인들을 모두 죽였다.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남궁 세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그, 그야..... 마교가 쳐들어 왔으니 당연히 달아나.....”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낙양성에서 장사를 하는 놈들은 그때 다 달아났던 놈들인 거지.”

맹 가주가 소리쳤다.

“말이 심하잖소!”

“말이 심해?”

평일지가 미소를 거두고 맹 가주를 노려보았다. 맹 가주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달아났던 놈들이 이제와 그것이 자기 것이라 우긴단

말인가?”

“주, 중간 이유가 어찌되었든 원래 우리 것 이었잖소.”

“그럼 내 하나만 묻지.”

평일지가 날카롭게 물었다.

“왜 마교가 들어와 있을 때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 왜 당당하게 낙양성이 우리 것이라 주장하지 못했지?”

“그, 그야 그런 말을 할 틈도 없이 다 죽였으니.....”

평일지가 대답 없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다..

“다음 번엔 마교가 아니라 사파가 들어온다 해도 당신들은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사마의 무리들로부터 낙양성을, 당신들과 당신들의 재산을 지켜주려는 단심맹에게 댁들은 뭘 해줬지?”

상인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소! 남궁가 놈들이 달아나며 상가에 불을 싸지르는 바람에 복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단 말이오!”

“중요한 건 성의지. 알다시피 단심맹 낙양성 지부의 사정이 여의치가 않단 말이야. 성의를 보이는 이들을 보호하기에도 벅차다고.”

맹 가주가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뜻이오?”

평일지는 간단히 대답했다.

“더 이상 단심맹 낙양성 지부에서는 당신들을 보호할 수 없어.”

상인 한 명이 울분을 토했다.

“우리가 언제 보호해달라고 했소? 단심맹이 뒷골목 파락호라도 되오?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우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평일지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아, 흥분할 것 없어. 나는 단지 인력이 부족해 당신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다고 한 것뿐이지, 내가 무슨 당신들을 해코지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게 그 말이잖소!”

# 武極 - Story Book

“전혀 다르지.”

다른 상인이 코웃음을 쳤다.

“흥! 저 자의 말 따위 들을 필요 없어. 어차피 단심맹도 사파나 마교가 쳐들어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걸?”

“그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평일지가 도중에 뚝 말을 끊자, 모두의 시선이 평일지를 향했다.

“이왕 신경을 쓸 바엔, 우리 단심맹 낙양성 지부에서는 단심맹에 비협조적인 기존의 낙양상련이 아닌 협조적인 등봉세가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지. 이를테면, 장안성이나 양양성으로 오고 가는 등봉세가의 교역품을 안전하게 호송한다던지.”

상인들은 이를 갈았다. 당장 낙양성만 나서면 사파나 마교는 물론이고 산적들이 들끓어 제대로 운송을 할 수가 없다. 사실은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지원을 늦췄던 것이다. 어차피 정파에서는 마교나 사파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단심맹 본관이 있는 장안성의 자금을 끌어다 낙양성을 지켜야 할 입장이니 말이다.

맹 가주가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다.

“물자 운송이라면 표국에 맡기면 되오. 굳이 단심맹의 무사들에게 맡기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소.”

그러나 그 말은 평일지에게 조금도 먹혀 들지 않았다.

“아, 표국 말인가? 이런 난세에 표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표국이 얼마나 되지? 혹시 북풍표국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건가?”

“북풍표국에서 오늘 낙양성으로 입점하겠다고 떡을 돌렸소. 우리는 운송을 북풍표국에 맡길 예정이오.”

“그거라면 걱정할 것 없어.”

평일지가 피식 웃었다.

“북풍표국은 등봉세가와 독점계약을 맺은 모양이더군.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른 표국은 낙양성에 입점할 수가 없어. 그게 북풍표국과 단심맹 낙양성 지부와와의

계약이거든.”

“크윽! 어, 어떻게 그런 짓을!”

표국은 해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문파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그 지역에 입점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해당 문파의 도움을 받아야 원활한 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무런 도움도 없이 독자적으로 전 성도를 표행할 수 있는 표국은 현재로서는 북풍표국이 유일하다.

그 북풍표국이 단심맹과 손을 잡았다면 다른 표국은 더 이상 낙양성으로 들어올 수도 없을 것이다.

상인들은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낙양성 성내 상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타 지역 성도와 거래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하다못해 원자재나 기타 제품의 원료까지도 북풍표국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되니,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제 벼랑끝까지 몰린 이상 평일지를 구슬릴 수밖에 없다.

잠간의 회의 끝에 맹 가주가 나섰다.

“좋소. 단심맹 낙양성 지부에 우리 모두가 조금씩 각출해서 자금 지원을 하겠소.”

평일지는 환희를 느낄 지경이었다. 마침내 낙양 상인들이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저 기쁨만을 느낄 뿐이었다.

“늦었어.”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성의요. 부탁 드리겠소.”

“내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는군. 늦. 었. 다. 고.”

맹 가주가 무릎을 꿇었다. 상인들이 따라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부탁 드리겠소. 지난번 평 대협에게 섭섭하게 했던 일은 잊어주시길 바라오.”

평일지는 승리의 쾌감을 만끽하며 의자로 돌아가 앉았다.

“물론 그 정도는 이미 잊었소. 하지만 벌써 이번 일은 내 손을 떠났으니, 이를

# 武極 - Story Book

어쩐다?”

평일지는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천천히 말했다.

“혹시 모르지. 등봉세가에 가서 부탁을 하면 들어줄지도.”

맹 가주는 뚝 씹은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다.

“이만 가보시오.”

평일지의 축객령에 상인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무실을 나서야 했다.

이원조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길게 숨을 내뿔었다.

“아아, 속이 다 시원하군요. 저 악질적인 상인놈들, 우리가 그렇게 부탁할 때는  
콧방귀도 안 뀌더니만.”

평일지도 웃음을 지우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 한쪽은 찢찢했다.

“만수전장의 일주엽, 그 늙은이만 손 안대고 코를 킁 격이지.”

만수전장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한 조건이 바로 이것이었다.  
북풍표국을 입점시키고, 등봉세가와 독점계약을 시킬 것. 겨우 그것만으로도  
등봉세가는 낙양성의 상권을 완전히 손에 넣게 된 것이다.

그것으로 등봉세가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육을 먹더라도 등봉세가가 먹고 만수전장은 조용히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다.

“대단한 늙은이야. 일주엽.”

평일지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 武極 - Story Book

## 2.1.5. 제 41 화 [북풍장주]

진명은 공사가 한창 중인 낙양성의 중심가로 왔다.

민가와 상가가 즐비한 중심가의 한 가운데에 거대한 전각이 서 있었는데, 외관을 고치는 중인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여기야!”

임완춘이 목재를 들고 분주히 오가는 인부들의 사이에서 손을 흔들었다.

진명은 임완춘에게 걸어가다, 문득 그 곁에 있는 인물을 보고 멈칫했다.

문주희가 진명을 보고 가볍게 눈짓하며 인사했다.

“진 분타주. 오랜만에 뵈어요.”

진명이 엉겁결에 포권을 하며 당황한 표정으로 임완춘을 보았다.

임완춘이 어쩔 수 없었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문주희가 눈치를 채고 끼어들었다.

“북풍표국의 주인을 찾고 계신다죠?”

“그렇습니다만.....”

“수뇌부에서만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는 대신 함께 오겠다고 졸랐어요.”

“그, 그러셨군요.”

진명은 뿔떠름한 표정이었다. 일령과 사이가 벌어진 이후 문주희를 대하는 것이 어쩐지 꺼림칙해졌다.

‘문 소저가 뭐 하러 여기까지 온 거지?’

문주희가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진명의 앞으로 한걸음을 성큼 다가왔다.

“혹시 제가 방해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표정은 그렇지 않으신데요?”

“아, 그건.....”

진명이 말을 망설였다. 생각해보니, 북풍표국의 주인을 만나서 돈 얘기를 해야 하는데 문주희가 있으면 껄끄러워질 것 같아서다.

문주희가 어색함을 깨며 말했다.

“진 소협께서는 북풍표국의 주인이 여자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예?”

진명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놀라실 만도 하죠. 강호에 명성이 자자한 북풍표국의 주인이 여장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거든요. 게다가 엄청난 미인이란 소리도 있구요.”

“그, 그렇군요.”

미인이든 아니든 진명에게는 큰 관계가 없었지만, 여자라는 사실에는 생각보다 놀랐다.

“진 소협이 무슨 일로 북풍표국의 주인을 찾는지 알고 있습니다.”

문주희의 말에 진명은 힐난하는 투로 임완춘을 쳐다보았다. 임완춘은 고개를 돌리고 탄청을 피웠다.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진 소협이 여색에 혹 하실 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여자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여자가 더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진명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사는 진심이었다. 생각지도 않게 찾아온 문주희가 껄끄럽다곤 하더라도 호의로 온 것이니 더 이상 싫은 기색을 보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생각한 것이다.

문주희는 방긋 웃으며 진명의 감사를 받아들였다.

“그건 그렇고, 생각보다 북풍표국의 규모가 굉장하네요. 도대체 몇 층까지

# 武極 - Story Book

전각을 올릴 생각일까요?"

문주희는 한창 공사중인 전각을 올려다보았다. 벌써 3층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 위로 목재 구조물이 더 세워지고 있었다.

"아무리 단심맹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정도 규모로 공사를 한다는 건 그만한 재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임완춘이 맞장구를 쳤다.

"아무렴요."

"우리 일이 좀 더 쉬워지겠군요."

어느 샌가 '진명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 있었다.

임완춘이 사방을 둘러보더니 한곳을 가리켰다.

"저기 커다란 가마가 보이는데, 북풍표국의 주인이 저기 있는 게 아닐까요?"

임완춘이 가리킨 곳에는 방 한 칸 크기의 거대한 가마가 호위를 받으며 세워져 있었다. 온통 검은색에 붉은 빛이 도는 가마는 그다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수수하지 만도 않았다. 무엇보다 가마의 크기가 사람을 압도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서 있는 호위들이 풍기는 기도도 범상치 않았다.

문주희가 먼저 걸음을 옮겼다.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군요. 가보죠."

문주희가 앞장을 서고 임완춘이 진명을 떠밀다시피 하며 세 사람은 가마로 향했다.

일령은 낙양성의 중심가로 향하는 골목 어귀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고민이 잔뜩 어린 표정이다.

"후우....."

진명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들었다. 특히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금전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했다.

분타 하나를 무장할 정도라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주엽에게는 큰 돈이 아니다. 조금만 부탁을 하면 분명히 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부친인 일주엽에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진명을 마주치는 일이었다.

진명의 성격상 일령의 도움을 받지도 않을 테지만 무엇보다 진명을 만나는 일이 일령에게는 어려웠다. 먼 발치에서 진명을 보고 몇 번이나 반갑게 인사를 하려다가 돌아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왜 이러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 진명의 앞에 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령은 지금도 진명이 북풍표국의 주인을 찾아갔다는 걸 알면서도 그에게 갈 수가 없었다.

"하여간 진 형은 바보 같다니까. 나한테 부탁하면 될 걸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 남한테는 굽신 거릴 수 있으면서 나한테는 못하겠다는 거야?"

일령은 혼자서 씩씩댔다.

"내가 평일지를 도운 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 그러면 나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던가. 왜 사람이 그래?"

일령이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지? 이게 다 문주희 때문이잖아. 문주희 고것만 아니라면 내가 평일지와 술을 먹을 일도 없었을 테고, 평일지와 아빠를 연결시켜줄 일도 없었을 거 아냐."

한참을 중얼거리며 서성이던 일령은 걸음을 멈추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가 가면 되지. 그까짓 게 뭐 어려워? 내가 간다, 내가 가."

일령은 가슴을 확 내밀고는 중심가로 향했다.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 그냥 딱 만나서 '어이, 진형. 잘 지냈어?' 하고 말하면 그만이잖아."

가슴을 당당하게 편 것과는 달리 일령은 진명을 만나서 뭐라고 말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어느새 멀리 공사중인 북풍표국의 전각이 보였다.

똑딱거리는 망치질 소리와 바빠 자재를 나르는 인부들의 모습 사이로 진명의

# 武極 - Story Book

모습이 확 들어왔다.

방금 까지 애써 끌어올리던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일령은 옆집의 울타리로 몸을 숨겼다.

얼굴이 또 화끈거렸다.

"후아아."

두근대는 심장을 몇 번의 심호흡으로 겨우 진정시킨 일령이 주먹을 꼭 쥐었다.

"령아, 령아. 너 이대로 평생 진 형을 피해 다닐 거야? 그럴 필요 없잖아."

혼자서 자문자답을 한 일령이 굳게 마음을 먹고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 얼굴에는 최대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손을 흔들며 외쳤다.

"어이! 진 형....."

그 순간 일령의 눈에 해맑게 웃고 있는 문주희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진명이 보였다.

덜컹.

심장이 내려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 몸에 기운이 쭉 빠졌다.

들었던 손이 힘없이 떨거지고, 일령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천지가 무너진 듯 세상은 온통 회색 빛만이 가득했고, 소용돌이치는 암흑의 기류에 정신이 먹혀버린 것 같았다.

서러웠다.

그래서 슬펐다.

또르륵.

회색빛 세상에 영롱한 석영의 광채를 담은 영롱한 눈물 방울이 떨어졌다.

"바보....."

일령은 고개를 돌리고 뛰어갔다.

진명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딱딱한 어조로 북풍표국의 무사가 진명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온 몸에서 내뿜는 기세만으로도 어지간한 사람은 절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문주희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생긋 웃었다.

"단심맹에서 왔어요. 북풍표국의 주인께서 이곳에 계시다고 해서요."

"장주님을 말입니까?"

되물은 것은 표국의 무사가 아니었다. 무사의 뒤에 서 있던 문사(文士)였다.

왜 표국의 국주를 장주라고 부르는지 문주희와 진명은 의문스러웠지만, 어쨌든 문사가 나서자 무사는 별다른 표정 없이 조금 물러섰다. 순식간에 기세가 사그러 들었다. 임완춘이 조그맣게 '휴우'하고 숨을 내쉬었다. 진명이나 문주희는 몰라도 임완춘은 무사의 기세에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얇은 장삼에 문사건을 쓴 문사가 앞으로 나서며 공손히 포권했다.

"북풍표국의 도상운입니다. 단심맹에서 오셨다구요?"

문주희가 마주 포권하며 답했다.

"어머, 도 대협이셨군요. 저는 청성의 문주희입니다. 이쪽은 최근 위명이 자자한 소림사의 진명 소협과 화산의 임완춘 소협입니다."

도상운이 부드러운 얼굴로 진명과 임완춘에게도 일일이 포권했다.

"진 대협과 임 대협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사실 임완춘이야 명성이랄 게 있을 리 없으므로, 얼굴 두꺼운 임완춘이라 할지라도 도상운의 말에는 무안해질 수 밖에 없었다.

도상운이 포권을 거두고 물었다.

"그런데 세 분께서 어찌 저희 장주님을 찾으셨는지요?"

도상운의 시선은 문주희를 향해 있었다. 문주희는 청성 장문 대리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청성의 말이다. 도상운에게는 진명이나 임완춘은 문주희를 수행하는 정도로 보였던 것이다.

문주희가 진명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이번에 진 소협이 새로 낙양성 등봉 분타주를 맡게 되셨어요. 분타의 일로 장주님을 잠시 뵈었으면 하는데요."

## 武極 - Story Book

"그러셨군요. 경하드립니다, 진 분타주."

도상운은 꼬장꼬장한 문사처럼 불편할 정도로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다.

"한데..... 실례가 안 된다면 장주님을 무슨 일로 뵙는지 여쭙 수 있겠습니까?"

도상운의 태도나 말에서 유추해보듯이 장주는 바로 뒤의 가마에 있는 것이 확실했다. 아마 도상운이나 문주희가 하는 말을 지금도 듣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무 말도 없는 것은 확실히 불쾌한 일이다.

문주희가 웃음을 지우지 않으며 말했다.

"장주님께 직접 여쭙으시면 좋겠군요. 저희가 찾아왔다고 전해주실 수 있나요?"

과연 문주희다운 행동이었다.

도상운은 자신의 말을 무시했음에도 전혀 기분 나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도상운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돌리기도 전에, 가마에서 옥구슬이 쟁반에서 구르는 것처럼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럴 것 없다. 손님들을 이쪽으로 뵈 시어라."

"예, 장주님."

도상운은 귀찮지도 않은지 일일이 대답을 하며 가마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가마 앞으로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고마워요."

문주희는 진명에게 앞을 양보했다. 진명이 먼저 가마 앞으로 걸어가고 문주희와 임완춘이 뒤를 따랐다.

시비들이 가마에서 나와 가마 옆에 달려 있는 휘장을 걷었다. 휘장을 걷고 나니 그 앞에 다시 주렴이 걸려 있었다. 주렴 아래로 한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북풍표국의 장주는 가마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 안에서 진명들을 맞이했다.



## 武極 - Story Book

"어서 오세요. 부족하나마 북풍표국을 이끌고 있는 벽소군이라 합니다. 편하게 벽 장주라 불러 주세요."

“벽 장주님을 뵙습니다.”

세 사람이 포권을 하며 인사했다.

임완춘은 포권을 하며 힐끗 가마 안을 쳐다 보았다.

가마 위에서부터 내려온 주렴은 장주의 얼굴 반 정도를 가리고 있어 제대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나이가 몇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얼핏 보이는 투명하도록 새하얀 피부와 반듯한 코, 붉은 입술만 보아도 그녀의 미색이 얼마나 뛰어난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임완춘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당장이라도 주렴을 걷고 얼굴을 보고 싶었으나 그랬다가는 결의 호위들에게 목이 남아나지 않을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었다.

북풍표국의 장주 벽소군이 물었다.

"청성의 장문 대리이신 문 소저께서 저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문주희가 말했다.

"북풍표국의 장주님께서 경국지색(傾國之色)의 미모를 지니셨다 하여, 같은 여자로서 한번 뵙고 싶습니다."

벽소군은 조용히 웃었다. 붉은 입술이 고혹적으로 미소 지었다.

"제가 언감생심(焉敢生心) 청성제일미에 비할까요. 하지만 절 찾으신 이유가 그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벽소군은 끝내 주렴을 열지 않았다. 문주희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진명을 내세웠다.

"예. 사실은 여기 진 분타주께서 장주님을 뵙고자 합니다."

진명이 나섰다.

"진명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이 있어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단심맹의 공식적인 일이라면 평 지부장을 통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벽소군은 담담한 말투였으나, 진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가 분명했다. 아니, 실제로도 그녀에게는 진명이 그런 존재일 뿐이었다.

마교의 적나한을 물리치고 사파의 후기지수인 십대신위 중 한 명을 부상당한 상태에서 쓰러뜨렸다는 건 그녀에게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굳이 그녀가 진명을 주목해야 한다면 진명이 앞으로 소림사를 이끌어갈 후기지수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뿐이다.

문주희는 벽소군의 말투에 숨은 뜻을 깨닫고 표정을 찡그렸으나, 진명은 아는지 모르는지 고개를 숙이고 공손히 말했다.

"공식적인 일이라면 공식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일이라면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러시군요.”

벽소군은 차갑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이라면 도 총관과 먼저 상의해주시겠습니까?”

문주희의 얼굴이 딱 굳었다.

그것은 비단 문사처럼 보였던 도상운이 사실은 총관이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청성의 장문 대리인 자신과 낙양성의 분타주인 진명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축객령을 내린 벽소군의 무례한 행동 때문이었다.

# 武極 - Story Book

## 2.1.6. 제 42 화 [번외]

문주희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싹 사라져 있었다.

주렴 안에서 벽소군이 말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해요. 저는 곧 떠나야 하니 총관과 상의를 하시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도 총관은 제가 가장 신임하며, 동시에 그만큼의 권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벽 장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겠습니다. 설마하니 벽 장주께서 청성을 무시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깐요.”

벽소군이 낭랑한 목소리로 웃었다.

“이빨 빠진 호랑이라 하더라도 호랑이는 호랑이지요. 그 뿐 아니더라도 문 장문인의 고절한 인품은 예전부터 흠모해왔었습니다.”

그 말이 문주희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이빨 빠진 호랑이?’

이건 완전히 대놓고 청성을 무시하는 말투가 아닌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문주희는 대꾸도 못하고 얼굴을 굳히고 있을 따름이었다.

기분 같아서야 다 때려치우고 돌아가던가 한 마디를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내키는 대로 했다가는 그녀 때문에 자칫 진명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었다. 따지고 보면 진명 때문에 온 것이니, 문주희는 화가 났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한데 생각 외로 진명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만 가죠.”

“예? 하지만.....”

오히려 문주희가 놀랐다.

“저를 무시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문 소저에게까지 무례한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진명이 문주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분명 아닐 터였다. 문주희도 그것은 알고 있었다.

진명의 사정은 분명 급하다. 할 수만 있다면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해서라도 벽소군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판이다. 기회가 있다면 분명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급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진명은 문주희의 체면을 먼저 생각했다. 자신을 돕기 위해 온 사람이 대신 창피를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문주희는 순간 가슴이 찡해졌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남자가 있었나?’

그녀의 미모와 배경을 보고 접근해 온 남자는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러나 그 중 어떤 남자도 문주희를 감동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문주희 역시 자신의 미모로 진명을 청성에 영입하려 했을 뿐, 진명을 남자로서 관심있어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문주희가 설레임을 느끼고 있었다.

문주희는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을 깨닫고 얼른 고개를 숙여 감췄다.

“실례 많았습니다.”

진명은 보이지도 않는 가마 안을 향해 포권을 하고는 아무 미련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려버렸다.

“갑시다.”

“진 대협! 잠시 진정하시고.....”

도상운이 진명을 붙잡으려 했으나, 진명은 차갑게 거절했다.

“다음에 또 뵙지요.”

“진 대협. 부탁할 게 있으시다고.....”



## 武極 - Story Book

“사람을 앞에 두고 얼굴도 내보이지 않는 이에게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진명은 도상운을 뿌리치고 성큼 걸어가버렸다. 뒤에 서 있던 임완춘이 코를 손가락으로 비비며 시원하다는 얼굴로 웃었다.

“역시 진 아우라니까.”

문주희는 아릇 미묘한 표정으로 진명의 등을 보았다. 도상운이 문주희에게 말했다.

“문 장문 대리께서는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장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문주희는 도상운을 무시하고 고개를 돌려 가마를 향했다. 그리곤 또박또박하게 말했다.

“청성을 무시한 대가. 언젠가는 치르게 될 겁니다.”

문주희의 표정에는 한결 여유가 생겨나 있었다.

가마 안에서는 아무런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도상운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문주희는 그에게 가벼운 웃음만을 남기고 진명의 뒤를 따라 가버렸다.

도상운이 문사건을 굵적이며 중얼거렸다.

“이것 참. 당돌한 아이들이군요.”

그제야 가마 안에서 벽소군이 반응을 보였다.

“신경 쓸 것 없어. 어차피 피라미일 뿐이야.”

“임완춘이라는 자는 피라미일지 몰라도 진명과 문주희까지 무시해서는 안되었습니다. 물론 주군께서 보시기에야 어린애들 장난 같으시겠습니다만.”

“문주희야 청성 장문인의 딸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진명이란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진명은 현재 낙양성의 중심에 서 있는 자입니다.”

“어째서지?”

벽소군은 의문을 드러냈다.

“애송이 하나가 적나한 따위를 쓰러뜨린 게 그리 큰 일이었나? 그렇게 정파에 인재가 없어? 만일 그렇다면 정파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군.”

“그렇지 만도 않습니다.”

벽소군이 차갑게 명령했다.

“말해봐라.”

“정파의 정예들이 서역..... 전투에서 대부분 사망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적나한을 상대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다만?”

“그들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지요. 더구나 그들의 뒤를 이을 세대가 몽땅 사라져버렸으니, 당장보다도 내일이 더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흐음.”

“그래서 진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림의 후예라고는 하나 실제로 배운 것은 고작 나한권 몇 초뿐이었음에도, 적나한을 잡아냈으니까요.”

“나한권 몇 초? 그 정도로 적나한을 척살했다는 건 말이 안 될 텐데.”

벽소군도 수긍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지요. 오죽하면 문주희가 진명을 청성으로 영입하려 쫓아다닌다는 소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심이 많은 계집이로군. 아무리 난세라고는 해도 타 문파의 제자를 영입하려 하다니.”

“진명이 속가 제자였으니까요.”

“속가 제자이며 신출내기 주제에 내가 들었을 정도로 명성을 쌓았다?”

도상운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군.”

“흐음. 확실히 오늘 일은 내가 좀 성급했던 것 같군.”

“맡겨 주신다면 제가 확실히 뒤끝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됐어. 어차피 아직은 애송이일 뿐이야. 애송이 하나의 기분까지 맞춰줄 정도로 우린 한가하지 않아.”

“알겠습니다.”

도상운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벽소군의 말을 따랐다.

벽소군이 물었다.

# 武極 - Story Book

“낙양성의 지국은 언제 완성되지?”

“낙양성 인근에서까지 숨씨 좋은 장인들을 끌어 모았으니 일, 이주 내로 완공될 것입니다.”

“일주일 내로 당기도록 해.”

“알겠습니다.”

“다음은?”

“폐하성입니다. 혈무련과는 이미 얘기가 끝났습니다. 지국이 들어설 장소도 모두 그쪽에서 준비해두었다고 합니다.”

“가자.”

“모시겠습니다, 주군.”

도상윤이 과도할 정도로 고개를 굽힌 사이 시비들이 휘장을 닫았다.

“기다려요, 진 소협.”

문주희가 진명을 불러 세웠다.

“정말 이대로 가도 되겠어요?”

진명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군요.”

문주희가 체념한 투로 말했다.

“청성에서 진 소협께 투자를 하도록 하겠어요. 만족할 만큼은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진명이 고개를 저었다.

임완춘이 진명의 허리를 쿡 찔렀지만 진명은 완고했다.

“청성에서 절 도와주실 만한 여유가 있었다면 문 소저께서 진작에 도와주셨을 겁니다.”

청성도 재정적으로 부유한 편이 아닌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도울 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문주희가 먼저 나서지 않은 건 진명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임형, 문 소저. 오늘 와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제 몫이니 두 분께서는 심려치 말아 주십시오.”

진명이 작별 인사를 했다.

문주희는 어쩐지 진명을 놓아주고 싶지 않았다. 품 안에 안고 진명이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보살펴주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아무리 대담한 문주희라도 차마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북풍표국의 벽 장주를 만났을 때처럼 뒷모습을 보이며 사라져가는 진명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다. 하염없이 진명을 바라보던 문주희의 입에서 열은 한숨이 흘러 나왔다.

‘나 때문이야. 내가 괜히 진 소협과 함께 가겠다고 때를 쓰지 않았다면 일이 잘 풀렸을지도 몰라.’

문주희는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했다. 이런 감정은 그녀로서는 처음이었다.

중간에 낀 임완춘만이 멀뚱한 눈으로 문주희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다.

진명은 잔뜩 풀이 죽어 있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범여 대사님 말씀이 맞았어. 남들이 조금 추어주었다고 해서 나 같은 놈이 이런 큰 일을 해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자조 석인 쓴 웃음이 절로 흘러나왔다.

어쩌면 진명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명은 그저 소림사의 수많은 속가 제자들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림의 절기를 전수한 유망주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뒷배경이 든든한 가문의 자손도 아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지켜볼 정도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일 밖에는 없었다.

하지만 그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 武極 - Story Book

“하아. 나는 어찌해야 하지?”

걱정을 한 가득 가슴에 담고 정처 없이 걷던 진명이 도착한 곳은 결국 범여의 처소였다.

범여는 마치 진명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처소의 앞에 서 있었다.

“번뇌하는 얼굴이로구나.”

“아, 제자 진명이 인사 드립니다.”

진명이 그제야 범여를 발견하고 허둥대며 인사했다.

범여는 담담한 얼굴로 진명을 가만히 보았다. 진명은 자신의 악한 마음이 들킬까 고개를 수그렸다.

범여는 확 인상을 쓰며 언짢은 목소리로 물었다.

“뭐 하느냐?”

“예?”

뜬금없는 질문에 진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범여를 쳐다 보았다.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제자는.....”

진명은 범여의 의도를 알지 못해 머뭇거렸다.

범여가 혀를 찼다.

“쫓. 네가 제정신이 아닌 게로구나. 무공교두인 날 찾아왔으면 무공에 관해 물어볼 게 있다거나, 그간 수련한 것을 봐달라거나, 그런 일로 찾아온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으니 뭘 하느냐고 묻는 게지.”

“아!”

진명은 쑥스러워졌다. 지레 범여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질타하는 것으로 오해했으니 말이다.

“철우(鐵牛)라고 아느냐?”

“철우.....말씀이십니까? 철우라면 쇠로 만든 소가 아닙니까.”

“그래. 네가 배운 나한권의 초식 중에 철우경지(鐵牛耕地)라는 초식이 있던 것은 기억이나 하느냐?”

나한권 나한권 하3초에 해당하는 초식이다. 최근 수련을 별로 하지 못했지만 하루에 수백, 수천 번 나한권에 매진했던 진명이 그런 것을 잊을 리 없었다.

“물론입니다. 제자가 어찌 사문의 무공을 잊겠습니까.”

“해 보라.”

“예.”

마음의 준비는 덜 되어 있었지만, 몸은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다. 진명은 기수식을 취하고 곧바로 나한권 3초식의 철우경지를 시전했다.

쿵, 쿵.

내딛는 한 걸음이 묵직하고 뻗는 손이 날렵하며 강맹하다.

범여의 눈이 이채를 발한다.

‘녀석. 확실히 예전의 그 진명이 아니로구나.’

얼마 지나지 않은 사이, 진명은 많이도 변했다. 자질은 뛰어나지 않으나 지독할 정도로 수련에 매진해 남들과의 격차를 줄여갔다. 강한 고수들과 생사를 걸고 싸워 살아남으며 놀랄 만큼 부쩍 성장했다.

‘하지만.....’

범여가 눈살을 찌푸렸다.

범여는 진명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음을 알았다. 실력은 늘었으나 갑작스런 명성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했다.

“그만!”

범여가 일갈했다. 진명이 움찔하여 초식의 시전을 멈추었다.

“방금 네 녀석이 철우가 쇠로 만든 소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이제 보니 네 철우는 쇠로 만든 소가 아니라 쪽정리로 만든 소인가 보구나.”

진명은 뿔루통한 표정을 지었다. 철우경지는 그리 어렵지 않은 초식이다. 굳이 흙을 잡을래야 잡을 것도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그런데 왜 범여는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

범여는 보기 싫다는 듯 찌푸린 얼굴로 말했다. “타 문파에도 철우경지라는 동명의 초식은 많이 있다.

## 武極 - Story Book



창술에서는 철우경지세(鐵牛耕地勢)라 하여 신중한 전진을 의미하고, 무당에서는 팔의 근력을 키우는 기본공을 철우경지라 한다. 그렇다면 네게 묻겠다. 소림에서의 철우경지란 무엇이더냐?”

진명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했지, 간단한 동작인 철우경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범여는 진명을 한 번 흘겨보고는 말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나와 각원은 철우경지를 이렇게 생각했다. 쇠로 만든 소라면 비가 오든 광풍이 불든 날씨의 궂음에는 상관없이 밭을 갈 수 있다고 말이다. 평지풍파가(平地風波)가 닥쳐와도 철우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밭을 간다고 말이다. 이 초식은 그렇게 단단하고 끈기 있게 이어져야 하는 법이라고 말이다.”

“아!”

그 순간 진명은 감탄을 토해냈다.

범여의 말을 듣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다. 답답한 마음이 풀리고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해졌다.

범여는 지금 진명 자신을 두고 ‘철우가 되어라’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 武極 - Story Book

## 2.1.7. 제 43 화 [철우경지]

“제자! 철우가 되겠습니다! 철우가 되어 묵묵히 발을 갈겠습니다!”

진명은 신이 나 큰 소리로 외쳤다. 예전이라면 범여 앞에서 그런 행동이나 말은 할 수도 없었을 터였다.

범여가 찢찢 하고 혀를 찼다.

“이놈아! 알았으면 어서 해 봐.”

“예!”

진명은 우렁차게 대답을 하고 다시 기수식으로 돌아갔다. 들뜬 마음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해 한동안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범여는 진명이 땀을 들이는 것을 보면서도 기다려주었다. 초식 시전에 앞서 흥분을 가라 앉히는 것은 현명한 태도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도를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범여가,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각원이 원하는 바였다.

진명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서야 천천히 철우경지를 시작했다. 느리다.

빠르고 강맹한 기세는 느껴지지 않았다.

구- 웅.

힘주어 디딘 진각에서도 그러한 기세보다는 오히려 더 육중한 세가 느껴졌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난관과 역경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용이라 했던가.

진명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해서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 보였다. 진명은 무아지경에서 발을 가는 철우를 보고 달려갔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박이 떨어져도 거칠 것이 없었다.

진명의 모습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

가만히 진명을 지켜보던 범여는 가슴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남들이 설 대도 끊임없이 정진하던 각원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까닭만은 아닐 것이다.

단 한마디의 조언으로 진명이 철우경지의 극의를 깨달았기 때문만도 아닐 것이다. 진명은 하나를 알려주면 셋을 깨닫는 천재가 결코 아니었다.

단지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실하게 철우경지를 원하고 있었기에, 그 길을 찾고 있었기에 쉽게 이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여는 진명에게서 소림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그래. 이 녀석이다. 이 녀석이 소림에 있는 한, 소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상상도 못할 시련이 다가온대도 진명은 철우처럼 꾸준히 한발한발 앞으로 나아갈 테니까.

어느새.

진명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어려 있었다.

다음날.

“아우, 아우. 이것 좀 걸쳐 봐.”

임완춘은 오늘따라 유난히 이른 시각부터 진명의 처소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진명이 방을 나서자마자 환한 얼굴로 그가 내민 것은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싸구려는 아닌, 깔끔한 느낌의 새 옷이었다.

“이게 뭡니까?”

임완춘이 얼굴 가득 뿌듯한 미소를 띠었다.

“뭇긴 뭇야. 이 의형이 준비한 선물이지. 오늘은 아우가 자랑스러운 낙양성 지부의 등봉 분타주로서 처음 출사하는 날이 아닌가!”

진명이 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 武極 - Story Book

“출사라니요.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아, 됐어 됐어. 일단 이거나 우선 걸쳐보게. 잘 어울리는지 정도는 나도 봐야 할거 아닌가. 어이구, 아우가 뭐 아주 흰칠한 인물은 아니다만 그래도 새 옷을 입으니 날개를 단 것 같구만. 이제야 분타주 다운 모습이 되었네, 그러. 이게 얼마나 비싼 옷인지 아는가? 구하기도 힘든 천을 내 밤새 달려가 사정사정해 얻어온 거라네.”

임완춘은 수선스럽게도 진명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진명이 다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그러나 진명은 임완춘에게 핀잔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다. 그 역시 자신처럼 별 볼일 없는 속가 출신으로, 단심맹에 빌붙어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진명에게 이 옷 한 벌이 의미하는 바는 컸다.

어떻게 보면 진명이 지금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임완춘밖에 없었다. 문주희나 일령은 의지하기 어렵고 범여 역시 마찬가지다.

허물없이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이는 임완춘 뿐이다.

“어떻게 이런 선물을..... 임 형이 넉넉한 형편인 것도 아닌데요. 뜻은 정말로 감사하지만 저는 이 옷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명이 억지로 걸쳐진 옷을 벗으려 하자 임완춘이 화들짝 놀라 손을 내저었다.

“그 무슨 말인가, 아우! 이건 그리 비싼 것도 아닐세. 원, 아우가 이리 정색을 하니 내가 농담을 할 수가 있나. 자자, 어서 다시 입게나!”

그러나 진명은 이미 마음을 굳힌 모양이다.

“아니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 형이 어떤 형편인줄은 제가 뻔히 아는데..... 염치 없게 저 혼자 새 옷을 납죽 받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임 형이 입으십시오.”

“아니, 새로 분타주가 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우일세! 이 사람, 그럼 분타주가 되어 가지고서는 그 물골로 다니려고?”

“새 옷을 입는다고 제가 하루 아침에 그 옷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저는 새 옷이 필요 없습니다.”

진명이 단호하게 나오자 임완춘이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그는 도리어 왈칵 화를 내어버렸다.

“아우!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진짜 너무하는군! 아우에게는 이 우형이 그리도 못나 보이던가? 그래서 내가 해주는 옷 한 벌, 이 옷 한 벌 받지 못하겠다는 거야?”

“임 형, 제 뜻은 그렇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지금 아우는 그런 식으로 날 무시하고 있는 걸세! 이 임완춘, 비록 살아온 세월은 짧으나 사람을 보는 안목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신했네만 이제 보니 그게 다 헛된 것이었군 그래. 겸양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우가 이리 사람을 무시하다니! 에잇, 이까짓 옷! 아우가 필요없다면 이까짓 것!”

임완춘은 진명이 벗어나서 건네준 새 옷의 양 팔을 움켜잡고는 그것을 찢으려 했다. 놀란 진명이 황급히 임완춘을 말렸다.

“임 형! 그러지 마십시오!”

“에잇! 말리지 말게! 아우가 싫다면 당장 눈 앞에서 치워버려야지!”

“그, 그만하십시오! 제가 입겠습니다!”

임완춘이 일순 동작을 멈추고 힐끗 결눈질을 던졌다.

“진짜? 그 말 진짜지?”

“예! 제가 생각이 모자라 임 형의 마음을 상하게 한 모양입니다. 다시 생각하니 그 옷이 꼭 필요할 것 같군요. 정말로 감사히 입겠습니다.”

임완춘이 눈을 흘리며 진명에게 다시 옷을 건네주었다. 그도 애써 마련한 새 옷을 찢어버릴 마음은 없던 모양인지 옷은 말짱했다.

사실 진명에게 새 옷을 사준 것은 그가 아니었다. 범여였다.

다만 성격상 자신이 직접 입혀주지는 못하고 임완춘을 대신 내세운 것이다. 범여야말로 명색이 스님이니 큰 돈이 있을 리 없다. 그로서는 상당히 무리를 한 셈이다.

어쨌든 임완춘이야 돈 한 톨 들이지 않고 생색을 낼 수 있으니 기꺼이 나설

# 武極 - Story Book

만 했다.

범여가 이미 오래 전에 자신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 지금에 와서는 그 어떤 제자보다 더욱 아끼고 있다는 것을 진명이 좀처럼 알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진작 그럴 것이지. 괜히 사람 진 빼게..... 그나저나 아우.”

“예?”

“어제 말야. 북풍표국의 장주 앞에서는 정말 나도 속이 다 시원했어.”

“저야 응당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에이, 그래도 보통 사람이 그런다는 게 쉽나? 아무튼 간에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구나. 싶더라고. 나중에 내가 문 소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아우님이 딱 나서줄 거 아냐.”

“임 형께서야 혼자서도 잘 알아서 하실 게 아닙니까.”

“뭐..... 그야 그렇지.”

임완춘은 진명의 어깨를 툭 쳤다.

“자, 그럼 어서 출근하시게.”

“고맙습니다.”

진명은 새 옷을 이리저리 매만져보다가 흐뭇한 얼굴로 등봉 분타를 향해 나섰다.

임완춘은 떠나간 진명을 보며 입맛을 쥔 다셨다.

“원래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나도 화산에 매인 몸이라. 예휴, 미안하네. 아우.”

진명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등봉 분타를 향하고 있었다.

어제 범여에게서 큰 가르침을 얻고 난 후, 진명은 자신이 너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돈을 구할 수 없다면 스스로 만들면 되고, 지킬 사람이 없다면 자신이 지키면 된다.

힘이야 들 테지만, 그렇게 꾸준히 자신이 할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잠시 후, 등봉 분타에 도착한 진명은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았다.

“.....”

진명은 입술을 깨물었다.

“새 옷이..... 필요 없게 되었구나.”

저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새어 나왔다. 먼지 한 점 묻어있지 않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과분한 새 옷을 받아 입은 스스로가 무안해질 정도로 등봉 분타는 형편 없었다.

낙양성에 입성하며 마교와 혈전을 치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당시 벌어졌던 참혹함이 뼈대를 드러낸 채 텅 비어 있다.

분타 주변의 밭들은 황폐해져서 잡초투성이가 되었고, 분타 주위의 민가들 역시 불에 타거나 무너져 있어 을씨년스러웠다. 한 귀통이가 허물어진 지붕,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로운 대들보와 담장.

등봉 지역의 수비 근거지인 분타 건물 자체도 다른 건물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피로 얼룩지고 부러진 목책과 다 쓰러진 초소, 움막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듯 했다.

어디 그뿐인가?

숨통을 죄어오는 역한 비린내가 사방에서 풍겨왔다.

피와 살점이 썩는 냄새였다.

그나마 시체는 미리 거두어 장례를 치른 덕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 미처 수거하지 못해 여기저기 떨어져 있던 장기와 팔다리는 아마도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으리라.

까악. 까악.

진명의 생각이 옳다고 수궁이라도 하듯 머리 위에서 까마귀가 맴돈다.

진명은 쓴 웃음을 지었다.

## 武極 - Story Book

“난 네놈들의 먹이가 아니다.”

이제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낙양성 내부에 비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까마귀가 맴도는 분타는 폐허에 다름 아니었다.

이 일대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며 지주인 등봉 세가는 아직 이곳을 정비할 정도의 여력이 없는 것 같았다. 적어도 진명은 그렇게 생각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다니.....”

비옥한 토지가 있고 밭이 있는데 정작 밭을 일구는 사람이 없으니, 분타 주위는 영 쓸모 없는 땅이었다.

진명이 한 바퀴 시선을 돌리자 지저분한 물골의 들 고양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입에 통통한 쥐 한 마리를 물고 태연히 걸어가는 모습이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듯 했다. 이곳의 터줏대감은 사람이 아니라 녀석인 모양이다.

완벽하게 버려지고 완벽하게 방치된 곳.

이곳이 앞으로 진명이 분타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하는 곳이었다.

잠시 서서 복잡한 표정을 짓던 진명은 갑자기 상의를 벗었다. 새 상의를 곱게 개켜 한 구석에 잘 치워둔 진명은 탄탄히 단련된 상체를 드러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타주가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구나. 게으름을 부리면 안 된다는 뜻이겠지.”

진명의 입에서 흘러나온 덩덤한 어투는 오히려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듯 했다.

잠시 후 양 소매를 걷어 부친 진명은 일단 청소를 시작했다. 우선 널브러져 있는 헨 옷들을 주워 켜켜이 움아 매었다. 피가 말라붙어 있어 징그럽기도 했지만, 쓸만한 바구니가 만들어졌다.

진명은 그런 바구니를 몇 개 만들어 놓고 버려야 할 것들을 주워 넣었다. 특히나 무기 조각들을 잘 처리해야 했다. 부러지고 깨졌다고는 해도 쓸만한 병장기는 모두 수거해간 터였지만 군데군데 날카로운 조각들이 남아 있어 위험했다. 어수스럽게 깨진 칼날이라던가 부러진 활촉 등이 지천에 흩어져 있어,

아무데나 엉덩이를 깔고 앉았다가는 곤혹을 치르게 될 것이다.

진명은 꼼꼼하게도 분타 주위를 돌며 그런 것들을 주웠다.

꽤 시간이 걸렸지만, 한 마디의 불평불만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열중했다.

분타를 한 바퀴 돌고 나니 어느새 태양이 중천에 떠 있었다. 거의 반나절을 혼자서 청소에 투자한 것이다.

“끄응.”

계속 허리를 굽히고 있었더니 허리를 펴는데 우뚝 소리가 났다.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로구나.”

상체에는 어느새 땀이 번들거리고 이마에도 땀이 흘렀다. 시간 가는 줄도 몰라 분타를 다 돌고 나서야 한참 전부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음을 알았다.

“휴우.”

진명은 땀을 닦으며 바구니를 한 구석에 모아놓고 목책 아래의 그늘에 가 앉았다.

아침에 미리 준비해 놓았던 만두 두 개가 점심이다. 물도 없이 꾸역꾸역 천천히 만두를 씹어 먹었다. 날이 따듯해서인지 만두에서 원내가 살살 풍겼다.

만두를 다 먹고 난 진명은 분타를 다시 한 번 획 둘러 보았다. 바구니로 여섯 이상을 치웠는데 아직 분타는 지저분하고 황폐했다.

“언제나 쓸만해 지려나.”

진명은 자신의 뺨을 때리며 의지를 다졌다.

짜짜!

“자! 철우다! 철우가 되는 거다, 진명아!”

진명은 돌아다니다가 수선이 불가능해 보이는 민가와 움막을 때려 부셨다. 언제 무너질 지 몰라 위험하게 내버려 두느니, 아예 부셔서 그 자재를 이용해 다른 건물을 수선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철우경지!”

진명의 발길질에 반쯤 부러져 있던 대들보가 무던히 부서져나갔다.

## 武極 - Story Book

“선인공수!”

주먹 한 방에 기우뚱거리던 움막이 아예 옆으로 누워 버렸다.

진명이 진각을 밟을 때마다 다 무너져가던 건물들이 화들짝 놀라 몸을 떨어댔다. 진명은 내친 김에 부러진 목책도 아예 뜯어 버렸다.

“내일은 도끼와 망치, 톱을 가져와야겠군.”

진명은 어쩐지 신이 났다. 아무도 돕는 이 없이 혼자 일을 한다고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았다.

보이는 대로 때려 부수다 보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하하하!”

광. 쿠직.

생각보다 부수는 건 재미난 일이었다.

한편, 멀리서 진명의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도 있었다.

“저런 미친놈. 왜 다 때려 부수고 지랄이야?”

이원조였다.

평일지의 명령에 의해 틈나는 대로 진명의 밀착 감시를 하고 있던 이원조는 진명이 분타를 때려 부수는 걸 보고 오해했다.

“저 놈이 하다 하다 안되니까 이젠 아주 발광을 하는구나. 그래. 아예 다 때려 부숴라. 때려 부숴.”

하루 종일 진명이 뭔가를 좁는 걸 보다가 지루해진 이원조는 잠이 들었었다. 그러다가 쿵쿵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진명이 광소를 터뜨리며 건물을 때려 부수고 있었던 것이다.

주먹과 발길질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순식간에 몇 채의 건물이 돌 조각, 나뭇조각으로 변해 버렸다.

“미친 놈.”

이원조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흠칫 떨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물론, 평일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 武極 - Story Book

## 2.1.8. 제 44 화 [녹림]

쿵. 쿵. 진명은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냈다. 나무를 베는 건 익숙한 일인데다 무공이 늘면서 힘도 좋아졌다.

우지직. 아릅드리 나무도 어렵지 않게 넘어뜨릴 수 있었다.

진명은 쓰러뜨린 나무의 가지를 쳐내고 준비해 온 밧줄로 나무를 묶었다. 키를 훌쩍 넘는 커다란 나무를 질질 끌고 가는 건 힘든 일이었지만, 수련이라 생각하면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아직 제 모습을 되찾지 못한 분타에는 진명이 베어 온 커다란 나무들이 십여 그루나 쌓여 있었다.

“휴우. 일단 이 정도만 할까?”

진명은 숨을 돌리자마자 작은 손도끼를 들고 지게를 졌다. 어제 나한권으로 무너뜨린 민가와 움막을 향해 휘적휘적 걸어갔다. 지게를 내려두고 쓸 수 있는 자재를 손도끼로 떼어내 지게 위에 얹었다.

민가까지 진명이 다 세울 수는 없었다. 하다못해 분타라도 재정비를 해둘 생각이었다. 분타가 일추 제 모습을 되찾고 나면, 사람들이 들어와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럼 차차 사람들이 늘어나고 분타가 활기를 띠게 될 거라는 게 진명의 예상이었다.

콿, 콿. 널빤지와 돌을 떼어내는 진명의 손놀림은 바뻐다.

“어이, 진 아우!”

익숙하고도 반가운 목소리에 진명이 손을 멈췄다.

임완춘이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다.

“임 형. 바쁘실 텐데 여긴 어떤 일이십니까.”

“나야 뭐 바쁠 게 있나.”

임완춘은 손을 흔들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말을 바꿨다.

“아니, 사실은 좀 바쁘는데 그래도 아우님 얼굴을 한 번 보고 싶어서 말야.”

“하하. 잘 오셨습니다.”

진명의 얼굴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임완춘은 허리춤에서 호리병 하나를 내밀었다.

“자, 더울 텐데 목이라도 축이라고.”

“고맙습니다.”

“고맙긴, 술 한 병에 무슨 고맙기까지야. 그래도 아우 생각해주는 건 이 형밖에 없지?”

“하하. 정말 임 형 밖에 없습니다.”

갈증이 나던 차라 진명은 임완춘이 건넨 호리병의 마개를 열고 꿀꺽꿀꺽 술을 들이켰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찜찜한 느낌에 갈증이 확 풀린다.

“카아. 정말 좋군요.”

“당연하지. 원래 땀 흘리면서 먹는 술 맛이 최고야. 그나저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은 모양이지?”

“멀었죠.”

“예전에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임완춘이 눈을 크게 뜨고 콧방귀를 끼었다.

“아우의 일을 늘리려고 누가 못된 짓을 한 거 아냐? 왜 죄다 부서져 있어?”

“하하. 그건 제가 부순 겁니다. 분타를 수선하는 자재로 쓰려고요.”

“그, 그래?”

임완춘은 놀란 표정으로 분타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러고 보니 멀쩡한 건물만 남아 있고 다른 건물들은 죄다 주저앉아 있다.

“이거 원, 아우님의 무공이 나날이 일취월장 하는 구만. 맨 손으로 집을 때려부술 정도라니.”

“다 부서져가던 겁니다.”



## 武極 - Story Book

진명은 겸연쩍어 얼굴을 굽적거렸다. 부수다 보니 흥이 나 내버려두어도 좋을 것들까지 때려 부순 건 말하기 부끄러웠다.

“쩍.”

임완춘은 입맛을 다시더니 다시 인상을 썼다. 분타 주위에 있는 건물 중 하나에 ‘등봉 세가’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 것을 본 까닭이다.

“등봉세가 놈들도 참 이상하단 말야.”

“예? 뭐가 말입니까?”

“이번에 단심맹에 큰 자금을 출자하면서 낙양성의 상권을 접수했다 하더라고. 다른 세가들은 등봉세가의 눈치를 보며 뇌물을 바치랴, 아부를 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다던데.”

“그래요?”

진명은 그게 지금 이곳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얼굴로 물었다.

“아, 답답하긴. 여기가 무슨 분타인가? 등봉 분타잖은가. 등봉 세가의 땅이란 말이지. 어떻게 보면 등봉 세가의 본거지 같은 곳일세.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땅이 황폐해지도록 내버려둔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나?”

“흠. 듣고 보니 그렇군요.”

“낙양성 지부에 그리 큰 돈을 출자해서 다른 분타들은 정비해놓고 여긴 왜 내버려 뒀? 평일지가 분타를 정비하겠다고 하면 자신들의 터전이 있는 여기부터 해달라 요구해야지.”

말을 하지 않아도 둘 다 누구 때문인지 알 수 있었다.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하기로 한 일,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진 아우란 사람은 정말.....”

그때 멀리서 어린 소년들이 기웃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소년들은 세 명인데 모두 십대 초반 정도로 어려 보였다.

임완춘이 손을 휘휘 내저었다.

“어이어이, 여긴 꼬마들이 올 데가 아냐. 엄마한테 혼나기 전에 얼른 집이나 가라, 양? 그러다가 무서운 산적들에게 잡혀가도 모른다.”

지척까지 다가온 소년들은 손에 칼과 봉을 들고 있었다.

“얼씨구? 애들아. 그런 거 들고 장난치다가 다쳐.”

임완춘이 피식 웃으며 말하자, 그 중 덩치가 가장 커 보이는 소년이 칼을 휘두르며 나섰다.

“네 놈들은 뭐냐!”

“네 놈들?”

임완춘이 소매를 걷어 붙였다.

“아니, 이 꼬마놈들이 지금 누구에게 놈이라는 거야?”

소년들이 주춤거리며 물러섰다.

“우, 우린 이곳 땅의 주인이다! 네 놈들이야말로 남의 땅에서 뭘 하는 거냐!”

“땅의 주인?”

진명이 임완춘을 말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등봉 세가의 아이들이구나.”

“그, 그렇다. 알았으면 어서 우리 세가의 땅에서 나가!”

임완춘이 참다 못해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놈들아! 누가 누구더러 나가라는 거야! 여기 있는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

“누, 누군데?”

“얼마 전에 새로 이곳 등봉 분타에 부임한 진명 분타주시다.”

소년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서로 마주보았다.

“그럼 단심맹의?”

“어허, 꼬마 놈들이 말이 짧구나.”

세 소년은 저마다 한숨을 쉬더니 눈을 반짝 빛내며 다가왔다.

“정말 진 대협이십니까?”

진명이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대협이라니. 난 그냥 진명이라고 한다.”

세 소년이 동시에 ‘우와앗!’ 하고 함성을 질렀다.

“소림사의 속가 제자인 진명 맞죠?”

## 武極 - Story Book

“나한권 단 일초식으로 장안성에서 흑도군의 야차를 때려눕혔다는.....”

“와아. 실제로 보니 우리하고 몇 살 차이나 보이지도 않아.”

임완춘이 진명을 질투하는 눈길로 바라보며 팔꿈치로 툭 쳤다.

“진 아우는 미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좋구먼. 좋겠어?”

“하하.....”

진명이 어색한 표정으로 웃었다.

한 소년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데 다른 무사들은요?”

진명이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직은 나 혼자 뿐이란다.”

세 소년의 얼굴은 금세 실망으로 얼룩졌다.

“뭐야. 역시나 그럴잖아.”

“단심맹도 겁쟁이뿐이었어.”

“혼자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임완춘이 황당한 표정으로 애들을 몰아내는 흥내를 내며 말했다.

“자자, 애들아. 알았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 여긴 위험한 곳이야.”

소년들이 지지 않고 대꾸했다.

“저희도 위험한 건 알아요.”

“아는 놈들이 왜 여기 있어? 까딱하면 산적에게 잡혀간다니까?”

소년들이 이구동성처럼 대답했다.

“우린 우리 세가를 지키기 위해 산적들을 잡으러 왔어요.”

제법 가슴까지 펴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우습게 만든 볼 수 없었다.

임완춘이 혀를 차며 말했다.

“그건 어른들이 할 일이니까, 너희는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먹고 빨리빨리 커서 어른이나 되어라. 알겠냐?”

“흥! 겁쟁이 어른들하고 우릴 비교하지 말아요. 세가의 어른들은 산적이 나올까봐 우리 땅에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한다니까요?”

“맞아. 위험하다고 우릴 말리거나 하고.”

소년들이 무기를 흔들며 외쳤다.

“우린 산적 따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임완춘은 이마를 탁 쳤다.

“어쿠야. 여기 소년 영웅들 납셨네.”

임완춘은 눈을 부라리며 소년들의 머리에 한대씩 꿀밤을 먹였다. 날이 선 무기를 들고 있긴 했지만 무공을 배운 아이들이 아니었다. 아무리 삼류라 해도 수많은 전장터를 전전해 온 임완춘에게는 아이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그리 위협적이지 못했다.

딱 딱 딱.

정확히 세 번의 꿀밤소리와 함께 소년들이 눈물을 찔끔거렸다.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소년들이 뭐라고 항변하려 하자, 임완춘이 주먹을 치켜들었다.

“안 가면 이번엔 열 대씩 때린다?”

소년들은 눈물을 닦으며 주춤거리고 물러났다. 임완춘을 평생의 대적처럼 노려보더니 임완춘이 쫓아가는 시늉을 하자 몸을 확 돌려 달아났다.

“거 참. 아이들도 해야 할 일을 아는데 정작 어른들이 모르는 꼴이구만.”

임완춘이나 진명이나 입맛이 썩다.

“난 이제 슬슬 가봐야겠네.”

“예. 들어가 보십시오. 덕분에 술도 잘 마시고 적적함도 덜었습니다.”

“아직은 혼자니까 밤에는 성내로 돌아와 쉬어. 요즘 산적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난 가네~.”

임완춘은 곧 성내로 돌아갔다. 진명은 크게 팔을 펴 기지개를 키고는 다시 작업에 들어갔다.

“그럼, 시작해볼까?”

## 武極 - Story Book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땅거미가 내려앉았다. 하루 종일 나무를 패고 지계를 진 진명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제야 진명은 손에 든 도끼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다.

“휴우.”

슬슬 하늘에 별이 보이고 있었다.

“어찌지?”

일에 열중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피곤하기도 피곤하거니와 무엇보다 지금 돌아가봤자 성문은 굳게 닫혀 있을 터였다.

“할 수 없지. 어차피 내일도 와서 일을 해야 하니, 오늘은 이곳에서 잠을 청해 볼까나. 모처럼 별도 볼 겸.”

피로가 가득 쌓인 근육을 풀며 진명은 잠자리를 찾았다. 목재를 쌓아둔 더미 위에 평평하게 헨 옷과 풀을 깔고 누우니 밤 하늘이 환하게 한 눈에 들어왔다. 깨알처럼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었다.

“가끔은..... 이런 것도 좋네. 일령 아우가 함께 있었다면.....”

일령이라면 저 하늘을 보고 뭔가 멋지고 운치 있는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진명은 머리 뒤에 양 팔을 끼고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찢 하고 실소를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 원수진 것도 아닌데 일 아우와 내가 이럴 필요가 없잖아. 대충 분타를 정리하고 나면 아우를 한 번 찾아가 봐야겠어.”

노곤해진 몸은 쉽게 잠을 불러왔다.

진명은 굳이 수마(睡魔)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수마를 받아들였다.

쿵쿵.

“으음.....”

저벅저벅.

진명은 눈을 번쩍 떴다.

‘무슨 소리지?’

가만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들어보니 발자국 소리다.

아직 사위가 시커먼 한 밤중이었다.

‘이 시간에 누가 분타에.....’

진명은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한 명이 아닌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다.

진명은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다. 가만히 있었다가는 금세 눈에 뿔 것 같아 몰래 그늘진 구석으로 이동해 몸을 숨겼다. 한쪽으로 몰아서 쌓아둔 바구니와 잡동사니 뒤에 숨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자국 소리의 주인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칼칼한 목소리가 말했다.

“에이, 빌어먹을. 쥐새끼처럼 밤에 숨어드는 꼴이라니.”

“그러게 말이야. 하여간 정파 놈들이 더 지독하다니까. 차라리 마교가 진 치고 있을 때가 더 나았지.”

“이젠 낙양에 드나드는 짓도 못 해먹게 생겼으니 이번에 확실히 한 탕 굶어와야겠군.”

“그나마 멍청한 놈들이 우리 먹고는 살라고 등봉 분타를 텅 비워놨잖냐.”

“낄낄. 그건 그래.”

진명은 숨을 죽이고 낮선 이들을 살폈다. 말하는 모양새나 내용으로 봐서 이 자들은 마교로 인해 중원 무림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산적인 듯 했다. 그간 낙양성이 치안 부재의 혼란한 상황임을 빌어 근방에서 강도질을 해온 모양이었다. 그러던 것이 단심맹이 낙양성을 접수하고, 각 분타를 정비해 백도군을 주둔시키니 일순간에 밥줄이 끊겨 그 불만이 잔뜩 쌓인 자들이었다.

‘그간 낙양에 남아있던 아무 힘 없는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겠구나. 마교와 싸우는 것은 무림인들만의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 같은 중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진명은 새삼 자 신이 맡은 분타주의 일이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러는 동안 산적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 武極 - Story Book

## 2.1.9. 제 45 화 [녹림도]

“그래, 백가 말이 맞아. 이번이 아마도 마지막일 테니 제대로 털어야 할거야. 벌써 다른 길들은 분탄지 뭉치가 생겨나 얼씬도 못하게 생겼다고. 그나마 여긴.”

이렇게 말하던 자가 중간에 말을 끊고 분타 안을 한 바퀴 쓰윽 훑어보았다. 그의 마지막 시선이 공교롭게도 진명이 숨은 잡동사니들을 향했지만, 그는 진명의 존재를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다.

“보다시피 아직 뭐 이 모양이란 말이지. 뭐, 성 안에 있는 형가 놈한테 들으니 새로 분타준가 뭔가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췌! 뭐 그 새끼가 대가리에 똥만 차 있지 않은 이상에야 뭐 처먹을게 있다고 여기를 기어들어 오겠어. 뭐 감투도 감투 나름이지 이런데 처박히라고 하면 그게 뭐 어디 감투가.”

진명은 저도 모르게 쓴 웃음을 지었다.

어쩌다 보니 일령을 위한답시고 나서다 등봉 분타에 역이게 되었지만 그게 이 정도의 일일 줄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남들이 보면 자신이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다.

“어쨌거나 여기서 잠시만 있다가 달이 완전히 잠기면 행동 개시하자고. 어디 털지는 대강 봐둔 거 맞지?”

“아, 당연하지. 그럴라고 형가에게 돈 푼씩이나 쥐어주는 게 아닌가. 조금 있다 만나서 알려주기로 했어.”

“좋아. 형가 놈을 만나면 늘 하는 것처럼 셋으로 갈라진다. 하나는 불을 지르고, 하나는 퇴로를 봐두고, 다른 하나는 터는 거야. 실수가 있으면 안되니까 순서를 잘 지켜야 해. 불을 지르는 게 먼저다. 그래서 성 안의 놈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깨끗하게 털어서 달아나는 거야. 불은 가능한 화끈하게 질러야 해.”

얘기를 들어보니 낙양성 내부에 산적들의 조력자도 있는 모양.

그간 낙양성이 대충 어떻게 굴러갔는지를 단박에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카악, 텃! 이제 그만 슬슬 일어나 볼까?”

시간이 됐다 싶자 거하게 가래침을 뱉어낸 산적 하나가 엉덩이를 털며 일어섰다. 그 말에 다른 산적들도 주섬주섬 몸을 일으켰다.

“아, 그런데 아직 주가 놈이 안 왔어.”

“뭐? 주가 놈 방금까지 있더니 어딜 갔어?”

“배가 아프다고 똥누러 갔으니 금방 올 거야.”

“이런 개새끼. 꼭 중요한 때에 똥을 누러 가.”

진명이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하나, 둘..... 아홉, 열. 모두 열 명.’

고작 열 명으로 단심맹이 들어선 낙양성을 털겠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불을 지르고 동요하게 만든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진명이 나선 것은 그때였다.

“미안하지만, 오늘 밤 계획된 것은 전부 취소요.”

“뭐, 뭣?”

“우어, 저거 뭐 하는 놈이야?”

갑작스럽게 어둠 속에서 진명의 목소리가 튀어나오자 산적들은 화들짝 놀랐다. 그러나 진명의 태도가 너무 자연스럽자, 그들은 웬지 한숨을 쉬며 성질을 부렸다.

“야, 이 새까. 놀랬잖아!”

“형가가 보내서 왔냐?”

“왜 계획이 취소란 거야?”

산적들은 진명이 자신들의 패거리가 보낸 것으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진명은 자신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자를 살폈다. 그 자가 이 무리의 대형 노릇을 하는 듯 했다. 그래 봤자 도토리 키 재기에 삼류 이하의

# 武極 - Story Book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한 사람이었다.

진명은 그를 찬찬히 살피며 말을 이었다.

여차해서 이 놈들을 힘으로 제압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경우, 가장 먼저 이 자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신들은 낙양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소.”

“앵? 왜? 안쪽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그렇진 않을 거요. 내가 여기서 당신들을 쫓아내기만 한다면.”

이제야 대충 진명의 말 뜻을 짐작한 산적들이 핵 표정을 바꾸었다. 산적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 보아도 이곳에 있는 건 진명 혼자 뿐이었다.

“너 혼자냐?”

“혼자요.”

진명이 대형으로 점 찍은 자는 누런 이를 드러내며 씨익 웃기까지 했다.

“하, 이것 참. 여기는 쥐새끼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의외로 덩치 큰 개 새끼도 하나 있잖아? 누가 오면 멍멍 짖으라고 갖다 댔나 보지?”

와하하하, 하는 산적들의 웃음소리가 일어났다.

그러나 진명은 동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알지도 못하는 비웃음에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진명이었다.

“당신들 말을 들어보니 이제껏 이 등봉 분타를 대문 삼아 낙양성에 들락거린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행위가 용납되지 않을 거요.”

“카악, 텃! 우리도 바보는 아니라서 말이지. 이제 더는 낙양성에 볼일이 없다는 건 잘 알겠다면 네 놈이 대체 뭐라고 그런 소릴 씨부려 댄냐?”

“내가 바로 등봉 분타주요.”

진명이 바로 이제껏 신나게 씹어대던 문제의 등봉 분타주라는 얘기를 듣자 산적들 사이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하, 이제 보니 그 놈의 등봉 분타주시로구만. 그래, 대가리는 좀

괜찮아지셨나?”

말은 이렇게 해도 그는 진명의 위 아래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등봉 분타주를 맡았다는 것은 그가 곧 단심맹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러니 모르긴 해도 한 가락 하는 무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산적들 사이에 작은 소리가 오갔다.

“그래 봐야 저 놈은 혼자다. 열 손이 한 손을 못 당하겠냐?”

“우리가 한 놈에게 쫓아서 달아난다면 녹림도들 사이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거다. 우린 이 사업 접어야 돼.”

진명은 그 말을 다 들었음에도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답했다.

“나야 내 대가리가 남들 대가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영 아니라고 생각하니 뭐라 대답할지 모르겠군. 직접 확인해 보겠소?”

“.....응?”

진명이 몸을 날렸다.

쿵!

밤하늘의 정적을 찢어발기며 무거운 진각이 울려 퍼졌다.

“우악!”

진각 소리만으로도 일부 산적은 정신을 못 차리고 허둥댔다.

그 순간 퍽! 하는 격타음이 울렸다.

“으헉!”

산적 한 명, 그것도 진명이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점 찍었던 자의 몸이 누가 줄을 감고 돌린 것처럼 팽이같이 회전하며 핑그르르 튀어 올랐다. 어둠을 뚫고 느닷없이 날아온 진명의 주먹은 산적의 몸이 완전히 돌아갈 정도로 강렬했다.

쿠당탕탕.

진명에게 얻어맞은 산적은 한번 널브러지고는 일어나지 못했다. 두 눈은 까뒤집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다.

진명은 어느새 처음 서 있던 곳에서 열 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산적들은 진명이 움직이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 武極 - Story Book

“비, 빌어먹을! 우리 상대가 아니잖아!”

“뭐가 이렇게 세!”

“저 놈이 혼자 나섰으면 뭔가 믿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야지!”

그 와중에도 산적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진명은 덤덤한 어조로 말했다.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마시오.”

“제, 제기랄.”

산적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대로 달아나자니 남들 보기 부끄럽고, 그렇다고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강했다.

진명이 노렸던 것도 그것이다. 아무리 진명이라고 한들 다수와 싸우게 되면 눈먼 칼에 맞을 수도 있다. 해서 대장 격인 이를 순식간에 제압해 기세를 누른 것이다.

“하, 할 수 없지. 튀..... 튀.....”

그때.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려 오더니 산적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와하하! 동작 그만!”

산적들이 그를 보고는 반색했다.

“똥 누러 간 주가 놈이구나!”

“야, 이 새끼! 똥 누는 데 왜 이리 오래 걸려!”

주가라는 산적은 갑자기 획 하고 손에 든 밧줄을 끌어 당겼다. 밧줄에는 줄줄이 어린 아이들이 매어 있었는데, 주가 산적이 줄을 당기자 아이들도 함께 끌려왔다.

“아, 미안. 똥 누는 데 이 어린 개새끼들이 이 형님에게 칼을 들이대잖아. 쓰벌, 하마터면 바지에 똥 묻을 뻔 했어.”

진명이 산적이 들고 있는 밧줄에 묶인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앗! 너희들은!”

낮에 보았던 등봉 세가의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몇 대씩 얻어 맞았는지

얼굴이 부어 있고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했다. 그저 신음소리만을 흘리며 어눌한 어투로 ‘우릴 죽여라!’ 라고 자그만 소리로 외치고 있을 따름이었다.

“음.”

진명이 침음성을 흘렸다. 왜 이 시간에 등봉 세가의 아이들이 이곳에 있었는지는 안 봐도 뻔했다.

산적들은 진명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한시름을 덜었다.

“아는 사이인 모양인데?”

“클클. 어린 애들의 고기가 야들 하니 맛있다던데, 한번 포라도 떠 볼까?”

진명이 할 수 없이 말했다.

“아이들을 놓아줘라.”

산적들이 진명을 비웃었다.

“에이, 모처럼 잡았는데 그러면 쓰나.”

“정 애들을 살리고 싶으면 네가 대신 밧줄에 묶이던지.”

진명의 눈썹이 꿈틀했다.

“어이어이, 움직이지 마. 조금만 움직였다간 이 애들의 얼굴 껍질이 포가 될 거야. 내 칼에는 자비가 없으시거덩?”

산적들은 등봉 세가의 아이들 셋의 목에 가까이 칼을 대는 한 편, 다른 무리 셋이 밧줄을 꼬나 들고 진명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등봉 세가의 아이들이 울먹이며 말했다.

“진 대협..... 우린 신경 쓰지 마시고.....”

“산적들을 다..... 죽여버려요.”

“엉엉.....”

진명은 이를 악물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어렵게 꼬여 버렸다. 산적들을 제압하자니 아이들이 위험하고, 그렇다고 밧줄에 묶였다가는 자신은 물론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보장할 수가 없었다.

‘어쩌지?’

## 武極 - Story Book

등봉 세가의 아이들이 울먹이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온다.

“엉엉.....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칼을 든 산적이 한 소년의 머리를 칼등으로 후려쳤다.

딱!

“아악!”

핏물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피를 본 소년이 이를 악물고 꺾꺾 대며 울음을 삼켰다.

“조용히 해, 이 새끼. 쪼그만 놈들이 어디 어른들께 덤벼 덤비길.”

그 모습을 본 진명은 결심할 수 밖에 없었다.

산적 한 명이 가까이 다가와 울가미를 진명에게 씌우려 했다.

“자자, 저 핏덩이들이 처참하게 썰리는 꼴을 보기 싫으면 반항하지 말고 가만히 이 어른신의 오라를 받으라고.”

다른 산적이 이죽댔다.

“낄낄. 역시 정파놈들이란 단순하다니까?”

그 순간 진명이 순식간에 땅을 내리 밟았다.

꾸웅!

진각과 함께 뻑! 소리가 울렸다.

“억!”

진명에게 울가미를 씌우려던 산적은 거의 몇 걸음이나 뒤로 날아가 나동그라졌다. 진명이 선인공수의 자세로 주먹을 뽐고 있었다. 진명은 천천히 권을 회수했다.

산적들이 고함을 질러댔다.

“야, 이 얼빠진 새끼!”

“이 애새끼들 다 죽이고 싶어?”

진명은 이를 악 물고 한 걸음을 더 튀어나갔다.

쿵. 쿵.

진각이 두 번 울리는가 싶더니 근처에 있던 두 명의 산적이 반항도 해보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다.

“저, 미.... 미친 놈이.....”

진명은 대답도 없이 다시 다음 표적을 찾아 움직였다.

“으아앗!”

표적이 된 산적이 다가오는 진명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진명의 주먹이 칼을 부수고 산적의 복부를 파고 들었다.

짱!

보검이라고 할 수도 없이 어설프게 만들어진 산적의 칼은 허무하게 깨져나갔다. 배를 정통으로 직격 당한 산적은 데굴데굴 구르며 입에서 연신 먹은 것들을 게워냈다.

“우에엑! 우엑!”

산적이 괴로워하며 토악질을 하는 사이에 세 명의 산적이 더 쓰러졌다. 차라리 처음부터 열 명이 협공했다면 모를까, 완전히 기세가 눌린 상황에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반격을 당한 꼴이라 산적들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더구나 맨 손으로 칼을 부수는 걸 보고는 거의 얼이 빠져나간 지경이었다.

일대 일의 싸움에서 진명을 이길 수 있는 산적은, 적어도 이 중에는 없었다.

“우, 우리 녹림도를 뭘로 보고!”

“이 애새끼들은 너 때문에 죽는 거다!”

남은 산적 셋이 등봉 세가의 소년 하나씩을 말아 칼을 들이댔다.

진명과의 거리는 약 예닐곱 걸음. 진명이 달려와 한 명을 구한다 해도 남은 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명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진각으로 밟았다.

쿵. 쿵. 쿵.

“지금까지 내게 맞고 죽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세 산적이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 武極 - Story Book

진명이 계속해서 걸어가며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손을 댄 놈은 죽는다.”

진명의 눈이 오밤중인데도 번쩍 빛났다.

세 산적들은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칼을 내던졌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살려주십쇼!”

등봉 세가의 소년들은 울통불통한 얼굴로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진명을 올려다 보았다.

열 명이나 되는 산적들을 주먹 하나로 제압하고 하얀 달빛을 받으며 걸어오는 진명의 모습.

그것은 그들이 꿈꾸던 영웅의 모습이었다.

# 武極 - Story Book

## 2.1.10. 제 46 화 [구배지례]

세 산적은 진명이 자신들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알고, 눈치를 보다가 슬슬 뒤로 꿈무늬를 뺐다.

진명이 그들을 돌아보자 얼어 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헤헤헤. 저희는 그냥…….”

진명이 쓰러진 산적들을 가리켰다.

“동료들을 데리고 가시오.”

“에?”

관에 넘기든 단심맹으로 끌고 가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쉽게 자신들을 놓아주자, 산적들은 어리둥절했다.

진명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등봉 세가의 소년들을 밧줄에서 풀어 주었다.

“고맙습니다. 진 대협!”

“감사합니다!”

진명이 툴툴하게 웃으면서 소년들의 엉덩이를 쳤다.

“다음부터는 이런 위험한 곳에 오지 말도록 해.”

세 소년 진명을 경외심과 존경이 가득한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먼저 고개를 확 숙였다.

“진 대협! 저희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다른 두 아이가 이에 뒤질세라 껌싸게 오체투지를 했다.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년들이 연신 절을 했다.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구배지례(九拜之禮)를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다.

진명은 생각도 못한 일에 머쓱하게 웃었다.

“이것 참.”

그 사이 산적들은 정신을 차린 몇몇과 함께 쓰러진 동료들을 부축해 달아나고 있었다.

대부분 보름 정도는 누워서 지내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지만 아직 산적이라는 파릇한 자존심은 남아있던지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빛은 반드시 갚을 것이다!”

진명은 가만히 서서 그들이 달아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구배지례를 힘겹게 끝낸 등봉 세가의 소년들이 산적들을 향해 주먹을 울러댔다.

“사부님! 저 산적 놈들을 그냥 두실 생각이십니까!”

“제자에게 말씀만 하시면 확 그냥!”

진명이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버려 뒀. 말은 저렇게 해도 당분간은 얼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누구의 사부란 소리냐?”

“방금 스승과 제자 사이의 예를 표했으니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셔야지요.”

다 죽어가던 아이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소년들의 눈동자는 활기에 차 있었다. 진명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코를 긁적거리다가 산적들이 달아난 쪽으로 시선을 향했다.

“저들도 한때는 양민들이었겠지.”

중얼거리는 진명의 표정은 그리 개운하지 못했다.

“하지만, 제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자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린데…… 후우, 어렵군.”

등봉 분타주의 일은 진명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도 위험한 일이었다. 산적이 아니라 마교나 사파의 간세, 혹은 대규모의 병력이 몰려든다면?

## 武極 - Story Book

등봉 분타는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문제는 등봉 분타 뿐 아니라, 낙양성에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등봉 분타에서 일차 침공을 막아내지 못하면 낙양성에 연락하여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없다.

‘내 생각보다 일이 시급하구나.’

제 한 몸 죽는 것보다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낙양성의 애민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그게 걱정되었다.

자신의 소홀함으로 소림이 욕을 먹는 것이 두려웠다.

자신의 무능함을 일령에게 보이기 싫었다.

진명은 복잡한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 보았다.

어느덧 동이 터오고 있었다.

그러나 진명의 얼굴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은 이른 새벽빛에도 사라질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진명의 어두운 표정에 등봉 세가의 소년들은 험사리 말을 걸지 못하고 조용히 진명이 말을 걸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밝자, 진명은 한사코 돌아가지 않으려는 세 말썽꾸러기들을 등봉 세가의 앞까지 데려가 돌려보냈다. 세 소년은 눈물을 흘려가며 진명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 진명을 당혹하게 만들기도 했다.

소년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거리는 눈망울로 진명에게 애원의 눈빛을 보냈다. 진명은 웃음이 나와 애써 소년들의 시선을 애원했다.

소년들이 세가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꾸짖는 호통 소리와 비명소리가 연신 울려 퍼졌다.

진명은 웃음을 지우고는 곧 평일지가 있는 낙양성 지부로 향했다. 어젯밤 산적들의 일을 보고하고, 지원이 가능한지 묻기 위해서였다.

일주엽과의 만남 이후 낙양성 지부는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기간 상의 문제로 새 건물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에 못지 않은 으리으리한 장원을 장만해 낙양성 지부라는 현판을 척 하니 붙였다.

당연히 평일지는 낙양성 지부장다운 근사한 집무실을 갖게 되었으며, 장원 내부에 그만의 처소를 따로 마련하였다.

아직은 인원을 확충하지 못해 텅 비어 남아도는 장원 내부는 호화로운 가구 및 집기들이 들어왔으며 호위를 목적으로 한 백도군도 여럿 상주하는 상태였다.

간신히 쓰러지는 것을 면하고 있는 등봉 분타와는 너무도 다른 세계일 수밖에 없다. 당장 지금 진명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원조의 탁상만 하더라도 등봉 분타의 구멍 난 지붕을 새로 싹 바꾸고도 남을 만큼 값비싸 보였다.

“진 분타주. 어서 오시지요.”

이원조는 별로 반가운 기색도 없이 진명을 대했다. 어쨌든 명색이 분타주이니 최소한의 예는 표해야 했다.

“평 지부장께서는 지금 안계십니다. 제게 말씀하시지요.”

진명은 밤사이 산적들이 분타에 온 것을 상세하게 이원조에게 말했다.

이원조는 별 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다.

“마침 진 분타주가 계셔서 다행이었군요. 진 분타주가 아니었으면 낙양성의 양민들이 애꿎은 일을 당할 뻔 했습니다, 그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내에 산적들의 조력자가 있다는 것이 더 걱정입니다.”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낙양성 내에서 녹림도들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수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깟 조력자 한 둘쯤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요.”

“.....”

의외로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원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녹림도에 대해서는 제가 평 지부장께 말씀 드리지요. 진 분타주께서는 이만 돌아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 한가지 더 있습니다.”

## 武極 - Story Book

진명에게는 쉽지 않은 돈 얘기를 꺼내야 했다.

“다른 사안이야 뒤로 미룬다 치더라도 분타를 재정비할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인부들 몇이라도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이원조는 그 말에 인상을 확 썼다.

“쫓! 생각이 있으신 겐지. 돌아가는 사정을 뵈히 아시는 분이 이러겁니까?”

진명이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다. 이 어처구니 없는 적반하장이, 눈 뜨고 코 베어낼 듯한 뻔뻔함이 그를 질리게 했던 탓이다.

“사정이라니요?”

이원조는 앉은 자세 그대로 진명을 향해 눈을 치켜 떴다.

“분타주 썩이나 되시는 분이 낙양성 지부의 가장 큰 문제인 자금난을 모른 척 하시겠다는 겁니까? 원 참, 이거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니로군요.”

“초기에 자금난이 있었지만, 그거야 해결이 된 사항 아닙니까? 벌써 지부 건물을 구입한데다가, 양 분타의 백도군을 고용한.....”

이원조가 잼싸게 진명의 말을 끊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지 않겠습니까? 낙양성 지부가 장사치 집단도 아니고, 어디서 계속 돈벌이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지원을 받았다고는 하나, 다 써버린 지금은 다시 자금난이 생길 수 밖에요.”

진명이 입술을 한 번 질끈 물었다.

“저는 다른 분타처럼 백도군을 고용할 만한 큰 돈을 마련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돈을 원한다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돈도 지금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말귀가 너무 어두우시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수난은 진명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수난을 겪도록 하기 위해 평일지가 진명을 분타주에 앉혀 놓은 것이었으니.

진명은 숨을 크게 들이킨 다음 말을 이었다.

“지금 등봉 분타의 상황은 꽤나 어렵고 위험합니다. 인근의 녹림도들이 아니라

만약 사파나 마교의 병력이 쳐들어온다면 저로서는 혼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원조는 이제는 습관이라도 든 것 마냥 진명의 말을 톡 잘라먹었다.

“정 돈이 필요하다면 스스로 구하십시오. 분타주는 응당 분타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분타주가 된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이렇게 지부에 와서 책임회피를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보라는 듯 혀를 끌끌 찬 이원조가 휘적대며 손짓을 했다.

“얘기가 끝났으면 이제 그만 가서 일 보시지요. 저는 지금 몹시 바쁜 몸입니다. 진 분타주께서도 저와 말씨름을 할 시간이 없으실텐데요.”

기필코 등봉분타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이원조의 뜻은 확고했다. 진명은 자존심을 사정없이 팽개쳐가며 빌어도 일 원 한 푼 나오지 않을 것임을 알아챘다.

“돈을..... 그렇다면 돈을 구할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원조가 눈을 치켜 떴다.

“등봉 분타주님의 눈에는 제가 장사치로 보인단 말입니까? 돈 버는 방법을 왜 제게 묻습니까?”

진명이 속으로야 어떻든 겉으로는 침착하게 화를 눌렀다.

“장사치로서 돈 버는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분타주로서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라면야 이 부관께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 지부장의 부관이 그런 일을 몰라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잠시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진명을 쳐다보던 이원조는 내키지 않는다는 태도를 곳곳이 유지하며 이렇게 말해주었다.

“정 그렇다면..... 원래 등봉 분타 그 주변이 상전(桑田)이었다고 하더이다.”

상전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밭이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 말이 더 쉬워지겠군요. 비단은 원래 낙양산이 제일이라 마교 놈들이 쑥대밭을 만들기 전까진 등봉 세가에서 뽕밭을 경작해 얻는 수익으로 재미를 좀 보았다 합니다. 소작농이 모두 죽거나 도망간 터라 당분간 등봉

## 武極 - Story Book

세가에서는 뽕밭 경작에 별 생각이 없을 듯 한데, 등봉 분타주께서 그 일을 대신 맡겠다 하심이 어떨까요?”

꼭꼭 누르고 있던 한숨이 드디어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상전을 경작해 그것으로 비단을 만든 다음 그 비단을 팔아 돈을 마련하라는 소립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뽕밭을 경작해서 그것으로 누에를 올리고, 그 누에로부터 얻은 고치를 견사로 바꿔 그것으로 비단을 짠 뒤 다시 그 비단을 팔아 돈을 만드는 일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반 년.

그것도 뽕을 키우는 사람, 그것을 누에에게 먹이는 사람, 누에로부터 고치를 얻는 사람, 견사를 짜서 비단을 만드는 사람, 비단을 내다 파는 사람 및 그와 관련한 생산 시설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가능한 시간이다.

진명이야 맨 손 외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 쪽으로 아무런 인맥도 없다.

판로를 찾는 시간을 제외하고서라도 등봉 분타의 뽕밭이 돈으로 환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더구나 지금 분타 주위의 밭은 온통 엉망이다. 혼자서 밭을 갈고 일군다면 그것만도 얼마가 걸릴 지 알 수 없다.

이원조는 손가락 끝으로 한 쪽 콧수염을 탕 튕겼다.

“그 외에는 별 뽕족한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여튼, 그 외에는 저도 아는 바가 없으니 더는 도와드리지 못하겠군요.”

이원조는 아예 핵 고개를 돌린 뒤 다른 일을 하는 척 했다. 대놓고 꺼지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 내쫓기는 해야 하니 차선책을 택한 것이다.

진명의 눈에도 너무 뻘히 보이는 차선책이었다.

진명이 마음 속으로 주먹을 꼭 움켜쥐었다.

“이 부관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허면 저도 한 마디 하지요. 등봉 분타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앞으로 벌어질 불상사에 대해서는 이

부관님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뭐이?”

아예 시선을 돌리고 있던 이원조가 진명의 말에 화들짝 놀라 외쳤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등봉 분타에 일어나는 일이 왜 제 책임이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평 지부장님과 진 분타주 사이에 맺은 약속이 아닙니까!”

진명이 힘을 주어 말했다.

“약속은 지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부의 사정이 어렵다는 전제 하였습니다. 전 그 약속보다 먼저 낙양성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낙양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다면 모르나 돈이 있는데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니, 지부에 돈이 어디 있다고 강짜를 부리시는 겁니까?”

“등봉 세가에서 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등봉 세가에서 들어온 자금은 모두 남쪽 여양 분타의 정비에 쓰였습니다.”

“그럼 북쪽의 맹진 분타는.....”

잠시 당황해 하던 이원조는 곧 이어질 변명거리를 생각해 냈다.

“등봉 분타주께서는 자꾸만 그렇게 지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하시는데,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등봉 분타에 자금이 돌지 않는 것은 지부의 탓이 아니라 등봉 분타주 본인의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다시 주도권을 움켜질 준비를 하고 있던 이원조는 진명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큘. 결국 생각해보면 등봉 분타주가 문제라는 게지요. 애초에 등봉 분타주께서 자금을 갖고 계셨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진명이 되물을 차례다.

“뭐라고요?”

대체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단심맹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다못해 소림도 진명의 고초를 보면서도 아무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나 이원조는 초반의 뻘뻘함을 고수했다.

## 武極 - Story Book

“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당장 맹진 분타주만 보더라도 분타와 지부를 위해서 큰 돈을 선뜻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쪽 맹진 분타를 정비할 수가 있었구요.”

“.....”

진명이 입을 꼭 다물었다. 할 말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진 탓이었다.

일령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턱 하니 일령과 만수전장을 끌어들인 평일지에 대한 분노와, 그 약속위반을 세 치 혀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원조에 대한 억울함을 얘기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였다.

결국 진명은 한 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한 채 지부를 나섰다.

# 武極 - Story Book

## 2.1.11. 제 47 화 [평정산채]

“응? 지금 뭐라고 했어. 아우?”

“혹시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임 형은 밭도 넓으시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지? 갑자기 농사는 왜? 등봉 분타에서 소작이라도 치게?”

임완춘의 의아한 얼굴에 대고 진명은 차마 제가 농사를 직접 지어서 돈을 벌려고요, 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럴 일이 있어서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알 리가 있나. 아우나 나처럼 칼 밥 먹고 산 사람들이 알아 봤자 같은 칼잡이들 아닌가.”

“임 형도 모르시는군요. 어쩔 수 없지요.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부를 방문하느라 모처럼 분타를 떠나 시내 안으로 들어온 진명은 내친 걸음에 임완춘까지 만났다. 임완춘도 갑자기 작은 서기 자리를 하나 맡게 되어 바쁜 와중이었다.

화산의 속가지만 기명제자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해 걸돌던 그는 모처럼 지부 내에 한 자리를 맡게 되었다고 잔뜩 신이 나 있는 상태였다.

지부를 화산파가 완전히 장악하게 하려는 평일지의 속셈과, 지부 내에 인재가 별로 없다는 작금의 상황이 적당히 만나 불러온 우연이었지만 모처럼 임완춘은 어깨를 펴고 나설 수 있다며 기뻐하고 있었다.

진명은 진심으로 그를 축하해 주었다.

“임 형도 이제 바쁘실 테니 한 동안은 얼굴 보기도 힘들겠습니다. 좋은 일로 그렇게 된 것이니 서운타 말아야지요.”

임완춘이 씨익 웃으며 진명의 어깨를 두들겨 주었다.

“그래, 그래. 아우가 분타주로 있는 등봉 분타로 가면 나도 좋겠지만, 아 당분간 등봉 분타는 사람을 뽑지 않겠다니 도리가 없잖은가. 대신 나는 지부에

남아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지. 아우도 아우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게.”

임완춘이 모처럼 그답지 않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입니다. 그럼 나중에 뵙지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러. 살피 가시게나, 아우.”

“후우.....”

진명은 이마의 땀을 닦으며 눈 앞에 펼쳐진 너른 밭을 바라보았다.

분타 건물을 중심으로 소작농들이 살던 폐가와 밭이 널리 퍼져 있다. 혼자서 다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넓기도 넓다. 그곳에서도 유독 분타 주변의 밭이 상전이다.

상전은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아 완전히 엉망이었다. 엉망인 거야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그걸 이제 혼자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할 따름이다.

자세히 보니 잡초는 물론이고 곳곳에 불 타 죽거나 말라서 죽은 나무들도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개 중에서 살아남은 것들을 헤아리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곳에 다시 무언가를 경작할 수 있으려면 마을 전체가 달라붙어도 꼬박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 일을, 진명은 저 혼자서라도 할 요량으로 왔다.

폐가를 뒤져서 찾아낸 말라비틀어진 묘목과 낡고 녹슨 농기구 몇 개를 들고.

소매와 바지자락을 성큼 걷어 올린 진명은 이미 무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어설픈 농사꾼처럼 보이긴 했다.

“힘내자. 철우경지, 철우경지!”

주문처럼 철우경지를 외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졌다. 진명은 상전을 크게 훑어 보며 아주 간단한 계획을 세웠다.



## 武極 - Story Book

“일단 분타 주위에는 상전을 일구고, 나머지 밭에는 구황작물(救荒作物)을 키워야겠어.”

구황작물은 가뭄이나 장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조, 피, 기장 등의 작물을 말한다. 주식인 벼와 보리가 흉작인 경우에도 수확을 제법 거둘 수 있어 진명이 키우기에는 가장 적당하다.

“그럼 시작해 볼까?”

진명은 움켜쥔 곡괭이를 맨 땅에 힘껏 내리쳤다.

퍽.

파삭하게 마른 더러운 흙이 힘 없이 부숴졌다. 몇 번의 곡괭이질을 통해 감을 잡은 진명이 희미하게 웃었다.

“좋아. 이 정도면 되겠어.”

농사와 무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힘을 쓰는 만큼 결과가 뒤따르고 공을 들이는 만큼 자신에게 보답한다.

단순하고도 보편적인 원리였지만 진명은 열심히 하면 무언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몸 속 깊이 깨우치고 있는 사람이었다.

분타주가 농사를 지어 그것을 팔아서 분타의 자금을 모으겠다고 한다면 그를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틀림없이 비웃거나 말릴 것이다.

진명 또한 자신이 이 일을 함으로서 꼭 돈을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면 결과에 지레 겁을 먹고 뒷짐을 지고 있느니 두 팔을 걷어 붙이고 열심히 덤벼드는 것이 몇 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불평을 할 필요도 없고 한탄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었다. 그저 꾸준히, 철우경지처럼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우선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으음, 그렇다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모르겠군.’

진명은 눈집작으로 자신이 가꿀 경작지를 가늠해 보았다.

‘밭을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한..... 칠주야 썸 걸리겠고, 죽은 나무를 골라내서 치우는데 다시 칠주야. 빈 자리에 새 묘목을 심는데 또 칠주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밭이 완성되면 이번에는 누에를 올려야 한다. 진명은 누에를 어디서 구해야 하는 지도 아직 몰랐다. 게다가 툼툼이 구황작물을 키울 밭도 갈아야 한다.

‘열심히 하면 길이 나오겠지.’

어리석은 믿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진명의 입에는 어쩔 수 없이 쓴 웃음이 피어올랐다.

‘산적들 얘기가 맞을지도 몰라. 내 머릿속에는 생각대신 뭔가 다른 게 처박혀있는 건지도.’

차마 혼잣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똥’ 이라고 내뱉기는 싫었다.

상념은 길고, 해는 짧았다.

어느덧 진명의 어깨 위로 붉은색 노을의 그림자가 내려앉고 있었다.

벌써 며칠째인지도 모르게 진명은 밭에서 곡괭이를 들고 살다시피 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등봉 분타의 황무지에서 혼자서 묵묵히 일만 하였다.

얼굴과 등은 거무스름하게 그을렸고 그것이 진명을 더욱 탄탄한 모습으로 보이게 했다.

그러나 진명의 뒤를 덮친 그림자는 노을의 것 하나 뿐만이 아니었다. 개 중에는 진명이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의 그림자도 있었다.

“.....”

진명이 힘차게 움직이던 괭이질을 멈췄다. 그와 동시에 뒤에서 다가오던 그림자 중 하나가 외쳤다.

“혼자다! 다 덤벼! 저 새끼 오늘 황천길 건너게 해!”

“죽여랏!”

개 중 익숙한 목소리를 알아낸 진명은 괭이를 땅에 팽개치고 핵 몸을 돌렸다.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소?”

## 武極 - Story Book

“닥쳐! 우리 녹림의 호걸들은 빗지곤 못사는 성격이다! 오늘은 네 놈의 턱뼈가 조각날 줄 알아라!”

“지난 번엔 밤이라 우리가 실수한 거야!”

“오늘은 우리 두목님께서 친히 행차하셨다!”

진명이 며칠 전 흠씬 두들겨 주었던 산적 떼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몰려왔다.

언뜻 보면 핫김에 우르르 몰려온 듯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꽤나 냉철한 계산 끝에 진명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었다.

그들은 일단 새로운 분타주가 들어선 등봉 분타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를 살폈으며, 그 결과 등봉 분타에는 진명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요묘조묘 시간을 따져서 진명이 발일을 하느라 체력적으로 힘에 부칠 때를 기다렸다 덤벼들었다. 지난번 일을 경험 삼아 너무 어두우면 오히려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진명은 요 며칠 내내 익숙하지 않은 발일예다가 이원조와 평일지를 향한 분노가 겹쳐 짜증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였다. 익숙지 못한 발일을 하면서 체력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좋아졌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진명 같은 이가 한 번 폭발하면 더 무서운 법이다.

진명은 양 주먹을 풀어 우두두둑 관절 소리를 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그러나 한층 맑게 빛났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미처 생각 못했으나, 기왕 이렇게 와주었으니 감사히 여겨야겠지. 부디 내 손속에 원망을 두지 마시오.”

평소라면 그런 말을 내뱉지도 않았을 진명이었다. 만약 진명의 이런 말투를 들었다면 일령이나 임완춘은 산적들에게 연민을 느껴 달아나라고 했을 터였다.

그러나 산적들에게는 불행스럽게도 지금 이곳에는 진명 혼자 뿐이었다.

퍽, 퍼벅!

말보다 빠르게 주먹이 앞으로 나아갔다.

.....

“크흑...”

마른 땅 위에 한 줄기 눈물을 떨구는 자의 이름은 왕호순.

평정(平頂) 산채를 이끄는 산적 두목으로, 그간 낙양성을 기웃대며 심심찮은 피해를 입혀왔던 자였다. 어딘가 소박해 보이는 이름과 달리 양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그였다.

“이, 이럴 수는.....”

어이가 없기도 할 것이다.

한 명을 상대로 20명의 녹림도가 모두 뺏어버렸다.

오늘 평정 산채가 노렸던 것은 경비가 삼엄하기로 손꼽는 대부호의 집을 터는 것도 아니었고, 용맹하기로 이름 높은 표국의 표물을 가로채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평정 산채 입장에서 기분 나쁜, -조금이란 말이 어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고수인 꽤심한 촌놈 딱 한 명을 약간 손봐주는 일이었다.

물론 그 자가 단심맹 낙양성 지부의 새 분타주인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왕호순으로 말하자면, 한창 날리던 왕년에는 단신으로 무림인 두엇도 때려잡은 적이 있는, 그야말로 타고난 산적으로 불리는 자였다.

오늘 그가 이끌고 온 인원이 무려 열아홉.

마음 같아서는 평정 산채에서도 가장 날래고 성질 더럽기로 소문난 놈들만 추려서 데려오고 싶었으나 애석하게도 그런 놈들은 불과 며칠 전 그들이 손봐줘야 할 놈에게 늘씬하게 두들겨 맞아 침상 신세 중인지라 대충 험악하게 생긴 놈 위주로 골라봤다. 개 중 두엇 정도는 옆 산채에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빌어오기까지 했다.

왕호순은 지난번 산행에 끼어있지 않았기에 진명의 무서움을 몰랐다. 그는 10명이나 되는 건장한 부하들이 한 명에게 당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 당연히 부하들은 그에게 야음을 틈타 진명이 기습을 했고 어쩔 수 없이

## 武極 - Story Book

당했다고 돌려 댔다.

그러나 막상 진명을 대하고 보니 야음을 틔타고 나발이고, 그럴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손에다가 무슨 쇠덩이를 달았는지 한 번 주먹을 휘두르면 창이고 칼이고 다 부서져버렸다. 쇠로 만든 무기가 부서지는데 사람이라고 별 수 있으랴. 한 대 맞으면 그 즉시 넋을 놓고 자빠졌다.

‘이런 개 잡종 새끼들! 진짜 고수였잖아!’

뒤늦은 후회는 말 그대로 늦은 후회밖에 될 수 없었다.

왕호순은 한 달이나 요양을 하고도 남은 일생 동안 곶은 날만 되면 뼈마디가 옥신옥신할게 뻔한 증상을 입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정통으로 얻어맞은 나한권에 앞니 두 개가 부러졌다는 것이다. 통한의 눈물을 흘릴 때도, 저주와 원망을 퍼부을 때도 앞니 구멍 사이로 바람 소리가 쉼 없이 섞여 괴상한 웅알이처럼 들리곤 했다.

죄다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 소리를 흘리고 있는 평정 산채 및 옆 산채에서 벌어진 자들과는 달리, 두 다리로 꼳꼳하게 서 있는 진명이 입을 열었다.

진명도 20명이 되는 수를 상대하면서 지치긴 했다. 그럼에도 멀쩡하게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도 더 지독한 상황에서도 싸웠던 경험 덕분이었다.

“다들 죽지 않을 정도로 손을 썼으니 그만 돌아들 가시오. 나는 이곳에서 할 일이 많은 사람ियो.”

그 덩덤한 말투가 오히려 더 신경을 자극했다.

왕호순이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잇새로 쉼 없이 새는 바람소리에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차라리 죽여라! 어차피 네놈들 때문에 더는 살 수도 없었다! 이제와 선심 쓰는 척 살려준다고? 개 소리 마! 직접 죽이나 굶어 죽게 만드나 매한가지 아냐! 차라리 그걸 거면 위선 떨지 말고 싸그리 잡아 죽이란 말이다!”

왕호순의, 괴상한 웅알이 같지만 나름 비장한 뜻을 품고 있는 이 말에 다른 산적들이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다들 눈빛이 심상치 않은 게 자칫 하다가 왕호순을 향한 하극상을 저지르고도 남을 정도였다.

‘개처럼 두들겨 맞더니 저 양반이 실성한 모양이지! 죽으려거든 혼자 죽을 것이지 왜 억울한 나까지 끌어들여?’

‘저 놈이! 나는 평정 산채도 아니구만!’

진명이 말했다.

“단심맹은 당신들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은 적이 없소.”

“웃기는 소리 마라! 네 놈들이 낙양에 들어오고 난 뒤로 우리는 단 한 번도 마음 놓고.....”

이어져 나올 뻔한 이야기에 진명이 입을 열었다.

“이전처럼 마음 놓고 쉽사리 강도질을 할 수 없으니 굶어 죽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산적 노릇을 그만두면 될 것 아니요.”

“말이라고 하면 단 줄 아느냐!”

속 편한 진명의 대꾸에 왕호순은 기어코 꺾꺾 누르고 있던 설움의 눈물을 터트렸다.

“나라고 날 때부터 산적이었겠느냐! 가진 것 없이 태어나 배운 것 없이 자랐으니 산적이 된 게지!”

“그런 사람들이 모두 산적이 되지는 않소. 당신들이 그간 낙양성에 들어와 강도질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자들일 거요.”

“너는 그리 살아보지 않았으니 쉽게 말하는 것이다! 네 놈처럼 일찌감치 무공 한 수라도 배울 수 있었다면 내 꼴이 이렇게 되었겠느냐!”

말 하다 보니 설움은 점점 더 커져갔다.

왕호순은 대놓고 울기 시작했다. 이제껏 산적 두목으로 사느라 억지로 어깨 힘을 넣고 살아서 그렇지, 사실 그에게도 상처 입고 쓰린 부분이 있었다. 여러디 여러서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매일 굶는 게 지긋지긋해서 집을 뛰쳐나왔다. 허리가 부러져라 땅을 파도 병충해가 한 번 들면, 가뭄이 한 번 오면 일 년 내내 뱃가죽이 쓰렸다. 그렇다고 농사가 잘 된 해는 편했냐고? 소작 치는 놈에게 풍년이 풍년인줄 아느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배를 불리는 것은 늘 돼지 같은 지주 새끼였던 말이다.”

## 武極 - Story Book

그래서 왕호순은 집을 나왔다.

다행히도 그는 덩치가 크고 힘도 셧다. 그래서 여자처자 뒷골목 세계로 굴러가게 되었다. 하지만 뒷골목 세계에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었다. 어쩌다 무공 한 초식이라도 배운 놈들 앞에서는 타고난 신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때마침 왕호순이 활동하던 뒷골목에 그럴 듯한 무관이 하나 들어섰다. 왕호순은 이것이 하늘이 내린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화산의 속가였던 관장에게 무공을 사사 받고자 했다.

그러나 왕호순은 또 다시 무관에도 급이 있음을 깨달아야 했다. 관장이 화산의 속가이든, 혹은 속가의 속가의 속가이든 간에 어쨌거나 화산이라는 구대문파의

위엄 찬란한 이름이 현판에 한 글자 들어갈라 치면, 입관비용은 곱절의 곱절씩 비싸지는 것이다.

왕호순은 눈물로 애원하고 무릎으로 사정했으나 관장은 피도 눈물도 없었다. 그날로 왕호순은 흠씬 두들겨 맞고는 무관에서 쫓겨났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 무관에서 불이 났다. 관장은 악의를 품은 왕호순이 저지른 방화라 단정 짓고는 아직 침상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를 한번 더 두들겨 팼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무림인이라고 하면 이가 갈리도록 밧고도 부러웠던 게.

# 武極 - Story Book

## 2.1.12. 제 48 화 [치매노인]

왕호순에게 있어서 무림인들은 그가 애타게도 갖고 싶어했던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었다.

분루(忿淚)는 아직도 똑똑 소리를 내며 왕호순의 얼굴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무공을 배운 사람들도 저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오.”

그 위로 진명의 차분한 말이 내려앉았다. 진명은 왕호순에게서 시선을 돌려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발을 바라보았다.

“나는 소림의 무공을 배웠소. 일 초식 단 한 수를 배웠으나 그 덕에 배는 굶지 않고 살아왔소. 그리고 역시 그 덕에 단심맹의 사람이 되어 낙양성 지부의 분타주가 되었소. 나에게는 이 등봉 분타를 지켜내야 할 책임이 생긴 것이지. 그리고.....”

진명은 손짓으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발을 가리켰다.

“이 발을 경작해서 분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함께 생겼소이다. 등봉 분타에는 나 말고는 사람이 없어 이 발을 나 혼자 경작해야 하오. 발을 경작해서 뽕잎을 수확하고, 그것으로 누에를 울려 실을 얻어낸 다음 비단으로 만들어 파는 일까지 나 혼자 해야 할 일이오. 나에게는 할 일이 아주 많소. 내가 무공을 배운 탓으로 공짜 밥을 먹는 다는 생각은, 그래서인지 쉽게 들지 않소.”

“... ..”

왕호순이 입을 다물었다.

그 역시 농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진명이 말한 일이 얼마나 터무니 없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다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진명은 그들이 들이닥친 시간에도 혼자 발을 갈고 있었다. 진명을 정찰하던 산적 중 하나가 돌아와서는 킬킬대며 ‘그런 병신이 다 있어?’ 라고

했던 것도 기억났다.

처음에는 갱이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놈이 저게 무슨 하릴없는 개수작이냐며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듣고 보니 진명에게도 그만의 사연이 있는 모양이었다.

“사람에게는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소. 운이 좋은 자라면 그 일이 자신이 잘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알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하지 못해도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살 것이오. 당신은 배 굶는 게 싫어 산적이 되었다고 했지. 만약 당신이 지금이라도 무공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떻겠소? 무공을 안다면 아마도 산적 노릇을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오. 그 때도 당신은 정말로 산적 노릇을 그만 두고 다른 일을 시작할 것이오?”

“... ..”

왕호순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산적들이 입을 꼭 다문 채 말이 없자 멧쩍어진 진명이 고개를 저었다.

“어쨌거나 그것은 당신만이 알 문제요.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공연한 소리를 지껄인 것 같군. 그럼 나는 이제 일을 마저 해야 하니 그만들 돌아가시오”

진명은 산적들에게 등을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는 거진 저물어 가는 중이었다. 산등성에 걸린 채 고개만 빠끔히 내밀고 있는 저녁 해는 한 식경이 못되어 금새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 것이다.

“한 식경 정도는 더 할 수 있겠군.”

작게 중얼거린 진명이 갱이를 다시 땅에 꽂았다.

퍽!

퍽, 퍽!

땅이 부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이제 자신들이 사라져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은 산적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 武極 - Story Book

일어섰다. 흙썩 두들겨 맞은 모습은 비에 젖은 고양이마냥 힘 없이 늘어져 있어 초라하고 안쓰럽기까지 했다.

패배보다 더욱 무거운 것을 가슴 속에 담은 걸음은 느리고 힘겨웠다.

일행의 맨 뒤에서 간신히 발을 끌고 걸어가던 왕호순이 불쑥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를..... 정말 그냥 이대로 보낼 것이냐?”

진명은 갱이질을 멈추지 않은 채 대꾸했다.

“제 발로 온 사람들이니 제 발로 가길 바라는 거요. 혹시라도 하는 말인데, 앞으로도 계속 산적 질을 할 것이라면 이곳에서는 하지 마시오. 아니, 가능하면 산적질로 밥 먹고 살 생각은 하지 마시오. 당신들 실력으로는 목숨을 부지해 가는 것만도 벅찰 것이요.”

며칠 내내 대화 상대도 없이 외로웠던 까닭일까? 진명은 오늘따라 말수가 많았다.

하지만 진명의 사정을 모르는 왕호순은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그건 네 생각일 뿐. 평정 산채는 아직 건재하다. 우리는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라도 와서 네 놈의 목을 노릴 수 있다.”

진명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소.”

“그게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를 죽여라. 그래서 정파 놈들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건 당신도 알고 있을 거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남겨두면 그것은 낙양의 화근이 될 거라는걸 네 놈도 알고 있잖느냐! 우리는 이미 갈 곳이 없다. 이대로 산 속에서 굶어 죽을 순 없으니 또 다시 낙양성을 노릴 것이다!”

왕호순은 끝끝내 평정 산채 두목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버릴 수 없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진명은 자존심이 목숨 보다 더 중하냐고 그를 비웃지 않았다.

“이 발들은 등봉 세가의 소유요. 원래 소작을 치던 곳이었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요. 혹시라도 산채를 정리하게 되거든, 열심히 일해서 살아볼 마음이 들거든

오시오. 경작할 밭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대부분의 산적은 가난과 지주들의 학대를 이겨내지 못해 생겨났다. 특히나 이런 난세에는 양민이 산적이 되는 일도 많았다. 그래서 진명은 그들의 목숨까지는 빼앗지 않았다.

지금 진명의 말은 순수한 호의일 뿐이었다. 그들을 동정하거나 연민해서라기 보다는 그저 그들이 산적 질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었을 따름이다.

왕호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피, 필요..... 필요 없다! 그 따위 동정은 필요 없어! 우리들은 산적이다!”

“산적도 목숨은 중할 것 아니오.”

진명은 더는 관심 없다는 듯 갱이질에 매진했다. 이제 밭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진명은 공연한 일로 시간을 빼앗긴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일었다.

“내일 할 일이 더 많아 지겠군.”

그런 진명을 향해 왕호순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외쳤다.

“두고 보아라! 언젠가는 오늘의 빛을 꼭 청산할 것이다!”

왕호순이 핵 몸을 돌렸다.

“가자!”

그것을 끝으로 대충 험악한 인상을 가진 자들만 추려 모은 평정 산채의 두목 포함 정예는 등봉 분타를 떠났다. 목소리는 의기양양했지만, 대부분은 기어서 가던가 동료의 손에 부축을 받으며 떠나야 했다.

왕호순의 얼굴을 붉게 달아오르게 했던 열기는 아직도 식지 않은 채였다. 그것은 진명이 그에게 던진 말 한 마디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던 탓이다.

‘마음이 들거든 언제라도 오시오.’

“건방진 놈.....”

왕호순이 빠드득 이를 갈았다.

## 武極 - Story Book

“감히 산적한테 그런 소리를! 지가 뭐라도 되는 냥.....”

말 없이 산채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던 산적 하나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하지만 산적 질이 계속 어려워진다면 다른 거라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산채에서 양양성으로 가는 것도 좀 어렵구요.”

왕호순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정말로 무림인들 밑에서 소작 질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밑에서 하든 옆에서 하든 먹고 살려면 별 수 없지 말입니다. 이걸 뭐 산적이랍시고 떼거리로 가서는 두들겨 맞고 오는 꼴이라니.....”

“이 새끼, 너! 죽는다!”

왕호순이 그를 향해 눈을 부라렸다. 그러나 그는 좀 전에 얻어 맞아 툭툭 부은 얼굴로 왕호순에게 맞섰다. 평정 산채에서 처음 있는 하극상이었다.

“두목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산채 식구들 전부를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마교 놈들 때문에 흥흥하다 보니 산적 질은 더 지랄 맞아 지는 거고요! 산적이 무슨 감투자리라도 됩니까? 어차피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산적이 된 거, 다른 일을 한들 무슨 상관이나고요! 이 참에 우리도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까?”

“뭐, 뭐라고? 그게 평정 산채 식구라는 놈이 할 소리냐?”

“식구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요! 무림인이라고 다 재수없고 거들먹거리는 놈들만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아까 그 놈은 그래도 좀 사람 같.....”

퍽!

결국 참지 못한 왕호순이 주먹을 날렸다.

있는 기운 없는 기운 다 빠진 상태라 매섭지는 못했어도 풀썩 나가떨어지기에는 충분한 주먹이었다.

“그런 뱀 없는 소리를 할 참이라면 나가 죽어, 이 새끼야! 한 번만 더 아까 그 놈 얘기하면 배때기에 도끼를 쏘서 박을 줄 알아!”

왕호순은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서 핵 앞장서서 걸었다. 여전히 절룩이는 힘겨운 걸음이었지만, 어쩐지 부하 산적들의 눈에는 그 걸음이 좀 전보다 더욱

더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럴 마음이 들거든 언제라도 오시오.’

마치, 정말로 진명의 말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도 아닌 왕호순 본인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빌어먹을.....”

왕호순의 입에서 작은 욕설이 튀어나왔다.

산채로 이어지는 길은 계속해서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었다.

평정 산채의 산적들도 큰 피해를 입어 조용해지자 진명의 나날은 더욱 한가해졌다. 아니, 한가할지언정 한량하지는 않았다.

하루 종일 발을 갈고 또 갈아도 시간이 부족해 안타까웠다.

임완춘도 직무에 바빠 오지 못하고, 다른 이들도 진명을 잊은 듯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진명은 홀로 묵묵히 등봉 분타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가. 왜 너 혼자서 발에 있는 게냐? 다른 애들은 다 어디 간 게냐?”

누군가 고불고불한 발길을 따라 느린 걸음으로 걸어와 진명을 불러 세웠다. 진명은 흠이 잔뜩 묻은 손으로 이마를 닦으며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노인장. 노인장은 뉘신지요?”

진명에게 말을 건 사람은 하얀 머리가 이빨만큼이나 송송 빠져있는 초로의 늙은이었다. 손 때가 묻어 반들반들 윤이 나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는데, 후들대는 다리로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용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예끼, 이 놈! 어째 지 할애비를 몰라 봐? 그건 그렇고 다른 애들은 어딜 간 게냐?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게냐?”

진명이 순간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보신 듯 합니다. 저는 노인장의 손자가 아니라.....”

“이 놈이 그게 할애비한테 할 소리야? 예끼, 이 놈! 못쓰겠구나!”



## 武極 - Story Book

딱!

늙은이는 지팡이를 들어 진명의 정강이를 후려했다. 피하자니 노인이 자신의 힘을 못 이기고 넘어질 것 같고, 말고 있자니 어쩐지 한심한 노릇 같아서 진명은 맞아주고 말았다.

“어디서 나타난 노인인지. 이대로 끌려 다니면 제대로 일을 못하겠는데. 어찌지?”

이윽고 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댁이 어디십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으잉? 나더러 집에 도로 들어가라고? 아, 됐다. 됐어! 그렇잖아도 네 놈 애비가 날 집안에만 가둬두려고 해서 어찌나 갑갑했는지 몰라. 내 간만에 나왔으니 발일이나 좀 할란다. 아직 나도 힘깨나 남아 있단 말이다. 그건 그렇고 이 놈이!”

딱!

늙은이의 지팡이가 다시 한 번 진명을 후려했다. 이번에도 진명은 뻔히 보면서 맞고 말았다.

허리가 다 구부러진 힘없는 노인네의 손이 은근히 매웠다.

“왜 발이 이 모양이야? 아, 뽕잎이 날 시기가 한참은 지났는데 왜 제대로 된 녀석이 하나 없어! 내가 집 안에 좀 있었다고 그새 발이 이 모양이야?”

딱, 딱!

“노인장, 그만 하십시오!”

참다 못한 진명이 양 손을 들어 노인을 말렸다.

“이 놈! 어디서 할애비한테 대들어? 어디 더 맞아 볼 테냐? 이 놈, 이 놈!”

썉썉대며 진명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던 노인은 한 순간 발을 헛디더 발 안으로 굴렀다.

“에엑.....! 엇취, 엇취!”

온 몸에 흙을 잔뜩 묻힌 노인은 더 성이 난 듯 앉은 자리에서 지팡이를 휘둘러댔다.

“이런 게으른 놈! 이런 못 돼먹은 놈! 너 같은 놈이 우리 등씨 가문 어디서 나온 게야? 이 놈, 이 놈! 어디 오늘 한 번 이 할애비 손에 제대로 혼나 봐라! 이 놈!”

등씨 가문이라는 말에 진명의 귀가 솔깃해졌다.

“등씨? 그렇다면 이 노인은 등봉 세가의 사람인가?”

진명을 자신의 손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등씨 노인은 살짝 치매기가 있는 모양이다.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진명은 지팡이 세례를 고스란히 맞아가며 노인을 일으켰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댁으로 가는 길은 아십니까?”

“응? 집에 가라고?”

“예. 노인장께서 돌아가셔야 제가 발 일을 마저 할 수 있습니다.”

“예끼, 이 놈! 나 없는 새 또 빈둥거리려고?”

“아닙니다. 열심히 일 할겁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가시지요.”

진명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그의 말을 믿게끔 만드는 무엇이 있었다. 계속 때를 쓰던 노인은 결국 진명의 말을 믿기로 했는지 얌전히 그가 이끄는 대로 몸을 일으켰다.

“아, 이대로 가라고?”

“예?”

진명이 노인에게 지팡이를 쥐어주자 그가 던진 말이다.

“아, 업어줘야지! 그럼 이 할애비더러 그 멀리까지 걸어가란 소리야?”

“오실 땐 걸어오시지 않았.....”

“땡! 이 놈 이젠 대들기까지. 아, 업어 줄 거야 안 업어 줄 거야?”

진명은 두 말 없이 등을 구부려 노인을 업었다.

“땀냄새가 좀 날 텐데요.”

상기도 입지 않아 상체가 흙과 땀투성이인 진명이었지만 노인은 아무런 싫은 내색도 하지 않았다.

## 武極 - Story Book

“원래 흠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땀냄새는 향긋한 법이지. 이놈 땀이 범벅인 걸 보니 마냥 게으름을 피운 건 아닌가 보구나?”

“그렇다니까요. 전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좋아. 아주 좋아.”

뭐가 그리 좋다는 것인지 노인은 신이 나 있었다.

등에 업힌 노인은 기분이 좋은지 연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지팡이를 흔들며 댔다.

“이 놈! 아, 젊은 놈이 기운 쓰는 것 보게! 더 빨리 못 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거예요.”

“더 빨리 가란 말이야!”

노인이 혀를 찼다.

“에잉, 찻찻. 이 놈은 등씨 가문의 등신으로구먼. 이 놈아, 예의가 뽕뽕 따주냐? 남들보다 한 치라도 빨리 걸어야 밥이라도 한 입 먼저 먹을 거 아냐!”

노인은 성이 나는지 진명의 뒤통수를 지팡이 끝으로 탕탕 내리찍었다. 노인을 업은 터라 피할 길이 없던 진명은 고스란히 지팡이 세례를 견뎌야 했다.

지팡이로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어느새 성내에 들어선지라 지나가는 사람의 눈길이 더 부담스러웠다.

진명은 얼굴을 꼭 숙였다. 노인이 재촉하지 않아도 저절로 걸음이 빨라졌다.

노인은 진명의 등 위에서 계속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고 있었다.

# 武極 - Story Book

## 2.2. 제 5 장

### 2.2.1. 제 49 화 [등이행]

“밭일 하는 사람이 한 입 먼저 먹는 게 얼마나 큰 건 줄 아냐? 아, 한 입을 먼저 먹으면 당연히 한 입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게야! 어디 그 뿐이냐! 남들 보다 한 입을 더 먹었으니 그만큼 더 일할 수 있는 게지. 암, 암. 그렇지.”

대로를 오가며 마주치던 사람들이 그 꼴을 보며 킁킁 웃고 지나갔다. 개 중에는 소림의 진명을 알아보는 자들도 있었다.

“혹시 저 사람..... 소림의 진 소협 아닌가? 등봉 분타주가 됐다더니 저게 무슨 꼴이지?”

“저건 뭐랄까 무인이 아니라 꼭 무지렁이 농사꾼 같구먼. 의복이나 좀 제대로 갖춰 입지..... 쫂쫂.”

진명은 이른 아침부터 정신 없이 밭 일에 매달리느라 확실히 옷차림이 엉망이었다. 흙 때가 끼어 꼬질꼬질한 것은 물론이요, 잔뜩 그을은 얼굴과 양 소매와 바짓단을 둘둘 말아올린 물골이 어딜보나 농사꾼이었다.

“그런데 등에 업고 가는 늙은이는 누구야?”

“흠, 글썄?”

누군가 끼어들어 말했다.

“등봉 세가의 최고령자인 등뇌달이 아닌가. 몇 해 전에 노망이 나 집 안의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하더니, 쫂쫂.”

다른 사람들이 수군 거렸다.

“등봉 분타주가 되면 등봉 세가의 뒤치다꺼리부터 해야 하나보지?”

“아무리 감투가 좋다고 한들 나는 저러면서까지 하는 건 이해가 안가네. 저건 뭐 분타주고 뭐고 간에 완전 머슴 이잖은가.”

“아, 내 말이. 강단 있는 청년인줄 알았더니 사실은 출세욕만 앞서 똥과

된장도 구분 못하는 자였나?”

“사람은 직접 겪지 않으면 모른다는 옛 말이 틀린 게 없구만. 소문이 그리 좋길래 그런가 보다 했더라만 말야.”

...등등.

길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끝이 없었다. 현실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들이다. 저들은 단지 등봉 세가가 현재 낙양성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진명까지 싸잡아 매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명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아무리 모르고 하는 소리라지만..... 후우, 정말이지 인심이란 무섭기 그지 없군. 아무 생각없이 혀를 몇 번 놀리는 것으로 사람을 이상한 놈으로 만들다니.’

진명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들었다.

‘신경쓰지 말자. 대사님 말씀처럼 묵묵히 내가 할 일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들 이해해줄 거야. 쓸데없는 말에 휘둘리다 보면 끝이 없을 테니까.’

문득 평일지가 떠오르며 쓴 웃음이 흘러 나온다.

‘이제 보니 평일지가 왜 그렇게 매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는 지도 알 것 같군.’

진명은 묵묵히 길을 걸었다.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일부러 귀도 막고 시선도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정신을 한 순간에 일깨우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진 형?”

진명은 정선이 번쩍 들었다.

“아...!”

## 武極 - Story Book

눈 앞에 일령이 있었다.

일령은 백도군의 무사들을 이끌고 어디론가로 향하던 도중이었다. 일령이 멈춰 서자 잘 단련된 백도군의 무사들이 도열하여 대기했다. 그 모습이 일사불란하여 보는 사람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그렇구나. 이제는 령 아우도 분타주였지.’

진명이 저도 모르게 얼굴을 확 붉혔다. 자신의 차림새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런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들을 혹시라도 일령이 들었을까 해서다.

“잘... 있었어, 아우?”

“... ..”

일령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표정은 진명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 노상 붙어 다닐 수 있던 그 때에는 일령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녀의 눈빛 하나만을 보고도 알 수 있던 진명이었지만 지금은 어쩐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었다. 아니, 함께 있을 때에는 속 마음을 감추지 않고 바로 드러냈으니 굳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그만큼 진명은 일령이 멀어진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이 시큰해졌다.

“분타주.....”

“응? 아, 들었어. 아우가 맹진 분타주가 되었다고. 축하한다는 말도 못했네. 지금 하기에는 너무 늦었나?”

이렇게 말하며 진명이 싱겁게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일령은 조금도 웃지 않았다.

“분타주가 되었다더니.....”

그녀의 입에서는 자그마한 토막 말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진명은 답답함을 느꼈다.

“아우도 많이 바뀐 모양이야. 요새는 통 얼굴 볼 새가 없네. 언제 한 번 만나서.....”

그때 진명의 등에 업혀있던 노인이 고함을 지르듯 말했다.

“예쁜 처차로구나. 네 정인(情人)이냐?”

“노, 노인장!”

진명이 당황해 노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노인은 실새 없이 떠들어댔다.

“이런 처자가 있었으면 이 할애비에게 미리 인사를 시켰어야지. 아서라. 이 할애비를 무시하는 게냐?”

딱딱.

노인이 진명의 머리를 두드렸다. 피하려고 해도 함부로 몸을 움직였다간 노인이 떨어질 테니 그럴 수도 없어 진명은 난감하기만 했다.

가뜩이나 일령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꼴사나운 모습까지 보이게 되다니.

그 때 백도군 뒷편에서 누군가가 날렵한 걸음새로 일령의 곁에 다가와 섰다.

진명으로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이.

아니나 다를까, 평일지였다.

“일 소저. 무슨 일이시오?”

평일지가 일령의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돌려 진명을 보았다. 평일지는 사양하지 않고 기꺼이 속 시원한 너털웃음을 터트렸다.

“으하하! 아니, 그 꼴이 뭐요, 등봉 분타주?”

그래도 자리 하나 내줬다고 평일지는 진명에게 말을 높여주었다.

밖에서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제 자리를 확실히 챙기는 모습이 과연 평일지다웠다.

진명이 속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나빠도 너무 나빴다.

초라한 행색이나, 그걸 가지고 남들이 떠들어 대는 것이나 진명에게는 그리 큰 일이 아니었지만 하필이면 평일지가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평일지는 웃음을 잃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으나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 않겠소?

## 武極 - Story Book

아직도 등봉 분타는 지원을 받을 생각이 없는 거요?”

진명이 어이 없다는 표정으로 평일지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지원을 해달라는 진명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던 것이 수십, 수백년이라도 지났단 말인가!

그게 바로 얼마 전이다.

그러나 평일지는 애초에 진명에게 말할 시간을 줄 생각이 아니었다. 그는 진명의 말을 자르며 남들도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말했다.

“등봉 분타주께서는 만수전장의 자금은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분타주의 의지가 워낙에 확고하니 내 더 뭐라고 할 수 없었소이다. 아마도 등봉 분타주는 그만의 자금 출처가 있는 모양이오. 가령 청성이라든가.....”

청성이라는 말에 일령의 눈빛이 핵 돌변했다.

평일지는 진명을 향해 포권까지 해보였다.

“낙양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등봉 분타주에게 내 진정 감탄하였소.”

진명의 성격이 조금만 더러웠어도 ‘이런 미친 새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부터 날렸을 것이다. 그러나 진명은 너무 어이가 없어 못 박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등 뒤에서 칭얼거리는 치매 노인의 존재가 진명을 억누르고 있었다.

일령은 순식간에 얼음처럼 표정을 굳히더니 진명으로부터 몸을 돌렸다.

“다, 다음에 봐. 그럼 나는 바빠서.”

냉랭한 말과 함께 일령은 저 혼자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령 아우!”

진명이 일령을 붙잡으려 하는데 백도군들이 진명의 앞을 가로막았다.

백도군의 무사들은 얼굴에 백두건(白頭巾)을 면갑(面鉀)처럼 둘러써서 날카로운 눈초리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 날카로운 눈과 그들이 들고 있는

대도(大刀)가 서슬 퍼런 빛을 발하며 위압적으로 진명을 억눌렀다.

진명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비키시오!”

백도군의 무사들은 묵묵부답이다. 진명이 흘깃 눈을 돌리니 평일지가 웃고 있다. 기본적으로 맹진 분타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은 단심맹과 된 것이며, 그 주체는 평일지다. 백도군의 무사들은 평일지의 명을 따른다.

진명의 눈에 굳은 의지가 어렸다.

“비키지 않으면.....”

딱!

“이놈아! 어디 대낮부터 길가에서 싸움질을 하려고? 저 분들은 우리 낙양성을 지켜주는 훌륭한 분들이시잖느냐.”

맥이 딱 끊긴 진명이 당황했다.

“노인장!”

진명은 답답해졌다.

혼자 남은 평일지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웃음을 참으며 진명에게 말했다.

“그럼 계속 수고하시오, 등봉 분타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잊지 말고.”

그가 진명의 어깨를 툭툭 두드린 후 쾌속한 신법을 발휘해 앞서간 일령을 따라 나섰다. 백도군 역시 그의 뒤를 따랐다.

진명은 이를 악물었다.

멍청하게 혼자 남아 고립된 기분이다.

뭐가 이리 복잡하게 꼬인 것일까.

진명은 그저 소림을 위해 마교를 몰아낼 생각뿐이었다. 마교를 몰아내고 강호에 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설 생각도 없었고, 그럴 만한 능력이 된다 생각지도 않았다. 그냥 미력하나마 조금의 도움이라도 보탬 수나 있으면 감지덕지 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있을 때처럼 마음 놓고 수련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 武極 - Story Book

복잡한 일들이 자꾸만 그를 괴롭힌다. 사람들이 바라는 기대마저도 어깨를 무겁게 만든다. 하다못해 이제는 범여의 기대도 쉽게 저버릴 수 없는 처지다.

그런 상황들이 진명을 움매고 있다.

“후.....”

진명이 깊은 한숨을 뿜어냈다.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

딱!

뒤통수에서 소리가 나더니 눈에 불이 번쩍했다.

“아, 이 놈아! 어서 가잖고 뭐하냐? 볼 일을 다 봤으면 제각 집에 들어가야지!”

잠시 잊고 있었던 노인이 또 다시 지팡이를 휘둘렀다.

“저 코 앞에 집이 보이잖느냐! 후딱 들어 가자!”

노인이 가리키는 곳에는 등봉 세가의 장원이 있었다. 마교의 침입이 있는 후로 등봉 세가는 오랜 세월 터전을 잡고 있던 등봉 분타 쪽의 토지와 본가를 벗어나 잠시 낙양성 안쪽에 거처를 마련했다.

대대로 지주였던 부호 세력가답게 임시로 마련한 거처도 웅장한 규모의 장원이었다. 등봉 세가에 뼈를 묻고 있는 식솔들의 숫자가 기백을 넘어가니 이만한 크기의 장원이 필요하기도 했을 것이다.

“뭐하고 섰어? 어서 들어가자! 할애비 배고프다!”

진명은 머릿속에서 일령의 차가운 뒷모습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치 그에 대한 반작용이라도 되는 듯, 성큼성큼 등봉 세가로 걸어갔다.

아마도 그는 뒤돌아 선 일령을 뒤쫓아 무슨 얘기든 하고픈 마음을 꼭 참고 있을 것이다.

광, 광!

“문 열어라, 이 놈들아! 이 게으른 것들! 집 구석에서 문이나 끄꿍 걸어 잠그고 대체 뭇들 하는 게야?”

노인은 기세 좋게 지팡이로 육중한 대문을 두들겨댔다.

안에서 질색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지기가 문을 열었다.

끼이이익.

“대체 어떤 미친 놈이 등봉 세가에 행패..... 응?”

빡!

노인은 문지기가 얼굴을 내미는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머리를 정확히 가격했다. 이제 보니 한 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했다. 모르긴 해도 이 집 사람들 역시 오늘 하루 진명이 당한 만큼 당하고 살았을 것이다.

“행패는 이 놈아. 내가 내 집 문도 못 두들겨?”

노인의 얼굴을 확인한 문지기는 기절할 듯 놀랐다.

“아, 아니..... 장주님! 대체 언제 나가셨..... 아니 아니, 이렇게 아니라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장주님이 아시면 저는 경을 칩니다요.”

문지기는 막무가내로 노인과 함께 진명까지 문 안으로 끌어당겼다.

진명 또한 문지기만큼이나 놀란 상태였다.

“지금 장주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어르신이.....”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이리 오셨소? 예이, 이 치매 걸린 노인네가 장주님이 맞소이다. 그리 철통 같이 지키는데도 귀신 같이 빠져 나가셔서... 예이, 대체 누굴 엇 먹이려고.”

바로 곁에 노인이 있는 데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흥을 보는 게 거슬렸던 진명이 한 마디 했다.

“말이 과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장주님이신데...”

“흥, 말이 장주지.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노인네가 매일 사고나 치는데... 아, 그러니 장주님도 끄꿍 가둬두려고 하는 것 아니겠소. 뭐, 외부에는 쉬쉬하는 모양이지만 그래도 알 사람들은 다들 알지.”

“장주님이라니요? 방금 이 어르신이 장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답답하네. 설마하니 등봉 세가가 치매 노인을 장주로 앉혀둘까. 저 노인네가 전전 장주고, 사실 진작에 죽었어야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장주는 그..... 그러니까 에.....”

## 武極 - Story Book

“가주.”

“그래, 가주.”

이제 대충 감이 왔다.

이 노인은 현 등봉 세가의 가주인 등이행의 친조부인 것이다. 치매노인 등뇌달은 등봉 세가의 장주이고 실질적으로 세가의 일을 결정하는 가주는 그의 손자인 등이행이다.

여기까지 말한 문지기가 별안간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진명에게 눈을

부라렸다.

“여튼, 뉘신진 모르겠으나 저 노인네가 잠시라도 집 밖으로 빠져나간걸 가주님께 고자질 했다간 내 가만 두지.....”

“할아버님!”

문지기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코가 땅에 닿을 듯이 허리를 숙였다.

안채에서 거의 맨 발로 뛰어나오다시피 하는 이가 있었다.

그가 바로 현 등봉 세가의 가주인 등이행이었다.



# 武極 - Story Book

## 2.2.2. 제 50 화 [방해]

“할아버님!”

등이행은 크게 놀란 얼굴이었다.

문지기에게까지는 얘기가 전달되지 않았지만, 지금 안채에서는 현 가주의 조부 등뇌달이 사라져 난리가 났던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던 등이행은 직접 두 발로 뛰며 드넓은 집 안을 훑고 다니던 중이었다.

“무사하십니까? 대체 어디를.....”

딱!

손자를 보자마자 너무도 반가웠던지, 노인은 등이행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다.

“이 놈아! 지금이 몇 시야?”

“예?”

등이행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달아올랐다.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조부에게 얻어맞는 광경은, 확실히 가주의 권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었다.

“할아버님. 고정 하시고 어서 처소로 돌아가시지요.”

“아, 돌아가긴 어딜 돌아가? 냉큼 발으로 나가지 못해? 오죽하면 이행이 혼자서 발을 갈고 있겠냐! 당장 애들 다 불러서 발으로 가라 그래!”

등이행의 입이 딱 벌어졌다.

“이행이... 라구요?”

“아, 그래! 네 놈 막내! 이 어린 것이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노인은 지팡이로 부지런히 두드려 패던 때와는 달리, 애정과 신뢰를 가득 담아 진명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다. 노인의 눈에는 지금 진명이 젊은 시절의 등이행으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대략 20년 정도 전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가 당혹스럽기는 진명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자신이 손자가 아니라고 말해봤자 들어먹을 노인이 아니었으니 이쯤 해서 몸을 빼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아..... 저, 어르신. 저는 이만 발으로 가봐야겠습니다. 그럼 자리 보전 하십시오.”

“잠깐!”

“예?”

“조부님은 어디서 모셔왔나?”

진명이 작별 인사를 건네자 등이행이 꽤나 언짢은 얼굴로 물었다. 아마도 그는 눈 앞에 보이는, 그다지 잘 생기지 못한 남루한 차림새의 청년이 자신으로 여겨지는 일에 사소한 원한을 품은 듯 했다. 아마도 속으로는 ‘내가 이런 녀석하고 닮았다고?’ 하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어쨌거나 진명은 숨길 것이 없었으므로 쉽게 대답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발 근처에 서 계셨습니다.”

“발이라? 이 근방에 발이라 부를 만한 데가..... 아, 설마?”

등이행의 얼굴이 좀 전 보다 훨씬 더 엉망으로 구겨졌다. 대충 그 뜻을 짐작한 진명이 쓴웃음을 감추며 그에게 포권으로 인사를 건넸다.

“예. 제가 등봉 분타를 맞게 된 소림의 진명입니다.”

“... ..”

등이행이 입을 다물었다.

사실 그가 이 낙양 안에서 가장 상대하기 꺼끄러운 인물을 꼽으라면 딱 둘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단연코 치매에 걸린 조부였고, 다른 하나가 바로 진명이었다. 치매에 걸린 등뇌달은 무슨 말을 해도 먹혀 들지 않으니 꺼끄럽고, 진명은 상황이 꺼끄러웠다.

## 武極 - Story Book

등봉 세가는 세가의 대문이라 할 수 있는 곳을 맡기고도, 평일지와의 비밀 계약 때문에 진명을 무시해야만 하는 처지인 것이다.

“아, 그..... 그랬구려. 진 소협이 명성은 익히 들어왔..... 크흠.”

등이행은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 헛기침으로 얼버무리고 말았다.

평일지와 손을 잡을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등이행은 야심 있고 권력지향적이며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속물이었지만 그것은 상인으로써 어쩔 수 없는 성향이었다. 어떤 상인이라도 만수전장의 제의와 부를 축적할 기회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는 노릇이다.

그렇다해도 등이행이 한 올의 양심마저 없는 악인은 아니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댁의 어른께선 무사하시니 심려 마십시오.”

심려가 가득한 것은 오히려 진명이다. 하지만 진명은 굳이 내색하지 않았다. 진명으로서도 세가의 땅을 폐허로 방치하고 있는 등봉 세가에 약간의 의심을 가진 상태다.

등이행이 자신을 탐탁지 않아하는 것을 느낀 진명이 그만 자리를 뜨고자 했다. 그러나 치매 노인 등뇌달이 진명을 붙들었다.

“아, 어딜 가?”

“예, 어른신. 댁에 모셔다 드렸으니 저는 다시 밭으로 돌아가야지요.”

“누가 가지 말래? 이왕 도로 들어왔으니 밥이나 한 술 뜨고 가란 말이다. 밭 일을 하려면 배부터 든든히 채우는 게 순서다, 이 놈아.

등뇌달은 진명의 소맷자락을 단단히 붙든 채 등이행을 향해 말했다.

“우리 이행이 새참 좀 챙겨줘라.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이 밭에 나설 테니 네 놈도 아무 소리 말고 따라와.”

“예? 할아버님, 소손은 지금 밭 일을 할 때가.....”

등이행이 태어났을 무렵에는 이미 등봉 세가는 상당한 명성과 부를 일구고 난 이후다. 맹진세가와 여양 진씨 세가, 그리고 등봉 세가는 그 이전부터 낙양 3대 세가였다.

당연히 등이행은 밭 일꾼처럼, 마당 한 번 쓸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치매 노인에게 그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 등이행이 몸을 사리자 냅다 소리를 뱉 질러댔다.

“예끼, 이 놈! 어디서 게으름이야? 네 놈이 지금 간덩이가 부어도 한참 부었구나!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릴 테냐, 이 놈! 이 놈!”

등뇌달은 지팡이로 사정없이 등이행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물론 하인들이 말리고, 등이행이 적절히 피하는 통에 제대로 맞진 않았지만 진명 앞에서 부끄러운 노릇이기는 했다.

“이 놈! 당장 밭으로 나가지 못해! 이 놈아, 게으름을 피우려거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이 날 이때껏 네 놈 입에 밥숟가락을 밀어 넣어준 게 한스럽다!”

등뇌달이 제 분을 못 이겨 길길이 날뛰자 등이행은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다.

“고정하십시오, 할아버님! 알겠습니다. 소손도 함께 밭에 나가겠습니다.”

“진작에 그럴 것이지! 이행을 좀 보아! 어린 것이 벌써부터 얼마나 부지런하냐! 네 놈이 계속 이리 게으름을 피우면 내 이행이에게 곳간 열쇠를 물려줄 것이야!”

등뇌달은 자주직은 승계했는지언정 세가의 재산만큼은 손에 꼭 쥐고 넘겨주지 않았다. 전 가주였던 등뇌달의 아들 등흑지도 죽을 때까지 곳간 열쇠를 받지 못했다. 등이행으로서는 등뇌달의 비위를 맞춰주어 하루라도 빨리 재산을 물려받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 알겠습니다. 고정하십시오, 할아버님.....”

“누가 네 할아버님이야? 이 멍청한 녀석 같으니.”

“공.....”

등이행은 하인에게 옷과 도구를 가져오라 명했다.

그로부터 한 식경 후.

낙양성의 상권을 손에 넣어 최고 유력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등봉 세가의

## 武極 - Story Book

가주 등이행은, 굳은살이라고는 전혀 없는 양 손에 호미와 가래를 들고 진명의 뒤를 쫓아 뽕 밭으로 가야 했다.

“이거 실망이로군. 등가주 눈에는 내가 그리 물로 보였나 보오?”

평일지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매처럼 날카로운 평일지의 눈길에 등이행은 안절부절 못하며 괴로운 표정이 되었다.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결단코.....”

평일지가 싸늘하고 잔인한 웃음을 지었다. 사실은 웃음이 아니라 험박, 혹은 살기가 표정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불러야 옳았다.

평일지는 마치 고양이 앞에 선 쥐처럼 바르르 떨고 있는 등이행에게서 시선을 놓지 않았다.

“나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오, 등가주.”

“누, 누구들 그럴겠소이까. 크흠.”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는 사람도 아주 싫어하지.”

매가 쥐를 노려보고 있었다. 매의 표정은 마치 ‘난 특별히 배도 고프지 않고 굳이 너같이 작고 더러운 것을 잡아먹을 생각도 없지만 이왕 네가 내 발톱에 걸렸으니 재미 삼아 갈갈이 찢어 죽여버리고도 싶군’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사실 못할 것도 없었다.

평일지와 일주엽의 밀약에 의해 등봉 세가가 요새 낙양 안에서 어깨 힘 좀 주고 다닌다지만, 까놓고 말해 등봉 세가는 필요에 의해 내세운 꼭두각시일 뿐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얼굴만 내세우고 돈이나 받아가라, 는 정도다.

평일지가 등이행과 그만 거래를 끝내고 싶다면 일주엽은 기꺼이 다른 대리인을 내세울 것이다. 문제는 거래를 끝내는 방식이었다.

평일지는 혹시라도 등봉 세가와 거래를 끝내더라도, 원활하고 무리 없이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비록 지금, 등이행이 직접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진명을 도와 상전을 다시 일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순간일지라도 말이다.

등이행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억울했을 터였다. ‘두 손 다 걷어 부치고 상전을 일군다더라!’ 라는 말은 보통 그만큼 전심으로 돕고 있다는 과장된 표현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만큼은 다르다.

말 그대로 등이행이 혼자서 상전에서 일을 한 것을 말한 것이다. 그것을 평일지는 등봉 세가가 진명을 돕고 있다는 뜻으로 오해했다.

“등가주도 알다시피 등봉 세가와 나의 낙양 지부는 이미 한 배를 탄 바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등가주가 내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좀 그렇구려.”

“아니, 평지부장! 나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소.”

다급해진 등이행이 평일지의 말을 끊자 평일지는 순간 잘 알아놓은 칼처럼 예리한 살기를 일으켰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뭔가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감각이 전신을 확 덮쳐오자 등이행은 저도 모르게 혀를 깨물며 눈을 질끈 감았다.

등이행이 알아서 입을 다무는 것을 확인한 평일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말은, 내가 등가주에게 우리가 함께 탄 배에서 내리라고 할 경우에 등가주에게는 바닷물 속으로 텀벙 뛰어드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말이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소?”

“.....”

잔뜩 겁에 질린 등이행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평일지는 그제서야 살기를 거둬들였다.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두 번 다시 등봉 분타의 상전에는 걸음 하지 마시오. 내 허락이 있기 전까지, 등봉 세가는 두 번 다시 뽕 밭 한 장 거둘 수 없소이다.”

“아, 알겠소. 확실히 알아들었으니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없을 것이오.”

“그 대답을 담보로 마지막 기회를 드리지. 그럼 이만 살피가시오.”

등이행은 평일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낙양 지부를 떠났다.

혼자 남은 평일지가 미처 삭이지 못한 분을 터트렸다.

“욕심만 많은 돼지새끼 같으니! 내가 몇번이나 언질을 주었건만!”

진명을 등봉분타에 처박고, 아무런 지원도 인력도 없이 혼자 고립되게

## 武極 - Story Book

만들었다가 혼자서 죽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그것도 되도록이면 빨리.

지금까지는 그 계획이 무난히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느닷없이 등이행이 호미와 가래를 들고 밭으로 나가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평일지가 이원조에게 물었다.

“등봉 분타 근처에 녹림 산채가 여럿 있지 않았나?”

“있습죠. 평정 산채나 양성, 기산 산채도 있구요.”

“그 머저리 같은 것들은 뭘 하는 거야?”

“단심맹의 이름에 겁을 먹은 모양입니다. 낙양성에는 평 지부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흠.”

이원조가 시간이 날 때마다 진명을 졸졸 따라다닌다지만 아직 진명이 평정 산채를 제압한 사실은 잘 몰랐다. 진명에게 도움을 받은 등봉 세가의 아이들 역시 집에 갇힌 신세라 다른 이들은 모르는 것이다.

문득 평일지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만약 정말로 돈을 벌어들인다면? 다 무너졌던 양잠 사업을 다시 일으켜 등봉 세가에서도 더 이상 상전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면?’

물론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일개 무인이, 그 넓은 상전을 혼자 경작해 그것으로 누에를 치고 비단실을 뽑아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에서조차 나오지 않는 터무니 없는 소리라는 것을 그도 잘 안다.

하지만 진명은 꽤나 황당한 일들을 잘만 해치워내는 인물이 아니던가.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란 걸 알면서도 어쩔지 진명이라면 할 것 같다.

평일지가 부르르 몸을 떨었다.

모른 척 내버려두고 있노라면 그 어떤 기가 막힌 일을 저질러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평일지는 아드득 이를 갈았다.

“내 그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지. 조만간 네 놈은 암전히 목을 내놓게 될 것이다.”

“아, 이 놈 보게? 부지런히 일하는 줄 알았더니 밭 꼴이 이게 대체 뭐냐?”

오늘도 등봉 세가의 전전가주, 등뇌달의 잔소리는 계속 되고 있었다.

진명은 비 오듯 흐르는 땀을 닦으며 허리를 폈다.

우드득 소리가 났다.

스스로에게 의지를 불어넣고자 철우처럼 묵묵히 일을 이어가던 진명은,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그저 소가 되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중이었다.

온갖 잔소리에, 간섭에, 욕설에, 심지어는 매질까지 당해가며 밭 일을 하는 그런 소가.

“후우..... 이번에는 무슨 일이십니까?”

진명이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이 놈이! 몰라서 물어! 아, 가지를 잘라줘야 될 거 아니냐!”

“가지요?”

“아니, 이제껏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등씨 가문에 태어난 게야!”

전에는 본 좀 받으라고 추켜세우더니 이제는 또 어떻게 태어났냐며 성화다.

“노인장. 전 등씨 가문이 아니라.....”

등뇌달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혀를 끝끝 찼다.

“에그, 이 등신 같으니. 에그, 이 멍청한 놈 같으니. 명색이 뽕잎 따서 먹고 사는 집 안에 태어난 놈이 어째서 가지치기 하나도 모르고 있누. 쫓쫓.....”

이어지는 등뇌달의 설명은 이랬다.

“요 뽕나무는 어디서나 잘 자라는 놈이지. 따듯해도 잘 자라고, 추워도 잘 자라고, 비가 안와도 자라고 비가 와도 잘 자라. 그거야 참 고마운 일이지. 안 그러냐? 그런데 너무 잘 자라도 탈인 게, 아 저 혼자 쑥쑥 커서 하늘까지 닿으면 어쩔거냐 말이다. 적당히 자라야 사람이 손을 뻗어서 잎도 따고 열매도 따고 그러는 게지. 그래서 위에 새로 자라는 가지는 재빨리 잘라줘야 옆으로 잎이 풍성해 지는 게야. 알아들었냐, 이 놈아?”

## 武極 - Story Book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어르신.”

“하, 이 놈 말하는 것 보게. 지 할애비한테 어르신이 다 뭐야. 그냥 할애비라고 해라. 어릴 때는 하부지 하부지 하면서 그리 졸졸 따르더니, 이제는 대가리 좀 굽어졌다고 쑥스러움 타는 게야?”

“아니오, 그런 게 아니라...”

백 날 말해봤자 소용 없는 말이다. 진명은 그냥 뒤통수를 굽어댔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가지치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암, 그래. 농사는 할 일을 미루면 안되는 게야. 그럼 때를 놓치거든. 흠은 양전한 것 같아도 기다려주는 법이 없느니라.”

“예, 어르신.”

“에잉, 또또...”

핀잔을 주면서도 등뇌달은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매일 매일 소처럼 부러먹는 듯 해도, 기실 등뇌달은 진명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농사일에 문외한이었던 진명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이 등뇌달이 하는 일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상전이 이렇게 제 모습을 갖춰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뽕나무를 키우는 것은 진명이 해야 할 수많은 일 중에 작은 시작일 뿐이었지만, 이제 진명은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꿔나가고 있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진명을 기쁘게 했다.

아주 가끔이지만 임완춘이 들릴 때도 있었고, 범여도 알게 모르게 마음을 써주는 눈치였다. 문주희 역시 말로는 늘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

‘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할 때처럼 터무니 없지만은 앓아.’

치매에 걸린 노인이었지만, 그 한 명의 존재가 진명에게 많은 힘을 주고 있었다.

# 武極 - Story Book

## 2.2.3. 제 51 화 [조집]

그러나 진명이 등뇌달과 함께 하는 시간은 아쉬울 정도로 짧았다.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장주님! 장주님!”

한창 등뇌달과 진명이 발 일에 몰두해 있을 무렵, 익히 얼굴을 알고 있던 등봉 세가의 문지기가 상전에 나타났다.

아무래도 등이행이 평일지의 협박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 벌써 세가 내에서는 가주의 엄명이 떨어진 모양이었다.

“장주님! 예서 이러심 제가 죽습니다요. 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엥? 가긴 어딜 가? 나는 여기서 우리 이행이 놈이랑 발 일을 해야된다니까.”

“발 일은 왜 하시려고요? 안채에 암전히만 있으면 세상만사 다 부질 없으실 양반이 대체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시는 겁니까요?”

“아, 이 놈아! 내가 안채에만 있으면 뽕밭은 누가 돌보라고?”

“그 말 같지도 않은 말 마시고 그냥 곱게 계시다 돌아가시라고요! 제발 아래 것들 달달 볶지 마시고요! 장주님 아니더라도 제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문지기의 험악한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 멀리까지 등뇌달을 좇아 나오는 일이 귀찮아 죽을 지경이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그의 심정을 한치의 가감도 없이 대변하고 있었다. 어차피 치매에 걸린 노인, 말이야 곱게 하든 험하게 하든 뒤탈은 없으니 말이다.

“아, 귀찮아. 다 필요 없고 어서 가십시다! 말을 듣지 않으면 힘으로라도 끌고 오라 하셨으니 더 이상 고집 부리시면 나도 어쩔 수 없다고요.”

그가 거친 손길로 등뇌달을 잡아 끌자 뻑뻑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거 놔라, 이 놈! 아, 이 할애비가 새참을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여기 있지 말라는 게야? 나도 아직은 힘 쓸 수 있단 말이다!”

“아, 작작 좀 하셔!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문지기는 등뇌달이 소리를 지르건 말건 우격다짐으로 그를 끌고 갈 기세였다.

진명이 눈살을 찌푸리며 나섰다.

“이보시오. 당신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께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요?”

“아, 님이 내 사정을 뭘 안다고 끼어드는 게요?”

“어르신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소? 때가 되면 제가 세가로 모셔다 드릴 테니 지금은 그냥 돌아가시면 안되겠소이까?”

문지기가 진명을 힐끗 돌아보았다.

“넌들 좋아서 이러겠소? 하지만 어쩔 수 없소이다.”

“정 그러시면 제가 등봉 가주님께 따로 말씀을 드릴테니 지금은 일단.....”

“아, 어쩔 수 없다지 않소!”

그의 통명한 목소리가 진명의 귓가에 꽂혔다.

“등봉 분타주고 나발이고 절대로 장주님과 두 번 다시 말 섞게 하지 말라는 가주님의 엄명이 있었소이다.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공으로 부려먹을 심보인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등봉 세가의 장주를 그리 막 대하면 안 되는 법이지!” 진명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요. 내가 어르신께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결코.....”

“아, 뻘소. 나한테 따지셔도 소용없소이다. 이미 가주님께서는 적잖이 언짢으신 모양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네를 매일 이렇게 발로 불러낸다는 게 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지... 원.”

다른 건 몰라도 집안 일이라는데 진명이 끼어들 수는 없었다.

문지기는 끝끝내 저항하는 등뇌달을 힘으로 잡아 끌고는 상전을 떠났다. 진명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혼자가 된 진명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 武極 - Story Book

“후우.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 오해는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진명은 아직 이번 일의 뒤에 평일지의 검은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아... 역시 그렇구나. 등봉의 상전도 망한 거구나.”

작은 한숨 같은 소리.

나비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새가 조잘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진명은 뭐가 어떻건 간에 깜짝 놀라고야 말았다. 자신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상전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탓이었다.

“누구십니까?”

뽕나무 속에 파묻혀 일하던 진명이 불쑥 고개를 내밀고 묻자 저쪽 역시 깜짝 놀란 듯 새된 소리를 냈다.

“엄마야! 그 쪽은 누구시죠?”

음성으로 보아 젊디 젊은 여인이었다. 여인은 뽕나무 가지 사이로 고개를 이리저리 내밀어 진명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다.

그 사이 진명은 나무 틈 사이로 걸어 나왔다.

“저는 등봉 분타를 맡고 있는 소림의 진명입니다. 소저께서는 이 상전에 무슨 볼 일이 있으십니까?”

영동한 방향으로 시선을 주며 낮선 이의 등장을 대비하고 있던 여인은, 정작 어깨 너머로 진명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다시 한 번 더 화들짝 놀라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

쿵!

“아야아.....”

진명은 웃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여기, 제 손을 잡으십시오. 괜찮으니까?”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다.

“지금 웃었죠?”

“아,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그럼 조금 후에 웃으실 거죠?”

“아니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제가 넘어진 얘기 하면서 웃으실 거죠? 역시나 진소라는 바느질 외에는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 멍청이라고. 아, 난 정말 구제불능이야. 어찌자고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철퍼덕 자빠졌담. 진소라 이 등신 팔푼이!”

빠르게 혼잣말을 뱉어낸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쿵쿵 내리찍기까지 했다.

진명이 별 수 없이 여인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이런 짓을! 그만 두십시오. 절대로 지금도, 조금 후에도, 그리고 훗날 남 앞에서도 웃지 않겠습니다. 물론 진 소저가 넘어졌다는 말도 하지 않을 테고요.”

스스로 진소라라고 이름을 밝힌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혼자 넘어지고, 혼자 울고, 혼자 말하고, 혼자 때리기까지 하는 웃긴 사람이었지만 본인은 더 없이 진지한 모양이었다.

아직도 눈물이 그렇그렇 고인 눈이 맑고도 고왔다.

“...정말이세요? 정말 말하지 않을 건가요?”

“예. 원하신다면 맹세라도 하겠습니다.”

진명이 단호히 말하자 그제서야 진소라는 손등으로 눈물을 속속 닦더니 말했다.

“그럼 손 주세요.”

“예?”

“예라뇨. 일어나야죠.”

“아아, 예.”

진명이 진소라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다. 진소라는 그 손을 붙들고 영차 일어섰다.

툑툑.



## 武極 - Story Book

이어서 옷에 묻은 흙을 털는 손길은 능숙하고도 재빨랐다. 진명이 미처 도울 새도 없이 진소라는 다시금 말끔한 모습이 되었다.

머쓱해진 진명이 입을 열었다.

“실례가 아니라면 이곳엔 어떤 일이신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아... 나무를 보러 온 거예요. 혹시나 실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요.”

“실이라면 명주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진소라가 콧등에 주름을 잡으며 말했다.

“그런데 영 글렀네요. 대체 이걸 가지치기라고 한 건지. 보아하니 비료도 한 번 안 준 것 같아. 나무가 아직도 이 상태라면 누에는 대체 언제나 올릴 건지... 아무리 싸움이 몇 번이나 있었다지만, 예휴.”

진소라의 표정이 한 없이 우울해졌다.

진명이 궁금해 물었다.

“그런데 명주실은 왜.....”

“당연히 옷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명주실로 할 게 또 있나요?”

“하하. 그렇군요. 소저께서는 옷을 만드느 분이셨군요.”

진명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긁었다.

진소라가 빼죽 웃으며 말했다.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요. 여양 세가의 진소라는 제 발로 걷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팔푼이 등신이라 그 부친이 꼼짝하지 말고 앉아서 하는 바느질이나 익히라고 했다는 얘기는 다들 하는 소리니까.”

진명이 저도 모르게 슬쩍 웃었다.

“제가 볼 땐 잘 걷고 계시는데요.”

“그건 저와 마주친지 한 다경도 채 되지 않았으니까요. 한 식경만 같이 계셔도 남들하고 똑 같은 소리를 하실 거예요.”

진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길 해주고 싶었지만, 그보다는 진소라의 이전 얘기에 더 흥미가 생겨났다.

“그럼 누에를 올리기만 하면 진 소저께서 비단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소립니까?”

“비단이 아니라 옷을 만들어요.”

진소라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진명을 올려다 보았다.

“낙양이 처음이세요? 낙양의 비단 사업은 원래 여양 진씨와 등봉 세가에서 시작한 거예요. 낙양이 큰 일을 겪으면서 상전을 비롯한 기반 시설이 죄다 망가지는 통에 동업이 힘들게 되었던 거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큰 일이지요. 등봉 세가에서는 더 이상 상전을 관리할 의지나 노력이 없어 보이니 말이에요. 그 일로 등봉 세가와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는 생산은 그만두고 중개상만 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니 저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져서, 이제는 그냥 팔푼이 노릇만 하고 있네요.”

진소라는 말 끝을 흐렸다.

진명이 그 옆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말했다.

“제가 실을 드리겠습니다.”

“...예? 등봉 분타주께서요?”

진소라가 의아한 얼굴로 진명을 바라보았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무림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런 얘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잖아요. 분타주께서 등봉 세가를 설득해 주시겠다는 소린가요?”

진명의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럽지만 제가 부족한 손으로 등봉 세가의 상전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미약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푸하!”

진소라는 갑자기 웃음을 터트렸다. 그러나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지금 등봉 분타주가 뽕 밭을 경작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칼을 잡던 손으로 나무를 키우실 거라고요? 그건 너무 우습잖아요.”

## 武極 - Story Book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도 몹시 궁금하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과연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대체 왜 뽕 밭 따위에 관심을 쏟으시는 건가요?”

진명이 진지하게 대꾸했다.

“진 소저께서 못한다 하시면서 계속 걸음을 걷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해야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 ..”

진소라가 얼굴을 붉히며 입을 다물었다.

“저기... 제가 잘 모르고 너무 함부로 말한 것 같네요.”

잠시 후 들려오는 진소라의 목소리는 다시금 아주 작고 작은 나비가 된 듯 했다.

진명이 빙그레 웃었다.

“괜찮습니다. 저도 사실 왜 제가 뽕나무를 심고 가꿔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주어진 일이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통 모르겠습니다. 비료는 준다고 준 건데 잘 안됐나 봅니다.”

옆에서 듣는 줄도 모르고 험담한 꼴이 된 진소라가 더욱 몸둘 바를 몰라했다.

“그게 말이예요. 비료는 비가 오고 난 뒤 땅이 축축할 때 줘야 해요. 이렇게 마른 날이면 비료가 땅에 섞이질 않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줘서도 안되고요.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진 소저께서 걱정하실 만도 합니다.”

“아니, 그건 제가 그.”

진소라가 안절부절 못하며 난감해 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등봉 분타주의 험담을 했던 것은 사과 드려요. 그럼 이만.”

진소라는 말도 채 마치지 않은 채 후다닥 몸을 돌려 상전을 벗어나려 했다.

아직 물어볼 것이 남았던 진명이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 잠깐만!”

“어맛!”

쿵!

그러나 붙들 필요가 없었다.

진소라는 몇 걸음 내딛지도 못하고 또 다시 멋지게 나동그라졌다. 넘어지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일 것이다.

“이런, 괜찮으십니까?”

재빨리 진소라의 곁으로 다가간 진명이 물었다.

진소라는 또 다시 눈물이 그렇그런한 눈으로 진명을 바라보기만 했다.

진명이 조용히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무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웃을 일도 없고 남한테 말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진소라가 고개를 고덕이며 진명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녀는 두 번이나 훌쩍 자빠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 못내 부끄러운지 눈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획 몸을 돌렸다.

“아, 저기..... 아닙니다. 살피 가십시오.”

진명은 진소라를 붙들려고 하다가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진소라의 말 대로라면 이미 상전을 비롯한 생산 기반 시설은 다 망가졌고, 등봉 세가와 여양 세가의 동업 관계도 끝났다고 하지 않았는가.

진소라 한 명을 붙든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종종 걸음으로 진명에게서 멀어져 가던 진소라가 문득 뒤를 돌아보더니 말했다.

“등봉 분타주님!”

“예?”

벌써 언제나 쉼게 눈물 자국을 지워낸 진소라는 밝게 웃고 있었다.

“등봉 분타주님께서 정말로 실을 주시면, 그럼 제가 웃을 만들어 드릴게요.”

진명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 武極 - Story Book

“정말이십니까?”

“혼자서 비단도 짜야 하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실만 있으면 할 수는 있으니까요.”

진명은 벅차 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상전을 가꾸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누예를 올린들 그 다음으로 무얼 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불확실했던 앞날이 자그마한 실마리를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 소저.”

진명이 거듭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진소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예?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도 넘어진 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에요.”

“물론이죠!”

진 소라는 수줍고도 밝은 웃음을 남긴 채 상전을 떠났다. 그녀가 떠나고 난 다음, 진명은 더욱 기운이 솟았다.

등뇌달의 빈자리를 여양 세가의 진소라가 대신해 준 느낌이다.

진명은 더 열심히 흙을 고르고 가지를 치기 시작했다.

이제는 슬슬 누예를 올릴 시기가 오고 있었다.

# 武極 - Story Book

## 2.2.4. 제 52 화 [속셈]

“... ..!”

문주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반짝 떴다.

달이 없는 밤처럼, 혹은 안개가 없는 호수처럼 잔잔하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이질감.

“앗!”

문주희는 짧은 기합성과 함께 품 안으로 손을 넣었다.

쉬쉬싹!

경쾌한 소리를 흘리며 비도가 날았다.

속도, 힘, 균형. 붉은 바람의 이름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비도술이었다. 스르륵.

그러나 문주희가 날린 비도는 허무하게 목표를 선회하여 바닥을 굴렀다.

“쫓쫓. 실력이 예전 그대로구나. 맹의 일 때문에 수련을 등한시 한 게냐?”

침입자의 목소리를 들은 문주희의 얼굴에 일순 화색이 돌았다.

“아버지!”

그러자 어둠 속에서 인영(人影)의 모습이 드러났다. 작지만 단단한 체구, 고요하나 매서운 눈빛을 지닌 중년의 남자다.

문중양.

문주희의 아버지이며 현 청성의 장문인이다.

“목소리 낮춰라. 깽 자들이 많을 텐데.”

“다른 눈들 걱정하시는 분께서 한 밤 중에 과년한 딸자식 방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야 네 성취를 제대로 확인할게 아니냐.”

문중양이 보일 듯 말 듯한 웃음을 머금었다. 가만히 서 있는데도 사람이 서 있다는 존재감이 느껴지질 않는다. 이런 희미한 존재감을 느낄 때마다 안개없는 호수, 무진호(霧盡湖)라는 문중양의 별호가 더욱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웃 갖춰입고 나오너라. 할 얘기가 있으니.”

“그러지요.”

문주희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일어나 부친의 말을 따랐다.

이어서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여양 분타. 자 파의 청풍이 분타주로 있는 곳이었다.

“허면 궁금하신 겐니까?”

늦은 밤.

청성의 주요 인사 셋이 참여하는 조출한 회의는 충분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자 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세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던 탓이다.

청풍의 말에 장문인 문중양이 대꾸했다.

“자네나 희아의 의견을 무시하려 들 정도로 궁금하진 않아. 그럴만한 인물이라니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그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왜 뒷얘기가 없느냐는 게야.”

“뒷얘기라니요?”

“그런 인물이 있다는 말 외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었잖으냐. 오죽하면 내가 내 발로 낙양까지 왔겠나 말일세.”

청풍이 문주희에게 조용한 시선을 던졌다.

“그에 관한 일이라면 아가씨께서 말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

문중양이 살짝 눈썹을 치켜들었다. 의외라는 뜻.

“뜻 밖이로구먼. 그 얘기를 먼저 꺼내든 것은 자네인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문주희가 입을 열 차례였다.

# 武極 - Story Book

“맞아요, 아버지. 청풍 대협께서 먼저 진 소협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고, 충분히 문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소녀가 나섰습니다.”

“허면, 결과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아직 진행 중이라? 좋다. 그렇다면 경과를 듣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중이냐?”

문중양의 묻는 것은 진명을 영입하는 일이었다. 그 일로 청풍이 발 벗고 나선다 했고, 하나 있는 딸까지 그의 품을 떠나 낙양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다.

구대 문파, 아니 전 무림을 통틀어 마교의 도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청성이 받은 피해는 회복불능일 정도로 심각했다.

겉으로 볼 땐 본문을 모조리 빼앗기고 간신히 일부만 도망친 소림이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림은 천년 뿌리의 밀거름은 모두 남겼다.

범 자 배 항렬의 고수들도 여럿 살아남았음은 물론이요, 소림 제일의 실세인 혜각도 무사했다. 게다가 중원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림의 무수한 속가들도 건재했다.

하지만 청성은 어떠한가?

본문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그 피해가 너무 컸다. 살아남은 일대 제자라고는 고작해야 청풍 하나. 그나마 청풍은 일대제자 중에서도 가장 자질이 떨어지는 축에 속했다.

장로급 인사들과 일대제자, 다시 말해 한 문파의 근간을 이루는 든든한 기둥들이 모두 전멸한 청성은 그냥 허울만 남은 껍데기뿐이었다.

만약 죽은 제자들의 목숨과 본문을 바꾸라 했으면 청성의 장문인 문중양은 더는 볼 것도 없이 그러고나 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문파들이 단심맹이라는 이름 아래 뭉쳐서 마교에 대항할 궁리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청성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어떻게든 죽은 제자들의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이었다.

자칫 하다가는 이대로 청성의 맥이 끊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문중양의 속내는 꺼렇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리 쉽게 똑딱 해치울 성질의 일이 아님을 아버지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촉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의외로 문주희의 대꾸는 이랬다.

청풍이 우려하는 것에는 아랑곳없이, 필요하다면 치사하고 더러운 수도 감행하겠다고 제 입으로 내뱉은 문주희의 처음 각오와는 좀 다른 내용의 얘기다.

청풍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소림의 진명에 대한 얘기는 이미 마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를 청성으로 영입하는 방식이었지, 그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주희가 날카롭게 그의 말을 잘랐다.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 때는 소림의 범여 대사께서 그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론이었구요. 둘의 사이가 변화했는데도 계속 진 소협의 영입을 고집했다간 자칫 소림과 척을 지게 될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했다.

문중양이 말했다.

“청성이 살아남느냐 멸문하느냐 하는 상황에서 타 문파의 눈치를 일일이 볼 생각이려면, 어찌 이번 일을 추진했겠느냐. 애초에 너의 생각이 틀렸던지, 아니면 각오가 틀린 것일테지.”

“그리 말씀 마세요, 아버지. 타 문파도 나름입니다. 청성이, 아니 그 어떤 문파도 소림과 척을 지는 것을 달가워하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소림의 일대 제자를 데려간다 하더냐? 고작해야 수많은 속가 중 하나일 뿐이다.”

“그가 고작 속가일 뿐이라면 저희가 나서지도 않았겠지요. 그는 벌써 자신의 힘으로 등봉 분타주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문중양의 눈초리가 한층 날카로워졌다.

## 武極 - Story Book

“그런 인물이라면 더 크기 전에 데려와야 현명한 일이 아니냐? 대체 무얼 더 지켜본다는 게야?”

“그건.....”

문주희가 대답을 씹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그러나 끝내 답은 나오지 않았다.

결코 문주희답지 않은 태도였다.

처음 문주희의 속셈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이용할 가치가 있는 자를 발견했으니 적당히 이용해줄 생각이었다.

장문인의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문주희에게 있어서 남자들은 그 저주를 대신할 희생양에 지나지 않았다.

마음을 주는 것도, 몸을 주는 것도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았다. 그럴만한 상대를 골라 원하는 것을 주고 대신 확실하게 대가를 받아오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청성 제일의 후기지수이자 차기 장문감이었던 청진을 약혼자로 맞이하는 일도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 그는 문주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대가를 줄 수 있는 사내였으니 문주희도 그에게 그녀가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을 내어줬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죽었다.

청성은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내줄 수 있는 사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할 수 없이 문주희는 청성이 아닌 외부에서 그런 사내를 골라야 했다. 진명은 그저 그런 사내들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 때.....’

언제부터였을까. 진명을 생각할 때마다, 좀 더 정확히 그를 두고 주판알을

굴러볼 때마다 문주희는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곤 했다.

그의 생김새, 그의 음성, 그의 사람됨을 떠올릴 때마다 문주희는 뭔가가 계속 잘못되어 간다고 느껴졌다.

이전처럼 주고 받는 것에 대한 시원한 계산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진명을 볼 때마다, 그가 어떻게 고생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은근슬쩍 엿볼 때마다, 문주희는 그에게 자꾸만 뭔가를 더 주고 싶어졌다.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었다.

문주희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모자라는 계산을 해 본 적이 없었다.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꾸만 주고 싶어지는 이상한 계산법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게 문주희를 자꾸만 진명으로부터 달아나고 싶게 만들고 있었다.

“왜? 내게 말 못할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이냐?”

문중양이 문주희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문주희는 고개를 떨구며 시선을 회피했다. 대신 엉뚱하게도 문주희의 입은 또렷하게 다른 얘기를 꺼내고 있었다.

“누군가를 영입하는 일이 청성에게 몹시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요. 소녀는 일단 좀 더 지켜보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아버지도 더는 재촉하지 마세요. 소녀가 확신하지 못하는 인물이 대체 청성이 무슨 필요란 말입니까?”

그 말을 끝으로 문주희는 자리를 떴다.

문주희가 일으킨 찬 바람이 두 사람만 남은 공간을 한층 더 적막하게 만들었다.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문중양이 청풍에게 말했다.

“의외로군. 본인이 하겠다고 덤빈 일 앞에서 외려 주춤하는 저 녀석 모습은 본 적이 없어. 희아가 그럴만한 일이라도 있는가?”

“무슨 의미신지?”

“진명이라는 자에게 뭔가 재고할만한 여지가 생겼냐는 말일세.”

청풍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 武極 - Story Book

“제가 알기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문. 그는 오히려 너무 진지하고 너무 훌륭해서 탈인 인물입니다.”

“그래?”

문중양의 미간에 수심이 드리워졌다. 사실 마교의 침공이 있는 이후로 그의 미간에 내려앉은 수심은 사라질 날이 없었다. 이제는 그냥 고질병이 되어버린 듯도 했다.

“알 수 없는 일으로군. 하지만 희아가 제멋대로 굴도록 내버려둘만한 여유도 내겐 없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물론입니다. 아가씨의 심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도 힘 써 보겠습니다, 장문.”

“그래.”

문중양은 피곤한 이마를 손바닥으로 눌렀다.

“일단은 길만 터주게. 더 이상 어물거리기 싫으니 소림에게 한 소리 듣는 것은 각오하고라도 내가 나설 생각이야.”

“알겠습니다.”

“아, 자네가 지금 남쪽 분타를 맡고 있다 했던가?”

“예. 여양 진씨 가문이 있는 여양 분타입니다.”

“큰 문제는 없고?”

“아직까지는 신경 쓸 만한 일은 없습니다.”

“내 듣자 하니 사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더군. 각별히 조심하게나.”

청풍은 문중양이 말하는 조심하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안다. 문주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몇 남지 않은 청성의 제자들 역시 지키라는 뜻일 게다.

청풍은 고개를 숙이며 읊했다.

그렇게 저마다의 생각을 품은 채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문주희는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채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낙양성의

밤거리는 불야성이다. 주루가 늘어선 거리는 대낮이나 다름없이 밝고 찬란하다.

술취한 취객들 몇이 홀로 거니는 문주희를 보며 눈을 떼지 못하고 걸음을 멈춰 서서 바라본다. 그들에게는 선녀처럼 아름다워서 감히 말을 붙일 수도 없을 터다.

문주희는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걸었다.

그에게 역시 사내란 그런 가벼운 동물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래야만 한다.

그런데 진명이란 사내는 왜 자신을 이토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일까.

문주희는 문득 걸음을 멈춰 섰다. 그녀의 앞으로 다가오는 사내를 보자 고운 아미가 살포시 찡그러진다.

상대도 문주희를 알아보고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문주희였다.

“평 지부장을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군요.”

문주희가 평일지가 나온 곳을 힐끔 보았다. 보통의 주루처럼 보이지만 홍등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기루인 것 같다.

평일지는 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가 문주희를 보고 술이 확 깬 얼굴이다.

“그러는 문 소저께서는 어인 일이시오?”

서로 같은 말을 물었는데 둘 다 할 말이 없다.

문주희는 평일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평일지도 처음엔 문주희의 계산 속에 있던 인물이다. 그는 화산의 적전이고 나아가 화산을 이어받을 재목이었다. 화산에서도 평일지의 일이라면 손발 가리지 않고 나섰다. 그와 관계를 맺는다면 청성도 충분히 덕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주희는 생각이 달랐다. 평일지는 야심이 많은 자다. 평일지를 청성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등한 관계에서 그와 관계를 맺고 정략결혼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하지만 그와 혼인을 하는 순간 화산에 비해 세가 부족한 청성은 화산에 종속되고 말 거라고, 문주희는 그렇게 생각했다.

‘잠깐 눈앞의 이익을 보고자 청성이 잡아 먹히게 할 순 없지.’

그래서 평일지는 그녀의 계산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 武極 - Story Book

단심맹의 낙양성 지부장이고 정파 무림의 최고 후기지수이다. 외줄을 타듯 조심스럽게 그와의 관계를 지켜 나가는 것이 문주희의 할 일이다.

문주희가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하자, 평일지 역시 술기운을 애써 몰아내며 문주희를 쳐다 보았다.

문주희.

청성 장문인의 외동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총명함을 인정받아 실질적으로 청성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청성의 2인자.

비록 껍질만 남았다 해도 청성은 청성. 그녀만 얻을 수 있다면 청성도 함께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문주희는 진명에게 관심이 있을 뿐, 평일지에게는 늘 사무적이었다. 평일지가 어떻게든 해보려 해도 문주희는 평일지에게 어느 이상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더구나 지금은.....

‘좋지 않군.’

좋은 모습만 보여도 시원찮은 판에 하필이면 기루에서 나오는 장면을 들키다니.

한데 그건 문주희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그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면.

두 사람은 한참이나 서로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평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으나 지금은 그럴만한 때가 아닌 것 같소.”

“그렇군요.”

문주희도 그렇게 대꾸하고 말았다.

“그럼.”

“살펴 가지지요.”

평일지와 문주희는 가볍게 고개를 숙인 후, 서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쳐 갔다.

휘황찬란한 홍등만이 두 사람의 마음 속 그림자를 더욱 어둡게 만들 뿐이었다.

# 武極 - Story Book

## 2.2.5. 제 53 화 [또 다른 인연]

“이 놈들... 대체 왜 막내를 그리 못살게 구는 것이야, 에이.”

다시 안채에 갇히다시피 한 등뇌달은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막내 애가 뭘 잘못했나? 그럴 놈은 아닌데 말이야. 찢찢.”

등뇌달은 생각할수록 발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막내 손주가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떻게 배워먹었는지 뽕발에 대해서라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렇기에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애처로운 녀석이었다.

“내가 도로 나가서 도와주려고 하면 지 애비가 또 성질을 부릴 테고 말이야. 그렇다고 두고 볼 수도 없고.”

등뇌달은 뭔가를 고민하는 것처럼 눈을 끔뻑이며 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무슨 생각이 났는지 냉큼 일어나 창문가로 다가갔다.

등이행의 명으로 등뇌달의 방문은 커다란 빗장을 가로질러 잠궤 놓은 상태였지만, 등뇌달은 이미 방문이 아니라 창문으로 출입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는 창문 밑에 놓은 장식대를 밟고는 창문으로 올라서서 망설임 없이 몸을 굴렀다.

쿵!

그대로 창문 아래로 곤두박질친 등뇌달은 몇 번이나 헛손질을 한 끝에 일어섰다. 늙고 여윈 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도 그의 주름진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에궁. 웬 놈의 문을 이리 높게 만들어놓은 게야! 그렇게 고치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말이지. 한 번 나설 때마다 뼈마디가 남아나질 않는 듯 하니 이거 원.”

등뇌달은 안채를 빙 돌아 정원으로 이어지는 문을 나섰다. 그러자 막 안채로 들어서던 아이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장주님.”

등뇌달을 알아본 아이들이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등뇌달이 눈을 끔뻑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응? 너희들은 뉘 집... 오라, 얼마 전에 택이 영감네 혼사가 있었다고 하더니 그 집 애들이로구나. 그래, 할애비는 잘 계시냐?”

물론 등봉 세가의 아이들은 택이 영감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러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장주님에 대한 얘기는 다들 알고 있었으므로 새삼 놀라지는 않았다.

아이들은 저들끼리 장난스런 눈짓을 주고 받더니 대충 이렇게 둘러댔다.

“예, 그야 잘 계시지요. 그런데 안채에 계시지 않고 어딜 가세요?”

“아아, 나야 뭘 뽕 발에 나가는 게 일이지. 예구예구, 지금도 벌써 발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내가 왜 집 구석에서 이러고 있는게지? 아!”

등뇌달은 아이들과 마주치느라 깜박했던 볼 일을 생각해 냈다.

“으엥? 근데 니들은 발에 안 나가냐? 벌써 다 큰 것들이 하나라도 일손을 거들어야지 왜 남의 집 구석을 기웃거리고 있는 게야!”

아이들이 다시 눈짓을 주고받았다.

스스로 진명을 찾아가기도 했던 만큼, 아직 어리나 집 안이 돌아가는 사정을 뻔히 아는 아이들이었다. 현재 등봉 세가에는 등뇌달을 포함한 전원이 상전 쪽에는 얼씬도 못하도록 엄명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이유도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그럼 저희들이 발에 나갈까요?”

이 말의 중간에는 영악하게도 ‘장주님 대신’이 생략되어 있었다. 그러나 등뇌달이 이 점을 알아챌 리는 만무했다.

## 武極 - Story Book

“암! 그래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집 밖으로 못나가거든요. 장주님이 문지기에게 말해서 문을 열어주시면 안될까요?”

“엥? 문이 잠겼어? 아, 그런 거라면 내가 열어줘야지. 그래서 어린 것들이 오도가도 못하고 여기 있었구만... 쫓쫓. 아, 얼른 따라 오너라.”

등뇌달은 앞장 서서 아이들을 이끌고 정문으로 갔다.

또 다시 안채를 빠져나온 등뇌달을 본 문지기는 당연히 기겁을 하며 그를 막아 섰다.

“장주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십니다요! 원, 이거야 정신은 오락가락하는데 기력은 되려 팔팔해지시니 나만 죽어나네. 어이구, 내 팔자야.”

문지기가 신세한탄을 뱉어내며 등뇌달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등뇌달은 아이들을 앞세우며 되려 큰 소리를 냈다.

“이 놈아, 문 열어라! 이 애들이 네 놈 덕분에 집에도 못 가고 있었잖느냐! 택이 영감이 와서 지네 일손을 왜 놀리느냐고 따지면 뭐라 할 게야?”

“예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아, 얼른 열어 줘. 그래야 애들이 지네 집엘 가든 발엘 가든 할거 아냐.”

“아이고, 발에는 누구도 못 갑니다요. 몇 번을 말씀 드렸는데도 또 그러시네. 가주님이 아시면 경을 친다고요!”

실랑이가 길어지려 하자 아이들 중 하나가 나섰다.

“어서 문을 열어. 장주님께서 저러실 땐 누구도 못 말린다는 걸 알잖아. 이러다가 공연히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쩔거야?”

옆의 아이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일단은 그냥 할아버님 말씀대로 따르는 게 나을 거야.”

문지기가 곤란한 얼굴로 맞섰다.

“하지만 장주님을 단단히 집 안에 가둬두라는 명이 있었던 말입니다.”

“그건 걱정 말고. 할아버님은 지금 당신이 나간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내보내려 하시는 거거든. 우리를 다른 집 자식인줄 아시고.”

그제서야 문지기도 수긍했다. 아이들을 함부로 내보내지 말라는 말도 있었지만 치매에 걸린 장주를 내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그럼 잠시 열어드릴 테니 좀 있다 돌아오십쇼.”

“그건 걱정하지 말라니까.”

끼익.

문지기가 문을 열자 등봉 세가의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쏜살같이 대문을 빠져 나갔다.

등뇌달은 속 편한 얼굴로 아이들 뒤에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어여 가 보고, 택이 영감한테 다음에 약주나 한 사발 하자고 전해라!”

아이들이 곧장 달려간 곳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상전이였다.

“진 대허업! 사부니임!”

멀리서 그를 부르는 소리에 진명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등봉 세가의 꼬마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양 손에 저마다 농기구를 하나씩 든 채 씩씩한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어라?”

진명은 개구쟁이들이 또다시 나타나자 일손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 보았다.

나름 부유한 세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고생 한 번 안 해봤을 게 뻔한 아이들이 비단 바지자락을 걸어 부치고는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너희들이 이곳에 웬일이냐?”

“진 대협! 오늘부터 저희도 돕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 발은 세가의 재산이니, 저희도 이곳에서 밭 일을 할 권리쯤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은 그대로 쫓겨가지 않을 거라는 각오가 단단히 서려있는 얼굴이다.

다시 혼자 일할 것을 각오한 진명에게는 뜻밖의 손님이자 지원군인 셈이다. 진명은 그들이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

그러나 또 다시 등봉 세가로부터 오해를 사는 것은 원치 않았다.

“밭 일을 해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냐?”

## 武極 - Story Book

물론 아이들에게는 어떻게든 진명으로부터 소림의 무공을 사사 받고야 말겠다는 숨은 속내가 있었다. 하지만 진명의 뜻이 완고한데다가 지난 번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친 전력도 있으므로 우회하는 길을 택했을 뿐이다.

아이들은 미리 입을 맞춘 듯 하나 같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무엇을 우선 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구요. 결코 진 대협께 폐를 끼치지 않을 테니 발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네, 그럼요! 당분간 무공은 가르쳐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한 명이 가만히 있자 다른 아이가 옆구리를 쿡 찔렀다.

“아, 그, 그러니까 저도 발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무공은 천천히 가르쳐주셔도 돼요.”

“이 바보가!”

아이들이 그 아이를 구박했다.

진명은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녀석들.....”

뒀에는 머리를 굴려 수를 내었을 테지만 너무도 맑은 눈빛들이라 그 속내가 뻔히 보였다.

잠시 고민하던 진명은 결론을 내렸다.

“그래, 알겠다. 너희들 말대로 이곳은 등봉 분타나 나의 소유가 아닌, 등봉 세가의 땅이다. 너희들이 미리 다루고 가꾸어 보는 일도 좋은 공부가 되리라고 믿는다.”

진명의 허락이 떨어지자 아이들의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진 대협!”

“이히히! 잘 됐다!”

진명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작게 웃었다.

“내게 고마워할 일이 아니지. 어디까지나 함께 일하는 것이니 서로 잘 해보자꾸나.”

터무니없이 적적하고 황량하던 상전에 갑자기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양

소매와 바지자락을 둘둘 말아 올리고 성급하게 덤벼드는 소년들을 보면, 무슨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다.

‘생각해 보니 틈을 내서 무공을 가르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이 근방은 계속 녹림이 터를 잡고 있는 곳이니 말이야. 그 일은 범여 대사님께 여쭙봐야겠다.’

진명이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었다.

‘히히. 발 일을 도와드렸으니 그 대가로라도 무공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다른 말 못 하실 거야. 울여 형이 정말 머리 잘 썼지 뭐야.’

‘그럼 그럼. 이제 우리도 소림문하다! 이히히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휴...”

“후욱후욱...”

의기충천했던 처음과는 달리, 아이들은 뺄뺄 땀을 흘리며 울상을 짓고들 있었다. 발 일이라는 게 생각만큼 만만치 않은 모양.

해는 뜨겁고, 시간은 더뎠다. 발 끝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갔고 등줄기를 구르는 땀방울에 옷 안의 살갗은 축축하다 못해 쓰라려왔다.

“저기... 형,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한 아이가 진명의 눈을 피해 수근수근 말을 꺼냈다.

아이들 중 가장 만이 격인 등울여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대꾸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힘들어 죽겠는데 말 시키지마.”

“그럼 한 가지만 더. 안채에서 우리가 없어진걸 알아채지 않았을까?”

“어휴, 이 멍청이. 그걸 내가 무슨 수로 아냐고. 아직 찾지 않는 걸 보니 괜찮은 모양이지.”

“그, 그래. 근데 진짜 너무 힘들다아... 우리 그만 집에 가면 안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무공은 대체 언제 배우려고?”

터무니 없는 소리를 되받아 치는 등울여의 목소리가 좀 컸던 모양. 아이들과

## 武極 - Story Book

진명이 동시에 등올여 쪽을 바라보았다.

“너희들, 결국은 발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무공을 배우려는 심산이었구나?”

진명이 짐짓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아이들의 안색이 변하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할 수 없이 가장 나이가 많은 등올여가 앞으로 나섰다.

“저기... 그러니까 그게...”

“흐음. 나는 너희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세가의 앞날을 걱정해 나섰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게 아니었다면 나는...”

등올여가 파랑게 질린 얼굴로 외쳤다.

“그건 안돼요! 더 열심히 할 테니 그러지 마세요!”

“네에!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은 진명이 그들을 돌려보낼 것이라 생각한 모양이다.

진명이 통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응? 난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무공을 가르쳐줄 거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지 말라니... 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아아앗!”

다급해진 아이들이 진명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다.

“진 대협! 아니아니, 사부님! 그러시면 안되죠!”

“이리 놀리시는 게 어딴습니까? 저희들은 무조건...”

“사부님! 이 땀 흘리는 것 좀 보श्य요!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발 일을 했는데요.”  
좀 전까지 생전 처음 해보는 노동에 지쳐 축 늘어져 있던 아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악을 쓰며 진명에게 매달렸다.

결국 진명은 웃음을 터트리며 두 손을 들었다.

“알았다, 알았어. 원 참. 이 손이나 좀 놓고 말해라.”

아이들의 얼굴이 급격히 밝아졌다.

“그럼 정말 무공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정말이지요?”

“그래. 알았다.”

“이얏호!”

“까아!”

아이들은 신이 나서 난리들이었다. 진명 또한 처음 자신이 소림의 무공을 배울 때가 생각나 새삼스럽게 들뜬 기분이 되었다.

‘녀석들. 저렇게나 좋아하다니.’

그러나 진명의 무공 사사에는 당연하게도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심맹의 소속도 아닌 이에게 소림의 무공을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잖으나. 내가 본 파의 범여 대사님께 말씀드려 허락을 구해 볼 테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아이들의 얼굴에 실망의 기색이 역력히 떠올랐다.

“범여 대사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못 배우는 거네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실 분은 아니니까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우우... 그렇지만 만약에 범여 대사님이 아주아주 나쁜 놈, 아니 나쁜 사람이라서 무조건 싫다고 하면...”

진명이 막 거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였다.

“어허, 고안 놈들. 진명이 너는 내 험담을 어떻게 늘어 놔길래 이 아이들이 이러는 것이냐?”

엄하면서도 깊은 목소리.

진명은 뜻하지 않게 들려오는 범여의 음성에 깜짝 놀라 외쳤다.

“범여 대사님!”

등봉 분타주가 된 지 벌써 한 달.

그간 진명은 산적 멧을 때려눕혔고, 치매에 걸린 노인과 말씨름을 했으며 자신을 비웃는 평일지 세력들과 노상 눈싸움을 해야 했다.

처음 쥐어본 농기구를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도록 휘둘러야 했고 그러느라 잡혔던 물집이 다음 날 터지고 다시 생기기가 일수였다.

무엇보다 단심맹에 와서 처음으로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했다. 늘

## 武極 - Story Book

옆에서 위로와 격거를 건네던 일령은 이제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매일 같이 얼굴을 맞대하며 무공을 지도해주던 범여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고, 그나마 가뭄에 콩 나듯 보는 임완춘이 어릴 때 헤어진 친형제처럼 반가울 지경.

이런 것들은 목숨을 건채 야차나 적나한과 싸울 때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명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거짓이다.

진명은 지금 범여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범여 대사님...”

참으로 많은 감정들이 녹아 흘러내리는 한 마디 말이었다.

# 武極 - Story Book

## 2.2.6. 제 54 화 [사제지정]

“등봉 분타라는 곳이 여기였구나.”

범여는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 말 끝을 흐렸다.

마음 속 깊이 아끼는 제자 앞에서 고생한다는 한 마디를 끝내 하지 못하는 성격 탓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등봉 분타의 모습이 할 말을 잃게 했던 것이리라.

범여의 뜻을 잘못 짐작한 진명이 쑥스럽게 웃으며 뒤통수를 긁었다.

“아, 예.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제자가 등봉세가의 상전을 일구고 있습니다. 영 어설프지요?”

범여는 잠시 속을 다스린 후에야 다시 입을 열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이냐?”

“상전 말입니까? 별 수가 없었습니다. 등봉 분타에서 돈이 나올만한 곳은 이곳 상전밖에 없는데, 마교의 침공으로 상전을 일구던 자들이 모두 죽거나 떠나서요.”

“그런 일들은 마땅히 세가 쪽에서 챙겨야 될 일이 아니냐?”

“그게..... 마침 등봉세가에서는 마교의 침공으로 입은 피해가 막심하여 상전에까지 손을 쓸 여력이 없는 듯 합니다.”

“흐음. 허나 그렇다고 하여 네 녀석이 상전에 나와 일할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니냐? 등봉 분타주로서 할 일이 분명히 따로 있을 터인데?”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분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뭐라고?”

범여의 눈썹이 꿈틀거림과 동시에 노호성이 터져 나왔다.

“분타주가 상전을 일궈 그것으로 자금을 마련한다고? 누가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하라더냐!”

노도와 같은 소리에 진명이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다. 범여가 이렇게 분노한 모습은 그로서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러자 가만히 눈치를 살피고 있던 등봉세가의 아이들이 나서서 한 마디씩 했다.

“그건 진 대협외의 잘못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안채의 어른들이 비겁하게 단심맹 눈치를 보면서.....”

“단심맹에서 하라는 대로 그저 굽신굽신..... 분명히 그건 잘못 된 일이라구요!”

이리 저리 중구난방식으로 한 마디씩 던지는 얘기들을 가만히 듣고 난 범여가 물었다.

“그렇다면 등봉 세가 측에서 분타에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이유가 단심맹 때문이라는 것이냐? 명이 네가 말해보거라.”

“그것이.....”

진명은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라 다시 뒤통수를 긁었다. 범여가 엄한 목소리로 그를 채근했다.

“어서 말하거라. 이는 맹에서도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이야. 등봉 분타가 낙양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분타주를 맡은 네가 정녕 모른다는 것이냐? 그런데 분타주인 너는 발이나 갈고 있고, 당장 눈에 띄이는 병력은 보이지도 않고. 너는 이것에 대해 무어라 변명할 참이냐?”

범여의 서슬 퍼런 분노는 물론 진명을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등봉 분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었다.

진명이 입술을 질근 물었다.

“먼저 지부에서는 각 분타에 지원을 해줄 만한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여양 분타와 맹진 분타에서 주둔한 백도군도 각 분타주가 직접 조달한 자금으로 고용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 너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겠지. 허나 자금 조달마저 분타주의



## 武極 - Story Book

의무였다면 너 말고 다른 자가 분타주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진명이 고개를 숙였다.

“제자가 아무래도 의욕이 앞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명의 목소리에서 힘이 사라져갔다.

자신은 이제껏 평일지가 지부장의 힘을 등에 업고 장난질을 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말하면서 생각해 보니 자신에게 그만한 자격이 없었다면 사양하면 될 일이었다.

일령을 위해서 덤씩 시작한 일이었다고 하나, 너무 생각이 모자랐다. 조금만 더 숙고했더라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쫓, 미련한 놈. 철우경지를 한다고 하더니 정말로 밭을 일구고 있었구나.”

진명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과 반대로 범여는 그 사이 천천히 안색을 회복했다.

“네가 자책할 일이 아니다. 네 말대로 네가 능력도 없는데 욕심만 앞섰던 것이라면 마땅히 지부장이라는 작자가 조율을 했어야 하는 일이지.”

“하지만 대사님.”

“됐다. 내가 너무 늦게 와 본 것이 문제였으니 더는 채근하지 말거라.”

범여는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범여가 단심맹의 일로 낙양성에 와 있기는 하나, 엄밀히 말해 그는 낙양성 지부가 아닌 단심맹에 속해있었다. 낙양성 지부가 평일지와 그 측근들을 중심으로 낙양성 전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낙양성에 와 있는 단심맹의 사람들은 낙양성과 장안성 사이에서 오가는 외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단심맹이 지금 중원 전역으로 흩어진 정파를 한 군데로 모으는 일을 떠맡고 있는 시점이므로, 오히려 낙양성 지부보다는 단심맹 자체의 할 일이 훨씬 더 많았다.

소림에서는 범여 혼자만이 낙양성으로 와 있는 터라 그간 정신 없이 바빴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진명 혼자서 낙양성 지부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변명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었다.

자신이 챙기고 보듬어 주어야 하는 소중한 자 파의 제자가, 이렇게 천대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범여는 못내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화가 났다.

범여는 평소와 같은 말투와 표정으로 진명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그 사이 치솟는 분노를 안으로 갈무리한 것이다.

“대신 너는 내게 할 얘기가 따로 있다. 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며, 왜 날더러 나쁜 놈이라 하는 것이냐?”

범여의 마지막 말은 분명 농담이었다. 그러나 얼굴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아서 진명은 깜짝 놀랐다.

평소 범여의 성격으로 볼 때 그가 절대 농을 걸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등봉 세가의 아이들도 당황한 것은 마찬가지.

아이들은 고개를 마구 저으며 이번에는 범여의 가사를 붙들고 늘어졌다.

“저희는 그런 게 아니구요! 그저 진 대협께 소림의 무공을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대사님께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한 게 아닙니다! 맹세할 수 있어요!”

“무조건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제발 무공을 가르쳐주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마세요!”

“우영, 정말 정말 그런 게 아닌데...”

아이들이 떼를 쓰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바람에 범여는 귀가 다 멍멍할 지경이었다.

“그만, 그만. 이렇게 소란스러우면 어디 내가 말을 알아 듣겠느냐. 알았으니 그만들 하거라.”

범여는 자신의 농담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써 넘겼다. 그 사이 진명이 말을 시작했다.

“이 녀석들은 등봉 세가의 자제들입니다. 전부터 계속 제게 소림의 무공을

## 武極 - Story Book

가르쳐달라 졸라됐는데, 제가 대사님께 먼저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하니 이 난리들입니다.”

진명은 마치 어떻게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새끼고양이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남의 속도 모른 채 배시시 웃고 있을 뿐이다.

“제자 역시 막 걸음을 땀 상태에서 남을 가르친다는 것이 주제넘은 짓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너무 간절히 바라는 터라.....”

그 때 멧 모르는 아이 하나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대사님은 누구세요?”

“헛!”

범여가 자신도 모르게 헛기침을 했다. ‘소림의 범여’라는 말을 듣고도 저렇게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범여가 대체 누구냐’고 되묻는 자는 이제껏 그가 강호를 나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진명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 녀석. 범여 대사님도 모르고서 소림의 문하가 되겠다고 했느냐? 범여 대사님이 바로 소림의 무공교두시란 말이다.”

“우와아. 그럼 진 대협도 범여 대사님께 무공을 배웠어요?”

“물론이지.”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그럼 당연히 범여 대사님이 진 대협 보다 강하겠네요? 무공도 훨씬 더 잘하시고?”

“당연한 말이다. 일개 속가인 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다.”

진명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얼굴로 이렇게 말하자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씩덕대기 시작했다.

“그럼 진 대협 말고 범여 대사님께 가르쳐달라고 할까?”

“바보! 진 대협을 설득하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범여 대사님은 한 달이 아니라 일 년을 빌어야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 그런가? 그치만.....”

저들 판에는 속삭인다고 했지만 범여가 그 말을 놓칠 리 없었다.

범여는 아이들을 향해 엄숙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해주었다.

“내가 소림에 몸 담은 게 여기 있는 명이 보다 더 오래되었으니, 나의 수련이 더 길다고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명의 나한권만큼은 가히 소림 제일이다. 너희들은 명이로부터 나한권만 제대로 배워도 어디 가서 얻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진명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럼 아이들에게 무공을 가르쳐도 된다는 뜻입니까?”

“나한권은 아무나 배우는 줄 아느냐? 모든 무공은 다 기초가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진명과 범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아이들의 귀가 번쩍 뜨인 것은 범여보다도 진명이 나한권은 더 셀지도 모른다는 말이었다.

아이들은 급격히 흥미롭다는 표정이 되었다.

“우와. 정말이예요? 정말 나한권은 대사님보다 진 대협이 더 잘하셔요?”

“그렇지.”

아이들이 다시 서로에게 귀엣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그럼 진 대협한테 배워도 되겠는데?”

“그렇지만 그럼 나한권만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 나는 검객이 되고 싶단 말이야.”

“그건 그래. 나도 권법 하나만 덜렁 배우는 건 싫어.”

아이들은 다시 범여에게로 돌아섰다.

“그래도 저희는 범여 대사님께 배우고 싶어요. 대사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네?”

하나 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범여는 그답지 않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천하의 범여가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모르는 것이다.

“허어.”

범여가 두 번째로 헛기침을 뱉어냈다.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해진 진명이 황급히 수습에 들어갔다.

## 武極 - Story Book

“저기, 그건 안될 말이다. 범여 대사님께서 무공을 가르쳐 주시기는 하지만, 배우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배울 수는 없다. 꼭 정식으로 입문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쳐도 그게 그리 쉽지는 않단다. 게다가 범여 대사님은 매우 바쁘셔서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란다.”

“에에? 하지만 진 대협도 범여 대사님께 배우신다면서요.”

“요새는 나도 대사님을 뵈기가 힘들어.”

“에에에에.....”

실망 섞인 한숨이 아이들의 입에서 길게 흘러나왔다.

“나는 나한권은 싫은데.”

“그러게 말이야. 기왕 배울 거면 좀 더 멋지고 근사한 것으로.”

입이 뿌루통하게 나온 아이들을 향해 범여가 말을 건넸다.

“방금 나한권은 싫다고 했느냐?”

아이들은 잠시 서로 시선을 섞다가 동시에 대답했다.

“네에.”

“왜 싫으냐?”

“그건..... 음, 권은 맨 주먹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건 멋이 없어요. 저는 검객이 되고 싶습니다.”

“너는 나한권을 본 적이 있느냐?”

“예? 그, 그건 잘.....”

범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진명을 향해 말했다.

“좋구나.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명이 네가 제대로 된 나한권을 보여주거라.”

“예?”

“그간 얼마나 수련을 했는지 보자는 뜻이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어허!”

“알겠습니다.”

진명이 아이들을 마주보게 돌아서서는 나한권의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범여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무공을 모르는 이 아이들은 백 번을 본다 한들 그게 뭔지 모를 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와 비무를 하자꾸나.”

“예?”

진명이 깜짝 놀라 입을 벌렸다. 반면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우와아아! 비무! 범여 대사님과 진 대협이!”

“이야! 진짜 멋지겠다! 어서 보여주세요!”

진명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 안됩니다. 제가 어찌 대사님의 비무 상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너를 가르치기만 했지 네 녀석의 성취를 몸으로 확인한 적은 없느니라. 이 참에 제대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렇지만.....”

“어허, 내가 보고 싶다는 데도.”

범여가 엄한 얼굴로 채근하자 진명도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럼.....”

진명은 마지못해 범여를 마주보며 자세를 잡았다.

진명과 범여가 동시에 기수식을 취했다.

“삼초를 양보하마.”

“감사합니다.”

진명이 합장을 하는 듯 하더니 초식을 전개했다.

진명이 아는 나한권 중 가장 빠른 선인공수다. 범여는 보법을 밟으며 진명의 선인공수를 가볍게 흘려냈다. 진명은 선인공수에서 끝내지 않고 바로 연이어 패왕거정으로 몸을 낮추며 범여의 가슴을 노렸다. 범여는 적잖이 놀란 표정을 짓더니 미끄러지듯 뒤로 물러났다.

## 武極 - Story Book

‘역시!’

수많은 연습과 수련을 통해 나한권을 두 초식이나 연이어 쓸 수 있게 되었음에도 범여의 옷깃을 스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런데 패왕거정의 초식이 무위로 돌아갔음에도 아직 진명에게는 여력이 남아 있었다.

진명은 기이한 기분으로 전신이 휩싸이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나 온 힘을 다해 초식 하나를 뽑아내곤 했던 진명이다.

하나 지금은 생사를 가늠하는 결투가 아니라 초식만으로 겨루는 순수한 비무다. 온 힘을 다해 상대를 쓰러뜨릴 필요도 없고 일격에 승부를 낼 필요도 없다.

그래서였을까?

진명의 선인공수와 패왕거정은 생사대적을 눈앞에 둔 것처럼 무겁지도, 강력하지도 않았다. 대신 두 초식을 연달아 펼쳤음에도 지치거나 힘에 겹지 않았다.

‘어쩐지.....’

어쩐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번 더?’

진명은 패왕거정의 초식이 끝나는 순간 몸을 비틀며 다시 한 번의 초식을 뺏아냈다.

“허!”

범여의 눈이 크게 떠졌다.

# 武極 - Story Book

## 2.2.7. 제 55 화 [범여]

좌우삽화!

진명이 빠르게 범여의 다리를 노렸다.

이번만큼은 범여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좌우삽화 자체만 보자면 강렬한 기세가 담긴 것도 아니고 피하기 어려운 공격도 아니었다.

세 번.

놀랍게도 무려 세 번이나 연이어 초식이 들어오니 중심이 흐트러져 피하기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이다.

그러나 범여가 누구인가!

실혼인들이 득시글거리던 소림에서 살아남은 이대 제자 중 한 명이며 소림을 대표하는 단심맹의 무공 교두이다.

범여는 흔들리는 중심을 잡는 대신, 그 힘으로 땅을 박차고 공중 제비를 돌아 진명의 등뒤로 내려섰다.

진명은 닭 쫓던 개가 되어 등 뒤를 흰히 내주고 말았다.

범여가 손바닥으로 툭 하고 진명의 등을 밀자, 진명은 몇 발자국이나 앞으로 밀려 나가며 허둥댔다.

“아...!

아무리 비무라고는 해도 등 뒤를 흰히 내주었으니 진명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었다.

하나 범여는 그런 진명을 탓하지 않았다.

“분타 일로 수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터인데, 오히려 전보다도 더 나아졌구나.”

“그게 저..... 사실은 세 초식을 연달아 쓴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한 건지도 잘.....”

범여가 가만히 입에 미소를 머금었다.

“강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

“부드러운 것 또한 능사가 아니니, 천지 만물은 모든 것이 조화되어야 한다. 강함을 이겨낸 부드러움을 알아야 하고, 부드러움을 이겨낸 강함을 알아야 한다.”

진명은 범여의 말에 머리가 확 밝아지는 것 같았다.

한 초식, 한 초식에 온 힘을 다하던 때에는 연이어 초식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진각을 힘껏 밟고 억지로 다음 초식을 전개한 것이 다였다. 그렇게 연이어 초식을 사용하고 나면 온 몸이 부서져라 아프고 힘이 들었다.

한데, 조금 전에는 세 초식을 연이어 사용했음에도 몸에 아무런 무리가 없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비무라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기에 연결 동작이 부드러웠던 것이다.

“한 수에 목숨이 오갈 때도 있으나, 상대가 내 수를 알고 있다면 그 수를 버려야 한다. 고수는 한 수에 목숨을 거는 도박은 하지 않는 법이다. 항상 자신에게 유리하게 싸움을 이끌어 가려 하지.”

“아!”

“전력을 다할 때에는 전력을 다해야 하고, 버려야 할 때는 과감하게 버린다. 약한 자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강한 자에게는 굽히지 않는다. 이것은 소림의 정신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더냐.”

범여의 말은 진명에게 큰 감회를 불러 일으켰다. 무뚝뚝하고 무섭기만 하던 범여에게서 언제 이런 따뜻한 가르침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었을까.

진명은 깊이 감동하여 포권을 하고 읊었다.

“제자,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범여의 주먹이 진명의 머리를 때렸다. 알밤을 먹인 것이다.

딱!

# 武極 - Story Book

“으!”

진명이 머리를 감싸쥐고 주춤하며 물러섰다. 등봉 세가의 아이들이 킁킁거리며 웃는다.

범여가 혀를 차며 말했다.

“지금은 비무 중이렸다?”

“그,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눈을 팔면 쓰나.”

진명은 가슴이 벅차 올랐다. 범여의 표정은 무뚝뚝하지만,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저도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비무나 대련 중에 방심하는 녀석이 바보인 게다.”

“갑니다!”

진명은 기분 좋은 웃음을 애써 참으며 다시 범여를 공격해 들어갔다.

범여도 이제는 간간히 공격을 하며 진명을 상대했다. 권과 권이 마주칠 때마다 두 남자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돌처럼 차갑던 범여의 마음에 눈물이 떨어진다.

‘범문아! 이 녀석이 네 제자다. 그리고 이젠 내 제자다. 보고 있느냐?’

어느새 비무란 것도 잊고 최선을 다하는 진명의 눈동자에는 범여만이 보일 뿐이다.

‘마치 젊었을 때의 너를 보는 듯 하구나.’

소림의 속가 제자에게서 소림의 정통 정맥이 이어지고 있었다.

범여는 과거를 회상하며 노안에 회한을 담았다.

이런 예쁜 녀석을 왜 미워하고 싫어했을까. 범문처럼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녀석을.

“받으십시오!”

진명의 권이 날아든다.

범여는 과거를 보내고 현재를 보며 마음에 미소를 담았다.

“오냐. 내 받아주마. 어디 있는 힘껏 와보거라!”

말은 그렇게 했어도 진명의 나한권은 범여조차 정면으로 받기엔 버거울 지경이다.

‘이 녀석이 소림의 미래다.’

범여와 진명의 주먹이 얹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등봉 세가의 아이들은 입을 다물 줄을 몰랐다.

“어, 엄청난 고수들이시다.”

“우리가 저런 무공을 배운단 말이지?”

“응. 저게 바로.....”

“나한권.”

등봉 세가의 아이들은 진명과 범여의 비무를 보며 저마다 새삼스럽게 무공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었다.

진명이 말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녀석. 내가 어린 애인줄 아느냐?”

범여는 굳이 바래다 주겠다는 진명의 뜻을 거절했다. 진명은 이대로 범여를 보내기 싫어 조금이라도 더 그와 함께 있고 싶은 모양이다.

“나는 달리 가볼 데가 있으니, 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녀석은 분타주인데 분타주가 분타를 비운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제자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나쁜진 않다.

“그럼 난 이만 가볼 터이니 일 보거라.”

“예. 살피 가십시오.”

등봉 세가의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리쳤다.

“범여 대사님 다음에 또 봐요!”

“오냐.”

## 武極 - Story Book

범여는 인사를 마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등봉 분타를 떠났다.

분타가 멀어질 때 즈음 범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보았다.

아이들이 진명을 둘러싸고 마구 때를 쓰는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무공을 가르쳐 달라는 것일 게다. 참으로 귀여운 녀석들이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들의 힘으로 세가를 지키려 하니 기특하기도 하다.

그러나 범여의 얼굴은 차갑다. 아니, 너무 차가워서 뜨겁게까지 느껴진다.

‘내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마. 이제껏 해주지 못한 것을 해 주마. 범여를 위해서라도.’

범여는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뒤로 하며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돌렸다.

‘평일지 이놈!’

그의 발걸음이 다시 낙양성을 향했다.

탕!

단호하게 문이 열리는 소리에 이원조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전혀 의외의 인물이 나타난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목을 움츠렸다.

“소, 소림의 범여 대사께서 지부에는 무슨 일이십니까?”

“아미타불. 평 지부장을 보러 왔다. 안에 있느냐.”

“지부장님께서서는 지금 잠시 출타를..... 급한 일이라면 오셨다고 기별이라도 넣겠습니다.”

“그래라. 내가 지금 당장 보잔다고 전해다오.”

“예? 지금 이 시간에 말입니까? 그런 실례가 어디 있.....”

“그래, 지금 말이다.”

범여는 이원조가 뭐라고 지껄이건 말건 제 할 말만 했다. 그런 후 마치 염불이라도 외는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이원조의 책상 앞에 단단히 서 있었다.

아니, 속으로는 정말로 염불을 외고 있었다. 그렇게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는 중이었다.

범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이원조는 돌아가는 길을 포기했다. 만약 평일지가 오지 않는다면 범여는 밤을 새더라도 이 자리에 저러고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이다.

이원조야 눈치 하나는 빠른 인간이니 지금 자신으로는 범여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계산해 냈을 것이다.

“그, 그런 사람을 보냅지요. 대사께서는 어디 자리에라도 앉아서 기다리심이.....”

“아미타불!”

“아, 예. 편할 대로 하십시오. 그럼 저는 시키신 일을 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이원조가 허둥지둥 자리를 떴다. 속으로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무는 중이었다.

‘이런 이런. 하필이면 제일 곤란한 때에 제일 곤란한 인물이 들어닥쳐서는.....’

곤란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한데 지금 오란다고 올까?’

평일지도 곤란한 것은 마찬가지일 터였다.

“누가 뭘 어째?”

평일지는 이원조를 통째로 잡아먹을 듯한 눈초리로 노려보았다.

사실 이럴 때면 이원조는 뼈가 저릴 만큼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그는 화산에서 제일 머리 굴림이 좋은 자. 최소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의 충고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어서 지부로 들어가시는 게 맞는 듯 싶습니다.”

“하? 지금, 여기서, 나더러, 나가라는 말이나?”

평일지는 지금과 여기를 강조하며 말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 武極 - Story Book

평일지는 엄연히 낙양성 지부장의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다. 등봉 세가에게 상권을 넘김으로써 자칫 불편해질 뻔한 낙양 상련과의 입지를 다시금 탄탄히 다지는 화합의 자리에서 상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물론 그 화합의 자리가 낙양성에서 제일 가는 호화 객잔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마련되었다는 점과, 화합의 방식이 금분을 뿌린 명주(名酒)가 오가는 식이었다는 점과, 화합의 자리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상련 측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오해를 살 수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게다가 평일지의 옆에는 낙양성 기녀들 중에서 요새 가장 잘 나간다는 청화가 나긋나긋한 손길로 술잔을 채워주고 있었다.

이런 중요하고도 엄숙한 일을, 범여가 제 볼 일이 있다는 한 마디 말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평일지가 다시 한 번 더 이원조를 힘껏 노력보았다.

“그새 네 혀가 게을러진 모양이구나? 그깟 땡중 하나를 못 구워삶아서 여기까지 날 찾아와?”

이원조가 침착하려 애쓰며 대꾸했다.

“쉽게 넘어갈 듯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부가 아직 어수선한 가운데 이런 일로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 알려지면 평 대협께도 좋을 것이 하나 없습지요.”

탕!

평일지가 술잔을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런 일을 처리하라고 네 놈을 불러들인 거잖아! 잊었느냐?”

“그, 그렇습니다만 이건 꼭 가보셔야 할 듯 해서 말입죠.”

“그 놈의 땡중이 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러는 게야?”

이원조가 대답했다.

“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근데도 한 달음에 달려왔다?”

“예.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아무래도 안 오실 듯 해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이원조의 판단은 옳은 것이었다.

그가 그냥 다른 심부름꾼을 보냈다면 평일지는 술잔을 팽개치는 수고도 하지 않고는 두 말 없이 그를 내쫓았을 것이다.

이원조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은 그만한 일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고, 대개의 경우 평일지는 이원조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었다.

“제기랄!”

평일지가 결국은 욕설을 뱉어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이원조와 쑥덕이다 갑자기 핵 일어나는 모습을 본 상인들이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다.

“평 대협! 어딜 가십니까?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리 갑자기 일어나시면 저희는 어찌라고.....”

상인들은 평일지의 눈치를 보느라 찔찔 매고 있었다. 평일지는 그들 덕에 이렇게 비싸고 호화로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 상인들을 한심하단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볼 일이 생겨 먼저 일어나겠소. 자리는 알아서들 파하시오.”

“예? 그, 그럼... 저, 그렇다면 낙양의 상권에 대한 얘기는 또 언제.....”

평일지가 경멸감을 숨기지 않으며 이렇게 내뱉었다.

“그건 나도 모르지. 세상만사 아쉬운 쪽이 먼저 움직이는 게 순리 아니던가?”

평일지는 표정이 썩어가는 대상들을 뒤로 한 채 성큼성큼 객잔을 떠났다.

마침내 범여는 평일지를 독대하게 되었다.

표정이 좋을 수가 없었다. 평일지의 몸에서는 달큰한 주향이 솔솔 풍겨오고 있었으니까.

“이 수상한 세월이 평 지부장만 비껴간 것 같구려.”

범여답지 않게 팔자가 그렇게 좋냐며 상대를 비꼬는 이 소리에 평일지가 뻔뻔한 미소로 응수했다.

“부처의 가호가 제게만 있었나 보지요. 그건 그렇고 이 의외로운 시간에 어쩔



## 武極 - Story Book

일이십니까? 제 알기로는 범여 대사께서도 몸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신 분이래 들었는데.”

“소송은 말을 둘러할줄 모르니 본론부터 얘기하리다. 낙양 지부로 유입된 자금처와 그 사용내역이 궁금해 들렀소.”

원칙적으로 범여가 강호의 대선배임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하지만 범여는 평일지에게 결코 하대를 하지 않았다. 평일지는 현재 낙양성의 지부장이며 화산에서도 배분 이상의 대접을 받고 있는 까닭이다.

물론 평일지의 나이가 한참은 어린데다가 그의 배분이 원칙에 어긋난 것이었으므로 범여를 비롯한 타 파의 일대제자들이 하대를 한다고 해도 무례는 아니었다.

하지만 평일지를 배분 상으로도 대우해주는 것은 범여의 지독히 원칙주의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평일지 역시 이러한 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도에 어긋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각 부의 자금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연말 결산에 있는 일인줄 압니다만.”

“그 때까지 못 기다리겠소.”

범여는 단호하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평일지가 눈을 가늘게 떴다.

‘이 땡종이 뭔가 크게 각오하고 온 모양이군.’

# 武極 - Story Book

## 2.2.8. 제 56 화 [거렴도 악포]

“저런.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범여가 평일지의 뻔뻔한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범여의 눈은 깊고도 엄했다.

“그 때가 된다면 평 지부장은 얼마든지 장부를 조작해 지부의 자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요.”

너무도 직선적인 이 말에 평일지는 냉정함으로 맞섰다.

“흠. 이거 뜻 밖이군요요. 그 말은 범여 대사께서 지금 저를 의심하고 계신다는 뜻인데... 그건 공식적인 자격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직은 비공식적이요.”

그러니까 범여의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었다.

만일 평일지가 제멋대로 유입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참에 바로잡을 수 있다는 소리다.

그러나 평일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기회를 튕겨냈다.

“그렇다면 범여 대사의 요청에는 아무런 권한도, 강제도 없는 것이군요요.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있소?”

“이유야 많지요. 가장 큰 이유를 들라면..... 아, 이런 것이 있겠군요. 낙양성 지부장이라는 위치는 지금 범여 대사께서 말고 계신 무공 교두보다야 훨씬 높고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뜻이다.

이 시건방진 대꾸에 범여는 낯빛도 바꾸지 않은 채 되물었다.

“평 지부장은 그깟 자리 하나에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저런. 그렇게 들려나 보지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사. 제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낙양성 지부장이라는 작은 위치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전적으로 의지하기에는 화산도 너무 부족합니다.”

평일지는 숨김없이 자신의 야심을 드러냈다.

사실 그는 야심을 감추고 있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몰라봤을 뿐이다. 화산의 평일지를 그저 자질이 뛰어난 후기지사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보였을 뿐이다.

평일지는 오히려 마교의 침공이 반가울 정도였다. 마교 덕분에 소림을 비롯한 구대문파가 엉망이 되었고, 엉망인 이 시점이야 말로 그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그러니 범여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소림이 천년 살이 터전을 잃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린 지금 범여가 아니라 혜각이 와서 호통을 쳤더라도 평일지는 지금과 똑같이 말했을 것이다.

“큰 것을 바라는 자라면 작은 것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오, 평 지부장.”

“그렇다고 작은 것만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면 중심을 잃게 되지요. 저는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먼 길을 가야 할 사람이 왜 길을 험히 만드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나름 길을 닦고 있는 겁니다. 편히, 아주 편히 갈 수 있게요.”

“... ..”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겠다는 것을 깨닫자 범여는 입을 다물었다. 평일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할 터였다.

“한 가지만 묻지. 등봉 분타가 백제성과 양양성에서 낙양으로 들어오는 육로의 유일한 관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소?”

물론이다. 그것을 모르고 그 놈의 진명을 앗혀두었겠는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군.”

# 武極 - Story Book

범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차후 혹시라도 등봉 분타를 통한 적의 침입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은 평 지부장이 져야 할 것이오. 비단 노납뿐 아니라 단심맹의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오.”

“그러시던가요. 허면 볼 일은 끝나신 겁니까?”

너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평일지의 말투에서 범여는 기이한 낌새를 눈치챘다. 마치 범여가 이런 질문을 할 거라는 것을 오래 전부터 생각해두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명이를 등봉 분타주로 앉혀 놓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소리냐.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 그것을 알아보려면 범여가 직접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범여는 낙양을 벗어나 단심맹 안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느꼈다.

“그렇소이다. 이 몸은 당분간 자리를 비울 것이니, 그 동안 평 지부장은 부디 자리를 보전하고 계시길 바라겠소.”

평일지는 ‘훗’ 하고 웃었다. 쏘아주자면 더 쏘아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범여와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염려해주셔서 감사하군요. 대사께서 염려하시는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말입니다.”

범여는 짙막한 불호로 분노를 달랬다.

“아미타불. 그럼.”

범여가 떠나고 평일지가 홀로 남았다. 짙은 어둠과 더불어 한 떨기의 수심이 피어 올랐다.

이어서 평일지의 입에서 아주 나직하고 섬찟한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소림에서도 괘시한다 들었거늘 제 와서 제자랍시고 애지중지 하는 꼴이라니. 좀 더 있다간 그 놈의 소림에서 어떻게 나설지 모르니 손을 쓰려면 한 시라도 빨리 움직여야겠군.”

소림이 진명을 아낄수록, 그를 없애고자 하는 평일지의 속내는 위태로워 진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겠어.”

그것이 평일지의 결론이었다.

요즘 평정산채는 분위기가 하 수상하다.

채주 왕호순과 부채주 흑웅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탓이다. 그 틈바구니에서 등 짝이 터지는 것은 애꿎은 산적들이었다.

“이런, 썩을. 두 덩치들이 눈깔에 힘 뺏 주고 다니니 어디 오금을 못 퍼겠네. 오줌 한 번 싸러 올 때도 이리 눈치를 봐야하나, 원.”

“씨발, 내 말이 그 말이라고. 대체 이게 뭇들 하는 짓거리래. 두 양반이 꿈해 있는 걸 보면 아주 그냥 내가 다 속이 터져서.....”

“속만 터지면 다행이지. 왜 애먼 사람을 잡냐고.”

좌아...

답답한 속을 대신 풀어주기라도 할 것처럼 소변 즐기는 기운차게 수풀을 향해 날아갔다.

이전 같으면 네 것이 더 작으니 형님 소리는 거두마, 한 번만 더 그 소리 해봐라 네 것은 잘라 콧구멍에 쑤셔 박아주마, 하는 식의 농지거리가 오갈 만도 했지만 지금은 그저 푸념만 주고받을 뿐이다.

“그래서, 부채주는 다 정리하자는 거야?”

“뭘, 갈 사람은 가자는 거지. 이젠 사람 잡아 죽이고 돈 뺏는 일에 아주 신물이 난다 더만.”

“그럼 뭐여? 진짜로 농사나 짓자고? 아니, 그보다 그 등봉 분타주라는 놈이 저 혼자 씨 부린 말이잖아? 그 흑곰이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을 잘 믿었대? 막말로 소작농으로 받아준다고 해놓고 죄 잡아 죽일 생각일지도 모르잖냐고!”

그러자 옆에서 같이 볼 일을 보던 산적이 몸을 부르르 떨며 대꾸했다.

“그럴 거 같진 않으니 하는 소리겠지. 야, 까놓고 말해서 산적 짙을 이만큼 했으면 사람 보는 눈 정도는 있어야 할거 아녀. 등봉 분타주라는 놈이 좀 새파랑긴 하지만 뒗구멍으로 수작질 할 놈으로는 안 보이더만. 그리고. 잡아죽일

## 武極 - Story Book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에 죽었겠지. 산채가 떼거리로 덤벼도 끄떡 없던 놈 아녀.”

“흥.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 속을 어찌 아누. 내가 십 년이 넘게 산적질 하면서 건진 거 딱 하나는 그 누구도 철썩 같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 막말로 우리 산채부터 보라니깐. 처음에는 그냥 죽이 척척 맞아서 전생애 헤어진 친형제가 만났다고 하던 두 양반이 지금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잖아.”

“뭐..... 그거야 그렇네. 찻찻.”

“그나저나 너는 누구 편이야? 네 놈도 소작질 하고 싶어?”

“니미, 소작질이나 산적질이나. 이도저도 더러운 건 마찬가지 아녀.”

“듣고 보니 그렇네. 제기랄, 대체 이 놈의 팔자는 왜 이리 더러운 게냐. 다 때려 치고 산적 질이나 하면 마음이라도 편할 줄 알았더니만 이건 뭐... 먹을 때는 대가리 눈치 봐야지, 쌀 때는 곰 새끼 눈치 봐야지.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돌아버리고 싶네.”

“누가 아니래? 마교 놈들 오면 마교 눈치 보라, 정파 놈들 오면 또 정파 눈치 보라. 아, 산적질을 언제부터 눈치 보며 했어.”

말이 끝나자 저도 모르게 이가 갈렸다. 그만큼 산채 분위기가 험악하다는 반증이었다.

“뭐야, 이 새끼들? 진짜 그냥 확 돌게 해주리?”

뻑!

게다가 기가 막힌 시차로 그 푸념마저도 들키고야 말았다. 마침 채주 왕호순도 소변이 마려웠던 모양이다.

‘대가리’ 왕호순은 인정사정 없이 두 산적들의 머리통을 붙들며 확 받아버렸다. 머리가 단단하기로는 돌 부럽지 않았던 두 산적은 바지춤을 추스를 새도 없이 오줌더미 위로 쓰러져야 했다.

“크아.....”

“어이구, 아파라. 아, 채주. 거 진짜 너무하시오.”

왕호순이 그 위로 욱박을 질렀다.

“너무해? 야 이 호로 새끼들아. 그러게 누가 뒷담화를 까고 다니랬냐? 내가

꿇구멍이 오죽 가려웠으면 이렇게 달려왔겠냐!”

“여기 온 게 꿇구멍 때문이오? 오줌보가 터질 지경이나 왔겠지. 어디서 거짓말을.....”

“이 새끼들이 그냥! 처먹고 주둥이만 키웠나. 끝까지 나불거리면 하늘에서 뭐라도 떨어지냐? 콧 그냥!”

왕호순은 성질을 참지 못하고 산적들의 엉덩이를 뺑뺑 걷어찼다.

비록 진명에게 개 잡듯 맞은 뒤로는 채주로서의 위신이 바닥으로 추락하긴 했으나, 아직 그는 이 평정산채에서는 제일 가는 싸움꾼이자 폭군이었다.

“아, 그만하시오! 이러다 볼 일도 못 보겠소!”

“볼 일은 무슨 볼 일. 앞으로 두 번 다시 못 싸게 뭉개줄까 보다. 앞으로 주둥아리 조심해!”

흥흥한 산채를 피해 볼 일을 보러 나와 잠시 숨통을 트던 두 산적은, 어디선가 벼락처럼 나타난 왕호순에게 잔뜩 두들겨 맞고는 쫓겨나야 했다. 바닥을 구른 탓에 몸에는 찢찌름한 소변 냄새도 배었다.

정말로 운수 사나운 날이 아닐 수 없었다.

만일 왕호순이 요즘처럼 심기가 불편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나 두들겨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에이, 씨발. 이거 오늘도 기분이..... 씨, 니미랄. 요새 들어 왜 이렇게 개판인지..... 이런 썩을.”

아는 욕설들을 대충 뱉어낸 왕호순은 여전히 언짢은 듯 이마에 깊은 주름을 그려 넣고 있었다.

사실 그의 표정은 요새 들어 계속 죽을 상이었다.

“니미, 씨이...”

잊으려고 잊으려고 해도 자꾸만 떠오르는 그 놈의 등봉 분타주 탓이었다. 다시 한 번 그 생각이 떠오르자 왕호순은 방금 전까지 소변이 마려웠던 것도 잊은 채 뒷간으로 쓰는 산채 뒷 마당에 퍼질러 앉아 버렸다.

“그 놈은 왜 그딴 소리를 해 가지고.....”

## 武極 - Story Book

혹시라도 산적질을 그만 둘 생각이 있다면 언제라도 오라고 했던 진명의 말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부채주 흑웅은 산채에서 마음이 떠났다.

-가십시다, 채주. 나는 이제 이 놈의 칼 질에는 신물이 나오. 하루하루가 사람이 아니라 파리떼처럼 사는 것 같소. 오늘은 돈 푼이나 좀 만질 수 있으려나, 내일은 나보다 더 강한 놈이 오지나 않으려나..... 매일 같이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데 피가 마르오. 나는 이제 이 곰 새끼란 이름도 싫소이다.

흑웅은 답지 않게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 물론 왕호순은 그가 울거나 말거나 신나게 두들겨 패주었다.

-죽을래, 이 새끼야! 니미, 이제와 농사나 지으라고? 그게 어디 산적 입에서 나올 소리야?

산적질이 아무리 고되고 신물이 나도 왕호순은 이제와 소작농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처음 소작농에서 뒷골목 파락호가 되었을 때도, 파락호에서 다시 산적이 되었을 때도 왕호순은 그 스스로에게 다짐한 말이 있었다.

두 번 다시 흠 파먹고 살지는 않을 테다!

그것은 맹세와도 같아서 도무지 깰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다. 설령 왕호순이 다시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맹세가 목구멍이 탁 걸려서 도무지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평생 함께 할 놈이라 여겼던 흑웅이 저러고 나서니 심기가 불편한 것도 당연했다.

왕호순은 벌레를 털어내듯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다.

“안돼, 안돼! 아, 안되고 말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럴 수야 없지!”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잡은 왕호순은 그제서야 소변이 마려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내고 몸을 일으켰다.

그가 막 바지춤을 내리려는 그 때였다.

“.....응?”

산채 아래의 소로로 누군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먼 거리였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못 볼 정도는 아니다.

‘혼자?’

유심히 아래를 살펴보던 왕호순의 입가에 미소가 큼지막하게 걸렸다. 등봉 분타의 괴물 놈 때문에 떨어졌던 사기를 한껏 치솟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애들아! 일하러 가자!”

왕호순이 소리쳤다.

“네 이놈!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홀로 걷고 있던 나그네는 느닷없이 나타난 산적들을 보며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다.

마치 산적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다.

왕호순과 산적들은 순간 찢끔했다.

혼자서 산행을 하고 있던 자는 기이할 정도로 몸집이 컸다.

왕호순도 그렇고 흑웅도 그렇고 평정산채에도 덩치라면 남부럽지 않은 인간이 여럿이다. 그 중에서도 흑웅은 정말로 사람이 아니라 곰 같았다. 오죽했으면 스스로 이름을 곰 새끼라 지었을까. 그런데 눈 앞의 이 자는, 심지어 발 자국 소리도 하나 없는 이 자는 흑웅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왕호순과 산적들은 괜히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혹시 저 놈도 등봉 분타의 괴물 놈처럼 믿는 게 있는 거 아녀?’

흑웅이 왕호순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대장, 아무래도 저 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왕호순도 눈치가 있는 터라 다시 큰 목소리로 물었다.

## 武極 - Story Book

“네 놈도 단심맹과 관계가 있느냐?”

“단심맹?”

나그네가 그제야 반응을 보였다.

“내가 고작 그 따위 구역질나는 위선자들의 집단처럼 보이냐?”

흑웅이 왕호순에게 속삭였다.

“마교 놈은 아닌 것 같고, 사파 같은데요?”

“그래? 그럼 우리야 거리낄 게 없지.”

“하지만.....”

“괜찮아.”

최근 백제성이 사파인 혈무련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은 들었다. 그러나 이곳은 등봉 분타가 지척에 있는 정파의 영역이다.

겁도 없이 정파의 영역에서 혼자 어리버리하게 돌아다니던 사파 녀석 돈 좀 뺏았다고 혈무련이 단체로 쳐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얼추 계산을 끝낸 왕호순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네 이놈 우리 평정 산채의 호걸들에게 혼쭐이 나아 정신을 차리겠느냐! 어서 가진 돈을 내놓고.....”

나그네가 피식 웃었다. 그의 두 눈이 살기로 번들거렸다.

“언제부터 나 거럼도 악포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게 되었지?”

# 武極 - Story Book

## 2.2.9. 제 57 화 [복수의 시작]

왕호순은 산적때의 두목답게 뭐라도 큰 소리를 내려고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술 취했을 때마냥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이 기도에 눌러 그렇다는 것을 왕호순이 알 리가 없었다.

“이곳에 산적 때가 있었군. 하긴, 요즘 같은 때엔 어딜 가도 산적 때가 보이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악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경악을 거듭하는 왕호순과는 달리 사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투였다.

아무래도 무언가 수상하다.

왕호순은 기를 쓰고 외쳤다.

“너, 무슨 놈... 아니, 여긴 무슨 일이냐!”

자꾸만 말이 헛 나오는 통에 왕호순의 말은 위협이 아닌 술주정 정도로 들려왔다. 왕호순은 스스로 혀를 한 번 짹 깨물었다. 그제서야 굳었던 혀가 좀 풀리는 기분이었다.

악포가 물었다.

“등봉 분타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 산행을 택하면 눈에 띄이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는데, 그런 길이 있나?”

“뭐? 등봉 분타? 거기에 볼 일이라도 있냐?”

“길을 물었다. 어느 쪽이냐?”

“각, 니미. 산적한테 길을 묻는 미친 놈은 처음 봤네. 등봉 분타? 가면 뭐 어쩔 건데? 너도 거기 괴물 놈에게 맞고 싶어서 안달이 났냐?”

“괴물 놈?”

악포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그 괴물 이름이 진명인가?”

“니미컬,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그래, 그렇다고?”

말투는 그다지 변화가 없었지만 그 자의 관자놀이에는 힘줄 하나가 솟아났다. 왕호순은 산적다운 감각으로, 그와 진명 사이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냥 가게 내버려 뒀?’

혹시 모른다. 이 자가 진명을 흠씬 두들겨 패 줄지도.

혈무련이 단심맹의 분타주를 찾아갈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하다못해 어렸을 적 불알친구가 아닌 이상에야 만나면 일단 싸움이 나지 않겠는가.

평정 산채의 입장에서야 잘만 하면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다.

‘가만?’

왕호순은 자신의 추리에 뭔가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걸 알았다. 그 빠진 것을 채워 넣는 데 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만약 이 악포란 놈이 등봉 분타의 괴물 놈을 찾아가는 거라면, 그 놈과 맞먹는 실력이 있다는 거잖아!’

왕호순은 기겁을 할 정도로 놀랐다.

그러나 왕호순의 속마음을 모르던 산적들은 자신들의 손님에게 평소대로 반응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먹잇감이라며 좋아하는 자도 있었고, 혹시 모르니 신중해하는 자들도 있었다. 어쨌거나 한 걸 같은 반응은, 침입자를 둘러싸고는 공격 태세를 갖췄다는 것이다.

“어이, 채주. 이 놈을 어떻게 할갑쇼?”

“확 벗겨서 가죽까지 팔아치웁시다. 보아하니 이거 호랑이보다 더 질긴 가죽이 나오겠는데.”

“낄낄. 누런 털이라도 좀 있으면 호랑이 가죽이라고 팔 수도 있겠구먼.”

## 武極 - Story Book

“어이, 아서라고. 그러다 대가리까지 보여달라면 어쩔 건데? 벌써 따버린 모가지를 도로 붙여놓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냥 산채에 깔아놓고 오줌발이나 털지 그래?”

산적들은 산적다운 입심을 풀어냈다.

사실 이렇게 사나운 애기들을 듣고 겁을 집어 먹은 후에 저 자가 자발적으로 가진 돈을 탈탈 털어놓고 재빨리 도망쳐 주는 것이 산적들에게도 가장 바람직하고 간편한 방도였다.

“애, 애들아.....”

왕호순은 산적들을 말리고 싶었다. 그러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이 때에 또다시 한 명에게 겁을 먹고 물러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악포가 말했다.

“등봉 분타까지 길을 안내할 자는 살려주겠다. 한 명만 나서라.”

이 말에 산적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대부분 그 자의 오만방자함에 질려서였다. 그러나 채주 왕호순은 다른 의미로 얼굴을 구겼다.

일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탓이다.

‘재수 없으면 죽는다.’

진명에게서 받은 느낌보다도 살벌한 기운이 느껴진다.

‘그 놈은 그나마 우릴 살려주기라도 했지. 이놈은..... 아무래도 튀는 게 상책이다.’

하필 왕호순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부채주 흑웅이 그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말을 던졌다.

“우리 꼭 그렇게 해야 하오? 그냥 적당히 하고 돌려보냅시다. 나는 이제 정말로 남의 돈 털어먹는 짓은 하고 싶지 않수. 이러다가 또 괜히 맞고 나가 떨어지면.....”

그 말이 왕호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본심과는 다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이 새까! 한 번 산적이면 끝까지 산적이야!”

왕호순이 칼을 치켜들고 악포를 가리켰다.

“다 쳐! 옥포로 만들어 버려!”

산적들이 무기를 꼬나쥐고 악포에게 달려들었다.

“와아아아!”

“얼마 만에 맛보는 피냐!”

“이 놈! 곱게 내놓으랄 때 내놓을 것이지!”

산적들도 진명에게 당한 게 있는지라 평소보다도 광폭했다.

흑웅이 말릴 틈도 없었다.

좌- 악!

뭔가 번뜩인다 싶었다.

흑웅은 좁은 눈을 크게 떴다.

찢어질 정도로 크게.

아니, 그의 눈이 찢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의 눈 앞에서 사람이 찢겨 나가고 있었다.

“으... 으아아아악!”

그것은 눈 앞에서 펼쳐진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신호이기도 했다.

툭.

꿀럭꿀럭.

세로로 쪼개진 산적의 몸뚱어리에서 피와 내장이 흘러내린다.

기세 등등하게 달려들던 산적들이 걸음을 멈췄다.

죽은 산적 다음으로 앞에 서 있던 산적은 악포와 눈이 마주쳤다. 악포는 긴 대도(大刀)를 들고 산적을 쳐다보고 있다.

산적이 부들부들 떨며 무기를 떨궜다. 평소에 입이 생쥐처럼 생겼다고 이름보다 쥐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자다.

“아, 아니 난 그냥.....”

악포의 대도가 길게 포물선을 그렸다.

쩍.



## 武極 - Story Book

빠를 가르는 데도 수박 쪼개듯 가볍다. 어떻게든 삶을 구걸해 보려던 산적이 팔을 내민 채 또다시 두 갈래로 갈라졌다.

산적들은 너무 놀라 달아날 생각도 하지 못했다. 달아나고 싶은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악포는 천천히 주저앉은 산적의 앞으로 걸어갔다.

“사, 살려주세요. 대협!”

악포는 살기와 함께 대도를 날렸다.

“으아악!”

앞에 있던 산적의 머리가 그대로 날아갔다.

사악, 숙!

사삭!

바람이 어딘가에 스치는 듯한 소리.

그리고 그와 더불어 미칠 듯한 비명 소리가, 지옥에서도 들어보지 못할 것 같은 처절하고 끔찍한 비명 소리가 고요한 산을 울려댔다.

“으악! 으아악!”

“아아아아악!”

죽은 자가 지르는 비명이 아니었다. 산 자가 죽어가며 지르는 비명이다.

죽는 자의 죽음을 목격한 다른 자들이 내지르는 비명은 오히려 더 그렇게 크고 괴로웠다.

“야, 이 새끼!”

공포로 눈이 뒤집힌 산적 하나가 칼을 들고 악포를 향해 달려들었다. 자신이 죽어도 악포를 찌르고 죽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아니었다. 너무 무서워서 미쳐버린 것이다.

“흥.”

악포는 힘껏 대도를 휘둘렀다.

강!

산적의 몸과 칼이 동시에 반으로 갈리며 악포를 스쳐 지나갔다.

이건 학살이다. 그저 일방적인 학살이다.

채주 왕호순은 눈을 질끈 감고는 악을 써댔다.

“그만! 그만! 그만해! 길을 알려주면 되잖아! 그만 해!”

아마도 잠깐은 ‘언제든 오시오’라는 진명의 음성이 떠올랐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눈 앞에서 죽어나가는 식구들의 목숨과 비교될 수는 없었다.

그래도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죽음도 멈추지 않았다.

“으아아악!”

그의 도는 거침이 없다. 사람을 하나 반으로 가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도 굳이 그렇게 산적들을 도륙하고 있다.

왕호순은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그 자를 향해 나섰다.

“그만 하라니까! 길을 알려준다잖아!”

그 자는 힐끗, 마치 자신의 팔뚝 근처를 날아다니는 파리 하나를 보는 눈으로 왕호순을 바라보았다.

“한 놈은 남긴다.”

퍼억!

동시에 왕호순은 복부가 뜨거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을 새도 없이 왕호순은 스투크 바닥으로 쓰러졌다. 분명히 바닥으로 쓰러졌다 생각했는데 눈에 자신의 다리가 서 있는 게 보인다.

주인을 잃은 하체가 피를 뿜으며 동상처럼 서 있다. 다리에 털이 송송 나 있어 보기 역겹다. 왕호순은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다리를 보면 그리 아름답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

“이.....이런 씨발.....”

하체에서 뿜어진 피가 바닥에 널브러진 왕호순의 얼굴에 쏟아졌다.

뜨겁다.

자신의 피가 이렇게 뜨겁다는 건 이런 때가 아니면 느끼기 힘든 일일 터다.

그래서일까. 왕호순은 흠 바닥도 참으로 따듯하다고 느꼈다.

## 武極 - Story Book

‘이, 이렇게 따듯... 한 줄 알았다면... 니미, 그럼 그냥 흠... 파... 파먹고 사... 살... 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그렇게 농사를 싫어했을까. 지주가 아주 개 호로 새끼만 아니라면 그 짓도 할만 했을텐데.’

흑웅의 말대로 함께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낙양이 이렇게 부유한 도시가 된 것은 다 양잠과 포목 사업 덕분이다. 꽤나 짝잘한 일이었으니 열심히만 일했으면 언젠가 조그마한 발떼기라도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거 곰녀석에게 미안하게 됐군. 진작에 가자고 할 때 나설걸.’

흑웅은 저 멀리에서 반으로 토막나 죽어 있다. 뭐가 그렇게 서럽고 억울한지 두 눈을 부릅뜬 채다.

진작에, 흑웅이 말을 꺼냈을 때. 아니, 진명이 그런 말을 한 그 순간에 마음을 정했더라면.....

‘그랬다면... 그랬다면 이렇게들 허무하게 버리지처럼 죽지는 않았을 텐데.....’

왕호순은 미안하고 안타깝고 후회스러워서 눈을 감는 것조차 버거웠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왕호순은 숨이 끊어지고 나서도 흑웅처럼 눈을 감지 못했다. 덕분에 그의 눈은 단 한 사람을 제외한 평정 산채 식구 전원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아야 했다.

말도 되지 않는 살육을 한 악포는 조금 숨을 헐떡였다. 더 이상 죽일 놈이 없다.

그제서야 기분이 풀린다.

“후우, 후우.”

처음 말처럼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아, 아흐... 흐으윽...”

악포는 타인의 피를 뒤집어 쓴 채 앞드려 덜덜 떨고 있는 산적의 목덜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앞장서라.”

산적은 너무 겁이 나 제대로 서질 못했다. 몇 번이나 다리가 비틀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다.

“한 번만 더 넘어지면 평생 손으로 걷게 해주마.”

산적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았다. 비틀거리면서도 용케 걷고 또 걸었다.

“진명.....”

악포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발걸음은 등봉 분타로 향하고 있었다.

“에헤헤헤... 진 사부우! 오늘 발 일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제 그만 하죠?”

“사부우우우!”

이제 시작이었다.

진명은 발 일은 최대한 적게, 무공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이기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 녀석들! 어리광 부리면 다 되는 줄 아느냐? 할 일은 마저 다 해야지.”

“하지만 까닥하면 해가 질걸요? 그럼 아무 것도 못하고 집으로 가야 되잖아오오.”

“그건 너희들이 점심 때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 아니냐. 무공 수련을 하고 싶었다면 부지런히 서둘러 할 일을 마쳐야하지.”

“아이, 내일부터는 진짜로 열심히 할게요. 네? 오늘은 이제 그만 하고 나한권부터 배워요. 네?”

진명을 에워싼 세 아이들은 마치 어미로부터 먹이를 받아먹는 새끼 참새들처럼 소란스럽고, 산만하고, 열정적이었다.

진명은 애초에 아이들에게 발 일을 제대로 시키기란 무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비단 옷에 흠이 묻으면 왜 아까운지조차 모르는 도련님들이 고운 손으로 거든다고 나서봤자 일감만 늘릴 뿐이다.

## 武極 - Story Book

그래도 진명은 이 아이들이 귀여웠다. 등봉세가 내에서 이렇게나 든든한 지원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기뻐고, 순수하고 때문지 않은 모습 또한 보기 좋았다.

진명은 조금만 더 이렇게 순진한 공격을 당하다간 어쩔 수 없이 쓰러지고 말거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억지로 엄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 표정은 범여를 흉내낸 것이었는데, 아직 진명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기만 했다.

“안된다. 약속 한 것은 지켜야지. 사내 녀석들이 그렇게 자신이 뽐은 말을 가벼이 여기면 쓰겠느냐.”

이것도 수련이라고, 무공을 배우려면 해야 한다고 진명은 그렇게 말할만한 윙통성은 없었다.

아이들은 진명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재빨리 눈치챘다. 진명이 범여처럼 되

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오늘만이에요, 네? 진사부우우.....”

아이들은 진명을 에워싸고는 그의 바짓가랑이와 소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다. 아이들은 영악하게도 이렇게 나서는 진명이 결국 항복할거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거 진짜 난감하네. 저렇게들 하고 싶어 하는데 더 말릴 수도 없고.’

자신 또한 그러지 않았던가. 처음으로 소림의 무공을 접하던 날, 가슴이 벅찬 나머지 그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아, 알았다. 알았으니 이것부터 놓고 얘기하자.”

“와아! 만세!”

# 武極 - Story Book

## 2.2.10. 제 58 화 [진심]

“야호! 이제 무공 배운다!”

아이들은 저들끼리 신이 나서 난리도 아니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더는 발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었다.

진명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자자, 기왕 하기로 했으니 어서 시작하자. 먼저 소림의 무공을 배우기에 앞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뭔데요?”

“소림의 무공이 어떠한 것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이는 소림이 제자를 들여 무공을 가르치는 이유이기도 하며, 제자들이 소림의 무공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점일 미리 알고 수련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에!”

대답 소리가 씩씩하다.

“좋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나한권을 배우기에 앞서 너희들은 기본이 아주 부족하다. 기본 수련을 마치면.....”

아이들이 실망하며 ‘에에.....’ 하고 입술을 내밀고 있었다.

그런데 진명은 아이들 때문에 말을 멈춘 것이 아니다.

찌르는 듯한 살기가 느껴진다.

진명은 아이들을 감싸 안았다.

“모두 머리를 숙여라!”

획!

무언가가 저 멀리서 날아왔다.

진명이 획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그의 눈이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털썩!

어디선가 날아온 물체가 아이들과 진명의 발치에 떨어져 굴렀다. 진명이 감싸

안고 있었다 해도 눈이 달린 이상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머리다.

사람의 머리다.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걸 보면 방금까지 살아있던 것이 틀림없다.

아이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었다.

“으..... 으아아아악!”

“아악!”

“으허허형!”

“보지 마라!”

진명이 급히 아이들을 돌려 세웠다.

분노가 끓어 오른다.

“누가 아이들에게 이런.....”

그런데 어쩐지 머리만 남은 남자의 낮이 익다.

“평정 산채?”

평정산채에 속해 있던 녹림도 중 한 명이었던 자다.

진명의 얼굴이 딱딱히 굳었다.

“누구냐.”

진명은 아이들을 등 뒤로 감추며 외쳤다.

“누구냐!”

아이들은 너무도 놀라고 겁에 질린 나머지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했다. 마교의 침공이 낙양성에 닥쳐왔을 때에도 아이들은 안전한 세가의 안채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토록 잔인하고 끔찍한 사람의 시체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자신에게 꼭 매달려 와들와들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진명은 마른침을 삼켰다.

## 武極 - Story Book

누군지 몰라도 시체를 던진 자는 좋은 목적을 지니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었다.

‘어떻게든 아이들은 지켜야 한다.’

짧은 순간이었고, 생각만 많아졌다. 진명은 다시 한 번 더 목이 터져라 외쳤다.  
“누구나! 나와라!”

스윽!

진명에 말에 대꾸라도 하듯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독특한 발걸음 소리가 진명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잎이 무성해진 뽕나무의 가지를 제치고 한 남자가 나타났다.

거대한 체구의 남자다.

그가 진명을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먹이를 채가는 매의 눈빛이었다.

“네 놈이 진명이냐?”

진명이 그를 노려보며 대답했다.

“그렇다. 네 놈은 누구냐!”

“나는 악포라 한다. 우리 동료들은 날 거렴도라 부르지.”

“거렴도 악포?”

진명은 최근 강호가 돌아가는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러나 악포가 꺼내든 패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검은 색 바탕에 붉은 원. 그리고 붉은 원 안의 검은 주작.

“혈무련!”

“그래. 그 혈무련이다.”

진명이 급히 좌우를 살폈다. 그러나 악포 외에 다른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는다.

‘혼자?’

기이한 일이다.

‘혹시?’

낙양성이 혈무련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인가!

진명의 눈이 크게 떠진 순간, 진명의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악포가 말했다.

“나 혼자 뿐이다.”

그러나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었다. 진명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물었다.

“혈무련에서 무슨 일이냐!”

“혈무련이 아니라 정확히는 내가 네 녀석에게 볼 일이 있어서 말이지.”

진명은 십대신위 중 하나였던 초위와의 간담 서늘하던 비무를 떠올렸다.

‘설마 이 자도 십대신위 중의 하나인가?’

그때에는 어떻게 상대를 쓰러뜨렸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는 분명 강했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설마하니 낙양 땅 안에서 십대신위를 보게 될 줄은 몰랐군.”

“나는 십대신위가 아니라 멸천혈랑대 소속이다.”

멸천혈랑대는 십대신위보다 좀 더 젊고 패기 넘치는 청년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십대신위보다 무위에서는 부족하나 대부분이 십대신위에 버금갈 정도로 고수이며, 십대신위보다 나이가 더 어린 만큼 몸을 사리지 않았다.

혈무련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임무를 해내기에 대외적으로는 십대신위보다도 더 두려운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나 실제로 혈무련 내에서는 대부분이 십대신위와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각별한 친분이 있어, 십대신위의 산하 조직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런 멸천혈랑대에서 진명을 찾아온 것이다.

“멸천혈랑대가 나를 왜 찾은 것이지?”

진명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악포가 굵직한 눈썹을 험하게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서문 형님이 네 놈과 한 약속 덕분에 말이다.”

“서문? 서문강 말인가?”

“흥. 기억은 하는군.”

## 武極 - Story Book

다른 건 몰라도 서문강의 이름은 잇기 힘들다.

진명이 낙양성에서 마교의 적나한을 간신히 물리쳤던 그 시점에서 혈무련과 단심맹이 또 한 번 맞부딪힐 뻔 한 적이 있다. 마교와 싸우느라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직후였기에 십대신위가 포함된 혈무련과는 도저히 맞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 때 일령이 기지를 발휘해 초위와 진명의 비무가 성립되었다. 혈무련의 서문강은 진명이 이길 경우 철수를 약속했다. 그리고 결국 진명이 비무에서 이겨 서문강은 약속대로 철수했다.

아마 정파에서도 그만큼 신의가 있는 자는 드물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약속이 문제였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약속 탓에 서문 형님이 지금 얼마나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지 너 따위가 알 턱이 없겠지. 그런데 네 놈은 덕분에 분타주의 자리를 받았다고?”

만일 평일지나 문주희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기꺼이 비웃음을 날렸을 것이다.

스스로 입을 잘못 놀려 그리 된 것을 왜 애먼 사람 탓하냐고. 하지만 진명은 그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꼈다.

“그때 혈무련에서 약속을 지켜준 것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소. 그 일로 난처해졌다니 뭐라고 할 말이 없소.”

악포는 진명을 사과를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따위 말을 듣고자 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곳까지 걸음한 이유가 뭐요?”

악포가 씨익 웃었다.

“네 놈을 죽이고 싶어서.”

진명이 눈살을 찌푸렸다.

‘아무래도 오늘은 화가 많은 날이겠구나.’

진명이 고개를 돌려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어서 세가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진명은 이어서 악포에게도 말을 건넸다.

“이 아이들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녀석들이니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돌려보내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어차피 얼굴을 다 외워두었으니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지.”

악포의 말에 아이들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걸음을 떼지 못했다.

진명이 안타까움을 실어 말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이요? 이 아이들은 세가의 자식들이오. 단심맹과 혈무련의 싸움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목숨이오!”

“상관 있는 자들만 골라 죽이라는 소리라면 이미 늦었다. 여기까지 오는 길에 걸리적 거리는 산적 놈들을 싹 쓸어버리고 왔으니. 저 시체는 길 안내를 해주던 마지막 놈이었지.”

진명이 평정 산채의 녹림도들이 떠올랐다. 그 중에는 정말로 진명에게 감화하여 산적을 그만두려 하는 자도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아무리 혈무련이라 해도 신의와 정도를 아는 자들이라 생각했는데...”

이 말이 악포를 자극했다.

“신의와 정도라고? 그건 정파 놈들이나 지껄이는 개 소리야! 그 놈의 신의 때문에 지금 서문 형님이 어떤 수모를 겪고 계시는지 알기나 하냐고!”

물론 진명이 알 리가 없다. 그렇기에 악포는 더더욱 들끓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혈무련의 갈잡은 늑다리들이 서문 형님을 배신자, 변절자라 부르고 있단 말이다! 그 누구보다도 련을 생각하는 형님인데! 조적항 그 비열한 작자는 벌써부터 자신이 십대신위의 수장 자리를 꺾어 찼다고 여기고 있고! 그게 모두 다 네 놈 때문이란 말이다! 네 놈과 해버린 그 말도 안 되는 약조 때문에!”

백제성을 점거한 사파로서는 낙양 땅이 욕심날 수밖에 없었다.

만일 단심맹이 낙양 성 안에 자리를 잡기 전에 혈무련이 먼저 입성했다라면 이 일대가 전부 사파의 수중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 막대한 이득을, 고작 사마강

# 武極 - Story Book

의 약조 하나 때문에 눈 뜨고 놓치게 된 것이다.

더구나 낙양성이 단심맹의 손에 넘어가는 바람에 중요한 지리적 거점인 양양성의 점령에 큰 차질이 생겨 버렸다. 해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낙양성의 등봉 분타를 거치지 않고서는 양양성으로 갈 수 없는 것이다.

옆친데 덮친 격이라, 그 때 진명과 사마강 사이에 오갔던 일들을 조적항이 왜곡시켜 상부에 보고하는 바람에 사마강은 더욱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다들 사마강을 어설피게 협사 흥내나 내는 변절자라 생각했다. 사파에서 가장 주목 받는 후기지도였던 그가 일시에 자리를 잃고 옥이나 먹는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끔찍한 좌천이었다.

악포는 그것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강한 무공과 올곧은 성품. 악포가 어렸을 때부터 서문강은 그만의 우상이었고 영웅이었다. 서문강과 가까워지기 위해 죽도록 무공을 익혔다. 조금이라도 서문강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침식도 잊고 무공에만 매진했다.

당시 팽가의 자손에게만 이어지던 오호단문도를 가신인 악포가 전수받을 수 있던 것도 그가 그만큼 노력했던 까닭이었다.

그렇게 멸천혈랑대에 들어 서문강과 의형제를 맺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던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지 않았던가.

악포는 서문강이 죽으라면 죽는 시늉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의 영웅이 무너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배신자라 욕먹고, 십대신위의 수장이라는 위치마저 흔들리고 있다.

심지어 혈무련의 장로들 사이에서는 서문강을 변방으로 보내버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다.

악포는 참을 수가 없었다.

싸워 진 것도 아니고 악속을 지켰을 뿐인데, 그런 진짜 남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다니!

악포는 서문강보다도 더 괴로워했다. 괴로워할수록 그의 머리에는 진명이란 이름이 더 짙어지고 있었다.

‘진명! 그 자만 아니었다면!’

어느새 악포에게 진명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진명은 그의 영웅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악(惡)’이 되어갔다.

본래 낙양성을 비밀리에 정찰하는 임무를 띠고 온 악포였다. 스스로 자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의 속셈은 정찰이 아니라 진명에게 있었다.

악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의 영웅인 서문강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해야 했다.

비밀스러운 정찰이란 임무도 ‘서문강을 위해서’라는 대명제 하에서는 아무런 족쇄가 되지 못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진명 외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ㅋㅋㅋ. 네 놈만..... 네 놈만 죽인다면 서문 형님께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실 거다. 네놈이.... 그래, 네 놈이 모든 일의 원흉이야!”

말을 마친 악포가 대도를 치켜 들었다. 그의 두 눈은 시뻘건 싹뿔로 뒤덮여 있었다.

“죽어라!”

진명이 아이들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너희들은 어서 도망쳐!”

아이들이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진 사부는요? 우리만 도망칠 수는 없어요!”

“나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힘들다!”

“그, 그래도!”

“앗! 위험해요!”

진명은 뒤의 아이들이 다칠까봐 쉽사리 피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막아야 했다. 진명은 날아드는 대도를 옆으로 쳐내려 했다.

그러나 주먹과 도의 맞부딪침이란 명악관화한 것이다. 더더욱이 사람을 반으로 가를 힘을 가진 악포의 거렴도라면.

좌악!

## 武極 - Story Book

진명의 오른쪽 팔뚝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목까지 길게 그어지며 피가 분수처럼 새어 나왔다.

“크윽!”

아이들의 얼굴에도 피가 튀었다.

그 와중에도 진명은 아이들을 걱정했다.

“피해라! 어서!”

진명이 우물대는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안 악포가 벌건 눈으로 이를 갈았다.

“네 놈이 이 악포를 우습게 보는구나!”



# 武極 - Story Book

## 2.2.11. 제 59 화 [불씨]

악포는 살기를 줄기줄기 내뿜었다.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가!”

진명은 급한 대로 웃옷을 찢어 팔을 감쌌다. 흰 광목천이 금세 피에 물들었다.

“그런 이유에서라면 나는 당신과 싸울 수 없소. 그는 약조를 했고, 그것을 지켰소. 그 일로 곤란에 처한 것은 유감이나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소. 이런 싸움은 무의미하오.”

“닥쳐라!”

등봉 세가의 아이들은 자신들 때문에 진명이 다쳤다는 걸 알았다. 등올여가 다른 아이들을 잡아 끌었다.

“지금이야. 사부님의 말씀처럼 우린 방해만 돼. 빨리 피해있자.”

“하지만.....”

“사부님을 믿자.”

아이들은 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 멀찌감치 물러났다. 평정 산채의 산적들보다도 더 어른스러웠다.

그것은 그만큼 진명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믿음이 아이들을 악포의 살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악포는 달아나는 아이들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의 눈 앞에 있는 먹이는 오로지 진명뿐이었다.

‘진명을 죽이던가, 내가 죽어야 형님이 산다.’

진명을 만나기 전, 악포는 거의 눈이 돌아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진명을 대하고 보니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다.

무인으로서의 본능이다.

방금도 자신의 거렴도를 주먹으로 쳐낸 자다. 길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일격필살!

악포는 다음 초식으로 진명을 격살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다.

악포의 주군인 팽설국은 패도십강의 열개 문파 중 하나인 자객루에 투신하며 가전도법인 오호단문도를 넘겼다. 오호단문도가 얼마나 패도적이고 강렬한지 자객루에서는 오호단문도를 대표무공으로까지 승격시킨 터다.

그런 오호단문도가 가뜩이나 힘이 강한 악포의 손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오호단문도의 패도에 악포의 거력이 더해진다.

진명은 악포의 속셈을 눈치챘다.

좀전까지 살기를 뿌리던 자가 갑작스레 착 가라앉은 분위기를 풍긴다.

‘다음 한 수에 모든 것을 걸 셈이로군.’

진명은 오른팔에 힘을 주었다. 찌릿거리며 힘을 줄 수가 없다. 상처가 생각보다 깊다. 근육까지 베인 모양이다.

‘왼손으로..... 가능할까?’

마교의 적나한이나 야차만큼 무시무시한 기세가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도에서는 패도적인 기운이 물씬 느껴졌다. 본신의 힘만으로 따지자면 적나한이나 야차보다도 더 강할 것이다.

진명은 왼 주먹을 꼭 쥐었다. 본래 오른손잡이인 진명이 왼손으로 나한권을 펼친다면 위력의 육할도 채 나오지 않을 터.

이런 거력을 가진 상대와 정면으로 맞부딪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다. 오른손으로도 도를 튕겨내는 데 실패해 상처를 입었으니 말이다.

‘어쩐다?’

그러나 진명은 질 수 없었다. 그의 뒤에는 아이들이 있었고, 소림의 제자는 싸움에 있어 물러서지 않아야 했다.

그때, 범여의 말이 진명의 머리를 불현듯 스치고 지나갔다.

# 武極 - Story Book

-강함만이 능사가 아니다.

‘강함.....’

이제까지는 부드러움이 아닌 강함만을 추구해 온 진명이었다.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제압하려면.....’

그 사이 악포가 준비를 끝내고 거렴도를 들었다.

오호단문도법 일소풍생(一嘯風生)!

바람을 가르고 악포의 거렴도가 진명의 머리위로 떨어졌다.

‘패도적인 힘이 저 대도에 담겨있다. 그러나 느리다!’

악포의 도법은 느리다고는 할 수 없었다. 다만 진명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진명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였다.

획.

진명의 왼손이 뺏어나갔다.

선인공수!

공격은 뒤늦었으나 악포의 거렴도보다도 더 빨랐다.

퍽! 하는 소리와 짹! 하는 소리가 동시에 났다.

악포가 진명의 주먹에 머리를 얻어 맞고 휘청이면서 흔들린 대도가 진명의  
왼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쿠- 웅!

진명을 스친 거렴도가 땅을 깊숙히 파고들며 굉음을 냈다.

“크!”

악포는 진명의 권에 적중 당했지만 큰 충격은 없었다. 잠시 아찔했을 뿐이다.  
제대로 혈을 얻어맞아 적잖이 뜨끔했지만, 의외로 주먹이 가벼워 코웃음이  
쳐졌다.

“겨우 이 정도냐!”

아무리 생각해도 초위가 이 정도 주먹에 맞고 쓰러졌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진명이 선인공수를 전력으로 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힘을  
포기했더니 속도는 더 빨라졌다.

“이익!”

악포는 제대로 된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한 와중에 진명이 파고들자, 억지로  
근육을 비틀며 거렴도를 들었다.

일격필살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했던 터라, 그만큼 거렴도를 회수하는 동작이  
늦었다. 악포는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진명의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야차탐해!

거렴도를 드는 순간 이미 악포는 진명의 권을 가슴에 허용했다.

퍼퍽!

완전히 빈 허점을 공격당한 것 치고는 너무 가벼운 공격이었다. 가슴에 충격이  
오고 몸이 흔들렸지만 갈비뼈가 나가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다.

악포가 휘청거리며 한걸음을 물러서고는 소리쳤다.

“이런 갈잡은 주먹으로 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한데 악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의 앞이 완전히 무방비임을.

연이은 충격으로 무거운 거렴도를 제대로 들고 있지 못했다.

거렴도의 끝은 땅을 향해 있었고 자신의 팔은 뒤쪽으로 젖혀져 있었다. 몸이  
제껴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진명의 원주먹이 이전보다는 확연히 느리게 짓쳐 들었다. 느린 만큼  
강렬한 기운이 숨겨진 주먹이다.

패왕거정!

평!

패왕의 힘을 담은 주먹이 악포를 날려버렸다.

“크악!”

갈잡은 주먹이 아니었다. 악포는 그냥 물러선 것이 아니라 거의 뒤로 날아가  
버렸다. 가슴뼈에 금이 가고 입에서는 핏물이 줄기가 되어 솟아났다.

## 武極 - Story Book

진명은 또다시 세 초식을 연이어 사용했다. 그것도 이번에는 마지막 초식에 큰 힘을 가했다. 힘 조절이 그만큼 능숙해졌다.

진명이 한숨을 슬쩍 내쉬었다.

‘범여 대사님 덕분이야. 만약 내가 힘으로만 상대하려 했다면 쓰러진 건 나였을지도 모른다.’

진명은 새삼 범여가 고마웠다. 그리고, 그만큼 무학의 깊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크, 크으윽.”

악포는 바닥을 구르다가 거렁도로 땅을 짚으며 일어섰다.

“이, 이런 말도 안되는.....”

진명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이제 그만 두시오.”

“뭐?”

“나는 서문강의 사람됨에 큰 감명을 받았소. 그가 비록 본 단심맹과 앙숙인 혈무련의 무인이라 하나, 신의가 있고 훌륭한 자였소.”

악포는 더욱 화가 났다.

같은 혈무련에서조차 이해해주지 않는 서문강을 정파의 나부랭이가 이해하는 척 하다니!

수치가 몸을 휘감는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무얼 이해한단 말이나!”

악포는 피가 섞인 덩어리를 뿜 하고 내뿜으며 진명을 향해 다시 거렁도를 휘둘렀다.

“오호단문도 백호도간(白虎跳澗)!”

쉽게 볼 수 있는 공격이 아니었다. 이번 악포의 공격에는 바위를 가를 수 있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

진명은 좌우삽화로 악포의 다리를 찼다.

툭.

슬쩍 밀듯이 찬 수법에 악포가 중심을 잃고 기우뚱했다. 그래도 아직 거렁도는 진명의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진명은 뒤나 옆으로 피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나가며 다시금 추창량격으로 악포의 다리를 걷어차 완전히 중심을 무너뜨렸다. 좌우삽화에서 추창량격으로 가는 동작이 지극히 부드러웠다.

악포는 더 이상 백호도간을 이어갈 수 없었다. 허공에 붕 떠 전신을 그대로 노출하고 말았다.

진명은 선인공수로 악포의 백회를 후려쳤다.

마치 세 박자로 일부러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진명의 공격이 연이어 격중했다. 뽀!

악포는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나가떨어졌다.

쿠당탕.

한바탕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악포가 흙바닥을 굴렀다.

“크으윽!”

힘을 조절한 탓에 악포는 아직도 죽지 않았다. 내상을 입어 계속 목에서는 핏덩이가 치밀어 오르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왔지만 그래도 버틸 만은 했다.

“제기랄! 제길! 제길!”

등봉 세가의 아이들은 진명이 거구를 쉽게 쓰러뜨리는 걸 보고 조마조마했던 마음을 털어 버렸다.

“와아아!”

“역시 사부님이시다!”

비틀비틀.

악포가 또다시 일어섰다.

진명이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시오.”

진명이 힘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얻게 된 것이 있었다.

## 武極 - Story Book

초식을 세 번이나 연속으로 쓸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적당히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움직일만은 했지만 내상을 입어 아까처럼 자유롭게 거련도를 휘둘러 줄 수 없게 된 악포였다. 그러나 악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농락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극도의 수치심이 생겨났다.

“크아아아!”

오호단문도법이 채 펼쳐지기도 전에 진명의 권이 악포의 턱을 돌아가게 만들었다. 악포의 눈이 살짝 흰자위를 보였다가 돌아왔다.

쿵.

악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길 수 없다. 상대는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 이 새끼가.....”

“그만 돌아가라 했소.”

“죽여! 날 죽이란 말이다! 내가 싸움에 진 개새끼처럼 꼬리를 말고 도망갈 줄 아느냐!”

“누구도 당신을 개새끼라고 하지 않았소.”

하나 등봉 세가의 아이들이 야유를 보내며 소리치고 있었다.

“우우! 빨리 꺼져, 혈무련의 잡종개야.”

“어디서 상대도 안되는 게 우리 사부님께 덤벼?”

악포의 눈이 돌아갔다.

“크아아아아! 이 핏덩이들이!”

악포가 온 힘을 다해 거련도를 들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진명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등봉 세가의 아이들!

진명이 소리쳤다.

“안돼!”

악포가 한껏 몸을 뒤로 제꼈다.

악포가 거련도를 집어 던지기라도 한다면 아이들은 피할 수도 없으리라.

“으아아아!”

“무서워!”

등봉 세가의 아이들도 뒤늦게 심상치 않은 기분을 느꼈는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이고 난리였다.

진명은 젖 먹던 힘까지 끌어내어 진각을 밟았다.

파- 앙!

발바닥이 부서져라 밟은 진각이었다. 진각의 반탄력을 발판삼아 진명은 악포를 향해 몸을 날렸다.

아무런 방법도, 또 다른 도리도 없었다.

진명은 전력으로 양 주먹을 함께 뺨었다. 오른손이 크게 다쳤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우-드-득.

소름끼치게 뼈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다. 악포는 거련도를 던지지 못했다.

악포는 거련도를 놓친 채 몇 장이나 튕겨졌다.

진명은 튕겨나간 악포를 보며 씹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너무 급한 상황이라 도저히 힘을 조절할 여유가 없었다.

“왜.....”

진명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악포의 가슴팍은 완전히 함몰되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진명이 천천히 쓰러진 악포에게 다가갔다.

“왜..... 달아나지 않았소?”

폐를 다쳐 숨을 쉬지 못하는 악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공기 새는 소리를 내며 악포가 쿵쿵대고 웃었다. 웃을 때마다 입에서 핏물이 튀었다. 그러면서도 악포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형님이라면..... 쿨럭..... 크크. 절대 날 버리지 않으실 거다. 쿨럭!

## 武極 - Story Book

.....크크크.”

“뭐라고?”

“등봉 분타가..... 주둔하는 병력 하나 없이 버려져 있다더니..... 크크.....  
이제..... 낙양성은 끝났다. 내 죽음으로..... 서문 형님은.... 쿨럭, 다시 재기하게  
되실 거다..... 크크.....크.....”

그 웃음을 끝으로 악포는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진명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원치 않는 살인을 한 충격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남긴 말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진명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낙양성에, 혈무련이 온다!”

# 武極 - Story Book

## 2.2.12. 제 60 화 [분노]

“급한 일이오! 지금 당장 평 지부장을 만나야 하오!”

이원조는 어제나 오늘이나 소림이 문제라고 속으로 혀를 찼다.

지부의 정문에서는 등봉 분타주랍시고 그냥 통과시킨 모양이지만, 지금 진명의 차림새는 한 마디로 개판이었다. 상체는 벗어 제깬 데다 바지 밑단은 돌돌 걸어 부쳤고, 땀냄새와 찌들어 있어 도무지 분타주로는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게다가 누군가와 한 바탕 드잡이 질이라도 하고 왔는지 주먹은 까져 있고 팔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등봉 분타주께서는 예의와는 완전히 담을 쌓은 모양입니다? 굳이 그런 꼴로 지부를 방문해야 하겠습니까?”

“급한 일이라잖소!”

진명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원조는 순간 목이 핵 움츠러들 정도로 겁을 먹었다. 진명이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이원조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쪽과 말싸움 하고 있을 틈이 없단 말이오! 욕을 하든 비웃든 그것은 그쪽 마음이오만 나는 그것을 상대해줄 시간이 없소! 평 지부장은 안에 있냐 말이오!”

“아, 안에 있긴 하, 한데.....”

핵!

진명은 핵 몸을 돌려 이원조의 집무실을 지나 있는 평일지의 방 문을 탕 열었다.

안에서는 평일지가 그윽한 향의 차를 한 잔 마시며 여유롭게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때깔 좋은 비단 옷과, 창 밖으로 펼쳐진 낙양성의 밤거리가 값비싼 차향과 어우러져 더 없는 조화를 만들어 냈다.

“때 아닌 웬 소란인지 모르겠군. 등봉 분타주께서 무슨 일이신가?”

평일지는 꼭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느릿한 동작으로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물었다. 그것을 보는 진명의 기분도 썩 좋지는 않았으나,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혈무련의 움직임이 수상하오. 지금 당장 병력 지원을.....”

평일지가 느릿한 동작과는 달리, 재빠른 어조로 진명의 말을 가로챘다.

“저들이 수상했던 적이 어디 한 두 번인가. 맹의 정보망이 확인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어째서 등봉 분타주가 나서는 게요? 등봉 분타에만 있던 분타주가 맹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는 소리라면 믿기지 않는데?”

“등봉 분타에 혈무련의 멸천혈랑대가 나타났소. 지금은.....”

“호오, 그래? 그렇다면 혈무련의 멸천혈랑대가 일부러 등봉 분타주 앞에 나타나 친절히 혈무련이 지금 이러저러하다고 정보를 넘겨줬다는 말이오?”

진명은 평일지가 이런 식으로 빈정대며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사실을 그냥 꿀꺽 삼켜버렸다.

“그는 멸천혈랑대의 거렴도 악포라는 자였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혈무련의 병력을 끌어들이려 했소. 낙양 내에서 등봉 분타의 방어가 취약하다는 정보를 얻고는 곧 등봉 분타를 통해 낙양성을 공격해올 것이라 했소이다. 시급히 방어선을 구축해야 하오.”

평일지가 말했다.

“흠. 적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한 곳에 방어력을 집중시키는 일은 등봉 분타주의 생각대로 똑닥 해치울 수 있는 일이 아니오. 낙양 지부 전체의 병력 구조를 새로 짜야 하는 대단위 작업이란 말이오. 그런 일을 어디서 주워들은 불확실한 정보만으로 지시할 수는 없구려.”

“정보는 확실하오! 거렴도 악포의 시신도 있소!”

“죽은 자가 말이 있던가? 산적 하나 잡아 놓고 우기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

## 武極 - Story Book

진명은 속이 끓어올랐으나 억지로 참아냈다.

“정 의심이 가거든 척후조를 보내면 되지 않소!”

“흠. 척후조를 보내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모르오? 등봉 분타주는 어찌 지부의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하는 것 같구려?”

진명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지금 나는 농담을 하자는 게 아니오! 혈무련이 곧 쳐들어 올 거란 말이오!”

진명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친 이 말을, 평일지는 느긋한 차향으로 무마시켜 버렸다. 눈을 지그시 감고 차를 한 잔 목으로 넘긴 것이다.

“으음... 역시 좋군. 같은 오룡차라 해도 운남산은 확실히 달라. 등봉 분타주도 한 잔 들겠소?”

“평 지부장!”

진명이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자 평일지는 귀찮다는 듯 손목을 까닥거렸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내 알겠소. 혹시라도 혈무련이 등봉 분타를 통해 낙양을 침공할지도 모르니 대비하라는 것 아니오? 내가 볼 땐 혈무련에서 일부러 흘린 거짓 정보 같소만. 그런 식으로 등봉 분타에 우리측 병력을 모아 놓고 뒤통수를 치려는 생각이었겠지. 등봉 분타주야 누가 그런 말을 전하든 간에 덩석 미끼를 물 테니까 말이오.”

“그건...!”

그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이 진명의 생각이었다.

거렴도 악포의 무위는 상당했다. 진명이 범여에게서 후발제인(後發制人)과 유능제강(柔能制剛)의 묘를 얻지 못했더라면 진명도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다.

고작 그런 교란 작전을 위해 멸천혈량대원 거렴도 악포의 목숨을 버리기에는, 언뜻 봐도 혈무련의 손실이 너무 컸다. 그 정도 무인 한 명이 현재 강호에서는 보석 하나보다 더 가치있는 것이다.

결국 악포의 말은 사실이라는 소리다. 진명은 확신했다.

“평 지부장이.....”

진명이 잠시 후에 다시 입을 열자 평일지는 불쾌하다는 눈빛으로 대꾸했다.

“아직도 우길 참인가? 멍청한 짓 그만 두라고 직접 얘기해 줘야 한단 말이오?”

그가 뭐라고 지껄이든 진명에게는 할 말이 있었다. 진명은 그 불쾌함 역시 그냥 삼켜버려야 했다.

“평 지부장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와 평 지부장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하오. 그러나 혈무련이 낙양성을 급습할 것이란 계획은! 그것은 절대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잖소! 그건 우리 둘 사이의 이어쥬잖은, 그야말로 아무 것도 아닌 이 사소한 반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감히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무어라? 아무 것도 아니라고?”

진명이 왈칵 언성을 높이자 그에 맞춰 평일지도 울화통을 터트렸다. 평일지는 찻잔을 책 내던지고는 진명에게 외쳤다. 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찻잔이 박살 났다.

“네 놈에겐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천만에! 나에게는 그것이 더 큰 일이다! 나에게는 네 놈 따위가 까부는 것을 보는 것이 혈무련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짜증나고 거슬리는 일이란 말이다!”

“그런 말이 어딴소! 평 지부장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오!”

“닥쳐라! 왜 네 놈 따위가 나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냐! 왜 네 놈이 내 방에서 감히 내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야! 당장 나가!”

“평 지부장!”

“피를 보고 싶지 않거든 나가라! 네 놈이 무슨 소리를 지껄이든 간에 네 놈 뜻대로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 ..”

순간 정적이 그들을 감쌌다. 진명이 입을 꼭 다물었던 탓이다.

이글대는 평일지는 눈을 보면서 진명은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 없겠구나. 이 자는 내가 하는 말이라면 그 어떤

## 武極 - Story Book

것도 듣지 않을 작정이로구나.’

진명은 화를 넘어 안타까움을 느꼈다. 마교를 상대하고 혈무련과 대적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그와 평일지는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진명은 침착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던졌다.

“당신은 언젠가 내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을 후회할 것이오. 가능한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소. 진심이오.”

그런 다음 진명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평일지의 방을 떠났다.

“잘 하셨습니다.”

진명이 떠난 뒤 이원조가 평일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뜻밖에도 이런 말이다.

평일지가 지독히 쓴 얼굴로 깨진 찻잔을 손가락질 했다.

“저거나 좀 치워.”

“그러지요. 새 찻잔을 들일까요?”

“그 전에 찻물이나 먼저 갈아. 다 식어빠진 물로 차를 마시란 소리가 아니라면.”

“알겠습니다. 새로 대령하지요.”

이원조는 시녀를 시켜 찻잔과 찻물을 새로 가져오게끔 시켰다. 탁상 위가 잠시 말끔해지자 평일지가 그 위로 시선을 둔 채 입을 뗐다.

“여양 분타와 맹진 분타에도 말해두었나?”

“잘 처리해두었습니다. 범여가 낙양성을 비웠으니 일이 틀어질 만약의 염려도 없어진 셈입니다.”

“흥, 그렇군.”

평일지가 웃음 비슷한 것을 떠올렸다.

“그 멍청한 땡종이 생각보다 쉽게 움직여줘서 다행이지.”

“다 평 대협께서 적절히 의중을 찌르셨던 탓이지요.”

“흥.”

탁상 위에는 며칠 전 화급히 날아온 전서가 곱게 놓여 있었다.

발신은 단심맹. 내용은 간단했다.

-백제성. 혈무련 입성.

마교의 손에서 혈무련이 백제성을 손에 넣었다는 말이다.

전서가 도착한 뒤 이원조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혈무련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반드시 등봉 분타를 먼저 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등봉 분타에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반대로 상대의 생각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나았다.

등봉 분타를 완전히 열어주고, 놈들이 방심한 채 낙양 땅을 밟으면 그 때 매복하고 있던 단심맹의 병력이 기습공격에 나선다.

그것이 지금으로는 가상 성공률 높은 대응책이었다.

이원조는 그 사이에 진명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계획마저 세웠다.

혈무련이 등봉 분타를 급습할 것이라는 계획을 진명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소대로 진명은 텅 빈 등봉 분타에 홀로 있다 뭘 어떻게 해 볼 사이도 없이 혈무련의 손에 운명을 달리하는 수 밖에 없었다.

다른 분타에는 등봉 분타를 비워두는 것이 유인책이라고 말해둘 작정이었다. 그렇다면 등봉 분타를 활짝 열어놓는다 한들 이원조가 계획한 음모를 알아챌 리 없었다.

“한데 놈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글쎄요.”

“설마 정말 멸천혈랑대의 거렁도가 진명을 찾아왔을까?”

“급습을 앞두고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진 않았겠지요. 어쨌든 범여 대사도 없으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이 작전에 딱 하나 걸리는 것이 바로 범여의 존재였다. 진명 혼자 미끼가 될 것이라는 계획을 흑시라도 반대하고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원조는



## 武極 - Story Book

그에 대한 해결책마저도 착착 내놓았다.

범여가 그 전에 스스로 낙양성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그에게 단심맹으로 가야할 이유를 만들어 줘야 했고, 평일지는 그렇게 했다.

계획은 완벽했다. 진명은 이제 고작 며칠 사이에 등봉의 상전에 뺨을 문게 될 것이다.

“그 후에는 그 년만 뜻대로 되면 되겠는데...”

그 사이 시녀가 새 찻잔과 따듯한 차를 가져왔다. 다시금 평일지의 호화로운 집무실에는 그와 꼭 어울리는 값비싼 다향이 번지게 되었다.

“뜻대로 될 겁니다. 반드시.”

이원조가 걱정말라는 듯, 확신에 찬 미소를 보냈다.

“서문강. 이것이 련의 결정이다.”

혈무련의 백제성 지부.

몇 명의 노인이 서문강을 둘러싸고 강압적인 자세로 서 있었다.

“너는 곧 백제성을 떠나 폐라의 혈무련 본산으로 입성하여 다음 명을 기다려라.”

서문강은 묵묵히 혈무련의 장로들이 퍼붓는 폭언을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서문강의 뒤에 서 있던 초위가 벌떡 화를 냈다.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

장로들이 눈을 부라렸다. 초위는 참지 못하고 속에 있던 말을 내뱉었다.

“솔직히 백제성을 함락시키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운 게 누구니까? 바로 서문강, 서문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뒤로 빠지라니요?”

“련의 결정이다.”

“련의 결정?”

초위가 창을 지팡이 삼아 기대며 비꼬았다.

“장로들께서 그렇게 해달라 련에 요청을 한 건 아니고 말이지요?”

“이놈이?”

“무엄하다!”

장로들이 역정을 냈으나 초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해서 말을 내뱉었다.

“변절자니 어쩌니 몰아세울 땐 언제고, 백제성 함락이 어려우니 불러들여 앞장 세우더니..... 이젠 그냥 버려? 하다못해 지부장 자리라도 하나 줘야 할 거 아냐. 나 참.”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중얼거리는 데 다 들으라는 듯 소리가 컸다.

“네 놈이 하극상을 벌이려는 모양이구나.”

초위의 눈이 가늘어졌다.

“쓸모없는 것들은 있어봐야 짐이죠.”

“뭐라고!”

장로들이 저마다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 서문강의 한 마디가 그들을 잠재웠다.

“초위. 나는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제길. 넌 분하지도 않으냐?”

“내 결정이었다. 내 판단이었다. 책임은 내가 진다.”

“젠장!”

서문강이 장로들을 보며 말했다.

“그럼 곧 준비하고 떠나도록 하겠습.....”

그때였다.

무인 한 명이 혈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큰일났습니다! 거렁도 악포가 죽었습니다!”

“뭣?”

좀처럼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서문강의 얼굴이 흠뻑이 되었다.

“자세히 말해 봐!”

“등봉 분타의 분타주 진명에게 당한 모양입니다.”

장로 한 명이 조심스레 무인에게 물었다. 혈무련 사람이라면 평소 서문강과

## 武極 - Story Book

악포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서문강과 악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친했다. 서문강을 지존처럼 따르는 악포의 행동 때문에 잡음도 심했다. 심지어 악포는 혈무련주의 말보다 서문강의 말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적도 있었다.

장로들이 물었다.

“악포는 정찰을 하러 갔던 게 아닌가? 단심맹에 발각된 건가?”

“그게 아니라.....”

“말해 보라.”

“다른 정찰조에 따르면..... 처음부터 등봉 분타주와 싸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나! 도대체 왜?”

다른 장로가 물었다.

“등봉 분타주가 누구였지?”

“진명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굉!

집무실이 뒤흔들렸다. 서문강의 주먹이 집무실 바닥에 깔린 두터운 청석을

뚫고 들어가 있었다.

“진..... 명.....”

장로들도 초위도, 보고를 하러 온 무인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온 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의 살기가 집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찌나 살기가 강한지 초위조차도 겨우 입을 열 지경이었다.

“서.....문강.....”

서문강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두 눈에는 피가 흘렀다.

피눈물.

정말로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낙양으로 간다.”

서문강은 조용히, 그러나 울분이 가득한 목소리로 한 마디의 말을 던지고는 집무실을 나갔다.

그러나 장로들은 서문강을 감히 말릴 수 없었다.

지금 그에게 말을 걸어 만류한 자는 분명 목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설사 혈무련주라 하더라도.



# 武極 - Story Book

## 2.3. 제 6 장

### 2.3.1. 제 61 화 [분타주 회의]

단심맹 낙양성 지부.

오늘 지부의 집무실에는 현재 낙양성에 머물러 있는 단심맹의 주요 인사들이 남김없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식어가는 찻물 위로 싸늘한 전운이 번지는 이 곳.

혈무련의 대대적인 공습을 대비하는 회의가 막 벌어지는 시점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이러한 긴급 정보들을 날날이 전해 들었고, 위기감과 더불어 뼈를 저릿하게 울리는 긴장감을 음미하는 중이었다.

그 와중에 누군가 입을 열었다.

“혈무련의 움직임이 그토록 확실하다면 어쩌서 우리가 먼저 공격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서 백제성으로 맹원들을 보내면 안됩니까?”

그는 독문무기인 단창에 반비례하듯 짧은 생각으로 유명한 자였는데, 이 문지도 따지지도 않는 공격 제안은 이 점을 충분히 대변해주고 있었다.

평일지가 짧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불가하오. 아직 채 준비를 마치지 못한 낙양에 비해 저들은 벌써 백제성을 철옹의 요새로 만들었다는 정보가 있다지 않았소. 소수의 맹원들을 기습조로 보내봤자 공연한 병력손실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소이다.”

“허,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것 아니오?”

그가 굳건한 의지를 대변하듯 손에 쥔 단창으로 쿵, 바닥을 짚으며 말했다. 평일지는 말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손목을 획 내저으며 시선을 완전히 돌려버렸다.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소. 이미 지부에서는 완벽한 수성작전을

세워두었소이다. 지부의 지휘만 잘 따른다면, 혈무련 따위는 결코 낙양 땅을 넘보지 못할 것이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분타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되다. 먼저 맹진 분타주!”

평일지의 시선이 일령을 향했다.

“듣고 있어요, 평 지부장.”

공식적인 자리니만큼 일령도 존대를 했다.

“현재 낙양 내에서 가장 탄탄하고 우수한 무력을 지닌 분타가 맹진이외다. 따라서 본 수성작전은 맹진 분타의 무력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소.”

“어떻게 하면 되죠?”

“낙양지부의 주 병력은 낙양성 내에서 방어선을 칠 것이오. 대신 맹진과 여양 분타는 혈무련이 등본 분타로 들어온다 해도 별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위치를 고수하시오. 혈무련이 낙양성 깊이까지 들어왔을 때 맹진과 여양, 그리고 낙양 본 지부의 병력으로 세 방향에서 포위 공격을 할 것이오. 그때 맹진이 선두에 서시오.”

평일지는 자신 만만했다.

“혈무련은 반드시 등봉 분타를 통해 낙양성 안으로 들어올 것이오. 그러니 우리는 쓸데없이 등봉 분타에 방어선을 구축하느라 힘을 빼는 대신, 적이 등봉 분타로 들어와 방심한 사이 적의 뒤를 노려 저들의 숨통을 끊는 것이오. 그 어떤 퇴로도, 항복도 허락하지 않을 작정이오, 나는.”

평일지는 일령을 향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을 던졌다.

낙양성 지부에 투입된 만화전장의 자금은 막대했다. 일주엽이란 자의 총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쯤 머리 싸매고 고민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 武極 - Story Book

그런 막대한 자금에는 책임과 위험이 뒤따르는 법이다. 일주엽처럼 노련한 장사꾼이 그런 돈을 톡 내놓았다는 것은, 이미 만화전장과 평일지가 한 배를 탔다는 소리였다.

그런 의미에서 평일지는 일령 역시 자신과 한 배에 탄 자라고 여기고 있었다. 일령은 이미 진명의 사람이 아니라 평일지의 사람이었다. 그의 사람이어야 했다.

그러나 일령은 그의 이러한 생각에 일침을 놓았다.

“그러니까 평 지부장의 말은 등봉 분타를 일부러 내줘서 적들을 낙양성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건가요? 굶주린 야수들을 내 집 안으로 들이겠다는 소리인데, 그 위험부담은 누가 감당하는 거죠?”

“우리에게 단심맹의 고수들과 양질의 병력이 있소. 완벽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가 위험하단 말ियो?”

“그렇게 따지면 저들에게는 혈무련의 고수들과 뛰어난 흑도군이 있겠지요.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쪽이에요. 무엇보다 강호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다치게 될 텐 데 그걸 어떻게 막을 작정이죠?”

예상외의 대꾸에 평일지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현재 낙양성은 단심맹의 비호 아래 있는 거요. 단심맹의 적이 곧 낙양의 적! 네 손해니 내 손해니 주판알을 굴릴 때가 아니오만?”

사실 주판알을 굴린 것은 평일지다.

“지금 제 얘기가 주판알 굴리자는 소리로 들렸나요? 평 지부장의 귀가 좀 이상해지신 모양이로군요. 제 말은 평 지부장께서 계획하신 수성작전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우리측 손해가 너무 크다는 뜻이었어요.”

평일지는 기가 막힐 뿐이었다. 한 배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하! 이럴 수가? 다른 누구도 아닌 맹진 분타주께서 이리 나올 줄 내 미처 몰랐군? 지금 맹진 분타주는 병력을 내어주기가 아깝다는 거요?”

“뭐라고요?”

일령이 발끈 돌아올랐다.

“본질을 흐리지 마시지요, 평 지부장. 맹진 분타주로서 평 지부장의

수성작전에 찬성하지 못하겠다는 뜻 이외에 다른 생각은 없으니까.”

탕!

평일지가 탁자를 치며 일어섰다.

“찬성하지 못하겠다고? 혈무련과 십대신위가 코 앞에 있는 이 마당에! 맹진 분타주는 다른 대안이라도 있다는 소리요? 있다면 말해 보시오!”

일령이 분노가 이글대는 평일지의 눈빛에 지지 않고 맞섰다.

“지금은 혈무련을 상대하기 위한 작전을 모의하는 회의가 아니었던 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좀 더 좋은 작전을 구상해야죠! 평 지부장이 얼렁뚱땅 만들어 온 계획에 일방적으로 동참하라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

“무어라? 월권행위?”

평일지가 잔뜩 일그러진 분노를 확 터트리기 전, 다행히도 누군가가 중재에 나섰다. 문주희였다.

“두 분 다 그만하시지요. 지금이 서로 싸울 때입니까?”

냉정하고 차분한 문주희의 음성은 달구어졌던 회의장을 삼시간에 식히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문주희는 뭐라고 마저 말을 하려는 일령을 무시한 채 다음 말을 이었다.

“평 대협의 말대로 적들이 코 앞에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도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쫓기보다는 우선 순위를 따져야지요. 싸움 뒤 손실을 계산하는 일보다는, 마땅히 어떻게 싸울 것인지부터 해결을 봐야 합니다.”

문주희는 교묘히 일령의 말을 틀어 그녀의 제안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었다. 일령이 말하고자 한 것은 손해를 줄이며 싸우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는데, 졸지에 외양간 고칠 걱정부터 앞세우는 소인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문 여협의 말이 옳구려. 화급을 다투는 상황이니 우선 수성작전에만 집중하십시오. 다들 어떠신지요?”

“아, 마땅히 그래야지요. 계속합니다.”

“나도 찬성이오.”

## 武極 - Story Book

평일지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죄 들은 다음에야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일령은 수선함 속에서 입을 다물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으나 그르냐가 아니었다. 무엇이 그럴 듯 하나 아니냐, 였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중요한 질문을 했다.

“놈들이 꼭 등봉 분타로 올 거라고 어찌 확신할 수 있단 말ियो? 이 작전은 놈들이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는 순간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 아니요? 만일 다른 분타로 온다면 중앙 등봉 분타에서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맹진과 여양이 따로 각개 격파를 당할 수 있소이다.”

중요한 질문이자, 평일지가 꼭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다.

평일지는 자신에 찬 미소를 자아냈다.

“그만한 확신도 없이 어찌 수성작전을 세울 수 있었겠소이까? 이미 충분한 간자전(間者戰)을 통해 놈들의 동향을 파악했소. 혈무련의 간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등봉 분타가 가장 취약한 공격점이라는 정보를 그쪽에 전했을 것이오.”

이번에는 여양 분타주인 청풍이 물었다.

“저들이 속지 않는다면? 등봉을 노리는 척 하고는 맹진이나 여양을 노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전 병력이 성 안에서 수성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맹진이나 여양으로 들어온다면 우리 측 방비는 커다란 허점을 노출할 수 밖에 없네.”

평일지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으며 억지로 설명을 보탰다.

“백제성에서 낙양으로 오는 길은 현재 단 하나, 바로 등봉 분타를 통하는 길이외다. 이들이 만일 등봉을 거치지 않고 오려고 한다면, 동북로나 서남로를 택해야 하는데 그 길들은 아직 마교의 잔당들이 점하고 있는 곳ियो. 놈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와 싸우기 전에 마교 놈들과 먼저 싸우고 오겠소이까?”

“바로 그 점을 노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너무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맹점을.....”

“그러니 내 미리 간자전을 벌여놓았다고 하는 것 아니요! 청성은 지금이 구대문파 간의 세력 다툼을 하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해주길 바라오.”

평일지는 말 한 마디로 청풍을 생트집이나 잡는 협잡꾼으로 몰아버렸다. 분노한 청풍이 무슨 말을 하고자 했으나, 곁에 앉은 문주희가 재빨리 그를 말렸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후... ..”

문주희가 이렇게 나오는데 청풍이라고 더 할 말이 있을 리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일령이 다시 입을 열었다.

“간자전이 오갔다면 등봉 분타주께서도 이 작전에 참여했겠군요? 그렇다면 그는 왜 이 자리에 없는 것이지요?”

이유야 뻔했다. 평일지가 진명을 부르지 않았으니까.

평일지는 진명이 아무 것도 모른 채 그대로 죽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맹진 분타주는 이 몸이 영 미더우신 모양ियो? 그가 이 자리에 없는 이유는, 마땅히 이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यो. 그가 등봉 분타를 비운다면, 등봉 분타로 들어오는 혈무련을 어찌 유인할 수 있단 말ियो?”

일령의 안색이 변했다.

처음 수성작전을 듣는 순간부터 설마설마 했다. 등봉 분타를 열어둔다는 소리가 그토록 미심쩍었던 것은 이런 연유였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등봉 분타주 혼자서 혈무련을 유인할거란 말인가요?”

“그렇소이다.”

평일지는 속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고 태연히 거짓말을 했다.

“그가 자청한 일이오. 그만한 능력도, 자신감도 있다고 했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등봉 분타주의 무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소?”

일령이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그렇다고 해도 상대는 혈무련이예요! 저들이 대대적인 공습을 계획하고 있다면 십대신위가 모조리 몰려올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그걸 단 한 사람이 맞설 수는 없어요!”

## 武極 - Story Book

“그 점을 등봉 분타주가 모를 리 있겠소? 그래도 자신 있다고 한 것은 바로 그 자요. 본인이 아무 문제도 없다는데 대체 맹진 분타주께서 왜 이러시오?”

일령은 저도 모르게 ‘거짓말 하지 마, 이 자식아!’ 라고 외칠 뻔 했다.

진명은 분명 바보지만 자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신은 아니었다. 십대신위가 모조리 몰려올지도 모르는 마당에 자신 있다고 큰 소리 탕탕칠 위인이 결코 아니라는 소리다.

일령이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나는..... 나는 믿을 수가 없군요. 평 지부장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어요.”

평일지가 고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간 늦가을보다 더 쌀쌀한 표정으로 진명을 무시하길래 마음을 접을 줄 알았더니 옛정이라도 남은 모양이다.

‘이래서 계집들이란.....’

그는 자신이 탄 배가 어쩐지 파도 위에서 빠그덕대는 것 같다는, 이 말 못할 불쾌감을 애써 속으로 짓눌렀다.

“대체 맹진 분타주께서 이러는 이유가 뭐요? 지금 낙양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내 입으로 말해주어야 된단 소리요? 한 때 등봉 분타주와 맹진 분타주가 보통 이상의 관계라더니,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남녀 사이를 앞세워 그를 싸고도는 것이오?”

“그게 무슨..... 대체 무슨 소리를! 그와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날 모욕해서 억지로 입을 다물게 할 작정이라면.....”

분명 평일지의 말은 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일령에게도, 심지어는 어떻게든 일령과 엮어지려고 하는 그에게도 해가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는 이 말을 함으로써 그가 원하던 대답을 얻었다.

평일지가 야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두 분이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것은 이 몸이 잘 알고 있소이다. 숙된 입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다 믿는 그런 좃대 없는 사람은 아니오. 허나 지금 일

소저의 태도가 그런 소문을 부추기고 있단 말ियो.”

“... ..”

일령은 차마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뭐지, 이건. 마치 이러 저런 수들을 모두 다 계산해 놓았다는 듯한 태도잖아. 이 자가 더 음험해졌는걸.’

사실 이러 저런 수들을 모두 생각해 둔 것은 이원조였다. 확실히 평일지는 이원조를 만나 한층 더 위험한 자가 되어버렸다.

일령이 더 이상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한 평일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 수성작전에 대해 더 의견을 주실 분 계시오? 사태가 시급하니 가능한 의견을 일치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물론 이견이 있을 리 없었다. 다만 기묘한 것은 진명의 거처에 대해 일령처럼 캐묻지 않는 문주희였으나,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생각이 따로 있는 듯 했다.

평일지는 그의 생각대로 낙양성 수성작전을 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

각 분타에는 최소한의 수비만을 남긴 채 남은 병력은 모두 낙양성 내로 집결, 지닌 바 무공에 따라 이중, 삼중의 매복을 구성하였다. 등봉 분타주를 철저히 배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혹이 있을지 모르나, 정작 평일지가 설명한 작전은 매우 세밀하며 체계적이었다. 물론 그 뒤에는 이원조의 주판알이 기여한 바가 컸다.

설명을 듣고 난 단심맹의 주요인사들은 평일지의 지휘권에 대해 완전히 납득하게 되었다.

각 분타에서 차출된 인원은 분타주가 지휘하며, 지부에 소속된 중앙 백도군의 지휘는 평일지가 맡았다. 그 편이 최적으로 효율화된 전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에 의해서였다.

평일지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분타주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나, 평일지는 낙양 땅을 밟는 혈무런 놈들을 단 하나도 살려두지 않을 것임을 여기 계신 군웅들께 맹세하오. 이 몸이 있는 한 놈들은 결단코 살아서 낙양 땅을

# 武極 - Story Book

밟지 못할 것이외다.”

분타주 회의가 파했다.

지부를 나서는 일령은 좀 전부터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대로 맹진 분타로 돌아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자꾸만 등봉 분타로 가라고, 그래서 이 작전에 대해 진실을 알아내자고, 그런 소리들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진명이 정말로 혼자서 유인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을까?

목숨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일령은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진명이라면 그럴 만 하다. 낙양성의 애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평일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하아.....”

일령이 발 걸음을 정하지 못하고 서성였다. 그런 그녀를 자극한 것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낭랑한 여인의 음성이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시나요?”



## 2.3.2. 제 62 화 [전운]

일령을 부른 것은 문주희였다. 그 뒤로 그녀를 호위하듯 따르는 청풍의 모습도 보였다.

일령은 길 가다 똥을 밟은 듯한 표정으로 문주희를 바라보았다.

“그 쪽이 신경 쓸 일은 아니니 괜한 참견 마시죠. 가던 길이나 가세요.”

“호호. 맹진 분타주는 이 몸을 어지간히도 싫어하시는 모양이군요?”

“그런 말은 좀 새삼스럽군요. 처음 보는 사이도 아닌데.”

일령의 까칠한 말은 지금의 심경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었다.

‘망할 년.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진 형과 사이가 나빠질 일도 없었어. 그랬으면 지금 여기서 이런 고민 따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문주희가 그 심정을 모를 리 없었다.

“맹진 분타주의 자금력 탓에 이번 혈무련의 공격에는 한시름 덜게 생겼군요. 저는 분타주는 아니지만 단심맹의 사람으로서 감사 드려요. 평 지부장께서 워낙 맹진 분타주를 신뢰하시니, 저희 여양 분타로서는 오히려 책임이 떨어진 느낌이랍니다. 호호호.”

“나야 여양 측에서 빈대처럼 붙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짜증이 좀 나지만, 어찌겠어요. 지부에서 그쪽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데.”

일령이 계속 쏘아붙여도 문주희는 얼굴 전체를 얇게 덮은 웃음을 지우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다정한 손길로 일령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럼 낙양성과 지부를 부탁 드릴게요, 맹진 분타주. 맹진 덕에 여양 측은 여유가 좀 될 터이니 그것으로 등봉 분타주를 돕겠어요. 호호호.”

일령이 저도 모르게 부드득 이를 갈았다.

‘이 여우 같은 년! 결국 그 소리가 하고 싶었던 거냐!’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여양 분타 측의 책임은 다하길 바라죠. 직무유기라도 할 경우, 맹과 지부에서 그 꼴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을 테니까요.”

일령은 찬 바람을 뿌리며 핵 등을 돌렸다. 등봉 분타로 갈까 말까 망설이던 걸음이 이번에는 일말의 여지도 없이 맹진을 향했다.

‘대체 귀신은 뭐하냐고! 어서 저 망할 년 좀 잡아가지 않고!’

이어서 청풍과 문주희도 여양 분타를 향해 지부를 떠났다.

좀 전에 일령과 마주쳤을 때는 호호거리며 잘도 웃던 문주희가, 지금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딱 닫아걸고 있었다.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르던 청풍이 어느 순간 불쑥 이렇게 말을 걸었다.

“회의 중에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뜸금없는 질문에 문주희가 살짝 눈썹을 치켜세웠다.

“무슨 말어요?”

“이번 수성 작전의 맹점 말입니다.”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더할 나위 없는 방어전 같은데. 청풍 대협께서는 뭔가 다른 생각이 드셨나요?”

이렇게 대답하는 문주희의 표정은 천연덕스럽기 그지 없었다. 그래서 청풍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아차렸다.

“맹진 분타주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 아가씨도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번 작전은 얼핏 듣기에는 그럴 듯 하지만, 실은 등봉 분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등봉 분타는 여양이나 맹진과는 달리 거대한 상전을 일구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부러 내준다는 것 자체가 희생인 셈이지요. 수성하는 입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사실 적들은 성안으로 유인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 점은 아가씨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청풍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고 느꼈는지 문주희는 대놓고 인상을 찡그렸다. 하지만 청풍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을 마음도 사라진 듯 했다.

## 武極 - Story Book

“문제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낙양성 위주의 수성전도 그렇거니와 병력배치를 본다면요. 맹진 분타에 속한 백도군의 숫자가 가장 많다고는 하나, 중앙백도군도 그에 못지 않아요. 그런데 평일지 그 자는 철저히 맹진 분타의 병력을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텐데요. 병력 배치도를 본다면 중앙백도군도.....”

“중앙백도군도 충분히 주요지점에 포진되어 있긴 하죠. 그러나 위치가 충분히 가변적이에요. 그의 지시에 따라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지점에만 포진되어 있죠. 실제로 공격이 시작되면 중앙 백도군이 가만히 지부 안에 처박혀 있더라도 눈치챌 사람은 없을 테고요.”

“그 이유도 짐작이 가십니까?”

“손해를 보기 싫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의 말대로 네 손해니 내 손해니 주판알을 굴릴 때가 아닌데..... 그 점이 수상해요. 아마도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우리 측도 선불리 병력을 움직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주희는 잠시 생각을 곱씹었다.

청풍이 어렵פות이 느끼고 있는 점이긴 하지만, 평일지와 문주희는 꽤나 닮아 있었다. 어찌 보면 같은 부류의 인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답한 자기애나 철저한 이익 위주의 사고방식은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그 둘이 같다는 것을 남들이 모르는 이유는, 문주희가 평일지와는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잠시 생각을 하던 문주희는 이렇게 말했다.

“평 지부장은 아마도 그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라니요?”

“뻔하죠. 등봉 분타주 말이에요.”

청풍의 안색이 변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문주희가 결눈질을 더하는,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다시 한 번 하는 말이지만

청풍은 그녀가 그런 미소를 지을 때 정말로 평일지와 닮았다고 느끼는 중이었다.

“물론 청풍 대협 같은 사람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생각 따윈 하지 않으실 테니 모르실 테죠. 하지만 전 알아요. 평일지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작자예요. 내기라도 할까요? 등봉 분타주는 분명 오늘 분타주 회의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을 걸요?”

“그렇다면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가.....”

청풍이 다급히 말했다. 문주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평일지의 음모로부터 진명을 구해내기 위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주희는 의외로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보자고요. 사실 그를 본 파에 귀속시키려면 이만큼 좋은 기회도 없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며 문주희는 생긋 웃었다.

전혀 급할 게 없다는 태도였다.

사실 문주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먼저 움직이면 손해야. 최소한 그 자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때까지 지켜봐야 해. 게다가.....’

더해지는 상념. 커가는 자기애.

‘극적일수록 효과는 커지기 마련이니까.’

위기를 맞아 산개(散開)해 가는 각자의 마음이었다.

“아웅, 심심하다. 역시 한 가지 무공만 익히는 것은 좀 지루해.”

“뭐야, 너. 사부님을 보고도 그래? 범여 대사님 말이 나한권은 소림 최고의 무공이었어!”

“맞아 맞아. 사부님처럼 나한권을 하려면 더 열심히 연습해야 해!”

등봉 세가의 아이들은 오늘도 상전 한 구석에서 나한권 수련에 열심이었다.

## 武極 - Story Book

평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은 진명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이들도 세가 내에서 주워들은 소리가 있는지라, 요새 낙양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어제 장주님이 이제 슬슬 뽕잎 딸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말이야. 사부님은 그걸 모르시나? 발 일이란 게 한 번 시기를 놓치면 일 년 고생이 말짱 헛수고가 되는 건데 말이야.”

등올여가 제법 농사꾼다운 소리를 했다. 물론 장주인 등뇌달한테 걸가지로 들은 소리였지만. 그래도 그의 말 속에는 진명을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있었다.

등올조가 그 말을 받았다.

“어른들 말이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길 거라잖아. 그래서 우리한테도 함부로 나다니지 말라고 하신 거고. 사부님도 아마 그래서 바쁘실 거야.”

“근데 그 무슨 일이라는 게 대체 뭐야, 형? 예전처럼 마교 놈들이 오는 거야?”

“자세한 거야 모르지. 그 때도 어른들은 우리한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만 하셨지 아무 말도 안 해 줬잖아.”

아이들은 어느 새 수련을 멈추고 저들끼리 두런두런 수다를 이어나갔다.

“그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다고 들었어. 우리야 집 안에만 있었으니 아무 것도 몰랐지만.”

“히엑! 그럼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말이야?”

“아마도.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우리도 무공을 배웠으니 싸워야 해.”

등올조의 말에 아이들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진명이 본다면 당장에 꿀밤이라도 먹이면서 혼 줄을 내줬을 테지만, 아이들은 그들의 치기만큼이나 진지했다.

“특히나 우리가 맡고 있는 등봉 분타는 낙양으로 입성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길목이란 말이다. 우리의 임무가 그만큼 막중하다는 소리야.”

“그건 우리도 알고 있어, 형.”

아이들이 투지를 불태우며 다시 나한권의 수련에 임하려는 때였다.

“저, 적이다!”

“누구냐!”

아이들이 있는 상전 쪽으로 누군가가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은 기절할 듯 놀라 소리를 질렀다.

등올악이 나한권의 자세를 취하면서 외쳤다.

“넌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마교 놈이냐, 사파 놈이냐?”

상전에 나타난 남자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손을 획획 내저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을?”

“그럼 넌 누구냐!”

“그러는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는 등봉 분타를 지키는 정파의 무인이다! 낙양성을 치러 올 작정이었다면 여기서 암전히 물러가라!”

그는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들이켰다.

“아니, 나는 낙양성을 치러 온 사람이 아닌데..... 사실 나 혼자서 낙양성을 공격하는 것은 무리지.”

“그럼 뭐야? 낙양성에는 왜 온 것이냐?”

“나? 난 원래 낙양에 사는 사람인데?”

“어..... 어어.....”

그가 워낙에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 말에 술술 대꾸하자 아이들은 멍쩍은 표정이 되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나는 누에를 치는 사람인데, 슬슬 뽕잎을 딸 시기가 되어서 한 번 들러 본거야.”

“아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여양에서 오셨겠네요.”

아이들은 공연히 엄한 사람을 적으로 오인한 것이 미안했던지 완전히 마음을 놓았다.

그는 보러 왔다던 뽕잎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는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 武極 - Story Book

“그런데 왜 여기는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냐? 분타에는 원래 백도군이 있어야 하지 않나? 여왕 분타는 그렇던데.”

백도군이라는 말에 아이들이 저마다 입을 열었다. 등봉 분타와 진 사부에 관해서라면 할 말이 아주 많은 아이들이었다.

“흥! 그거야 당연하죠. 근데 등봉 분타에는 사정이 있거든요.”

“어떤 사정?”

“우리 진 사부는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백도군을 고용할 돈이 없어요.”

“원래 백도군을 고용할 돈은 세가에서 줘야 하는데, 여기 등봉은 집안 어른들이 안주기로 했대요.”

“호오, 그건 왜 그렇지?”

“왜긴요. 단심맹 눈치를 보느라 그렇죠.”

“그것 참 이상하구나? 등봉 분타는 단심맹 소속이 아니던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평일지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 진 사부를 싫어해서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라 구요.”

“맞아요, 맞아요. 진 사부가 적나한을 나한권 한 방으로 때려죽여서 평일지라는 사람이 진 사부를 시기한다고 했어요. 그가 낙양성 지부장이 되었으니, 지위를 이용해서 더러운 수작을 부리는 거죠.”

그 자가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것 참 나쁜 사람으로구나. 그런데 평일지가 진 사부를 얼마나 싫어하기에 이런 짓까지 하지? 평일지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소림에서는 아무 말 않는가 보구나. 그러면 소림도 나쁜 것 아니냐?”

아이들이 침울한 얼굴이 되었다.

“그건.....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범여 대사님도 다녀가셨는데, 진 사부만 잔뜩 혼을 내시고는 별 다른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건 진 사부 잘못도 아닌데! 평일지랑 어른들이 나쁜 건데!”

“그러게..... 그것 참 이상하구나. 어쨌거나 그래서 너희들이 등봉 분타를

지키고 있다는 말이지? 너희들은 소림의 문하생이냐?”

“물론이죠! 범여 대사님께서도 허락하신걸요!”

“범여 대사님이, 진 사부는 소림사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랬어요!”

“에이, 소림사에서 나한권을 가장 잘한다고 했지. 그렇지만 진 사부는 무지무지 강해요! 진짜예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진명에 대한 자랑을 이것저것 늘어놓았다.

대부분 낙양 성 안에 떠도는 소문을 읊은 것이었지만, 이것은 뜻밖에도 굉장한 정보가 되었다.

그는 낙양성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캐기 위해 온 혈무련의 정찰조였기 때문이다.

그는 만족한 듯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여러 가지를 알았구나. 그럼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어? 뽕잎을 보러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뽕잎이 필요한 거라면 사부님이랑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상전은 사부님이 맡고 있거든요.”

“허, 뭐라고?”

그는 난데없이 너털웃음을 터트렸다.

“소림의 진명이 상전을 경작한다고? 그게 진짜냐?”

아이들이 의아하단 표정으로 물었다.

“응? 몰랐어요? 여왕에서는 그런 일을 모르나?”

“그러게?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사부님이 여왕 진가에서 누가 다녀갔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저씨 아니었어요?”

“응? 그럼 아저씨는 누구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묻자 그의 눈에 얼핏 살기가 스쳐갔다.

‘죽여야 하나?’

그러나 그는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아니. 공격을 앞두고 선불리 행동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는 빙긋, 사람 좋은 웃음을 흘렸다.

## 武極 - Story Book

“사실 뽕잎은 벌써 다 봤단다. 농사가 아주 잘 되었구나.”

아이들은 다시 해실 대며 웃었다.

“그렇죠? 헤헤. 사부님이랑 우리가 열심히 한 덕분이야.”

“그럼 그럼. 어휴,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왕 진가에서 빨리 뽕 잎을 사갔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도 더 이상 밭 일을 안 해도 될 거 아냐.”

“그렇지? 그럼 하루 종일 나한권 수련만 할 수 있겠다.”

“우와, 그럼 우리도 빨리 고수가 될 텐데.....”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저들끼리 떠들다가 그가 훌쩍 사라졌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다.

“어? 그런데 그 아저씨 언제 갔지?”

“그러게? 걸음이 그렇게 빠른가?”

아이들은 순진하게도 그가 상승의 경공술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 다만 뽕 잎을 팔아 치울 상대가 나타나 신이 났을 뿐이다.

“사부님도 이 애길 들으면 아주 좋아하실 거야.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러게 말이야.”

# 武極 - Story Book

## 2.3.3. 제 63 화 [전운 속으로]

“이곳입니다.”

서문강은 정찰조가 가져온 낙양성의 지도를 보고 있었다. 정찰조는 손가락으로 어느 한 지점을 가리켰다.

“백제성에서 이어지는 최단이자, 유일한 지점입니다. 미리 입수한 정보대로 때마침 이곳은 비어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서문강의 눈살이 찌푸려졌다.

등봉 분타가 비어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다. 신중하고자 정찰을 보냈는데 역시나 같은 말을 한다.

그것이 서문강의 직감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함정이군.”

정찰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도 그 점을 염려하여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등봉 분타가 함정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어째서지?”

그는 등봉 세가의 아이들로부터 얻어낸 정보를 말했다.

“만약 그게 함정이라면 이들이 몇 달 전부터 우리의 공격을 철저히 대비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평일지와 진명이라는 자의 대립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까지 조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서문강은 냉정한 눈길로 정찰조의 눈을 응시했다.

“네가 얻어 온 정보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들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는 걸 역시 알고 있을 거다.”

“하지만 이건.....”

그는 서문강의 말에 항변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은 도저히 들지 않지만, 생각 외로 너무 쉽게 정보를 얻었다는 의혹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이다.

서문강은 다시 탁자 위에 펼쳐진 낙양성의 지도로 시선을 돌렸다.

“놈들도 길이 하나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다른 분타의 병력은 얼마나 되지?”

“북쪽의 맹진 분타에 가장 병력이 많고 남쪽의 여양 분타는 그보다는 적지만, 여양 분타에는 청성의 청풍이란 자가 있습니다.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문강은 빠른 결단을 내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뿐이군.”

다들 서문강의 다음 말을 궁금해 했다.

서문강이 입을 열었다.

“맹진이다.”

“예? 하지만 맹진에는 병력도 많고 그곳으로 직접 갈 방법도.....”

서문강은 진명에게 원한이 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명을 먼저 제거하지 않다니!

“우리가 아는 사실은 놈들도 알고 있다. 모든 작전은 이런 가정 하에서 세우는 것이다. 맹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린 맹진으로 가야 한다.”

서문강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 자체도 본디 훌륭한 무인이지만, 그는 결코 속단하거나 과신하거나 무리하지 않았다. 게다가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고 두려울 정도로 영리했다.

“놈들은 우리가 등봉 분타로 들어오길 기대했겠지만, 맹진의 주력을 궤멸시키면 여양은 자연적으로 고립된다. 어차피 병력이 없는 등봉에서의 지원도 불가능할 터, 맹진이 가장 먼저 무너지면 그들은 수성을 해야 하니 나올 수가

# 武極 - Story Book

없을 거다.”

“하나, 우리가 맹진으로 향한다면 그들도 금세 알게 될 겁니다.”

“초위!”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초위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너는 일단 등봉으로 간다. 마치 우리가 등봉 분타로 가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가능한 눈길을 끌고 소란을 피워라.”

“성동격서(聲東擊西)로군. 맡겨둬.”

초위는 진명에게 당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자신의 창을 쓰다듬었다.

“그 놈. 쉽게 죽이진 않겠어. 악포와 너를 위해서.”

“목숨만 붙여 데리고 와라. 하지만 만에 하나 낙양성이나 여양의 지원이 생각보다 빠르거든, 절대 맞서지 말고 피하라.”

“그럴 일은 없어.”

서문강이 초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죽지 마라.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다.”

“강.....”

초위가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 목숨은 네 것이다. 네 뜻에 따르마.”

서문강이 말했다.

“이것은 복수다! 철저하게 짓밟겠다!”

서문강의 차분한 음성이 진영을 울렸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피부에 닿자, 곧 서늘함으로 뒤바뀐다.

서문강의 눈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었다.

“낙양은 내가 원하는 만큼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설령 악포가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혈무련의 무인들이 서문강을 바라 보았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아 적막하기까지 할 정도지만, 가슴 속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문강.

그는 혈무련 내 젊은 무인들의 우상이었다.

뛰어난 무위야 말할 것도 없고, 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의를 보였다.

그러나 자신을 따르던 이가 죽자, 장로들에게까지 반기를 들며 복수를 위해 나섰다.

이 자리에 있는 혈무련의 무인들은 그런 서문강에게 반해 이번 원정에 참가했다. 그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젊은 피가 미칠 것처럼 끓는다.

남자다. 그는 이 혼란한 시대의 진정한 남자다.

혈무련의 영웅 서문강이 무인들을 보며 물었다.

“만일, 만에 하나 이번 원정이 실패할 경우. 그대들은 돌아가서도 큰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도 좋은가? 떠날 사람은 지금 떠나도 좋다.”

혈무련의 무인들은 오히려 화를 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서문강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혈무련 무인들의 심장이 세차게 박동한다. 피가 솟구치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

서문강이 그들을 돌아보며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모두..... 죽지 마라.”

무인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다. 서문강, 그의 진정한 마음이 전해진 까닭이다.

서문강이 장포를 펼럭이며 돌아섰다.

그리고 천천히 한 손을 들었다.

“가자.”

서문강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하지만, 혈무련의 무인들은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게 들려왔다.

# 武極 - Story Book

혈무련의 무인들이 몸을 일으켜 서문강을 뒤따랐다. 수백 명이 움직이는데 들리는 거라고는 낮은 발자국 소리와 병장기가 째랑거리는 작은 소리 뿐. 곧, 시작이다.

낙양성 지부.

진명은 지부 안에서 자신을 도와줄 만한 이를 찾아야 했다. 지부 안에 있는 장로들 대부분이 평일지의 손아귀에 있음을 모르지 않았다. 다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을 뿐이었다.

진명도 바보가 아니었다. 혈무련이 낙양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도 등봉 분타를 향하여.

자존심이란 뭐든 좋았다. 등봉 분타가 무너지면 낙양성도 위기에 빠진다. 싸움에 휘말려 무인이 아닌 수많은 양민들이 다치거나 죽게 될 것이다.

더구나 낙양성에는 소림사가 있다. 언젠가 마교의 손에서 수복해야 할 소림사를 혈무련에게 유린당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진명은 평일지를 만나려 했으나 역시나 평일지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하다못해 이제는 이원조마저 만날 수가 없었다.

진명이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단심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세력이었다. 등봉 세가와 북풍표국을 방문해 혈무련의 공격 계획을 알리고 지원을 부탁했다.

그러나 등봉 세가의 가주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북풍표국은 자신들은 어디까지나 중립세력이라며 협력을 거부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장사꾼이니 어느 쪽과도 척을 지고 싶지 않을 것이다.

‘범여 대사님께서 계셨다면.....’

아무데도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 있다 생각하니 천근 무게의 짐을 진 듯 무겁기만 하다.

‘평일지..... 나 하나 때문에 낙양성을 혈무련에 빼앗겨도 좋다는 것이냐!’

진명은 타는 듯한 마음과 반비레하듯 아무런 진전이 없는 요 며칠 사이의 일을 생각하며 주먹을 꼭 움켜쥐었다.

“어쩐 일이신가?”

진명은 미친 듯 지부를 돌아다니다가 수량 진인을 만나게 되었다. 수량 진인은 화산파의 인물로 단심맹 낙양지부의 상임고문을 맡은 이다.

‘하필이면 화산..... 쉽지는 않겠구나.’

그러나 일단은 부딪혀 봐야 하는 법. 진명은 먼저 정중하게 포권으로 예의를 갖춘 다음 말했다.

“먼저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음을 사과 드립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곧 등봉 분타로 혈무련이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헌데 낙양성 지부에서는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진명이 얘기를 꺼내자 수량 진인이 진심으로 뜬금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음? 그게 무슨 소린가? 벌써 분타주 회의에서 혈무련의 공격에 대해 얘기를 끝 마친 줄 아는데?”

“.....에?”

이번에는 진명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분타주 회의가 있었다고요?”

“그래. 아니, 그건 그렇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은 등봉 분타주가 왜 분타를 비우고 지부를 방문한 게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니요?”

“등봉 분타에서 낙양성 내로 혈무련을 유인하는 역할을 자청했다고 들었는데만? 낙양성 수성 계획도 모두 그에 맞추어 세웠다네. 다른 분타주들은 그 계획에 따라 모두 휘하의 백도군을 지부로 보낸 이 시점에 자네는 대체 뭘 하는 겐가?”

진명은 저도 모르게 양 주먹을 꼭 움켜쥐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마치 그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군. 이제 와서 발뺌이라도 할



# 武極 - Story Book

작정인가?”

수량 진인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으며 말했다. 그래서 진명도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감정을 굳이 감추려 들지 않았다.

“네. 전혀 몰랐다고 하면 무어라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수량 진인이 헛웃음을 흘렸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제와 그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대체 뭐가?”

“정말 몰랐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분타주 회의를 있다는 것도, 제가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소리 말게나. 대체 누가 그런 말을 믿겠는가?”

“한 점의 거짓도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제가 왜 지부를 방문했겠습니까!”

“.....”

수량 진인은 미간을 찡그리며 입을 닫았다.

화산의 과육과 평일지의 야심.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는 단심맹과 십대문파. 그 사이에 직접적으로 부대끼는 자가 바로 수량 진인이었다.

그는 평생 산 속에서 도를 닦던 사람이었다. 마교의 발호로 강호가 피폐해지고, 그들에 맞서기 위해 십 년 수양을 물리치고 강호로 나섰다. 그런 그가 신물 나게 보게 된 것은, 마교에 분연히 맞서는 정파 군웅의 의협심이 아니라 자파만이 홀로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허욕이었다.

그것을 어찌 모른다 할 것인가. 그것을 어찌 바른 것이라 할 것인가.

그래도 그 혼자 무언가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더구나 평일지는 대부분의 임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해 버렸다.

명색이 상임고문이기에는 하나 그는 화산파에서도 거의 내놓은 사람. 다른 파의 장로가 상임고문이 되어 평일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허수아비로 세워두었을 뿐이다.

이렇게면 평일지가 낙양 지부를 완전히 장악하여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지켜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수량 진인의 역할이었다.

수량 진인은 쓴 표정을 억지로 감추며 이렇게 말했다.

“등봉 분타주의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조치도 불가능하다네. 이미 각 분타와 지부의 병력 배치 지시가 끝난 상황이야. 내가 무언가 해주길 바라고 왔다면 그냥 돌아가시게.”

“그렇다면 이대로 등봉 분타를 내버려두실 작정이십니까? 그것이 지부와 맹의 결정입니까?”

“어디까지나 혈무련과 맞서기 위한 계책일세. 그리고 비단 지부와 맹뿐이 아니라 등봉 분타주의 결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네. 나는 끝까지 그리 알고 있을 것일세. 자네가 나에게 한 말은 듣지 못한 것이라네. 앞으로도 영원히.”

주먹으로 바위를 치는 기분이 이렇까. 가도가도 첩첩 산중인 심정이 이렇까.

진명은 끓어오르는 울분을, 어쩔 수 없이 한숨으로 토해냈다.

“알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알겠습니다. 허나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평지부장이 화산을 속일 수는 있어도 십대 문파 전부를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타주의 발언치고는 매우 위험하군. 등봉 분타주는 그 발언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제가 책임을 질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책임 지겠습니다. 그리고 귀 파의 평지부장도 반드시 그러길 바랍니다.”

“보자 보자 하니 끝까지..... 알겠네! 자파의 잘못이 있다면 내 선에서라도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네! 하지만 자네의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책임 또한 소림이 물어야 할 것이야! 이제 그만 나가보게!”

수량 진인은 단호하게 축객령을 내렸다.

이로서 진명이 지원을 기대할 곳은 전무(全無)하게 되었다. 그는 엄습하는 불안감과 맞서 싸우기 위해 애썼다.

‘과연 혼자 지켜낼 수 있을까?’

야차와 맞설 때에도, 적나한과 맞설 때에도, 초위와 대적할 때도 그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 때 그의 곁에는 반드시 일령이 있었다. 어쩌면 일령이

## 武極 - Story Book

있었기에 그만한 힘을 낼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령 아우.....’

지독한 외로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외로움이 서늘한 한풍처럼 진명의 몸과 마음을 감싸고 놓아주지 않는다.

자신이 이렇게 방황하는 동안에도 혈무련의 낙양 공습 시각은 시시각각 임박하고 있다.

진명은 허탈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몽글거리는 구름이 빠르게 일고 있었다. 전운(戰雲)이었다.

# 武極 - Story Book

## 2.3.4. 제 64 화 [준비]

서문강은 낙양성을 두 갈래로 나뉘어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초위가 이끄는 일백의 무인들이 등봉 분타로, 그리고 서문강이 이끌 일백의 무인들은 맹진 분타로 향해 동시에 낙양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자는 계획이었다.

단심맹이 공들여 세운 수성작전은 철저히 등봉 분타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확실히 서문강의 작전이라면 단심맹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서문강이 맹진 분타를 급습한다는 부분이었다. 백제성에서 낙양성의 맹진 분타까지 이어진 길이 없었던 것이다.

유일한 길은 개봉성의 기현 분타를 통해 가는 것이었는데, 그곳은 유감스럽게도 마교의 손아귀에 떨어진 곳이었다.

초위는 단심맹의 유인에 걸려든 척 소란스럽게 등봉으로 향하고, 서문강은 최대한 빠르고 은밀하게 기현 분타를 돌파해 맹진을 치는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었다.

다시 말해 서문강은 얼마나 되는지 모를 마교의 고수들과 실혼인들을 피해 가던가, 아니면 정면으로 돌파하여 맹진 분타를 공략한다는 것이다.

보통 상황이었다면 지휘자의 이런 무모한 계획에는 다들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러나 서문강을 따르는 삼백 무인들은 조금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

서문강, 그에게는 통상적인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서 신뢰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

기현 분타와 등봉 분타로 나뉜 갈림길에 선 서문강의 표정은 고요한 강처럼 변화가 없었다.

초위가 묻는다.

“자신 있나?”

“물론.”

확신에 찬 서문강의 대답을 받고서야 초위는 혈무련의 일백 무인들과 함께 옆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래, 믿는다. 단심맹을 치기 위해 먼저 마교 놈들의 소굴로 걸어 들어간다는 게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짓을 하는 놈이 서문강 너니까.”

누구도 아닌, 바로 서문강이니까.

초위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신뢰를 대변하는 말이다. 서문강은 자신의 이름 세 글자에 걸린 무게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 믿어라. 하나 나보다는 오히려 초위, 네가 위험할 지도 모른다.”

“내가 죽는다 해도 네가 내 복수를 해주겠지. 안 그러냐?”

“멍청하게 죽어버리면 복수 대신 욕을 해줄 테다.”

서문강의 말에 초위가 피식 웃었다.

서문강이 손을 들었다.

“가자!”

서문강의 뒤를 혈무련의 무인들이 질서정연하게 뒤따랐다.

누구도 아닌, 서문강의 복수였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더 피에 굶주려있는 상태였다.

서문강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초위의 등을 누군가가 톡 쳤다.

멸천혈량대의 막문성이다. 본래 폐라성에 있어야 했는데, 악포의 복수 얘기를 듣자마자 백제성으로 달려와 준 것이다. 그만큼 젊은 무인들은 서문강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형님, 우리도 출발해야지? 언제까지 서문강 큰형님의 뒤통수나 쳐다보고 있을 건데? 꼭 얼마 잃은 애새끼 같잖소.”

초위는 막문성의 허물없는 농담에 툭툭대며 웃었다.

## 武極 - Story Book

“뭐? 너 강이가 그 말 들었으면 벌써 뒤졌어, 인마.”

“모처럼 없으니 하는 소리 아니오. 나야말로 퍼라성에서 개처럼 혈떡이며 뛰어왔는데, 도착하자마자 큰형님과 이별이라니..... 가슴 아파 죽겠수다.”

“어이구, 강이 혼사길 막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여인네도 아니고 사내새끼가 애 닳아 하면 어쩌자는 거야?”

“뒤텔어썩우긴. 나만 그런가? 형님도 그러잖아.”

막문성은 심각한 표정으로 초위의 목소리를 흉내 냈다.

“바로 너, 서문강이니까.”

초위가 씩스러운 표정으로 뒤통수를 긁적였다.

“뭐야. 그건 맞는 말이잖아.”

“그건 그렇지. 사실 영감님들이야 자기들 밥그릇마저 빼앗길까 봐 어떻게든 깎아 내리려고 하는 모양인데..... 나는 가끔 큰형님이 없었다면 혈무련이 어떻게 되었을까 소름이 끼치오. 그랬다면 나도 머리 깎고 중이나 됐을 거요.”

“어쭈? 강이만 아니었다면 소림의 땡중이 됐을 거라고? 명색이 혈무련의 멸천혈랑대라는 놈이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누가 소림 땡중이 된대? 기왕 머리 깎을 거면 아미파로 가야지. 크크크.”

“쯧쯧..... 이 놈이 퍼라성에서 잠시 늑다리들하고 부대끼더니 치매에 걸린 모양이네. 쯧쯧쯧.”

“시끄럽소! 누가 미친놈이라는 거요?”

“이놈이 감히 형님에게 시끄럽다고? 이젠 아주 막 가는구나. 한 번 해보자는 거냐?”

“아니, 뭐 누가 형님한테 그랬나? 그냥 혼잣말 한 거요.”

막문성이 귀를 후비적거리며 탄성을 피웠다.

초위와 막문성이 실없이 드잡이질을 해대는 것을 보고는 출발 명령만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한 소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출발 안 합니까?”

“어서 가서 낙양성을 쓸어버립시다!”

막문성이 양손을 치켜들고 엉덩이를 썰룩 거리며 덩달아 외쳤다.

“어서 출발 합시다!”

초위가 막문성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뽕

“에라이, 이 망할 자식아.”

막문성은 엉덩이를 걷어차이고서도 웃었다.

“으흐흐.”

초위가 머리를 한 번 크게 흔들었다.

“아, 젠장! 그래! 우리도 가보자고! 강이보다 먼저 도착해서 등봉은 물론, 맹진까지 확 쓸어버리자! 강이가 도착해서 놀라 자빠지는 꼴을 봐야겠어!”

“그것도 좋지! 가자!”

“출발이다!”

벌써 주사위는 굴러간 것이다. 아무리 이백의 병력으로 마교의 소굴을 빠져 나오는 것이 힘들지라도, 거기서 남은 인원으로 맹진 분타의 사백 병력을 상대하는 일이 버겁더라도, 그러기로 결정한 서문강을 믿기로 했으니 믿어야 하는 것이다.

초위와 혈무련의 일백 무인들은 갈림길에서 등봉 분타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명은 어느 때처럼 조용하고 한가로운 등봉 분타를 둘러보았다.

머리가 복잡해 터질 지경이다.

‘역시 내게 분타주라는 자리는 안 맞는 건가?’

겉모습은 평화로우나 내일이면, 아니 당장 잠시 후면 이곳은 잿더미가 될지도 모른다. 그 동안 미친 듯이 땀을 흘리며 일군 밭이며 논들이 한 순간에 사라지고 피와 살점, 비명과 죽음이 춤추는 살육의 현장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맹진과 여양 분타, 그리고 낙양 본성의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틸 수나 있을지

# 武極 - Story Book

의문이다.

그렇다고 이곳을 버리고 달아날 수도 없는 노릇.

진명은 머리를 마구 흔들었다.

“아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길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놈들은 말을 타고 올까? 그렇다면 대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말을 못 타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 아아..... 통 모르겠군.”

필사적인 것에 비해 머리가 굴러가는 속도는 터무니없이 느렸다.

진명이 자조적인 한숨을 토해냈다.

“령 아우가 있었다면 좋은 생각을 해줬을 텐데. 적나한을 상대했을 때처럼.....”  
일령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

의논할 상대도, 등뒤를 지켜줄 상대도 없는 지금의 진명에게는 일령의 소중함이 다시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보면 일령은 진명에게 아무 것도 바라지 않았다.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다.

그런 일령을 왜 몰아붙였을까.

“후우.”

지난 일을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일.

진명은 애써 일령의 생각을 떨구어내고 다시 초소 아래 펼쳐진 분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정말 답답하군. 적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니.”

그러다 진명은 상전 너머로 다가오고 있는 작은 무리를 발견했다.

“어, 저건.....”

진명이 혀를 찼다.

“분명히 이제는 오지 말라고 일렀는데!”

진명은 후다닥 초소를 내려갔다. 당분간 절대로 걸음 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두었던 등봉 세가의 아이들이 어찌된 일인지 경쾌한 걸음으로,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듯 걸어오고 있었다.

“이 녀석들! 어째서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분명히 여기는 위험하다고 말했잖냐!!”

그러나 등뇌달의 호통 소리가 진명의 말을 단칼에 잘라먹었다.

“쫓쫓쫓쫓! 아, 발 끝이 이게 뭐야? 이행이 이 놈, 예서 뭐하고 있었어?”

치매 노인인 등뇌달은 아직도 진명을 예전의 어린 손주 등이행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진명은 오랜만에 들려오는 익숙한 잔소리가 반갑기도 했지만 그보다 걱정하는 마음이 울컥 튀어나왔다.

“어르신! 하필이면 이런 때 오셨습니까! 너희들! 대체 어째서 어르신을 모시고 온 거야!”

진명이 목소리를 높이자 아이들이 어깨를 움츠리고는 등뇌달의 등 뒤로 숨었다.

“그게 아니구요..... 장주님이 상전을 보셔야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던 말이에요.....”

“맞아요요. 화내지 마세요, 사부우.....”

처량한 표정을 짓는 애들을 보니 화를 내기가 버거웠다. 그래도 지금은 저 얼굴에 넘어가줄 때가 아니었다.

“당장 어르신을 모시고 돌아가거라. 임시 세가도 안전하지 못할지 몰라. 집 안에서도 꼭꼭 숨어 있어야 한다. 알아듣겠느냐?”

등봉세가의 본가는 분타 지역에 있으나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상태다. 마치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어, 하지만.....”

“하지만 뭐?”

“하지만 우리도 소림 문하잖아요. 우리도 사부님이랑 같이 싸우고 싶어요.”

“뭐?”

“네! 같이 싸우고 싶어요! 저희도 여기 있게 해주세요!”

## 武極 - Story Book

아이들은 입을 모아 진명을 졸라대기 시작했다. 진명은 처음으로 이 녀석들을 두들겨 패줄까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엥? 싸워? 아, 너희들이 누구랑 싸워?”

등뇌달이 끼어들었다.

진명은 안타까울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며 등뇌달을 붙들고 말했다. 제발 그가 얼토당토않은 고집을 피우는 일이 없기를 빌 뿐이다.

“어르신.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곧 혈무련에서 들이닥칠 겁니다. 어서 세가 안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응? 또 산적 놈들이 온다고? 예구, 이를 어쩌나. 그 놈들은 말이야, 꼭 이 무렵에 우르르 내려와서 말이지..... 예구예구.”

“어르신! 어서 돌아가십시오! 여기 계시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아,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도 산적 놈들이랑 드잡이 질을 해야 하나? 에잉, 쫓쫓. 아 가만, 그러고 보니 그 놈들이 내려 온 지 한참 된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왜 그랬느냐면..... 옳지, 아 그때 불구덩이에 홀렁 빠져서 혼 줄이 난 뒤로 안 왔었지? 에이, 고얀 것들. 고새 잊어버리고 또 여길 털러 온다 이거야?”

“어르신!”

“아, 이행이 네 놈은 좀 가만히 있거라!”

오히려 등뇌달이 진명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진명은 언제 혈무련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시점인지라, 등뇌달과 아이들을 세가로 데려다 주기 위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다.

“어르신, 제발..... 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진명이 통사정하는데도 등뇌달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눈치였다. 대신 그는 엉뚱한 소리를 해댔다.

“이번에도 내가 혼 줄을 내줘야지. 이행이 네놈은 여기 애들 부려서 뽕잎 좀 훑어오거라.”

“어르신!”

“아, 산적 놈들이 오고 있다며! 그러니 혼 줄을 내주자는 말이야! 그 때도 택이

영감하고 나하고 단 둘이서 놈들 서른을 쫓아냈는데 아, 지금인들 못하겠냐?”

등뇌달은 모처럼 팔팔했던 예전 기억이 돌아왔는지 있는 힘껏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듣고 보니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었다. 정말로 산적 서른을 쫓아낼 수 있었다면 약간의 시간은 벌 수 있을지도 몰랐다.

“어르신. 산적들이 왔던 곳이 여기, 이 밭이었습니까?”

“아? 아, 그렇지. 어차피 길은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처음에 낙양으로 와서도 자리 잡기가 마냥 힘들었던 게야. 뽕나무가 자랄 만 하면 산적들이 와서 헤집어 놓고, 또 자랄만하면 와서 분탕질을..... 예구예구, 그 때만 생각하면 세월이 참.....”

등뇌달은 살 만큼 살아온 노인들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표정을 지어냈다. 진명은 도리어 그 표정에서 일말의 자신감을 얻었다.

“어르신, 그렇다면 그때 어찌 하셨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 당연히 이행이 네 놈이 해야지! 그럼 이 늙은이가 하리? 어서 가서 뽕 잎이나 훑어 와! 내 방법을 알려줄 테니.”

“예, 어르신.”

이제는 아이들도 신이 났다. 철 없는 아이들은 아직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사부님?”

“우와, 신난다. 진짜로 혈무련 놈들이랑 싸우는 거야!”

진명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좋다. 하지만 약속하자. 혈무련이 오기 전까지만 여기에 있는 거다. 함정을 다 만들면 너희들은 즉시 어르신을 모시고 피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못하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진명은 최대한 진지하고 솔직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 武極 - Story Book

“그럼 아마도 내가 죽게 될 거다.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했다.

“예에? 어떻게..... 어떻게 그래요! 사부님은 강하잖아요!”

“맞아요! 소림사에서 가장 강하다고 범여 대사님이 그랬잖아요!”

“하지만 혈무련은 더 강하다.”

혈무련이 더 강하다는 말에 아이들은 잔뜩 겁을 먹은 듯 했다. 도리어 진명은 마음을 놓았다.

‘후우. 이 녀석들이 이제야 무슨 일이 닥칠지 좀 감을 잡은 모양이구나. 부디

무사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 시간이 없으니 부지런히 움직이자꾸나. 어르신이 시키는 대로 뽕잎을 훑어오자.”

진명과 아이들은 뽕잎을 따기 시작했다.

그 사이 등뇌달은 거름통을 들고 히히덕대며 어딘가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혈무련은 낙양성을 향하여 이동 중이었다.

# 武極 - Story Book

## 2.3.5. 제 65 화 [함정]

초위는 어느덧 평정 산채를 지나 등봉 분타가 멀리 내려다보이는 지역까지 도착해 있었다.

일부러 모습을 드러낸 채 뵈히 보이도록 이동을 해왔으니, 단심맹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자신들의 존재를 알고 있을 터다.

대신 단심맹의 정찰조가 지척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게 철저히 경계했다.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아, 드디어 호랑이 아가리로구만.”

막문성이 초위의 말을 받았다.

“호랑이 아가리는 무슨. 등봉 분타주가 달랑 하나 있다잖았소.”

“흥. 어지간히도 웃긴 놈들이지. 진명이란 놈도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왔고.”

“악포의 원수가 바로 그 자식 아니오, 형님? 등봉 분타주. 그런데 왜 큰형님이 등봉으로 오지 않았지? 나 같으면 직접 원수를 갚을 텐데.”

“그게 서문강이란 놈의 멋진 점이지. 너라면 마교의 소굴로 걸어 들어가는 작전을 댄 놈에게 시킬 수 있겠냐?”

“하긴.”

초위가 창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러니까 그 놈을 산채로 강이에게 던져줄 생각이다.”

“몸조심 하라고 형님. 지난번에도 거의 빈사상태인 놈에게 당했잖아.”

장난하듯 던진 말이었으나 막문성의 얼굴은 더없이 진지했다. 초위를 걱정하는 것이다.

“염려마라.”

초위의 턱과 목에 핏줄이 돌아났다. 시커먼 묵빛 창을 으스러져라 잡았다.

“지난 번에도 창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내가 이겼다. 더구나 그 이후에 난 한시도 쉬지 않고 수련에 매진했어. 더 이상 놈은 내 상대가 아냐.”

초위가 묵빛 창을 휘둘러 보인다. 절대기보(絶大奇寶)라고는 할 수 없으나 평범한 창이 아니다. 두 갈래로 갈라진 이지창날에 예기가 번들거린다.

“이 천왕능결(天王鏐鈺)이 있는 한 난 결코 놈에게 지지 않는다.”

“믿음직하군.”

곧 초위와 막문성을 위시로 한 혈무련의 무인들은 거침없이 등봉 분타에 도달했다. 과연 정찰조가 보고 한 대로 등봉 분타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드넓은 뽕밭뿐이었다.

“휘우. 기가 막히는군. 이걸 뭐 어째 볼 생각도 안 드는데? 등봉 분타주라는 놈은 대체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냐?”

싸울 의지를 사그라지게 만드는 등봉 분타의 모습이였다.

초위 역시 기가 막힌 나머지 할 말을 잃었다.

“이건 뭐.....”

막문성이 피식 웃음을 흘렸다.

“불이라도 확 질러버려?”

“일단 망루까지 가보자. 저곳에도 놈이 없다면 우리가 무서워 도망쳤다고 봐야지. 그래 봤자 낙양 안일 테니 사냥이 어렵지는 않을 거다. 가자!”

초위가 달려가자 혈무련의 무인들 역시 그 뒤를 따라 달렸다.

두두두두.

백여 명의 무인들이 한꺼번에 질주하니 그 모습이 가히 장관이다.

위낙 넓은 상전이였지만 잘 닦인 발독을 가로질러 달리면 망루까지는 금방이었다. 아니, 금방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음?”

갑자기 초위가 몸을 돌리며 뽕나무 사이로 천왕능결을 찢러 넣었다.

파삭!



## 武極 - Story Book

허수아비 하나가 갈갈이 찢긴 채 초위의 창에 걸려 나왔다.

“뭐야, 이견.”

막문성과 혈무련의 무인들이 주변을 경계했다.

무성하게 자란 뽕나무 잎 사이로 드문드문 그림자가 보인다. 얼핏 보면 사람이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허름하게 만들어진 허수아비였다.

막문성이 기가 막혀 혀를 찼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시간 끌기인가?”

비록 대부분이 허수아비라고는 하나 그 중에 정말 사람이 섞여 있다면 기습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놈이 애들 장난 같은 잔재주를.....”

초위의 얼굴이 붉게 달아 올랐다.

“가만 안 두겠어. 내 창으로 꼬치구이를 만들어 줄테다.”

“큰형님한테 던져준다며?”

“꼬치로 만들어 던져주면 요리하기 더 편할 거 아냐!”

진명이 고심 끝에 만들어낸 허수아비 작전은 어느 정도 먹혀 든 것이 사실이었다. 이미 등봉 분타가 함정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 혹시나 모를 매복을 경계할 수 밖에 없었다.

진군하던 속도가 줄었다.

그러면서 상전을 지나는 동안 초위의 얼굴은 더욱 붉으락푸르락 변해갔다.

처음에는 그래도 뼈대도 있는 제대로 된 허수아비였는데 분타의 망루가 가까워질수록 대충 만든 허수아비들이 뽕나무에 즐비했다. 심지어는 나뭇가지에 대충 옷가지만 걸쳐 놓은 것도 있었다.

막문성이 옷가지를 찢어 발기며 소리쳤다.

“성의라도 좀 보이란 말이다! 이 개 자식들.”

더구나 군데군데 함정들이 더 설치되어 있었다.

개 중에는 어치구니가 없게도 토끼사냥용 덫도 존재했다. 한심할 정도로 열악한 등봉 분타의 상황을 알려줄 뿐, 그 어떤 위협거리도 되지 못하는 덫이.

초위가 덫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단심맹 차원에서의 행동이 아니군. 진명 그 놈이 혼자서 한 짓이다.”

“뭐?”

“우릴 놀리는 거다. 자신은 혼자 밖에 없는데 그걸 뻔히 아는 우리가 공공대는 걸 보면서 웃고 있는 거겠지.”

더 이상 초위는 허수아비나 덫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망루까지 순식간에 혈무련의 무인들이 도달했다. 역시나 망루 앞에는 보초도 없고 그럴싸한 방어 자재도 보이지 않았다.

“진명 그 놈도 도망갔나 본데?”

“설마..... 그런 놈이 아닐.....”

그런데 그 순간.

휘익!

망루 위에서 무언가 날아들었다.

“위다!”

초위가 소리치며 위를 향해 천왕능결을 휘둘렀다.

무언가 창 끝에 걸렸다. 혹여 투석이라도 했나 싶었는데 그것은 창 끝에 걸리는 순간 너무도 쉽게 찢어지고 만다.

그것은 뽕잎을 단단히 뭉쳐놓은 커다란 덩어리였다.

후드드드득!

뽕잎이 찢어지며 시커먼 무언가 잔뜩 허공에서 뿌려진다. 허공에서 떨어지는 것을 향해 칼을 휘둘렀던 대다수 혈무련의 무인들이 초위와 똑 같은 꼴을 당했다.

“독인가!”

초위는 창을 풍차처럼 휘저으며 막으려 했지만 어쩐지 그것들은 창 사이로 줄줄 흘러 내렸다.

# 武極 - Story Book

투투툑.

괜히 창풍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것들이 다 옆으로 튀었다.

“이게 뭐..... 이런 씨발!”

독 인줄 알고 당황했는데 냄새가 다르다.

거무죽죽한 그것들은 다름아닌 기름이었다.

발에나 뿌리는 기름을 넓적한 뺨앞에 싸 던진 것이다. 그 중에 인분이 섞여 있음은 물론이었다.

초위가 얼굴을 찡그렸다.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괜히 창을 휘둘러 오히려 잘게 흩어진 축축한 인분이 온 몸에 고루고루 묻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초위가 올려다 보았다.

망루 위에서 진명이 쳐다 보고 있었다.

“진- 명!”

진명이 말없이 손을 흔들었다. 초위가 창대로 옆의 거마목을 후려쳐 날려버리고는 소리를 질렀다.

“너 이 자식! 죽여버리겠어! 당장 내려와!”

쿵! 쿵쿵!

말의 진격을 막는 무거운 거마목이 산산조각 나며 튕겨져 나갔다. 이런 기세라면 초위는 창만으로 망루를 때려부술 수도 있을 듯 했다.

하나 진명은 아무런 말을 않았다.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것은 막문성이었다.

“잠깐! 아무래도 수상하다! 좀 진정해봐.”

“뭐? 진정? 지금 똥물을 뒤집어 쓰고도 진정하라는 말이 나와?”

“우리한테 똥물을 뒤집어 씌워서 저 녀석이 얻는 게 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인분, 냄새가 너무 이상.....”

그때 초소 위에서 진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냄새가 이상한 것은 그냥 인분이 아니기 때문이요.”

“뭐라고? 저게 대체 무슨.....”

진명의 손에는 어느 샌가 불길의 잘 타오르고 있는 장작 몇 개가 들려 있었다.

“기름 냄새를 감추느라 인분을 쓴 거요. 미안하단 사과는 하지 않으리다.”

“뭐?”

잠깐이었다.

진명의 손을 떠난 불타는 장작이 망루 위에서 떨어져 내렸고, 혈무련의 무인들이 불타는 장작을 쳐냈다.

하나 불뚱이 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화르르륵!

망루 주변에도 미리 기름을 뿌려 놔는지 순식간에 불길이 거세졌다.

“크익!”

“뒤로 빠져!”

“일단 피해!”

잠깐 사이에 몸에 불이 붙었다. 아무리 훈련이 잘된 무인이라 할지라도 눈 앞에서 동료가 산 채로 불이 붙었다면 동요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불길이 자신에게도 옮겨진다면 더 위험해진다.

혈무련의 무인들이 뒤로 물러나며 옷을 벗고 불을 끄느라 혼란해졌다. 불길 때문에 연기까지 치솟아 시야도 서서히 가로막혔다.

사실상 진명이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정말로 재수가 없지 않은 한 불에 타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명에게는 이 정도의 동요라면 충분했다.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시간을 벌었어. 내 한 몸 정도는 쉽게 빼낼 수 있다.’

원래 등뇌달이 제안한 것은 기름을 퍼 뿌리는 방법이었다. 산적들을 물리치는 방법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었다. 알고 보니 산적들이 더러워서 달아났던 것이다.

거기에 교묘히 기름 냄새를 가려 적들을 일거에 공황에 빠뜨리는 데에 성공했다.

## 武極 - Story Book

진명으로서의 감탄할 만한 일이었다. 만약 단신으로 무력을 써 상대했다면 혈무련의 무인들을 이만큼 혼란에 빠뜨리지는 못했으리라.

무력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물론 그것도 이곳을 살아난 후의 일일 테지만.

덕분에 아까운 망루를 불태우긴 했지만 피어 오르는 연기가 봉화 역할을 할 것이고, 지금쯤은 낙양성과 다른 분타에서도 혈무련의 공습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터다. 진명이 불을 지른 목적은 그것이었다.

상대할 수 없을 바엔 적들의 침입이라도 알리려는 것. 달아나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싸울 생각도 있었다.

한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반드시 살아 돌아가 이 일을 알려야 한다.’

진명은 이를 악물었다.

등봉 분타를 공격한 혈무련의 무인들 수가 너무 적었다.

눈짐작으로 보아도 겨우 백여 명 남짓.

이 정도의 숫자로 낙양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함정이었어. 본대는 다른 분타를 공격할 거야.’

살아 돌아가야 할 목적이 생긴 것이다.

망루를 단숨에 뛰어내려온 진명은 낙양성까지 달리기 시작했다. 혈무련의 무인들은 연기에 가려져 진명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잡힐 일은 없다. 분타를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은 분타주로서 할 일은 아니나 그 혼자서는 이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한데 진명은 더 이상 달아날 수 없었다.

등뇌달이 느닷없이 불쑥 나타난 것이다.

“어, 어르신!”

어째서 그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일까. 그는 분명히 아이들과 함께 세가로 돌아갔는데.

이런 의문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전에 등뇌달이 엉뚱한 표정으로 먼저

소리를 질렀다.

“이행아, 이 놈! 너 괜찮은 게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네가 산적한테 당해서 다 죽을 지경이라고..... 내 그래서 한 달음에 달려왔지 뭐냐! 그래, 어디가 다친 게야?”

“저는 다치지 않았습시다!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응? 아, 거야 널 안다고 하면서..... 거, 왜 검은 옷을 이렇게 두르고.....”

그 순간 진명의 얼굴이 변했다.

‘낙양성 내부에도 혈무련의 무인들이 있었나!’

낙양성 쪽에서부터 폐부를 찔러오는 살기가 느껴진다. 누군가 등뇌달을 뒤따라 오고 있었다.

‘몇이지? 적어도..... 열 명이 넘는다.’

보이지는 않으나 살기는 느낄 수 있다.

‘뒤에는 혈무련, 앞에는 정체를 모르는 놈들.’

살아 돌아갈 수가 없다!

진명은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자신이 본 것만은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진명은 죽음을 각오했다.

살아 돌아가야 한다.

혈무련의 본대가 다른 분타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

등뇌달은 얼굴 주위에 천을 두르는 시늉을 하며 검은 옷 어찌고 하다가 진명의 결연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손을 내렸다.

“이행아, 이 할애비가 뭔가 잘못된 모양이로구나.”

“어르신. 제가 놈들을 막는 동안 낙양성에 가서 누구에게라도 알려주십시오. 혈무련의 본대가 등봉으로 오지 않았다고.”

“이행아.....”

## 武極 - Story Book

“반드시 그대로 알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양성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행아, 이 할애비가 도대체 무슨 짓을.....”

등뇌달의 얼굴에 처연함이 맴돌았다.

스스슛.

풍성하게 자란 뽕나무의 잎 사이로 언뜻 검은 그림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진명은 잔뜩 공력을 끌어올리며 등뇌달을 보호하려 했다.

그때 갑자기 등뇌달이 진명을 힘껏 밀쳐 두렁 아래로 떨어뜨려 버렸다. 생각도 못한 돌발적인 행동이었다.

쿠당탕탕.

진명이 두렁을 구르는 동안 등뇌달은 연기가 피어 오르는 분타 망루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죽을 힘을 다해 뛰면서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다.

“이행아! 할애비 여기 있다! 너 대체 어디 있는 게냐!”

# 武極 - Story Book

## 2.3.6. 제 53 화 [복면인]

“아악, 그 자식! 진짜로 반드시 기필코 정말로 죽인다!”

간신히 불꽃들을 털어낸 초위가 악을 쓰며 외쳤다. 맹세코 그가 강호에 발을 들인 이후로, 오늘과 같은 모욕은 처음이었다.

사실 피해 정도는 미미했다. 잠시 시간을 지체했고, 경미한 부상을 입은 자들이 몇 생겨났으나 이 불쾌감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쿨룩쿨룩!”

아직도 연기가 자욱해서 눈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온 몸에서 풍기는 기묘한 악취는 사기 저하에 크게 한 몫 했다. 무복이 온통 거름에 절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욕 이상이었다.

“죽여버릴 테다! 그 자식 어디로 갔어?”

초위가 길길이 날뛰 기세로 묻자 막문성이 일침을 던졌다.

“일단 좀 진정해. 형님이 이럴수록 그 놈을 도와주는 거야. 이 정도의 함정을 준비한 놈이라면 더한 것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오?”

“함정이고 나발이고! 싹 다 짓밟아줄 테니 어서 쫓아가자고!”

“아직도 모르겠어? 놈이 저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큰형님의 생각이 맞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요. 우리가 등봉으로 올 거라는 걸 놈들도 분명 알고 있을 거라고. 그 말이 맞았어. 이대로 놈을 쫓아간다면, 놈들이 우리가 등봉으로 올걸 예상하고 만들어놓은 함정에 분명히 덫씩 걸려들게 되어 있수.”

시덥잖은 농담을 던지던 막문성 치고는 논리 정연한 어조다. 그러니 서문강이 막문성을 초위와 함께 보낸 것이다.

막문성의 침착함에 초위도 차츰 냉정을 되찾았다.

“뭐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뭐, 방법이 있나? 여기서 일단 죽치고 있어야지.”

“뭐?”

“생각을 해보자고. 놈들은 우리가 등봉 분타로 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큰형님이 맹진으로 가는 줄을 모르고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답 갈아?”

“글쎄..... 등봉 쪽에 함정을 파놔겠지. 그런데 그런 함정치고는 한심하잖아? 우리 쪽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는 거요. 그 놈의 등봉 분타주가 우리를 열 받게 한 다음 혼자 도망쳤지. 누가 봐도 뻔한 유인책이라는 생각 안 들어? 성질 급한 형님 같은 놈이라면 덫씩 미끼를 물었겠지만.”

초위가 인상을 썼다.

“뭐야. 그렇다면 이대로 놈을 쫓아가면 단심맹의 매복이라고 대기하고 있을 거라는 소리냐?”

“그렇지.”

“매복이라면 그냥 쓸어버리면 되잖아?”

“물론 그러면 되지. 하지만 놈들은 우리가 전부 등봉 분타로 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에 맞춘 매복을 해놔을 거란 게 문제야. 이 인원으로는 벅찰 수 있소.”

“아, 그럼 어쩌자고? 매복이 무서워서 여기서 죽치자는 말이야?”

막문성이 진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놈들 작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여기서 죽치는 게 낫소. 큰형님이 올 때까지. 엉뚱하게도 맹진 분타가 공격을 받으면 놈들은 미리 해놓았던 매복을 풀 수밖에 없어. 그 병력으로 맹진을 지키러 가겠지. 그런데 그 시점에서 여기 죽치고 있던 우리가.....”

인분이 묻어 얼룩덜룩한 얼굴을 한 채 초위가 활짝 웃었다.

“우리가 그 매복조의 뒷덜미를 치자는 거로군. 그렇게 되면 자연히 강이와

# 武極 - Story Book

양동공격이 될 테니까.”

막문성이 씨익 웃었다.

“하여간 멍청하다니까. 이렇게 말해줘야 알다니. 왜 내가 큰형님과 안가고 형님 곁에 있는지 이제야 알겠소?”

“시끄러워! 너 같으면 똥물을 뒤집어 썼는데 머리가 제대로 굴러가겠냐?”

“제대로 굴러갔잖아. 누구에 비하면 말이지.”

초위가 버럭 인상을 썼다.

“그건 네 놈이 그저 나보다 낮짝이 두껍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강이가 오도록 기다리는 동안 우린 뭐하고 있지?”

초위가 고개를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인상을 굳혔다. 그러더니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감돈다. 살기 어린 미소.

“어이. 문성아.”

“왜 그러쇼, 형님?”

막문성은 뭔가를 더 물으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굳이 물을 필요가 없었다.

멀리 이행아! 이행아! 하고 외치며 달려오는 한 명의 노인을 본 것이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검은 물결들.

“저 놈들 우리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분타 주위의 빼곡한 뽕나무와 연기가 그들의 모습을 가려주고 있었다.

“우리도 허수아비 놀이 한 번 해보자.”

초위가 살기 띤 얼굴로 쿵쿵 대고 웃었다.

불타오르는 분타가 머지 않은 곳.

한참 뛰던 등뇌달이 커다란 뽕나무 아래 둥치로 나동그라졌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정도 똥 것도 그로서는 정말 사력을 다한 것이었다.

그러자 등뇌달을 쫓던 복면인들도 덩달아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진명을 찾기 위해 등뇌달을 이용했다. 그들의 예측대로 등뇌달은

불타고 있는 분타로 향하고 있었다.

연기가 자욱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혈무련 무인들의 그림자가 드문드문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직 진명이 나오지 않은 것이 확실했다.

“우리 임무는 어디까지나 진명을 제거하는 것이다. 혈무련이 진명을 제거한다면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되지. 우리는 여기서 대기한다.”

“하지만 저 노인네가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우리까지 혈무련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복면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제거해라.”

명령을 내린 이의 곁에 있던 복면인이 등뇌달을 향해 튀어나갔다.

등뇌달은 쿵쿵거리면서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복면인이 보인다. 등이행이 위험에 빠졌다고 거짓말로 자신을 속인 자들이다.

복면인의 손에 들린 검을 보면서도 등뇌달은 웃었다. 늘 흐리멍텅하던 눈동자도 초점이 또렷했다.

“이 놈아. 이 할애비가 없어도 뽕밭 잘 가꾸어야 한다. 알겠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인지도 모르게 등뇌달이 중얼거렸다.

복면인은 잠시 움찔했으나 곧 가차없이 검을 날렸다.

등뇌달의 심장에 정확히 검이 꽂혔다. 등뇌달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생기를 잃은 눈동자가 빛을 잃어갔다.

복면인은 등뇌달을 내버려두고 몸을 돌렸다.

그런데 그 순간.

방금까지 없던 그림자 하나가 자신의 등 뒤에 서 있었다.

“누, 누구...!”

초위다. 초위는 긴 창을 어깨 위에 툭하니 걸터 엎고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복면인을 노려 보고 있었다.

“이런 개만도 못한 새끼들..... 지들 매복을 들킬까봐 애먼 노인을 함부로 죽여?”

## 武極 - Story Book

초위의 어깨에서 창이 흔들거렸다. 빈틈을 파악한 복면인은 번개처럼 튀어 오르며 검을 휘둘렀다.

초위의 눈이 번뜩였다.

“화산파의 검법?”

쉬익!

복면인의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 듯 날카로운 검이 초위의 목 언저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초위의 목에 열은 핏빛 검흔이 생겨났다.

그러나 어느 샌가 초위의 창이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묵빛 덩어리가 복면인의 머리를 박살내며 꿰뚫었다.

과직.

초위는 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머리를 잃은 복면인의 몸을 수 차례나 창으로 찔러댔다. 섬광처럼 창영(槍影)이 난자했다.

“저리 꺼져!”

퍽.

초위는 걸레가 된 복면인의 몸을 발로 차 걷어버리고 등뇌달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등뇌달은 이미 숨져 있었으나 여전히 입가에는 미소가 만연했다.

초위가 중얼거렸다.

“이행이가 누군지는 모르나, 내 약속하지. 낙양성을 접수하더라도 내 이행이란 사람은 영감님을 봐서 꼭 살려주겠소.....”

원래 복면인들이 모르는 사이 뽕나무 사이에 숨어 기습을 하려던 초위였다.

그러나 복면인들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노인을 죽이는 것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 모습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복면인들은 잠시 눈치를 보았다. 등을 돌린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초위를 당장이라도 기습하고 싶었으나 상대를 알지 못하니 망설이게 되었다. 그 사이 몸을 숨기고 있던 막문성도 머리를 굼적거리며 끼어들었다.

“망할 자식들. 우리 형님, 열 받았다. 너흰 다 죽었어.”

“혀, 혈무련?”

“그래. 너희가 찾던 혈무련의 협객들이시다.”

복면인 중 한 명이 나섰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소. 우린.....”

우린 진명만 제거하면 된다, 그 말은 차마 내뱉을 수가 없었다.

등을 돌리고 있던 초위가 고개를 돌린 것이다.

복면인들은 초위의 얼굴을 보고 ‘협’ 하며 신음성을 삼켰다.

붉게 핏발이 서서 타오르는 것 같은 눈. 그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섞여 있었다. 초위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화산파의 개새끼들아. 혈무련이야. 낙양성을 공격하러 온 혈무련이라고. 너희는 단심맹의 화산파고. 그런데 오해라고? 오해가 있어? 무슨 오해? 우리가 성을 따먹으러 왔으니 너희는 당연히 막아야지. 거기 어디에 오해가 있어?”

초위가 천천히 일어서며 창을 들었다.

범상치 않은 기세.

천왕능결이 우웅, 하고 몸을 댄다.

복면인들이 진형을 짜며 부산히 움직였다.

“어차피 둘 뿐이다. 다른 혈무련의 놈들이 오기 전에 처리하고 뜯다!”

받은 명령에는 어긋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막문성이 쿵 하고 콧소리를 냈다.

“형님. 제발 정신 좀 차리쇼. 말리진 않겠지만, 지금 이것도 함정일지 모른다는 건 알고 싸우쇼.”

초위는 건들거리면서 천왕능결을 들고 피식 웃었다.

“이젠 늦었어. 이게 함정이더라도 별로 피하고 싶지가 않아졌거든.”

초위의 눈이 살기로 번들거린 것과 묵빛 천왕능결이 섬전처럼 쏘아진 것은 거의 동시였다.

“진명! 네놈에게 실망했다!”

복면인들의 눈에 경악이 어렸다.

“빠, 빠르다!”

## 武極 - Story Book

진명과 상대하던 예전의 초위가 아니었다. 그는 한층 더 강해져 있었다. 복수심과 수치심을 곱씹으며 한계까지 몸을 혹사시켜 수련했다.

그런 그가 가보인 천왕능결까지 들었으니 그 위력이 상상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곧 초위와 막문성, 그리고 의문의 복면인들 간에 사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진명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진명은 숫구치는 피를 억지로 삼켜야만 했다.

이미 등뇌달은 혈무련이 있는 분타에 너무 가까이 간 상태였고 그 뒤를 쫓는 복면인 들에게서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두령에서 올라오자마자 등뇌달을 구하러 달려가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그랬다가는 둘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 등뇌달이 마지막 순간에 진명 자신을 등이행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정신을 차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가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자신을 구한 기회를 스스로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 중요했다.

‘어르신.....’

진명은 등뇌달이 죽은 방향을 향해 합장을 했다.

그리곤 곧장 몸을 돌려 낙양성으로 달렸다. 어째서 등뇌달을 뒤쫓던 복면인들이 혈무련과 싸우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저들이 혈무련의 본대가 아니라는 걸 알리는 것이다.

진명은 입술을 깨물고 달렸다. 피눈물을 삼키며.

안개가 낀 건지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 왔다.

“이거 진짜 미치겠군.”

일령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가 망루 위를 서성이며 앉았다 일어선지를 반복한지 벌써 한 식경이 지나 있었다.

“그래서 그 녀는 대체 어쩌겠다는 거야? 왜 그딴 말을 던져서 사람 헛갈리게

만들고 있어?”

아무리 신경 끄려고 애를 써도 자꾸만 떠오르는 등봉 분타의 상황 때문이었다.

일령은 문주희가 그녀를 살살 약 올리며 했던 말대로, 등봉 분타에 지원군을 따로 보냈는지 아닌지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일령은 진명을 도울 기회를 스스로 흘려버리게 되는 것이다.

만약 평일지가 철저히 진명을 외면하는 가운데 일령마저도 그를 돕지 않는다면.....

“아, 젠장. 내가 알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일령은 날렵한 신법을 발휘해 망루를 내려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일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맹진 분타의 백도군 대장이 다가와 물었다.

“전령이 몇이나 남았지?”

“여섯 남아 있습니다.”

“뭐야? 전령조의 반이 성내 본대에 있다고?”

“평 지부장의 지시입니다.”

“에이 씨, 하여간 욕심 많은 작자 같으니. 어쨌거나 한 명만 오라고 해줘. 알아볼게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백도군 대장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돌아서는 순간, 일령이 다급히 그를 붙들었다.

“혹시 여유 병력이 남아 있을까?”

“예?”

“아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지원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현재 지원 요청이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있더라도 등봉 외에는 당장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그건 그런데..... 어휴, 제기랄. 뭐가 이렇게 어렵냐.”



## 武極 - Story Book

일령은 돌연 한숨을 토해냈다. 그저 ‘아무래도 등봉 분타가 신경 쓰이니 그 쪽으로 지원 병력을 좀 보내야겠어’라고 말하면 되는 일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

특히나 평일지가 분타주 회의 때 음흉하게도 진명과 일령이 남녀관계 어쩌구

내뱉은 게 돌덩이처럼 뱃속에 턱 걸려있었다.

일령이 속으로 부드득 이를 갈았다.

‘음험하고 비열한 자식. 분명 내가 이렇게 나올 것을 계산하고 그런 말을 했을 거야. 하여간 진짜 나쁜 놈이라니까?’

# 武極 - Story Book

## 2.3.7. 제 67 화 [맹진의 위기]

일령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평일지의 손에 놀아나는 것 같은 기분도, 자존심도 진명의 위험한 상황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일령은 고개를 한 번 크게 흔들고는 결단을 내렸다.

“등봉 분타로 지원 병력을 좀 보내야겠어.”

백도군 대장은 그리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굳이 그러셔야겠습니까? 작전 계획에 따르면 맹진이 포위공격을 할 때 선봉에 서야 합니다. 사백이란 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령이 그의 말을 잘랐다.

“알아. 하지만 맹진이 공격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 백제성에서 여기로 오려면 개봉성의 기현 분타를 지나야 한다고. 그 일대는 마교 놈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잖아?”

일령이 자신감을 실어 말을 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일령이 자기 자신의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자문자답일 수도 있었다.

“그러니 등봉 쪽을 돕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혈무련이 미치지 않고서야 단심맹에 쳐들어 오면서 마교 놈들을 먼저 상대하려 들겠어?”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이, 공교롭게도 그 말을 내뱉은 직후에 밝혀졌다.

일령이 멀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본 것과 동시였다.

“등봉 분타쪽이야?”

뿌우우우우우웅!

적의 침입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초소 위에서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적이다! 기습이다!”

“뭐라고?”

일령이 초소를 향해 핵 고개를 돌렸다.

미치지 않고서야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일이, 지금 일령의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두두두두두두.

몇 백은 되어 보이는 일단의 무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분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죽음의 상징처럼 휘날리는 깃발의 문양에는 절대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들의 상징이 길게 포효하고 있었다.

“혈무련!”

혈무련의 주작이 일령의 눈동자에 점차 확대되어 비쳤다.

맹진 분타의 백도군들이 우왕좌왕 하고 있었다.

완전히 허를 찔린 것이다.

“기대했던 대로군.”

담담하지만 서늘한 말투.

상의를 붉게 피에 물든 서문강이 내뱉은 말이었다.

서문강은 애초 계획대로 기현 분타를 통과해 온 것이다.

엄청난 속도였다. 더구나 혈무련의 무인들의 사상은 전무.

서문강이 선두에 서서 처리한 마교 무사가 열셋. 서문강의 상의에 묻은 피는 바로 그들의 피였다.

기현 분타의 마교 무사들이 혈무련의 공격이라 생각하고 수비를 하는 동안 서문강은 최대한 단축된 경로로 기현 분타 지역을 쾌속하게 지나쳤다.

서문강은 혈무련들의 무인들을 향해 살짝 고개를 돌렸다.

“지쳤나?”

## 武極 - Story Book

“아닙니다!”

전력으로 긴 거리를 질주한 탓에 혈무련의 무인들은 먼지로 잔뜩 뒤덮여 있었다. 눈가에는 작은 피로감이 걸려 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오히려 출발하기 전보다도 더 생생하다.

“낙양을 때려부술 힘이 남아 있는가?”

“물론입니다!”

서문강은 그제서야 웃었다.

“그렇다면, 돌격이다! 우리의 목표는 낙양이지 맹진 분타 따위가 아니다! 낙양까지 길을 막는 것들을 모조리 짓밟아라!”

뒤를 이어 어마어마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와아아아아아!”

“앞으로! 돌격이다!”

“정파 놈들의 씨를 말리자! 우리는 혈무련이다!”

혈무련은 눈 앞의 맹진 분타를 향해 돌진했다.

백도군의 용병 대장도 연륜이 적지 않은지라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비록 기습은 당했으나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다.

“적의 수는 우리보다 적다! 망루를 중심으로 방어진을 구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라!”

백도군이 추스르는 동안 벌써 서문강과 혈무련의 무인들이 노도처럼 밀려 들었다.

“죽여!”

“다 죽여버려!”

광!

미처 전열을 가다듬기도 전에 백도군과 혈무련의 선봉이 충돌했다. 혈무련의 선봉, 바로 서문강이다.

단심맹 무공은 공격과 수비의 적절한 조화에 그 묘가 있다. 그러나 혈무련의

무공은 반대로 공격에 치우쳐 있다. 지금처럼 공세적일 때 가장 최고의 위력을 펼쳐낸다.

더구나 혈무련의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은 바로 서문강.

서문강의 절기 비천신검(飛天神劍)이 한번 펼쳐질 때마다 백도군 무사들의 수가 줄어갔다. 서문강의 검은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백도군의 용병이 대열을 갖추지도 못한 채 일대일로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문강이 중형무진 백도군들의 사이를 누비고 다니자 전열을 정비하기가 어려워졌다.

백도군 대장이 결단을 내렸다.

최전선의 무사들이 벌어주는 시간으로 분타내의 백도군을 정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망루 바깥쪽에 있던 오십여 명의 백도군이 순식간에 죽어갔다.

그 사이 안쪽에서는 완전히 수비 대형이 갖추어 졌다. 분타 망루를 금방이라도 쓰러뜨릴 것 같던 혈무련의 진격 속도가 주춤거렸다.

원래 백도군의 숫자가 적지 않았던 터라 망루를 중심으로 대형이 편성되자 혈무련의 무인들도 쉽사리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서문강이 발을 굴렀다.

“타앗!”

한 마리 제비처럼 혈무련 무인들의 어깨를 밟고 공중을 날아올랐다. 그리고는 정확히 백도군들의 사이에 뛰어내렸다.

찰나간에 수십 명의 백도군에 둘러싸였음에도 서문강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백도군이 당황했다.

“이 자식이!”

백도군들의 칼과 창이 서문강에게 쏟아진다.

쿠오오-

서문강은 몸을 낮춘 채 공력을 끌어 올렸다. 발 밑에서부터 흙먼지가 피어 오르더니 서문강이 돌연 크게 몸을 틀었다.

# 武極 - Story Book

비천신검 오의(奧義) 암천환월섬(暗天幻月閃)!

크게 원을 그린 서문강의 검이 마치 달무리에서 벗어난 월광의 룬(輪)을 그린 듯 했다. 서문강을 둘러싸고 있던 백도군들의 가슴과 허리에 일직선의 붉은 검흔이 지나갔다.

“크, 크윽.”

“이럴.....수가.....”

서서히 몸을 일으키는 서문강과 반대로 백도군들의 몸이 바닥으로 주저앉기 시작했다. 서문강을 중심으로 반경 일장 내에 있는 모든 백도군들이 시체가 되어 땅바닥을 굴렀다.

다시 이십여 명의 백도군이 눈깜짝할 사이에 목숨을 잃었다.

착!

서문강이 검을 한번 털어냈다.

정적.

그리고 혈무련 무인들의 기세 오른 환호.

“와아아!”

대형에 웅하니 구멍이 뚫리니 백도군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앞에서 밀려오는 혈무련의 무인들을 막는 것도 버거운데, 서문강이 몸을 날렸다 하면 여지없이 그곳의 대열이 무너졌다.

망루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일령이 쌍검을 뽑아 들었다.

“저 자는 내가 막겠어.”

백도군 대장이 고개를 저었다.

“안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전멸이야. 끝장이라구!”

“제가 상대하는 동안 분타주께서는 활로를 뚫으십시오.”

“뭐?”

“우리 맹진 분타는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이상, 최대한 전력을 유지하여 낙양성의 본대와 합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령이 다시 전황을 살폈다.

백도군의 무사들 실력은 나쁜 편이 아니다. 제대로 수비 대형을 갖춘다면 혈무련을 상대로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서문강을 맡을 이가 없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진열을 흐트러뜨리는 서문강을 제지할 수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더군다나 서문강 말고도 뛰어난 무위를 보이는 자가 몇 더 있었다.

숫자가 더 많은 백도군이 오히려 망루에 몰려 포위된 형국이라 수적인 우위를 점할 수도 없었다.

일령은 이를 갈았다.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니.”

“시간이 없으니 망루를 내려가 뒤쪽 방책을 부수고 나가십시오.”

일령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눈으로 백도군 대장을 보았다. 백도군 대장은 언월도를 힘있게 쥐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 역할은 여기까집니다.”

말을 마친 백도군 대장이 훌쩍 망루 위에서 뛰어 내렸다.

“이노옴!”

시퍼런 서슬이 어린 언월도가 백도군을 학살하고 있는 서문강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서문강이 발끝을 축으로 빙글 돌았다.

과직!

빈 땅에 언월도가 박히는 순간 서문강이 검을 내질렀다. 백도군 대장이 언월도를 세워 서문강의 검을 막았으나, 서문강의 발차기에 가슴을 얻어맞고 뒤로 두어 걸음을 물러섰다.

그 틈을 타 백도군 한 명이 서문강의 등을 노리고 창을 찔러왔다.

서문강은 움직이지도 않고 팔을 뒤로 뻗었다. 검이 백도군의 창대를 쪼개며 목울대를 관통했다. 서문강은 무표정한 얼굴로 검을 회수했다. 백도군의 몸이

# 武極 - Story Book

기운을 잃고 털썩 엎어졌다.

“음?”

그때 서문강은 망루 뒤쪽으로 몰려가는 백도군을 보았다.

“놈들이 달아난다! 막아라!”

혈무련의 무인들이 더 세차게 밀어 붙였다.

“하-압!”

백도군 대장의 언월도에 혈무련 무인들 둘이 한꺼번에 동강나며 몸이 쓸렸다.

쿠웅, 소리가 나도록 언월도의 끝으로 땅을 찍은 백도군 대장이 기백 있게 소리쳤다.

“나를 먼저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렇군.”

발로 툭툭 땅을 차며 간격을 재던 서문강이 검을 곧추세웠다.

“소원대로.”

서문강의 팔이 흐릿해지더니 수십 개의 날카로운 검영(劍影)이 백도군 대장의 전신에 쏟아졌다.

“오오오오!”

백도군 대장도 평생의 공력을 담아 언월도를 내리쳐 서문강을 상대해 갔다.

일령은 일단의 백도군과 함께 혈무련의 포위를 뚫었다. 홀린 듯 쌍검을 들고 혈무련을 벤 그녀의 몸은 온통 핏자국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아스라히 들려온다. 사람을 죽이고 죽어가는 것도 무감각할 정도로 세상은 온통 피와 살점이 난무했다.

그럼에도 일령은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았다.

처음으로 혈무련의 포위를 뚫고 나가는 데 성공하자 일령이 크게 소리쳤다.

“다들 날 따라와!”

일령이 선두에서 달려가고 그 뒤를 살아남은 백도군들이 따랐다. 달리는 중에도 뒤쪽에서 비명은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지금 이순간.

일령은 진명이 그리웠다.

진명은 정신 없이 달렸다.

꼭 움켜쥔 손 안에서는 피가 흐른다. 죽어가던 등뇌달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등뇌달은 복면인들의 손에 죽었다.

그 복면인들은 진명까지도 죽이려 했었다.

그러나 혈무련의 간자들은 아니었다. 복면인들과 혈무련의 무인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기에 진명은 더욱 혼란스럽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스멀거리며 진명의 뇌리를 파고든다.

그림자의 끝자락에는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평일지..... 설마 네가.....’

진명의 마음 속에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다.

평일지가 그를 미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평일지가 일령을 좋아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평일지가 이러 저런 수작들을 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방금 전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를 죽이기 위해 비밀리에 사람들을 부릴 수는 있어도, 입막음을 위해 등뇌달까지 죽이려 했던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체 세상의 무엇이 험이더냐!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무가치하게 죽이면서까지 지켜야 할 정의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이나!’

진명은 이를 꼭 깨물었다.

‘만일 네가 나를 죽이기 위해 꾸민 일이라면, 난 너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하극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단심맹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진명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야 했다.

다행히도 낙양성까지 도착하는 동안 복면인들과는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았다.

## 武極 - Story Book

뒤를 쫓아오는 이도 없었다.

낙양성은 성문을 굳게 닫아 걸은 상태였다. 진명은 꼭 말아진 주먹으로 성문을  
광광 두들겼다.

“문을 여시오! 들어 가야겠소!”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진명의 얼굴을 알아본 본대 백도군들이 놀라워하며 물었다.

“등봉 분타주! 어찌된 일입니까!”

# 武極 - Story Book

## 2.3.8. 제 68 화 [수성전]

진명이 외쳤다.

“등봉 분타에 혈무련의 공격이 있었소!”

“그런데 그들은 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등봉 분타로 온 것은 혈무련의 본대가 아니었소. 필시 다른 분타가 위험할 것이요! 일단 이 문을 여시오!”

백도군들은 주저하며 뒤따르는 이들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고는 문을 열었다.

진명이 성문으로 들어오자마자 동문을 맡은 백도군 본대의 대장이 진명의 앞을 막아서며 물었다.

“그런데 분타주는 왜 본성으로 돌아온 것이요?”

“지금 당장 평 지부장을 만나야겠소.”

“뭐라고? 그런 말이 어딴소이까?”

“비키시오.”

백도군 동문 대장이 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분타주로서 분타를 버리고 도주한 주제에 어디서 평 지부장을 만나겠다는 거요!”

“책임은 지겠소. 우선 다른 분타에 전령을 보내시오. 나는 평 지부장을 만나야 하오.”

백도군 동문 대장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진명을 보았다.

“알겠소.”

“평일지는 어딴소? 지부에 있소?”

“그렇소이다.”

“고맙소.”

진명이 급한 마음에 백도군 동문 대장을 지나치려 하는데 갑자기 전율처럼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을 느꼈다.

부-웅.

진명이 몸을 숙이자 묵직한 파공음을 내며 주먹이 스쳐 지나갔다.

“무슨 짓이오!”

진명은 놀란 눈으로 백도군 대장을 쳐다 보았다. 백도군 대장은 진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잡아라! 분타를 버리고 달아난 죄인이다.”

“지금은 이럴 때가.....!”

성문을 지키던 백도군들이 무기를 들고 겹겹이 진명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진명의 눈에 독기가 흘렀다.

지금 같은 전시상황에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진명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적대적으로 변해버린 백도군들의 모습이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갔다.

진명은 선인공수의 초식을 전개하며 앞으로 뛰어 나갔다.

광!

진명의 주먹에 가격당한 백도군 무사 한 명이 뒤로 나가 떨어졌다. 진명은 날아드는 창을 피하며 훌쩍 그를 뛰어 넘었다.

또 다른 백도군이 진명을 공격해오자 진명은 창날을 흘리며 주먹을 뻗었다. 머리를 얻어맞은 백도군 무사가 휘청거리더니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평-일-지!”

진명은 포위를 벗어났다 싶자 곧바로 지부를 향하여 뛰었다.

평일지의 집무실을 향해서.

과직!

집무실의 문이 부서졌다.

## 武極 - Story Book

진명이 문을 부수고 들어선 것이다. 그의 온 몸에는 지부를 지키던 무인들이 구더기처럼 잔뜩 달라 붙어 있었다.

“평일지.....”

진명은 마침내 평일지를 찾아냈다.

그는 집무실에서 수량 진인과 마침 낙양을 방문 중이었던 일주엽을 만나던 중이었다.

일주엽은 등봉 세가와 사업적인 माम리를 지으려던 목적으로 낙양에 왔는데, 하필이면 혈무련이 공격해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놀라 지부를 찾은 것이다. 그의 딸 금지옥엽 일령이 맹진 분타에 있으니 말이다.

“.....뭐야, 지금?”

평일지는 불쾌감을 가득 실은 말을 내뱉으며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진명의 모습을 발견하자 그는 놀라운 듯 눈을 크게 떴다.

진명은 무인들을 몸에 단 채 질질 끌고 평일지를 향해 앞으로 걸어 갔다.

“평일지!”

진명의 고향에 무인들이 끄끙대며 애를 썼다.

“안 된다니까요!”

“막아!”

“잡아 눌러!”

한 둘도 아니고 대여섯이 넘는 무인들이 진명의 팔다리를 붙들고 늘어지자 진명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다.

“크읍.”

진명은 붉게 핏발이 선 눈으로 평일지를 올려다 보았다. 무릎을 꿇린 치욕스러운 상태였으나 눈빛은 오히려 활활 타올랐다.

“네, 네놈이 어떻.....”

평일지는 말을 내뱉다가 실수라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진명은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놀라셨소? 내가 살아있어서?”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 것이냐?”

“그쪽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를 하는 것이오. 평 지부장.”

수량 진인과 일주엽이 어리둥절해 했다.

“등봉 분타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은 방금 들었지만, 어째서 여기에 와 평 지부장을 찾는 겐가? 지금 그건 또 무슨 말이고.”

수량 진인이 대답을 요구하는 듯 평일지를 쳐다 보았다. 그러나 평일지는 원래부터 존재감이 없는 수량 진인 정도는 무시했다.

그의 눈에는 낭패감이 어려 있었다.

‘매화단이 실패했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저놈이..... 저놈이 멀쩡한 얼굴로 살아 내 앞에 있는 거냐!’

평일지는 자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화산파의 정예, 매화단을 이번 수성전에 참가시키지 않았다. 그들을 비밀리에 빼돌려 두었다.

이번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진명이란 놈은 억세게도 운이 좋은 녀석이었다. 만에 하나, 진명이 등봉 분타에서 혈무련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도 살아났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진명이 등봉 분타에서 살아나 낙양성으로 오게 된다면 매화단은 그를 척살하고 유유히 귀환하면 되는 것이다. 더구나 동문을 수비하는 백도군 역시 그의 휘하에 있었다.

이것은 물론 이원조의 머리에서 나온 계략이었지만, 평일지의 승인 하에 떨어진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헤쳐내고 진명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

‘절대로.....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야 했다. 이놈 얼굴을 다시 볼 일이 없어야 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이다!’

평일지는 귀신을 본 기분이었다.

수량 진인이 불안해하는 표정의 평일지를 불렀다.

“평 지부장!”

평일지는 여전히 들은 척 만 척 진명을 향해 이를 갈았다.



## 武極 - Story Book

“네 이놈! 싸움을 앞둔 분타주가 분타를 버리고 도망을 치다니!”

“닥치시오!”

진명은 평일지를 씹어먹을 것처럼 노려 보았다.

“평 지부장은 나를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서 애꿎은 어르신까지 끌어들었소.

내 말이 틀리오?”

수량 진인이 나섰다.

“등봉 분타주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내가 화산의 장로라 할지라도 이 일을 모른 척 덮을 수는 없겠구나. 대답하거라. 등봉 분타주의 말이 사실이나?”

“선배께서는 저보다 저 죄인의 말을 더 믿으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악에 받쳐 외치기만 할 뿐, 평일지는 선불리 대꾸를 달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절대 모르는 일이었다고, 이원조가 혼자 꾸민 일이었다고 발뺌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진명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는 거라고 우기는 게 나을까.

평일지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지부장님! 지부장님! 긴급한 전갈입니다!”

전령과 낙양성의 중앙 본대 백도군 대장이 다급한 모양새로 들이닥쳤다.

“무슨 일이냐?”

평일지는 잠시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전령을 맞았다. 전령이 당혹감을 감추지 않으며 소식을 전했다.

“혈무련이 맹진 분타에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뭐라고?”

이 말에 평일지뿐 아니라 수량진인과 진명도 놀랐다. 일주엽은 깜짝 놀란 나머지 손에 든 찻잔을 바닥으로 떨어트렸다.

“일령아!”

평일지가 손을 뻗어 일주엽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무래도 개봉성의 기현 분타를 둘러 온 것 같습니다. 십대신위의 최고수인

서문강을 비롯, 동급의 고수들이 여럿 포진되어 있어 맹진 분타주가 분타를 포기한 채 패주하고 있다 합니다.”

“그, 그럴 수가!”

평일지가 저도 모르게 진명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놈들은..... 놈들은 분명 등봉으로 가야 했는데! 어째서 그런 일이!”

망연자실한 것으로 치자면 진명이 더했다. 맹진이 고전하고 있다는 것은 곧 일령이 위협에 처해있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일주엽이 소리를 쳤다.

“지, 지원을..... 맹진 분타에 지원군을 보내야 하오! 당장! 내 딸이 있는 곳이야!”

이 같은 일주엽의 마음은 진명 역시 마찬가지였다. 진명은 평일지에 대한 분노보다 일령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앞섰다.

“나를 보내주시오! 아우를 구하러 가겠소!”

중앙백도군 뿐 아니라 낙양성의 본대 백도군의 지휘권은 평일지에게 있었다. 따라서 평일지의 명령이 있어야만 군사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평일지는 다른 속셈을 품었다.

‘맹진의 병력을 잃어도 주력은 낙양성에 있으니 안전하다. 수성만 하고 있으면 장안성의 원군도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진명 저 놈은 지금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전령과 함께 온 중앙 백도군 대장이 재촉했다.

“지부장님, 명을!”

평일지가 기다렸다는 듯 명을 내렸다.

“그렇지 않아도 지시를 내리려던 참이었다. 등봉 분타주 진명의 직위를 해제하고 감옥에 가두어라!”

“엇?”

집무실 내에 있던 모든 이들이 얼떨떨한 얼굴을 했다.

“전 등봉 분타주 진명은 단심맹을 배신하고 혈무련과 내통한 자다! 우리가

## 武極 - Story Book

등봉 분타를 열어두고 낙양성 내에 매복을 준비했다는 정보를 혈무련에게 빼돌렸기에, 저들이 이 점을 알고 맹진 분타를 급습한 것이다. 더구나 나를 암살하려 하기까지 했다. 이 자는 그저 반역자다.”

일주엽이 소리쳤다.

“평 지부장!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소. 내 딸, 내 딸 일령이.....”

진명도 소리를 질렀다.

“평일지! 나 때문에 수백의 목숨을 버릴 셈인가!”

그러나 진명은 그 말을 좀더 빠르게 했어야 했다. 진명이 꿈쩍 못하고 억눌러 있는 찰나에 평일지가 검집으로 진명의 머리를 내려쳤다.

퍽!

진명의 이마에서 한줄기 피가 흐르며 진명의 눈 초점이 흐려졌다.

“평일.....지.....”

평일지가 다시 힘껏 발로 진명의 턱을 걷어찼다. 꿈쩍없이 붙들려 무릎을 꿇고 있던 진명은 대항할 도리가 없었다.

진명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축 널브러졌다.

수량 진인과 일주엽이 뭐라고 할 새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다.

중양 백도군은 평일지의 명을 따라 정신을 잃고 쓰러진 진명을 지하감옥으로 끌고 갔다.

일주엽은 다시 평일지를 붙들었다.

“이보게 평 지부장, 내 딸을 구해주게!”

일주엽은 필요하다면 평일지의 바짓단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려는 태세였다.

“이것 놓으십시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일주엽이 노한 음성으로 외쳤다.

“순서라니! 자네가 데리고 있는 백도군을 누구 돈으로 고용한 것인데! 내 딸을 구하는 일에 왜 순서를 찾는가!”

평일지는 순간적으로 돌변하려는 안색을 억지로 붙들어 댔다.

‘귀찮은 늙은이 같으니..... 어지간히도 돈, 돈 해대는군. 누가 장사꾼 아니랄까

봐.’

평일지는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듣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일주엽이 그에게 돈 뿐이나 좀 보태줬다고 어깨에 힘주는 꼴을 보는 순간, 평일지는 이미 배알이 뒤틀리고 있었다.

그러나 눈엣가시였던 진명이 자신의 손아귀에 떨어지자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맹진 분타주를 구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적이 얼마나 쳐들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상황 파악을 한 후에 지원군을 보내야 합니다.”

“무어라?”

일주엽은 평일지의 표정에서 귀찮음을 읽었다. 자신의 딸을 구하려는 의지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이만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저는 지부장으로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낙양성의 사황이 걸린만큼 사적인 감정을 앞세울 수만은 없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일주엽은 아쉬운 상황이 뒤바뀌자마자 탄 사람처럼 구는 평일지를 냉정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조금은 억울하고 허탈한 심정마저도 들었다.

‘내가..... 이 일주엽이가 사람을 잘못 봤단 말인가?’

일주엽은 그렇게 쫓기듯 평일지의 집무실을 나섰다. 단독으로 호위무인 몇만 대동한 채 일령을 구하러 갈 수도, 그렇다고 어떻게 평일지를 움직여 볼 수도 없는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평일지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작자였다. 그가 일령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 같다.

일주엽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무실을 나서자 복도 끝으로 질질 끌려가는 진명의 모습이 보인다.

“저 등봉 분타주, 일령을..... 아우라 했던가.....”

진명의 울부짖음이 일주엽의 각막에 다시금 아로새겨졌다.

## 武極 - Story Book

일주엽이 나가고 난 뒤, 이원조가 들어섰다.

무언가에 주눅이 든 듯,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는 그였지만 상하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눈빛은 여전히 교활했다.

평일지는 이원조의 면상을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상황이 왜 이리 되게 만들어!”

이원조가 찡끔 눈을 감았다 떴다.

# 武極 - Story Book

## 2.3.9. 제 69 화 [범여의 등]

이원조가 살살거리며 해명했다.

“고, 고정하십시오, 평 대협. 혈무련이 우리의 작전을 눈치챈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놈들이 낙양성까지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진명 그 놈까지 멀쩡히 살아있잖아! 놈이 내 눈앞에서 뭐라고 지껄였는지 알거나 해?”

이원조의 안색도 변했다.

“그렇다면 매화단이 전멸했다는 소립니까?”

“뭐?”

이번에는 평일지가 놀랐다.

“놈을 죽이는데 매화단 전부를 보냈단 말이야? 여섯만 보내라 했잖아!”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게다가 일부만 남아서 낙양성 안에 있는 모습이 발각된다면 그게 더 골치 아플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원조가 주저리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평일지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평일지도 매화단 전원과 단신으로 마주친다면 쉽진 않을거라 생각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진명은 멀쩡히 살아 돌아왔다.

평일지는 진명에게 질투를 넘어선 감정을 느꼈다. 경외, 혹은 공포.

그는 진심으로 진명이 두려워졌다.

“그 놈을..... 살려두면 안돼. 그게 운이었든 실력이었든.....”

이원조가 그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손을 쓰겠습니다. 놈이 갇혀 있는 지금이라면.....”

이원조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평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놈만 제거하면 된다. 나머지는 네게 맡기겠다.”

“알겠습니다.”

이원조는 서둘러 자리를 뜨고 싶었다. 사실 그는 지금 제멋대로 분노한 평일지와 마주하고 있기가 거북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다.

“평 대협. 맹진 분타주 말입니다.”

“말해봐.”

“낙양성 수성에 성공하더라도 피해가 적지 않을 텐데 일주업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전후 복구에도 그의 재력이 필요합니다.”

“음.....”

마음 같아서야 낙양성 성문을 꽂꽂 들어막고 버티고 싶은 심정이었다.

“백도군 일백을 보내 맹진 분타주를 구출하도록 하십시오.”

“사백이 넘는 맹진 분타의 백도군도 혈무련을 당해내지 못했는데 백 명으로 뭘 어떻게 한단 말인가.”

“혈무련을 상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맹진 분타주가 귀환할 시간만 벌어주면 됩니다.”

“아직 살아있지 않다면?”

“일단은 시늉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이라도 일주업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맹진 분타주는 백도군 천 명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흠. 그거야 그렇지.”

이원조는 평일지의 마음을 잘 읽고 있었다. 그가 간지러워 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었다.

“좋아. 그리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말을 마친 이원조는 빠르게 지부장 집무실을 벗어났다.

평일지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

## 武極 - Story Book

그의 앞길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진명이라는 가시를 제거했다. 이제 남은 것은 성공적으로 낙양성을 지켜냄과 동시에 일령을 구해내 일주엽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었다.

문득 일령과 함께 술잔을 함께 기울이던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다.

그러나 평일지는 곧 더러운 오물을 씻어내듯 그 기억을 털어 버렸다.

일주엽은 분노를 참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평일지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설마설마 했는데, 신의니 정의니 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데다가 제 살길만 챙길 줄 아는 소인배. 한 때나마 그런 작자를 소중한 외동딸의 짝으로 생각했던 자신이 혐오스러울 지경이다.

그때 호위무사 한 명이 달려와 부복했다.

“평 지부장이 백도군 일백을 대기시켰다 합니다. 아가씨를 구하러 갈 병력인 모양입니다.”

하나 이미 일주엽은 평일지를 신뢰할 수 없었다.

“고작 일백?”

“예.”

“간사한 놈. 생색만 내려는 모양이구나. 사백의 분타 병력으로도 막지 못한 혈무련을 어떻게 일백으로 막는단 말이냐.”

일주엽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백도군 일백으로는 혈무련의 추격에서 일령을 구해내기 어렵다.

“내 분명 화산의 정에 4개 단이 낙양성에 있음을 알고 있건만, 내 딸을 위해 그 정도도 해줄 수 없단 것이냐, 평 지부장.”

얼마 전 화산파의 장문이 화산의 정에 4개 단을 낙양성에 보냈음을 일주엽은 알고 있었다. 혈무련의 십대신위를 상대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

“대체 그들은 뭘 하고.....”

“어떻게 할까요, 대인? 명령을 내리시면 저희라도 아가씨께 다녀오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역부족인 것을 알지만.....”

일주엽의 예리한 감각이 다시 빛을 발했다.

“아까 그 자, 누구라고 했지?”

“예?”

일주엽이 별안간 엉뚱한 얘기를 꺼내자 대화의 흐름이 잠시 끊겼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등봉 분타주 말이다. 누구라고 했지?”

“아, 소림의 속가인 진명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는 적과 내통한 죄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진명..... 그가 진명이었군.”

진명의 명성은 일주엽도 익히 듣고 있었다. 어느 모로 보아도 도저히 그가 적과 내통을 했으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진명, 그 자는 평일지가 마치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식으로 말했어. 그러자 평일지는 서둘러 그 자에게 적과 내통한 죄를 뒤집어씌웠지. 나는 평일지를 믿었으나 그는 내 뒤통수를 쳤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일주엽의 말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혼잣말에 가까웠다.

“대인께선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머릿속 계산을 끝마친 일주엽이 이렇게 말했다.

“범여 대사를 만나야겠다.”

“범여 대사는 장안성의 단심맹 본관에 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나를 찾아 왔었다.”

“예?”

“왜 등봉 분타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 누구와 밀담이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지. 그땐 그냥 쫓아내고 말았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그럴 일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범여 대사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때 굵고 낮은 음성이 방문 바로 앞에서 들려왔다.

## 武極 - Story Book

“소승은 예 있으니 굳이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외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는 바로 단심맹으로 떠난 줄 알았던 범여다.

“범여 대사!”

진명은 가까스로 눈을 떴다.

“으으..... 여기가..... 어디?”

낮선 어둡고 습한 기운이 진명을 짓누르고 있었다. 진명은 주위를 돌아보고 나서야 자신이 어딘가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명 평일지가 농간을 부렸으리라.

“평일지 이 놈.....!”

진명은 평일지의 이름을 토해냈다.

이제 그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하나 이대로 당할 수 만은 없었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일령의 안위가 더 진명을 급하게 만들었다.

“일단은 여기서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철그럭!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얹혀 벽까지 이어져 있다. 돌벽에 단단히 박혀 있는 쇠사슬을 끊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명은 마음이 답답해졌다.

일령이 쫓기고 있는데 자신은 갇혀 있는 신세라니. 아무 것도 일령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

무기력감과 자괴감이 진명의 어깨를 짓눌렀다.

“나 때문이다.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만 않았어도 등봉 분타가 방치될 리 없었고, 령 아우를 위기에 빠뜨릴 일도 없었을 거야.”

진명이 달아날 방도를 찾는데, 갑작스레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감옥의 창살 앞에 세명의 무인들이 나타났다.

“진명 분타주. 진작에 그것을 깨달았어야지.”

“너흰 누구냐.....”

생소한 얼굴들이다.

그들은 간수도 아니면서 창살의 문을 열고 손쉽게 감옥 안으로 들어왔다.

가장 앞선 무인이 검을 뽑았다.

스릉.

시퍼런 검광이 새어 나온다.

“죽이기 전에 한가지만 묻겠다. 사실대로 대답한다면 고통 없이 보내줄 것을 약속한다.”

“뭘 말이냐.”

“네가 매화단을 전멸시켰나?”

“매화단?”

진명의 머리에 퍼뜩 복면인들이 떠올랐다.

“그렇군. 너희도 그들과 한패였군.”

앞에 나타난 이들은 복면을 하지 않았다. 사실 할 필요도 없을 터다.

진명의 말을 수금으로 알아 들었는지 무인이 검을 치켜 들었다.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것은 네 손에 죽어간 친구들의 복수다.”

심한 오해였으나 진명은 딱히 변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죽는가.’

일령을 구하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만이 아쉬울 뿐이다.

그 순간.

황!

무지막지한 타격음과 함께 가장 뒤에 서 있던 무인이 진명의 옆 벽까지 날아와 머리를 처박고 쓰러진다.

“누구냐!”

무인들이 고개를 돌리고는 경악의 외침을 내뿜었다.

“버, 범여 대사!”

진명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단심맹으로 떠난 줄 알았던 범여가 자신의

## 武極 - Story Book

눈앞에 있는 것이다.

한 명을 날려보낸 범여는 호통을 내질렀다.

“네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남은 무인 둘이 눈짓을 주고 받더니 검을 뽑았다. 그리고 진명의 앞에 있던 무인이 진명의 머리를 향해 검을 내리쳤다.

진명은 그 찰나의 순간 몸을 돌벽에 가까이 붙었다. 무인의 검이 진명의 귀밑을 스쳐 지나가 돌벽을 긁었다.

카각!

진명은 때를 놓치지 않고 쇠사슬로 무인의 검을 휘감으며 당겼다.

“엇!”

무인의 몸이 달려오자 진각을 밟으며 어깨로 무인의 턱을 들이 받았다. 무인이 검을 놓치며 나가 떨어졌다.

그 사이 범여가 다른 무인을 상대했다. 단심맹의 소림 무공 교두인 범여다. 무인의 검술도 호락호락한 편은 아니었으나 두어 초식을 주고 받는 동안 명치를 얻어 맞고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지고 말았다.

“괜찮으냐?”

범여는 무인들이 떨군 열쇠를 주워 진명의 쇠사슬을 풀었다.

“대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장안성으로 가셨다 들었는데요.”

“장안성으로 가려다가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어 다시 돌아왔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범여는 떠나다 말고 다시 낙양성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맹진과 여양 분타를 돌며 수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나머지 두 분타는 벌써 등봉 세가의 지원을 받아 탄탄하게 정비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등봉 세가가 자신들의 본가가 있는 등봉 분타를 외면하고 유독 진명을 홀대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였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가지 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범여는 낙양성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얻었고, 등봉 세가의 뒤에

일주엽이 있음을 알아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평일지가 관계되어 있음도 알게 되었다.

해서 그의 비리를 추적하며 단심맹에 보고할 증거를 수집하며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범여는 쓰러진 무인들의 몸을 뒤졌다. 그들의 정체를 알아내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그들의 검봉에 새겨진 작은 매화 그림. 그리고 그 끝에 새겨진 난(蘭)이라는 글자.

“화산파의 사군자단(四君子團)이다. 당장 평일지에게 가야겠다. 그 간악한 자가 이 모든 것을 꾸민 게다.”

진명이 고개를 저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전 아우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평일지에게 죄를 묻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넌 정말로.....”

빼이이익-

귀청을 파고드는 호각소리가 들려오더니 감옥의 복도에 일단의 무인들이 들이닥쳤다.

복장을 보아하니 그들 역시 사군자단 중의 하나인 것 같다.

“가거라. 이곳은 내가 맡으마. 나도 너와 함께 가고 싶으나 그럴 수는 없겠구나.”

“대사님!”

범여는 대답대신 진명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 보았다. 진명의 헐기가 마치 각원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하다.

주름살 진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진명으로서의 처음 보는 범여의 밝은 미소.

“너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내 제자다. 부디 목적을 이루고 일령이란 아이와 함께 살아 돌아 오거라.”

## 武極 - Story Book

“대사님.....”

“내가 길을 열 테니 어서 가거라! 서문에서 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게다.”

범여는 기다리지 않고 무인들을 향해 돌진했다.

진명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범여의 커다란 등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젠 자신이 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등이 되어줄 차례였다.

진명은 범여를 따라 몸을 날렸다.



# 武極 - Story Book

## 2.3.10. 제 70 화 [지란협곡]

진명은 달리고 또 달렸다.

범여가 감옥에서 화산의 무인들을 막는 동안 낙양 시내를 가로 질러 서문으로 갔다. 전쟁이 벌어졌으니 시내는 한산하다.

그래서 더욱 진명을 막는 이가 없었다. 진명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기에 대부분의 무인들은 진명을 보아도 무심히 넘겨버린다. 평일지가 비밀리에 진명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진명에게는 도움이 되었다.

‘대사님, 부디 무사하셔야 합니다.’

진명은 범여를 믿었다. 그는 결코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

‘대사님께서서는 서문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셨다. 평일지가 성문을 열지 못하게 하면 나갈 수가 없을 텐데, 그에게 방법이 있다는 뜻인가?’

지금은 일단 달릴 수 밖에 없었다.

서문이 보인다.

역시나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백도군들이 지키고 있어서 쉽게 돌파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그곳에 두둑한 체구에 때깔 좋은 비단 옷을 입은 이가 호위 무사들을 대동하고 서 있었다. 대놓고 서 있으니 이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평일지의 집무실에서 본 이였다.

“절 기다리신다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네.”

“늬신지요?”

“만수전장의 일주엽일세.”

“아, 그렇다면 아우의.....?”

그러니까 비단옷을 입은 풍채 좋은 자가 일령의 친부라는 소리다. 진명은 뜻밖의 만남에 당황한 나머지 허둥대며 인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주엽은 손을 들어 그것을 말렸다.

“관두세,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는. 시간이 없으니 본론부터 말함세. 내가 자네를 도와주면 자네는 내 딸을 구해줄 수 있나?”

진명에게는 꽤나 쓸데없는 질문이었다.

“제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는 령 아우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지킬 테니까요.”

이 명쾌한 대답에 일주엽은 가슴이 뛰는 것 같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에 일령이 간혹 한숨을 쉬며 누군가를 그리워하였는데, 그것이 평일지가 아니라 이 사내다.

“의지는 좋군. 그러나 자네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까놓고 말하겠네. 평일지란 작자가 백도군 백 명을 지원군이랍시고 출발시켰네. 하지만 나는 안심할 수 없어. 진심으로 내 딸을 구해줄 수 있는 자가 필요해. 그만큼 뛰어난 무인이.”

서문강이 이끄는 십대신위와 멸천혈랑대에 맞서서 단신으로 누군가를 구하러 간다? 무모하고도 쓸데없는 짓이었다. 그 누군가를 구하기는커녕 본인도 목숨을 잃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명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바로 일령이었으니까.

진명은 불필요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면 성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진명은 반드시 일령을 구해낼 작정이었다.

## 武極 - Story Book

“내가 문을 열어주겠네.”

일주엽이 손을 들었다.

그러자 호위무사들이 갑자기 사방으로 흩어지더니 성문을 지키고 있던 백도군들의 목에 검을 들이댔다. 그리고 일부는 빗장을 걷고 성문을 열기 시작했다.

백도군들이 놀라 소리쳤다.

“대인!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성벽을 지키던 백도군들과 대기하고 있던 백도군들이 황급히 성문을 향해 달려왔다.

그그그.

겨우 한 사람 지나갈 만큼 열린 성문.

일주엽은 당황한 진명에게 무언가를 내밀었다.

손에 끼우는 장갑 같은 것인데 팔꿈치 아래까지 가죽이 덧대어져 있고 쇠가 들어 있다. 권각법을 익힌 이가 무기를 든 자와 상대할 때 착용하는 투권이다.

“낭아무투(狼牙武套)라 하네. 범여 대사님에게 듣자 하니 자네 무공이 나한권이라 하여 준비했네. 급하게 준비하느라 썩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요긴하게 쓰일 걸세.”

진명은 자신의 손에 낭아무투를 쥐어주는 일주엽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알았다. 걸으로는 태연하나 속으로는 일령 때문에 까맣게 타고 있는 것이다.

진명은 낭아무투를 받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결코 혼자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살짝 열린 성문을 향해 뛰었다.

진명이 성문을 벗어남과 동시에 백도군들이 일주엽과 그의 호위무사들을 포위했다. 호위무사들은 순순히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다.

백도군이 급히 성문을 닫았다.

그그그그.

닫혀가는 성문 틈으로 진명의 뒷모습을 보며 일주엽이 중얼거렸다.

“부탁하네. 이것은 상인으로서가 아닌 아버로서 내 마지막으로 거는 일생일대의 도박일세.”

일령은 몇 번이나 고개를 돌리고 싶은 심정을 억지로 참아냈다.

“으아악!”

“크악!”

맹진 분타를 버리고 달아난 이후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비명이 들려왔다. 그것이 혈무련의 무인들 입에서 나오는 비명이 아님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렇게 쫓기다 죽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것이 낫다는 유혹이 자꾸만 일령을 괴롭혔다. 그러나 자신이 멈춰 서서 싸워봐야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터다.

맹진 분타에서 낙양성까지는 꽤 먼 거리지만, 이렇게까지 멀다 생각한 것은 처음이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어 낙양성까지 도착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지원군은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몸은 자꾸만 지쳐갔다. 입술이 바싹 말라 고운 얼굴은 피폐해 보일 지경이었다.

보통 달리는 속도가 같다 해도 쫓기는 입장이 되면 피곤이 더 빨리 찾아오게 마련이다. 언제 등뒤로 칼이 날아들지 몰라 긴장한 채 평상시의 호흡을 유지할 수 없는 까닭이다. 반대로 뒤쫓는 이들은 사기가 충천하여 피로를 잊는다.

그래서 어지간한 경험이 있지 않는 한, 달아나는 쪽이 늘 불리한 것이다.

일령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힘들어.....’

어느새 다리가 천근만근이 된 듯 무거워진다. 죽어라 달리고 있다 생각했는데 언제 앞질렀는지 옆이나 앞에서 간간히 혈무련의 무인들이 튀어나왔다. 그들을 상대하다 보니 더 빨리 지쳤다.

눈 앞에 울창한 숲과 계곡이 보였다.

지란 협곡이라 불리는 곳인데 세 개의 봉우리처럼 계곡이 나뉘어져 있고 그 협곡의 위로 두 개의 다리가 공중그네처럼 걸쳐져 있다. 일령은 협곡의 아래를

## 武極 - Story Book

통과해야 할지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가 다리를 건너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협곡에서 앞이 막히면 달아날 길이 없어. 돌아가더라도 다리를 건너는 게 나야.’

그렇게 결심한 일령이 계곡을 올라 다리로 향할 때였다. 문득 뒤쫓는 혈무련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지?’

처음으로 뒤를 돌아 보았다.

“어, 없어?”

그 많던 혈무련의 무인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일령을 뒤따라 오던 분타의 백도군 십여 명 정도만이 낭패한 물골로 헉헉대며 숨을 몰아 쉬고 있을 뿐이었다.

“무슨 일이지?”

맹진 분타를 점령했다고 멈출 이들이 아니었다. 일령이 좀 더 올라 다리 부근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협곡의 갈래진 곳으로 일단의 백도군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본성에서 나온 지원군이다!’

그들은 맹진 분타로 향하고 있었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협곡을 통과하려는 모양이다.

일령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혈무련이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분명 지란 협곡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있던 이들이.

아니나 다를까.

곧 매복하고 있던 혈무련의 무인들이 협곡의 앞뒤를 가로 막으며 백도군을 에워쌌다.

“와아아아!”

비명과 병장기 부딪치는 소리가 협곡을 울리기 시작했다.

앞뒤가 꼭 막힌 터라 백도군은 갈팡질팡하며 외곽에서부터 점차 그 수가

줄어갔다. 혈무련의 선두와 후미에 십대신위가 포진하여 일반 백도군으로서는 상대할 수가 없었다. 협곡의 폭이 그리 넓지 않아 끝에서부터 차례차례 각개격파를 당하는 형국이었다.

백도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리멸렬하고 있었다. 거의 대부분이 이미 전사한 상태였다.

“안돼!”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백도군은 거의 전멸에 이르렀다. 단 한 명도 살아남기 어려워 보였다.

일령은 주먹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으며 통탄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령과 함께 도망치던 백도군 패잔병들이 일령을 다독였다.

“분타주님. 힘내십시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도 위험합니다.”

일령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다.

“고마.....”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한 무사를 쳐다 보았는데, 얼굴이 없다.

아니, 목이 없다.

목을 잃은 백도군 무사가 일령의 전신에 쿵쿵 피를 쏟아내며 쓰러졌다.

일령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다.

“흐흐, 꿈지가 빠져라 달아나던 찌꺼기들이 여기 있었군?”

백도군 무사가 쓰러진 뒤쪽으로 날카로운 인상의 혈무련 무인 한 명이 서 있었다.

일령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핏빛처럼 붉게 물든 눈으로 그를 쳐다 보았다. 날카로운 인상으로 호리호리한 체격인데 세 갈래의 칼날을 손등에 달고 있다.

조(爪)를 쓰는 자다. 일반적인 무인이 그런 무기를 쓸 리 없다.

“십대신위.....”

“오호라, 네가 맹진 분타주랍시고 깡죽대던 년이구나. 대어를 낚았어. 이 몸은

## 武極 - Story Book

십대신위의 구하기라 한다. 남들은 날 내 애병의 이름처럼 은린혈조(銀鱗血爪)라 불러주지.”

구하기의 말처럼 그의 조는 은색의 광택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얼룩진 피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구하기는 말을 하는 틈틈이 주위에 있던 백도군을 사냥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지쳐 있던 백도군 무사들은 힘겹게 저항을 했지만 일초지적이 채 되지 않았다.

“으아아!”

일령은 쌍검을 꼬나 쥐고 달려들었다. 조를 든 자의 뒤에도 혈무련의 무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어차피 살아 돌아갈 수는 없다.

‘진명.’

너무나 보고 싶었다.

썩!

그나마 한 손에 남아 있던 검마저 부러져 나갔다.

일령의 전신은 피투성이였다. 여기저기 찢긴 상처와 그 때문에 벌어진 옷 사이로 피로 물든 그녀의 몸매가 반쯤 드러나 있었다.

“크크. 보기 좋은데?”

지쳐있던 일령으로서는 은린혈조 구하기를 제대로 상대할 수 없었다. 십대신위라면 정상일 때도 쉽게 대하지 못하는데 이미 너무나 지쳐 있었다.

재빠른 몸놀림이 위주인 일령에게 체력의 고갈은 치명적이었다. 구하기는 가지고 놀 듯 일령을 단번에 제압하지 않았다.

일부러 수치스러운 부분을 골라 가볍게 옷을 찢었다. 그럼에도 은린혈조의 예리함에 살갓이 함께 찢겨 나갔다.

일령이 겨우겨우 몸을 피하고는 있었으나 그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일령은 거의 갈레조각을 걸친 거나 다름없는 꼴이었다.

피를 많이 흘렸는지 눈까지 흐릿해졌다. 손등으로 비벼 보았으나 핏물 때문에

오히려 더 시야가 가려질 뿐이었다.

‘진명…….’

이를 지켜보고 있던 혈무련의 무인들도 눈살이 절로 찌푸려질 지경이었다.

보다 못한 멸천혈랑대의 방지겸이 말했다.

“선배.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은린혈조 구하기가 눈을 부라렸다.

“애송아, 까불면 죽는다. 이 녀은 내 전리품이야.”

방지겸이 기죽지 않고 말을 이었다.

“여인을 희롱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악포의 죽음을 우스개거리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 자식이 건방지게! 사내답게 얼굴에 칼자국 좀 내 줄까?”

구하기가 방지겸을 위협하듯 은린혈조를 치켜 들었다.

그때 방지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선배!”

“뭐! 뭐 이 자식아!”

구하기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꾸욱.

머리에 심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었다. 머리가 터져버릴 것처럼 고통스럽다.

“머, 머리…… 그, 그만…….”

꾸우욱.

그가 말을 내뱉을수록 고통은 더해져만 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기도 힘들었다.

“어, 어떤 자식이…….”

그의 고개가 점점 숙여져 갔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몸이 주저앉고 있는 것이다.

일령의 흐릿한 눈에 반쯤 몸을 숙이고 있는 구하기와 그 뒤에 서 있는 이의

## 武極 - Story Book

모습이 어른거렸다. 누군지 확인하려고 눈을 비비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미안해.”

일령은 반가움과 어색함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소리쳤다.

“바보! 뭐가 미안해!”

진명이 답했다.

“늦어서.”

절로 흘러내린 눈물에 시야가 트였다.

진명이 갈색 털과 가시 같은 손톱이 달린 장갑 같은 것을 끼우고, 그 손으로 구하기의 머리통을 부여잡고 있었다.

진명의 손가락이 구하기의 머리를 파고 들어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구하기가 고통스럽게 신음을 내뿔었다.

“이 자식..... 놓지 않으면.....”

일령은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서 진명을 향해 달려갔다. 아니, 구하기를 향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었다.

그리고는 넓다 구하기의 양다리 사이를 걷어찼다.

와작!

구하기의 눈알에 핏줄이 순식간에 돋고, 머리카락이 솟으며 턱과 목에 푸른 핏줄이 툭툭 튀어나왔다.

“으아아아아악!”

진명이 손을 놓자 구하기가 사타구니를 붙들고 바닥을 굴렀다. 자신의 손에 칼날이 달려 있어 허벅지를 파고 들었는데도 그까짓 고통쯤은 잊을 수 있을만큼 거대한 고통에 휩싸여 있었다.

거추장스러운 방해꾼이 사라지자, 일령은 그대로 진명의 품으로 뛰어 들었다.

# 武極 - Story Book

## 2.3.11. 제 71 화 [건곤쌍교]

진명은 일령을 뒤로 세웠다. 그리고는 자신의 웃웃을 벗어 일령을 감싸 주었다.

“내가 막고 있을 테니 낙양성으로 뛰어가.”

하지만 일령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미안.”

조금 전 은린혈조 구하기의 사타구니를 가격한 것이 일령이 마지막으로 온 힘을 쥐어짜낸 일격이었다.

진명은 일령의 어깨를 다독이며 웃었다.

“괜찮아. 그럼 잠깐 쉬고 있어. 피곤하면 한숨 자고 있던가.”

“뭐야아. 진 형이 이제 농담을 다하네?”

“농담 아냐.”

진명은 담담한 얼굴이었다.

수백 명의 혈무련 무인들이 협곡 위로 마구 올라오는 가운데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진명의 모습.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일령은 정말로 한 잠 자고 일어나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진명 역시 그랬다. 일령을 찾기 전까지 그는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돌 것만 같았다.

그런데 막상 일령을 만나고 나니 묵은 찌꺼기가 확 날아간 것처럼 머리가 맑아졌다.

은린혈조 구하기의 피맺힌 절규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마주보며 소리 없이 웃었다.

서문강은 피를 뒤집어 쓴 야차 같은 물골로 협곡을 올랐다. 그의 숨소리는 조금이지만 거칠어져 있었다.

전투의 가장 선두에 섰던 것도 서문강이었고 흐름이 끊기거나 막혔을 때

헤쳐낸 것도 서문강이었다. 그럼에도 아직 서문강은 크게 지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단심맹은 한 개 분타 병력과 지원군이 궤멸 당했음에도 혈무련의 피해는 소수, 그야말로 엄청난 성과를 올린 터다. 승리에 도취되기는 이르지만 충분히 즐길 수는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흐름이 끊겼다.

그의 예민한 감각이 감지하고 있었다. 분명히 어느 순간 끊임없이 몰아쳐야 할 파도가 어딘가에서 방파제에 걸린 느낌이다.

백도군 일백을 전멸시킨 병력과 함께 협곡을 오르고 난 서문강은 그 이유를 곧 알 게 되었다.

혈무련 무인들이 협곡 위 다리 근처에 몰려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분명 맹진 분타의 생존자들을 쫓던 이들이다.

“무슨 일이냐.”

혈무련 무인들은 서문강의 말에 좌우로 벌어지며 늘어섰다. 혈무련의 무인이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다리 위를 가리켰다.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문강은 다리 위로 시선을 옮겼다.

두 개의 다리가 하늘과 지상을 이은 것처럼 서로 다른 협곡 사이로 걸쳐 있어 건곤쌍교(乾坤雙橋)라 불리는 곳.

그 중 한 다리 위에 그가 그토록 찾던 진명이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초위의 공격을 벗어나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진명은 다친 맹진 분타주 일령을 지키기 위해 다리 한 가운데를 딱 하니 막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런 진명을 밀어내려던 혈무련 무인 한 명이 외마디 비명 소리와 함께 협곡 아래로 추락한다.

## 武極 - Story Book

“도대체 몇 명 짜야?”

“제기랄, 저 놈은 지치지도 않나?”

혈무련 무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한다.

서문강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이거였구나. 내가 느낀 불쾌감이.’

혈무련의 무인들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진명 때문이었다. 진명이 좁은 다리를 가로막아 건널 수가 없는 것이다.

맹진 분타의 사백 백도군을 물밀듯이 쓸어버린 혈무련이 고작 진명 한 명에게 막혀 움푹달싹을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다리는 건너편이 아닌 다른 협곡을 건너도록 되어 있어서 돌아가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 수고를 해 봐야 겨우 생존자 둘일 뿐이다. 살려 보내도 상관없는 숫자다. 귀찮다면 얼마든지 무시하고 협곡을 내려가 여양 분타로 간다던가, 낙양성을 친다던가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상대가 진명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이번 출행을 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 서문강의 의형제인 악포를 죽인 그 장본인이니 말이다.

혈무련 무인들이 서문강을 보고 기운을 얻었다.

“저 진명을 우리 손으로 때려 죽이자!”

혈무련 둘이 칼을 들고 뛰쳐 나갔다.

“죽어라! 악포 선배의 원수는 내가 갚는다!”

그 말이 부질없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구슬픈 비명소리가 울린다. 진명의 권에 거꾸 얻어 맞고 한 명이 다리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높다 높은 계곡에 비명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다른 혈무련의 무인이 분노하며 칼을 날렸으나 진명은 그마저도 비껴냈다. 이어지는 일권이 가슴에 꽂히고 혈무련의 무인은 다리 밖으로 튕겨 나갔다.

“으아아아!”

서문강이 보는 앞에서만 둘이 죽었다.

서문강은 조용히 물었다.

“몇 명 짜냐.”

결으로 다가온 멸천혈랑대의 방지겸이 대답했다.

“서른 한 명 짜입니다.”

서문강은 기가 막혔다.

맹진 분타의 사백 백도군을 격파하고 다시 협곡에서 일백의 지원군을 몰살시켰다. 이제껏 혈무련이 입은 피해라고는 중경상자를 제외하더라도 사망자가 열넷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두 배가 넘는 수가 진명 한 명에게 죽은 것이다.

그렇다고 차마 말할 수도 없는 게, 공명심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 출정은 악포의 원수를 갚겠다는 목적 하에 결성된 것이 아닌가! 그 목적인 원수가 눈앞에 있으니, 혈무련의 젊은 무인들이 이렇듯 날뛰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물론 서문강도 악포의 원수를 갚고는 싶다. 하나 진명 하나 때문에 수백 혈무련 무인들의 진군이 막혔다. 복수심도 복수심이지만 수백 명의 무인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이만큼 빌어먹을 일도 없는 것이다.

“구하기는?”

은린혈조 구하기는 비열하고 악랄한 자지만, 실력만큼은 쓸만했다. 진명을 상대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

“구하기 선배는 맹진 분타주에게 급소를 얻어맞아서.....”

방지겸의 시선을 따라가보니 사타구니에서 흥건한 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는 구하기가 보인다.

서문강은 아랫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노기 어린 시선이 다리 위의 진명에게 향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문강이 다리를 향하자 혈무련의 무인들이 조용히 길을 내주었다.

# 武極 - Story Book

이제 그가 나설 차례였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가 나서야만 했다.

챙.

그렇게 수많은 적을 베었음에도 이 하나 나가지 않은 그의 천백강검(天百剛劍)이 새 하얀 빛을 발했다.

진명도 다가오는 서문강을 보았다.

전신에서 주체할 수 없는 투지가 끓어 올랐다.

힘껏 낭아무투를 쥐어본다.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껏 버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일주엽의 판단은 정확했다.

낭아무투를 착용하고 나니 칼과 같은 무기에 손을 다칠 위험이 적어졌다. 더구나 가볍고 파괴력이 좋아 서른 명을 상대하면서도 힘에 부치지 않았다. 흔들리는 다리 위, 그리고 한 번에 한 명을 상대했으니 지리적인 이점은 둘째치고서라도 낭아무투 덕분에 이제껏 일령을 지켜낼 수 있었다.

‘저 자. 낙양성 공성 당시의 그.....’

십대신위의 일인자이며 가공할 무력을 지닌 서문강.

그만 해치울 수 있다면 혈무련의 공세는 크게 꺾일 게 분명하다. 최소한 혼자 죽어서는 안된다.

‘최악의 경우 다리를 끊어야 해.’

진명은 각오를 다졌다. 일령이 다리 건너편에서 숨을 쉰다며 진명을 응원했다.

‘힘내.....’

이윽고 서문강이 다리 위로 올라섰다.

주룩룩.

서문강과 마주선 진명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 내린다.

상체가 땀으로 흠뻑 젖은 진명의 모습과 달리 피로 젖은 서문강의 모습이 극명히 대조되고 있었다.

마지막 고지였고, 마지막 순간이었다.

서문강에게 있어서도 진명이라는 걸림돌만 제거한다면 최소한의 목표는 이루어내는 것이다.

“생각보다 길었군.”

서문강은 짧게 속마음을 뱉어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다. 오직 악포의 원수를 갚는 데에만 집중하면 된다.

서문강이 앞으로 걸어나오며 물었다.

“악포를 기억하느냐?”

진명은 지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내가 그를 죽였소.”

“너는..... 그의 죽음을 어떻게 사죄할 생각이나? 목숨을 내던지고 내게 빌겠나?”

진명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사죄할 일이 없소.”

“뭐라고?”

“말 그대로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나는 그것에 응하였소. 나의 성취가 부족하여 목숨을 걸지 않고는 그를 상대할 수 없었소.”

“그래, 그것이 강호란 곳이지..... 허나 나는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진명은 서문강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진명의 눈은 언제나 그렇듯 터무니없을 정도로 솔직해서 서문강은 쓰디쓴 유감스러움을 느꼈다.

“알고 있소. 반대의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당신처럼 복수하고 싶었을 것이오. 그러니 나는 최선을 다해 당신을 검을 받겠소.”

순간 서늘한 파도가 서문강의 마음을 씻어 내려갔다. 그의 마음 한 구석에 거대한 화석이 되어 웅크리고 있던 악포 역시 파도에 밀려 서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복수가 악포를 되살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서문강은 그의 죽음 앞에서



## 武極 - Story Book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였다. 이대로, 악포의 목숨을 거둬간 진명과 그 또한 목숨을 걸고 맞서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악포도 다른 놈들이 아니라 네 손에 죽은 것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억울하다. 내가 너를 살려 보내지 않았다면 악포는 네 손에 죽지 않았을 테니.”

서문강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악포를 위한 마지막 애도였다. 그는 그렇게 악포를 떠나 보내기로 했다.

서문강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준비는 됐느냐?”

진명도 한치의 소홀함 없이 나한권의 자세를 취했다.

“그렇소.”

“좋다, 그럼……!”

서문강은 몸 속의 공력을 남김없이 끌어올렸다. 그는 이글대는 눈으로 진명과의 직선 거리를 재었다.

탓.

서문강이 가볍게 발돋움을 했다. 흔들리는 다리 위임에도 평지처럼 쾌속하게 앞으로 쏘아져 나간다.

그가 진명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는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빨랐다.

바람. 서문강은 한줄기 바람이었다.

서문강의 머리 위로 높이 천백강검이 들렸다.

단 한 수.

일검으로 진명을 제거한다.

실력상으로는 그가 훨씬 우위에 서 있다. 그러나 진명에게는 그것을 덮고도 남을 무언가가 있다.

예전 초위도 그렇게 당했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서문강에게도 불안함이다.

‘끝낸다!’

서문강의 기세가 공기를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묵직한 압박이 진명의 몸을 꿈쩍달짝 못하게 만들고 있다.

‘엄청……나다……!’

진명은 심장 깊숙한 곳에서 떨림이 멈추지 않은 것을 느꼈다.

무인이 자신을 앞지르는 무인을 봤을 때의 놀라움, 희열, 혹은 공포…….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얹혀 들어간 감정이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진명을 가장 떨리게 만드는 것은 확연히 느껴지는 승부감이였다.

무인으로서의 피가 끓는다.

‘막을 수 없다면!’

진명은 발을 굴렀다. 다리 위라 평지처럼 진각을 밟을 수는 없었다. 그만큼의 힘도 실리지 않았다.

그러나 진명은 낭아무투의 힘과 자신의 힘을 믿었다.

이제껏 이만한 힘을 낸 적이 있었던가 스스로 생각이 들 만큼 한 올 남김없이 기운을 쏟아 부었다.

나한권 철우경지.

그동안 진명이 등봉 분타에서 받은 설움과 고독, 그리고 등봉 세가의 아이들과 등뇌달을 만나며 느낀 행복.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진명은 멈추지 않고 나아갔다. 자신을 믿어주는 이가 없다고 믿을 때에도 멈추지 않았다. 하물며 믿고 기다려주는 이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진명의 마음들이 주먹에 감겨 서문강을 향해 날아간다.

쿵.

서문강의 검세와 진명의 권경(拳勁)이 맞부딪쳤다.

조용한 울림으로 인한 파문이 돌의 접점에서 생겨나 협곡 위로 퍼져 나갔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파문이 혈무런 수백 무인들의 가슴을 흔들어 댔다.

단 한 번의 마주침이 평생 다시 볼 수 없을 만한 광경을 만들어 냈다.

서문강은 뒤로 몇 걸음이나 튕겨져 나갔다. 그러나 진명은 거의 날려져 버렸다.

## 武極 - Story Book

그 격돌로 다리의 중간 부분이 완전히 찢겨졌다.

서문강이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나한권의 위력이 이 정도였나!’

다리가 무너져 서문강도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워낙 강한 힘의 반탄 때문에 진명과는 완전히 거리가 벌어졌다.

혈무련의 무인들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반대편 다리요!”

협곡을 돌아가서라도 진명을 잡아야 한다.

그 사이에 달아난다면 끝까지 추적해 추살해야 한다.

이번에 진명을 놓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들도 깨달은 것이다. 자신들의 영웅 서문강과 정면으로 맞서고도 살아난 단심맹의 젊은 무인.

그런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서문강에게는 천추의 한이 될 파발이 났다.

# 武極 - Story Book

## 2.3.12. 제 72 화 [최후]

전령이 혈떡거리며 달려왔다.

“서문 대협! 본련의 급지(急指)입니다!”

“비켜라!”

“안됩니다! 제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한시가 급한 일입니다!”

바로 협곡 건너편에 진명이 있었다. 서문강은 지금 진명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사비성에 마교의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전갈을 받을 때 벌써 당항 분타가 쑥대밭이 되었다 합니다.”

“뭐라고?”

사비성은 혈무련의 본산인 펄라성과 지척이다. 사비성이 함락당하면 펄라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서문강의 얼굴에 칼금처럼 주름이 갔다.

“그게 사실이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니라면 제 목을 베십시오! 서문 대협이 떠난 이후 곧바로 벌어진 일입니다. 장로들께서도 이번 항명에 대해 함구하여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서문강이 눈을 질끈 감았다.

일검으로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도대체 나한권의 어디에 그런 숨겨진 힘이 있었던가.

일 각.

일 각만 더 있었다면.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거리에 악포의 목숨을 가져간 자가 있었다. 이번 출행의 목적이 되었던 자가 있었다.

서문강은 다시 눈을 뜨고 건너편의 진명을 바라보았다.

진명은 여전히 굳건한 자세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문강은 안다. 진명이

치명상을 입었음을. 기혈이 들끓고 내상을 입어 제대로 운신하기도 어려울 지경일 것이다.

그만큼의 격차가 있었는데도 죽일 수가 없었다니.

서문강은 조용히 검을 집어 넣었다.

“철수한다.”

혈무련 무인들은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몸이 굳었다.

싸움에는 이겼으나 이긴 듯한 기분이 들지 않았다. 결국 방지겸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서문강은 방지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 잘못이 아니라는 격려의 뜻이 따스한 손을 통해 방지겸의 몸에 전달되고 있었다.

“돌아가자. 펄라성이 건재하는 한 우리는 언젠가 다시 놈을 만나게 될 거다.”

아무도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다. 모두가 침울해져 눈물을 글썽거렸다.

서문강이 소리쳤다.

“기운을 내라! 우리 싸움에 진 개가 아니다! 당당히 승리하고 커다란 전과를 얻어 돌아가는 것이다!”

서문강의 격려에도 혈무련 무인들의 통탄은 멈추지 않았다.

조용히.

썰물처럼 혈무련 무인들이 협곡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물러가는 것을 보며 진명은 꺼지듯 맨 땅 위로 주저 앉았다. 왜 물러갔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다.

울컥하고 참았던 핏덩이가 입에서 튀어 나왔다.

‘서문강.....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강자. 그러나..... 언젠가 다시 만나 겨뤄보고 싶다.’

## 武極 - Story Book

진명은 피가 흐르는 입을 닦으며 혈무련이 사라져 간 방향을 쳐다 보았다.

일령이 눈물을 글썽거렸다.

“진 형, 죽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아무튼 우리도 빨리 돌아가자. 언제 놈들이 다시 올지 몰라.”

진명과 일령은 누가 더 부상자인지도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서로를 부축하며 낙양성을 향했다.

“열지마! 절대 열지 말라고 해!”

중앙 백도군 대장은 발작적으로 터져 나오는 평일지의 이 명령 같지도 않은 명령에 황당한 얼굴이 되었다.

“열지 말라니..... 혈무련은 이미 물러갔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문을 걸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놈이 죽지 않았잖아! 그 놈이 살아있다고! 문을 열면 그 놈이 들어올 거 아니야! 잔 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중앙 백도군 대장은 이제 인상을 썼다. 아무래도 평일지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지금 성문 밖에는 등봉 분타주와 맹진 분타주, 그리고 저희 군의 부상자가 몇 있습니다. 그들을 성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래! 뭘 더 묻나!”

“그럴 수 없을텐데요. 좀 전까지는 혈무련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명분..... 명분이라고..... 이원조! 그는 지금 어딴데? 어딴냐고!”

좀 전부터 이원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평일지는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그럴듯한 명분쯤이야 이원조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다. 처음부터 그랬다. 등봉 분타로 적들을 유인하라는 것도, 낙양성만 지켜내자는 것도, 성문을 결코 열어주지 말자는 것도 모두 이원조가 생각해낸 것들이었다.

“그 놈을 불러와!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게야! 지금 당장

내 눈 앞에 데려다 놔!”

“그 전에 성문을 우선 열도록 해주십시오.”

“닥쳐! 닥치란 말이야! 가서 내 부관이나 데려오라고! 시키는 짓이나 하란 말이다!”

평일지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혈무련의 분대 공격을 받고도 살아나고, 매화단을 상대로 살아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도 살아 나가고, 적의 본대로 뛰어들어 일령까지 구출해 냈다는 게.

“이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평일지는 홀린 듯 중얼거렸다. 진명이 살아 돌아온다면 끝이다.

자신의 모든 죄과가 낱알이 들통나게 될 것이다.

진명의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테지만, 자신은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다.

“안돼..... 방법을, 방법을 생각해야 돼. 이원조를 데려 와!”

중앙 백도군 대장이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이 부관은 좀 전에 남문을 통해 낙양을 빠져나갔다 합니다. 낙양성에는 이 부관이 없습니다.”

“뭐라고? 분명히 성문을 모두 닫고 있질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갔다는 거야!”

”지부장님의 명령이라고 했기에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가.....”

평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 나는..... 나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뭔가 잘못된 거야. 그가 없으면 난..... 나는.....”

더듬대는 평일지의 말은 그저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그때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만 하죠. 평 지부장. 다 끝났어요.”

# 武極 - Story Book

평일지가 쨍한 눈으로 고개를 돌렸다.

“너..... 너는!”

광광!

“이 새끼들! 문 열란 말이야! 열어! 열라고!”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났는지 일령이 굳게 닫힌 낙양성문을 두드리며 왈칵 소리를 질렀다.

성문 위에는 백도군이 장창과 활로 수성 자세를 취하며 일령과 진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아니, 위협한다기 보다는 억지로 그런 흉내를 내는 듯 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문을 절대 열지 말라는 명이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죽어가는 사람들 안보여?”

성문 밖에는 진명과 일령을 비롯해 극소수의 살아남은 백도군 부상자들이 있었다.

“저희 대장님이 지부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곧 돌아오실 거예요.”

성벽을 지키고 있는 백도군도 미안한지 말투가 사근 거렸다.

“허가하고 자시고 할 게 어딴냐고! 혈무련이 돌아갔잖아! 그런데도 아직 성문을 닫아걸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이게 무슨 병신 같은 짓거리야!”

“문에서 떨어지십시오. 명령.....이립니다.”

“야, 이 씨! 우리 아버지 돈으로 고용된 주제에 누구더러 명령이래? 너, 내가 들어가면 당장 너부터 자를 줄 알아!”

“아, 우린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인께서 함부로 성문을 여시는 바람에 제 동료들이 수십 대나 곤장을 맞았다구요.”

“나한테 수십 대 맞고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보자!”

계속 이런 식의 밀도 끝도 없는 말싸움이 이어졌다. 가뜰이나 서 있을 기운도 부족한 일령은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지르느라 잠시 숨을 멈추고 헐떡여야 했다.

일령에 기대어 간신히 서 있던 진명이 일령의 어깨를 붙들었다.

“령 아우, 그만 해. 이래서 열어줄 거였으면 벌써 열었을 거야.”

“하지만 진 형이 다쳤잖아! 어서 의원을 찾아야 한다고!”

“그건 령 아우도 마찬가지잖아.”

“난 괜찮다니까! 진 형은 지금 서 있을 힘도 없잖아!”

진명이 또다시 코에서 피를 흘렸다. 검붉은 색과 선홍색이 섞인 것으로 보아 내상이 심각한 상태다.

일령의 눈에 기어코 눈물이 고였다. 그를 오해했던 시간과, 그를 일부러 외면했던 이유들이 한꺼번에 속을 뒤집어놓았다.

“진 형..... 평일지 이 자식이 이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진명이 쓰게 웃었다.

“그렇지도 모르지.”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그 자식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지만 정말 죽여버릴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거야 사람마다.....흑!”

갑자기 진명이 신음 소리와 함께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진 형!”

깜짝 놀란 일령이 진명을 부축하려 했다. 그러나 진명은 일어날 기운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몸이 파르르 떨리고 손발이 차가웠다. 그런데도 머리는 불이 난 듯 뜨겁다.

“그냥 잠시만 좀.....”

눈이 자꾸만 가물가물 감기고 있었다. 일령은 진명을 힘껏 후려쳤다.

“의식을 놓으면 안돼! 이 바보, 지금껏 버텨 놓고 이제와 죽을 참이야? 일어나! 정신 차리라고!”

일령은 진명을 놓고는 일어섰다. 여차하면 그녀는 맨 손으로 성벽을 기어올라갈 작정이었다.

“이 자식들아! 기어코 안 열어 줄 거면 내가 올라..... 응?”

## 武極 - Story Book

일령이 눈을 크게 떴다.

없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창칼을 높이 세우고 있던 성벽 위의 백도군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끼이이이이이익, 쿵!

그토록 견고하게 닫혀있던 성문이 열렸다.

성문이 활짝 열린 순간 익히 아는 얼굴들이 눈에 띄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문주희였는데, 일령은 맹세코 지금까지 문주희가 반갑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더구나 유독 문주희에게 시선이 쏠렸던 이유는 그녀가 포박당한 평일지를 앞세워 걸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벽을 따라 엄청난 인파가 몰려있었다. 비단 단심맹과 지부의 인사들뿐 아니라, 낙양성 안에 살고 있던 양민들도 뺄뺄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문주희의 뒤로 범여와 청풍, 일주엽과 그의 호위무인들도 보였다. 성벽을 지키고 있던 중앙 백도군들은 일령을 향해 ‘헤헤’ 하고 머쓱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제서야 문을 연 거죠? 저자들은 또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러는 거죠?”

일령이 물었다.

문주희는 매서운 칼 끝으로 평일지의 목을 겨눈 상태로 시선은 땅에 쓰러져 있는 진명에게서 떠나질 않았다.

“등봉 분타주는 괜찮은가요? 위중한 상태인가요?”

그 말에 일령이 진명의 곁으로 다가갔다. 진명은 다행히도 아직 의식을 잃지는 않고 있었다.

“난 괜찮.....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을.....”

진명은 새삼 통증을 느꼈는지 인상을 쓰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그는 일령의 어깨에 기댄 채 안정된 호흡을 내쉬고 있었다.

그것을 확인한 문주희가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는 말했다.

“낙양성 지부장이었던 평일지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등봉 분타에 지원을 하지 않았음을 밝혀 냈어요. 이번 작전에 등봉 분타주가 제외된 것도 마찬가지였죠.”

일령이 화를 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

문주희가 빙긋 웃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선은 진명을 떠나지 않았다.

“전 그래서 비밀리에 평 지부장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가 화산파의 지원 병력인 매화단을 이용해 등봉 분타주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 과정에서 들통이 나자 범여 대사님을 공격하기도 하였죠.”

범여가 반장을 하며 말했다.

“아미타불. 사실이네. 빈승은 문 여협과 청풍 대협의 도움이 없었다면 크게 곤경에 처할뻔 했네.”

문주희가 계속해서 말했다.

“평일지는 지부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제멋대로 병력을 운용하였고, 그 덕분에 낙양성을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엄중히 문책되어야 합니다. 평일지는 이제 지부장의 직위를 잃고 단심맹으로 압송될 겁니다.”

일령이 깜짝 놀라 눈을 휘둥그레 떴다.

문주희의 말이 이어졌다.

내공이 실린 또렷한 음성은 일령과 진명뿐 아니라, 낙양성 안에 있는 모든 이의 귀에도 똑똑히 들려왔다.

“그 밖에도 평일지가 불투명하게 운용했던 지부 자금의 사용처도 함께 밝혀질 것입니다. 그에 관한 증거는 여기 계신 만수전장의 일주엽 대인과 소림의 범여 대사께서 넘겨주신다 하였습니다.”

“아빠가?”

일령이 새삼스럽다는 얼굴로 일주엽을 바라보았다. 일주엽은 일부러 눈을 부릅뜨고는 딸에게 딴 말 말라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 뒤에 숨은 표정은 꽤나 자상하게 다가왔다.

## 武極 - Story Book

“그 밖에도 차마 세지 못한 다른 죄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은 단심맹으로 압송된 연후에 모두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평일지 전 지부장?”

문주희는 이렇게 말하며 발 끝으로 평일지의 무릎 뒤를 걷어찼다.

“옥!”

평일지가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무릎을 댄 채로 넘어졌다. 문주희가 일부러 의도한 것이었는지, 평일지는 졸지에 진명 앞에 무릎을 꿇은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등봉 분타주께서는 하실 말이 없으신지요?”

물론 너무나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나는 것은 단 하나였다.

“당신이 날 죽이려 보냈던 자들이 등봉 세가의 장주님을 살해했소.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도 죄값을 치루어야 하오.”

진명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이 놈……!”

군중들 사이를 헤집고 누군가가 뛰쳐나왔다. 현 등봉 세가의 가주 등이행이었다.

“네가 장주님을 죽였다고? 네 놈이 할아버님을……! 대체 왜! 이유가 뭐이더냐! 나는 네 놈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해주었다. 그런데도 왜! 왜 네 놈이……!”

등이행은 차마 말을 끝마치지 못했다. 북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인해 호흡이 가빠왔다.

“이, 이 놈!”

등이행은 평일지에게 달려가 그의 목살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평일지는 등이행의 손을 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내가 무슨 이유로 치매 걸린 노인네를 죽이라 했겠냐! 그럴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등봉 가주 당신이겠지!”

“뭐라고?”

“성인군자인척 위세 떨지 마. 정신 나간 노인네가 죽지도 않고 집 안일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게 짜증나 죽겠다고 말했던 것은 당신 아냐? ㅋㅋ.”

평일지는 차갑게 냉소를 지었다. 살아날 방법은 있다. 이 모든 것을 달아난 이원조에게 넘겨버리면 된다. 자신은 아무 것도 몰랐다고 발뺌한다면 틀림없이 화산파에서 뒷 일을 처리해 줄 테니 말이다.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냐, 이 놈! 네 손으로 사람을 죽여 놓고서……. 어떻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등이행은 기가 막혔는지 선 자리에서 털썩 주저 앉았고, 평일지는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하게 외쳤다.

“나는 모른다고! 이 모든 건 내 부관이었던 이원조가 꾸민 짓이다! 나는 그가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던 것뿐이라고!”

“그 입 다물어라!”

문주희가 날카로운 음성으로 평일지의 말을 잘랐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해줄까? 그건 여왕 소속의 백도군이 낙양성에서 도주하는 이원조를 붙들어뒀기 때문이야. 이미 그가 다 말했다고. 넌 이제 끝장이야.”

“뭐, 뭐라고? 이 부관이 말해준 거라고?”

평일지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다.

화산파 제일의 후기지수, 평일지. 머지 않아 차기 장문이 되어 단심맹의 맹주도 될 수 있었던 그가 이제는 한낱 죄인이 되어 있었다. 늘 그의 곁에서 입안의 혀처럼 살살 굴러가는 장밋빛 미래를 말해주던 부관이 그를 배신했기에.

“어째서……. 어째서 그런…….”

평일지는 망연자실한 얼굴을 손으로 쓸었다. 아니, 얼굴을 손에 문었다.

그는 이 모든 현실에서 그저 도망치고 싶을 것이다.

그의 모습을 냉정히 지켜보고 서있던 문주희가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또한 혈무련의 본산이 마교의 위협을 받게 되어 이번 원정군이 급히

## 武極 - Story Book

회군했다고 합니다. 이제 낙양성은 안전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동시에 함성이 일었다.

“우와아아아!”

진명은 힘없이 웃었다.

“잘 됐네. 이젠 좀 자도 되겠어.”

“자. 내가 나중에 깨워줄 테니까..... 오라버니.”

일령의 뒷말은 듣지도 못한 채 진명은 눈을 감았다.

그 둘의 모습을 문주희가 바라보았다. 입가는 웃고 있는데 눈은 한없이 냉정하다. 아니, 냉정한 것 처럼 보이지만 흔들리고 있었다.

오후.

진한 피비린내는 어디로 갔는지 아스라히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오후였다.